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 0 0 4 학 년 도  
박 사 학 위 논 문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1884-1939년을 중심으로)

Ph.D. 과정 교회사 전공

장 금 현

#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

(1884-1939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명 수

이 논문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30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Ph. D. 과정 교회사 전공

장 금 현

장금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주승민    \_\_\_\_\_

김인수    \_\_\_\_\_

박용규    \_\_\_\_\_

배종수    \_\_\_\_\_

박명수    \_\_\_\_\_

2004년 12월 30일

서 울 신 학 대 학 교 대 학 원

# 목 차

## I. 서 론 ..... 1

- A. 연구 목적 ..... 1
- B. 연구의 중요성 ..... 2
- C. 개념 정리 ..... 6
- D. 연구사 ..... 8
- E. 연구 범위와 방법 ..... 12

## II.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배경 ..... 16

- A.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 ..... 17
  - 1. 전반기 기독교 절제운동(1784-1860년) ..... 17
    - a. 1784-1840년 사이의 절제운동 ..... 17
    - b. 1840-1860년 사이의 절제운동 ..... 22
  - 2. 후반기 기독교 절제운동(1860년 이후) ..... 26
    - a. WCTU(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설립과 주요활동 ... 26
    - b. WCTU와 World-WCTU와의 관계 ..... 33
  - 3.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의 평가 ..... 35
- B.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 ..... 37
  - 1. 시대적인 상황 ..... 38
  - 2. 일본절제운동의 조직과 활동 ..... 41
    - a. 금주회 ..... 41
    - b. 동경부인교풍회 ..... 43
    - c. 일본부인기독교교풍회 ..... 47
  - 3.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의 평가 ..... 51

### III. 초기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1884-1909년) ..... 54

- A. 기독교 절제운동의 배경 ..... 54
  - 1.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성향 ..... 55
  - 2. 일제의 한국침략 정책 ..... 57
  - 3. 초기 한국 기독교의 성격 ..... 60
- B. 기독교 절제운동의 전개와 방법 ..... 65
  - 1. 교회 내의 절제운동 ..... 65
    - a. 개인의 회심 ..... 65
    - b. 절제운동관련 교회법규 제정 ..... 68
  - 2. 교회 밖의 절제운동; 국채보상운동 ..... 72
- C. 절제운동 내용 ..... 73
  - 1. 음주문제 ..... 74
  - 2. 흡연문제 ..... 78
  - 3. 아편문제 ..... 80
  - 4. 축첩문제 ..... 82
- D. 초기 기독교 절제운동 평가 ..... 85

### IV. 일제 무단통치기의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1910-1919년) ..... 88

- A. 무단통치기의 시대적 상황 ..... 89
- B. 일제에 대한 기독교 대응과 절제운동 ..... 99
  - 1. 교회 내의 절제운동 ..... 100
    - a. 개인의 회심 ..... 100
    - b. 절제운동관련 교회법규 제정과 보완 ..... 102
  - 2. 교회 밖의 절제운동; 3.1운동 ..... 106
- C. 절제운동 내용 ..... 110
  - 1. 음주문제 ..... 110
  - 2. 흡연문제 ..... 115
  - 3. 아편밀매 ..... 117

- 4. 축첩과 공창폐지 ..... 119
- D. 무단통치기의 절제운동 평가 ..... 122

## V. 일제 문화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1920-1939년)-1

### - 시대적 배경과 기독교 절제운동단체 출현 ..... 125

- A. 시대적인 배경 ..... 126
  - 1. 일제의 수탈과 유입되는 퇴폐문화 ..... 126
  - 2. WWCTU와 초교파적 연합운동 ..... 132
  - 3. 여성들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 134
  - 4. 기독교 청년운동의 활성화 ..... 135
  - 5.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운동 ..... 137
- B. 절제운동단체의 출현 ..... 140
  - 1. 교파적인 단체 ..... 141
    - a.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 141
    - b. 감리교 엡윗청년회 ..... 145
    - c. 장로교 청년면려회 ..... 147
  - 2. 초교파적인 단체 ..... 149
    - a.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 149
    - b. YWCA ..... 167
    - c. 근우회 ..... 168

## VI. 일제 문화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1920-1939년)-2

### - 기독교 절제운동의 전개와 내용 ..... 170

- A. 교회 내의 절제운동 ..... 170
  - 1. 개인의 회심 ..... 170
  - 2. 절제운동관련 교회 제도와 법규제정 ..... 173
- B. 교회 밖의 다양한 절제운동 ..... 180
  - 1. 농촌운동의 일환 ..... 181

|  |     |
|--|-----|
| 2. 강연회로 절제교육                                     | 183 |
| 3. 금주선전대회  | 186 |
| 4. 과학적인 통계와 의학적인 연구결과 제시                         | 189 |
| 5. 신문, 정간물, 절제관련도서, 현상논문, 웅변대회                   | 192 |
| 6. 물산장려운동  | 195 |
| 7. 금주금연으로 저축운동                                   | 197 |
| C. 절제운동 내용                                       | 198 |
| 1. 음주와 금주  | 199 |
| 2. 흡연과 금연  | 202 |
| 3. 아편매매와 사용금지                                    | 204 |
| 4. 공창폐지  | 206 |
| <br><b>VII. 일제 문화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1920-1939년)-3</b> |     |
| - 절제운동의 결과와 평가                                   | 212 |
| A. 절제운동의 결과                                      | 212 |
| 1. 주류세, 연초세, 아편재배,接客업자의 감소                       | 212 |
| 2. <미성년자깅연금지법> 및 <미성년자음주금지법> 시행                  | 214 |
| B. 문화통치기의 절제운동 평가                                | 218 |
| 1. 일제에 대한 항일운동 고취                                | 218 |
| 2. WWCTU와 세계적인 연합운동과 연계                          | 220 |
| 3. 기독교 여성의 리더십 표출                                | 222 |
| 4. 기독교 청년단체의 적극적 참여                              | 223 |
| 5. 사회주의와 차별되는 복음주의 운동                            | 224 |
| C.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의 쇠퇴                               | 227 |
| 1. 내선일체 영향                                       | 227 |
| 2. 일본 기독교 단체로 통합                                 | 229 |

VIII. 결 론 ..... 231

A. 요 약 ..... 231

B. 평 가 ..... 234

C. 제 언 ..... 237

부 록 ..... 240

참고문헌 ..... 247

Abstract ..... 273

# I. 서 론

## A. 연구 목적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세계적인 절제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주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절제운동을 매개로하여 일제에 항거하거나, 일제에 의해 항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의 접근은 일제하라는 현실에서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 보면, 세계 기독교 절제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 기독교 절제운동은 19세기에 발현된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으로부터 기원한다. 19세기 미국 기독교는 사회개혁측면<sup>1)</sup>에서 절제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운동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절제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복음주의자들이었다. 토마스(George M. Thomas)는 미국의 부흥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덕적이면서 사회 개혁자로 나서서 절제운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한 바 있다.<sup>2)</sup> 사회개혁이 부흥운동을 주도한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런 경향은 한국 기독교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특히 세계 기독교 절제운동의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에서 그런 경향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복음주의자들이 주도한 세계 절제운동의 흐름 속에서, 또한 일제하라는 특수한 상황 속

---

1) 절제운동은 제 2차 대각성 운동(1800-35)때 완전주의자(perfectionist)의 주장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세계를 개혁함으로 새천년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완전주의자의 환상은 자신들을 개혁의 군대로 인식하고 절제운동을 성공시킬 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였다.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Cycles of Reform*(Boston: Twayne Publishers, 1989), 22.

2) George M. Thomas, *Revivalism and Cultural Change: Christianity, Nation Building, and the Market in 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에서 전개된 한국적인 절제운동의 독특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방향이다.

## B. 연구의 중요성

그 동안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절제운동을 기독교인의 애국주의적 충정에서 비롯된 항일운동으로 인식한 입장이다. 일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의 신앙심과 민족애,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애국충정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로 보는 시각이다.<sup>3)</sup>

둘째는 ‘내연의 신앙’을 ‘외연의 표현’이라는 도식으로 절제운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신앙인들의 경건생활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일제하에서 애국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다. 즉 내연이 경건생활이라면 외연은 민족운동이라는 것이다.<sup>4)</sup> 신실한 내연의 신앙이 외연으로 표현될 때는 민족주의적 저항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에 의해 항일로 해석되었다는 시각이다.

두 종류의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하나의 흐름으로 축약되는데, 그것은 애국적인 민족주의 운동이다. 이것은 절제운동을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이다. 기독교 절제운동이 기독교의 민족주의적인 역량을 높이고, 일제하에서의 기독교 위치를 끌어 올리고,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가교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것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공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접근은 절제

---

3) 대표적인 경우가 숙명여대 사학과 교수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던 이만열은, 한말 기독교회의 발전과정을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종래의 기독교 발전을 신앙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추구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적인 측면과 민족사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 시도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평민당, 1986), 132; 『한말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404-526.

4) 민경배는 그의 저서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에서 “1905년-1907년 사이에 신앙내연의 구조가 잡히고, 1919년 그것이 거대한 민족운동으로 외연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그 이후 김익두와 이용도의 신앙운동을 통하여 내연화하고, 1935년 일제의 가혹한 군국 파쇼 전시체제로의 동원으로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 그 마지막 저항으로 외연화하였던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내연의 신앙이 곧 외연의 민족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5.

운동을 일제하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라는 넓은 시각에서의 기독교 절제운동이 민족주의적 성격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이해하려면, 첫째로 세계여자절제회(The World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이하 WWCTU)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여러 가지 단절된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sup>5)</sup> 따라서 WWCTU의 이해는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초기부터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왔는데, 절제운동도 마찬가지다. WWCTU의 뿌리는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과 여자 기독교 절제회(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이하 WCTU)에 있다. 1874년 세워진 WCTU는 세계절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1891년 WWCTU를 세웠다. WWCTU는 각국에 절제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세계를 네트워크하려는 시도에서 1923년 틴링(C. L. Tinling)을 한국에 파송하였다. 내한한 틴링의 활동 결과로 1923년 여자선교사 중심으로 WWCTU 외국지부가 결성되었고, 1924년 한국여성이 중심이 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조직하게 되었다.<sup>6)</sup> 이 두 단체의 출범으로 절제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체계화되었다. 따라서 미국 절제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WWCTU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둘째로 절제운동을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보다는 통일된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역사연구소 소장인 박명수는 “성결운동과 사회개혁”에서 19세기 중엽부터 미국기독교의 주요 흐름은 칼빈주의에서 알리미니안으로 전환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알리미니안 볼런티어적인 성격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개혁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사회의 죄악을 바꾸겠다는 사상이 그것이다”<sup>7)</sup>고 주장하

5) Roy Swannstrom, *History in the Making*, 홍치모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성광문화사, 1993), 15; 카아(E. H. 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정의하고 단절이 아닌 연속성에서 보고자 하였다. Edward H. Carr, *What Is History*(New York: Random House, Inc., 1961).

6) Cordelia Erwin, "The W. C. T. U. Movement in Korea," *Korean Mission Field*(이하 *KMF*), Vol. 21, No. 2(Feb. 1925), 31

7) 박명수, “성결운동과 사회개혁,” 『성결교회와 신학』 4호(부천: 성결교회역사연구소, 2000), 40.

었다. 즉 개인의 본질적인 변화가 사회의 변혁을 주도한다는 것이 복음주의 입장이기도 하다.<sup>8)</sup> 변혁의 주체인 인간의 변화는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결과였다. 스미스(Timothy Smith)는 그의 저서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American Protestantism on the Eve of the Civil War*에서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이 미국사회를 어떻게 얼마나 강한 힘으로 개혁했는가를 다루었다.<sup>9)</sup> 개인의 변화를 일으켰던 부흥운동은 사회개혁 즉 여성운동, 흑인해방, 도시개혁 등과 연결되었다. 19세기 말의 부흥운동도 성령으로 개인이 변화될 때,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런 확신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중심에 흐르고 있었다. 절제운동 확산에 크게 공헌했던 『기독신보』는 1926년 한 해 동안 신문 맨 위 여백에 다음과 같은 표어를 실었다. “改造! 改造!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個人을 改造!”라고 하여 사회개혁은 곧 개인의 마음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심한 사람들이 사회개혁의 주체가 될 때에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회심과 사회개혁의 관계를 양자택일이 아니라 긴밀성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뒤의 연구사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동안의 절제운동은 생활사를 소홀히 한 듯이 보인다. 이전까지 절제운동 연구는 대부분 사상적인 흐름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진 듯하다. WCTU나 WWCTU는 개인의 회심과 그에 따른 개인과 사회제도의 실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절제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자기 변화와 목격담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8) 박명수는 복음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복음주의는 성서의 권위를 믿고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며 전도를 그 사명으로 하는 신앙형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복음주의의 전도란 다름이 아닌 회심 혹은 중생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을 복음주의의 표어라고 말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박명수, 『근대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7; 이런 형태의 복음주의는 18세기 소위 산업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부흥운동과 선교 운동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복음주의는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독교의 새로운 모습이다. 박명수, “근대사회의 변화와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 『성경과 신학』 21호(1997), 329-30.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복음주의는 박명수의 앞선 이론과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형태로 사용하였다.

9) Timothy L. Smith,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American Protestantism on the Eve of the Civil War* (New York: Harper & Row, 1965), 148-71; John D. Woodbridge, *The Gospel in America* (Michigan: The Zondervan Corporation, 1979), 박용규역, 『기독교와 미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329-30.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교회는 그들의 간증과 고백을 소중하게 담고 있다. 교회 사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의 살아있는 간증과 고백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제운동의 영향으로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통계, 활동, 입법<sup>10)</sup>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넷째로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초교파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말 초교파적 연합운동은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한 것이다. 각각의 교파적 성향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모습은 절제운동에서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교회와 일본 교회에서 보여준 초교파적 절제운동의 특징이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변화된 일반 개인이 교파와 사상과 배경을 뒤로하고 하나의 목표 즉 절제운동을 위하여 힘을 규합하였다. 비록 기독교 인구가 소수였음에도 한국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힘을 연합한 복음주의의 영향이기도 한 것이다.

정리하면, 본 논문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민족주의적인 운동을 포함하여 세계 기독교 절제운동과 연계하고자 한다. 19세기 미국에서 부흥운동과 함께 일어났던 절제운동과 세계절제운동이라는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살펴보면,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닌 일체성에 집중하였고, 개인의 고백이나 변화를 소중히 다루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대중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어 교파를 초월해 연합하며 절제운동을 추구했다는 것은 WWCTU의 절제운동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본 논문의 의의와 중요성을 찾고자 하였다.

10) 한국 기독교는 절제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요한 현안들은 입법화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지속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 절제운동에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다. 1873년 결성된 여자기독교절제연맹(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이 전국 규모로 확대되면서 지역연합운동들과 연합해 전국주점반대연맹(The National Anti-Saloon Union)이 1895년에 출범하였다. 그후 1900년까지 30개주 이상에서 지역 내 주류판매는 지역주민의 선택(local option)에 따르도록 결의했다. 1916년까지는 19개주에서 주류판매를 전적으로 금하였고, 1919년에는 헌법에 금주 조항이 삽입된 헌법개정이 인준되기도 하였다.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III 『기독교사(하)』 윤두혁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416; 일본 기독교의 절제운동도 폐창운동을 통한 입법 활동, 청소년 금주금연법 등은 그 대표적이다,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東京: ドメス出版, 1986)을 참조하라.

## C. 개념 정리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중요 개념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절제운동”의 개념 이해는 본 논문의 중요한 핵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절제운동의 개념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정리하고자 한다.

절제(ἀγκρατία)라는 단어는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면면히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복음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시기에 절제운동과 유사한 운동이 동시에 일어났다. 14세기 이탈리아 프로렌스의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6세기 제네바의 칼빈(John Calvin), 18세기 영국의 웨슬리(John Wesley)가 주도했던 운동에서 절제운동의 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1884-1939년까지의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으로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절제운동이란 개념은 교회사에서 나타난 폭넓은 의미보다도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는 “절제”와 “절제운동”이다. 이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본 논문의 방향이 결정될 정도로 개념정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절제라는 단어가 협의적이면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나 범위가 다양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절제운동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절제운동”은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미국교회의 부흥운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의 절제운동은 영어의 Temperance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절제, 절도, 자제, 극기, 중용의 의미가 있고, 또한 절주, 금주의 의미가 있다.<sup>11)</sup> 최초로 사용된 것은 1813년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MSSI(Massachusetts Society for Suppression of Intemperance)에서였다. 보스턴에 설립된 MSSI는 주류판매를 없애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통제에 두려고 하였다. 이 모임의 설립목적이 금주보다는 절주에 있었기 때문이다.<sup>12)</sup> 이후로부터 절주운동이 미국에서 본격화되다가 1820년대에 절제란 개념을 수정하였다. 인간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던 그들은 음주에 중독이란 개념을 받아들여 “만취의 병”, 또는 “자원한 노예”로 접근하였다. 그 후로 절제운동은

11) "temperance," <http://endic.naver.com/endic.php?docid=120208&rt>, 실례로 temperance drink(알콜없는 음료), temperance hotel(술을 팔지 않는 호텔)의 용례로 쓰인다.

12) Jack S. Blocker Jr., 11-12.

곧 금주운동으로 이해되었다.<sup>13)</sup> 그러나 1860년대를 넘어서면서 금주운동단체인 WCTU가 여성의 인권과 참정권을 다루면서 Temperance의 의미를 확대시켰다.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Temperance를 금주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금주운동 영향으로 금주회가 연속적으로 세워졌고 뒤이어 금주연맹도 조직되었다. 그러다 WCTU의 영향을 받아 동경교풍회(東京矯風會)가 세워졌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금주운동에서 절제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교풍회 설립목적이 “폐풍(弊風)을 바로잡아 도덕을 이루고 음주객연을 금하여 부인의 품위를 개진하는데 있다”<sup>14)</sup>고 하였듯이 금주의 범위를 벗어나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는 것으로 확대시켰다.

중국에도 1886년 12월 기독교 여자절제회가 조직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절대금주(total abstinence)를 목표로하였다. 그러나 대중교육, 젊은이 교육, 음주자 구원, 기독교여성을 통한 금주령 입법, 그리고 술과 아편유통 금지를 포함시켰다.<sup>15)</sup> 금주운동으로 출범했던 중국 여자절제회도 절제운동을 금주 외에도 광의적인 의미로 확대하였다.

한국에서도 Temperance가 금주라는 뜻으로부터 시작되었다. “攝制(Temperance)라 함은 此語를 廣義로 用하는것이 아니라 特別한 酒類 飲用에 關하여 從來用하는 狹義서 이를言함이니”라고 하여, 절제를 금주로 이해하였다.<sup>16)</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총무였던 이효덕도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창립된 이후 ... 간접으로 직접으로 제가 듣기는 이회 명칭은 금주회라고 알게 되었습니다”<sup>17)</sup>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절제의 의미가 일차적으로는 금주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다 점차 그 뜻이 광의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절제운동은 미국이나 일본과 중국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숭실대학교 사학과에서 “일제하 기독교여성운동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정란은 기독교 절제운동을 시간의 절제, 의복의 절제, 음식의 절제 등의 합리적인 생활 모두를 포함시켰다.<sup>18)</sup> 조선여자기독교

13) Jack S. Blocker Jr., 16.

14) 『女學 雜誌』 44號(12, 1886),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百年史』, 37-40 참조하라.

15) 루오 리다,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참석 및 중국기독교여자절제회 역사,” 김정주 편 『한국 절제운동 70년사: 1923-1993』 (서울: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993), 293.

16) 韓錫源, “世界에 對한 基督教의 貢獻,” 71.

17) 이효덕, “절제운동 어떠케할가,” 『기독신보』 894호(1933년 1월 18일).

18) 윤정란, “일제하 기독교여성운동사,”(숭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9)를 참조하라; H.

절제회 회장을 역임했던 홍에스터는 절제를 “본시 정욕을 제어하며 조절하는 대서부터 생기여가지고 점점 경제문제까지도 제어하며 조절하는 뜻으로 사용”<sup>19)</sup>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녀는 절제를 개인의 욕심문제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것까지 확장시켰다. 1933년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던 정현숙도 “절제운동이 금주금연에만 갇치 않습니다 절제 두글자는 금연금주 의복 음식 거처 시간 기타 우리 일상생활에 모도절제”<sup>20)</sup>라고 언급하며, 절제를 광의적으로 확대시켰다. 1932년 5월 설립된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朝鮮基督教節制運動會)에서도 절제를 금주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금연, 폐창폐지, 미신타파, 기타 교풍운동을 포함하며, 경제운동, 도덕운동, 전도운동도 그 범주에 포함시켰다. 총무였던 송상석은 절제운동을 “人格的幸福의 합理化運動”<sup>21)</sup>으로 규정하였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모든 운동이 한국 기독교의 절제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로 보건데 한국 기독교의 절제운동은 그 범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넓은 생활전체 개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 절제운동 대상을 금주, 금연, 아편문제, 축첩-공창제도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WWCTU가 음주, 흡연, 아편, 공창문제를 절제운동의 주요 목표로 삼았고, 또한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에서도 그것들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 D. 연구사

미국에서 알코올 남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자 해결방안으로 절제운동연구가 시작되었다. 볼딘(Ruth Bordin)은 미국에서 절제운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 말부터라고 하였다.<sup>22)</sup>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

S. "절제회 순서, 『기독교신보』 930호(1933년 9월 27일).

19) 洪愛德, “절제란 무엇인가,” 『기독교신보』 895호(1933년 1월 25일).

20) 정현숙, “節制運動,” 『기독교신보』 865호(1932년 6월 29일).

21) 宋相錫, “節制運動은 어떠한 것이며 敎會가하는 理由,” 『기독교신보』 795호(1934년 8월 8일).

22)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The Quest for Power and Liberty, 1873-1900* (Phil: Temple University Press). 이전에는 19세기의 사회개혁의 선봉에 섰던

면서 절제운동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선조들에게는 절제운동이 왜 거대한 사회개혁으로 인식되었는가?” “음주라는 단순한 주제가 19세기 전체에 걸친 대중적 개혁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는가?” 1970년대 역사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당면한 알코올 남용문제를 해결하고자 19세기 절제운동 연구에 뛰어 들었다.

절제운동 연구의 대표적인 저서들 중에 신클레어(Andrew Sinclair)의 *Era of Excess: A Social History of the Prohibition Movement*(1962)<sup>23)</sup>가 있고, 블록커(Jack S. Blocker Jr.)<sup>24)</sup>의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Cycles of Reform*<sup>25)</sup>와, 단넨바움(Jed Dannenbaum)의 *Drink and Disorder: Temperance Reform in Cincinnati from the Washington Revival to the WCTU*(Univ of Illinois, 1984)<sup>26)</sup> 등이 있다. 또한 1874년 세워진 WCTU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룬 볼딘(Ruth

---

절제운동이 193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무시되어왔다. 그러다 1970년대부터 알코올 문제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마약과 함께 복잡하게 얽히면서 절제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론을 참조하라.

- 23) 캠퍼릿지에서 수학했던 신클레어가 미국에서 절제운동을 연구하면서 내놓은 결과물이다. *Era of Excess: A Social History of the Prohibition Movement*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62)는 1840년대 이후의 절제운동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이 책에서 절제운동을 종교사회학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 24) 블로커(Jack S. Blocker Jr.)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주로 미국의 절제운동에 관한 저서들을 중심으로 집필했다. 그는 *Retreat from Reform: The Prohibi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1890-1913*(1976), *Give to the Winds Thy Fears: The Women's Temperance Crusade, 1873-1874*(1985)을 저술했고, 엡세이 시리즈물인 *Alcohol and Society: The Liquor Issue in Social Context*(1979)을 집필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절제운동을 연구하여 발표했다. 1984년-86년에는 알코올과 절제사 협회 의장이 되기도 했다.
- 25)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Cycles of Reform* (Boston: Twayne Publishers, 1989). 블록커(Jack S. Blocker Jr.)는 미국 절제운동을 폭넓게 연구한 사람으로 런던 온타리오에 소재한 허론대학(Huron College)의 역사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절제운동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집필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Cycles of Reform*이다. 그는 이 저서를 통하여 미국 절제운동의 전체 역사를 개관하였다. 블로커는 이 저서를 집필하게 된 목적을 두 가지로 언급했다. 첫째는 미국의 절제운동에 대한 역사적 연구물들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음주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거나 음주를 제어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있다. 서론을 참조하라.
- 26) 미국의 절제운동에 관한 연구물들은 주로 19세기 중반이후부터의 내용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단넨바움(Jed Dannenbaum)의 *Drink and Disorder*이다. 이 책은 1840년 활발하게 절제운동이 일어났던 워싱턴운동(Washingtonians)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입법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Bordin)의 *Woman and Temperance: The Quest for Power and Liberty, 1873-1900*<sup>27)</sup>가 있고, WWCTU를 다룬 타이렐(Ian Tyrell)의 *Woman's World/Woman's Empire: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880-1930*(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이 있다.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으로 야스다케(Rumi Yasutake)의 *"Transnational Women's Activism: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Japan and Beyond, 1858-1920"*(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8)와, 도른(Elizabeth A. Dorn)의 *"For God, Home, and Country":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and Reform Efforts in Meiji Japan*(Iowa University, 2003)이 있다. 전자는 여성운동차원에서 절제운동을 연구한 것이고, 후자는 메이지 시대의 기독교부인교풍회의 활동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또한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에서 출간한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1986)는 10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초기부터 교풍회가 활동한 모든 역사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다루어 분석 편집하였다.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교풍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반면, 한국은 기독교의 사회운동, 즉 여성운동, 농촌운동, 청년운동 등에 비해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가 빈약하다. 또한 있다하더라도 일부분만 다루고 있을 뿐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심도있는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 그나마 해갈을 주는 것은 한국기독교절제회 명예회장인 송상석이 절제운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 『韓國節制教育研究史料集』(성광문화사, 1979)을 편집했다. 1933년 창간된 『節制時報』의 주간이기도 했던 그는 일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절제운동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총 827쪽에

---

27) 이 논문은 WCTU의 설립 시기였던 1870년부터 그 후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0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WCTU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분석하여 부록으로 실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아이오와(Iowa)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볼만(Rachel Elizabeth Bohlmann), *"Drunken Husbands, Drunken State: The Woman's Temperance Union's Challenge to American Families and Public Communities in Chicago,"*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2001).; 노스웨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던랩(Leslie Kathrin Dunlap), *"In the Name of the Home: Temperance Women and Southern Grass-Roots Politics, 1873-1933,"*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2001) 등이 있다.

이를 정도의 자료지만 기독교 절제운동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1938년 <미성년자금주금연법>에 대한 내용과 입안하는 과정 등을 소상하게 다룸으로써 어느 정도 해갈을 주고 있다.

절제운동을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쓴 석사학위 몇 편이 있다. 이신정의 “일제시대 한국교회여성절제운동연구”(감신대, 1994), 김광원의 “舊韓末 社會改革 運動에 있어서의 基督教의 役割에 關한 研究”(감신대, 1998), 황은혜의 “韓國教會 節制運動의 構造에 關한 研究”(연신원, 1998), 윤은순의 “1920년-1930년대 한국기독교의 절제운동”(숙대, 2001)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절제운동의 민족주의적인 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절제운동 범위나 자료사용에 있어서도 민족주의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기홍의 “韓國教會 初期 民族運動”(연신원, 1998) 위의 논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내연의 신앙이 외연의 표현 즉 민족운동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현됐다는 점에서 다르게 접근하였지만 이 역시 민족주의적 운동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사회운동차원에서 연구한 이성일의 “일제하 한국 기독교 내의 사회운동 연구”(서신대, 1993)이 있다. 이 논문은 YMCA와 YWCA를 중심으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구분해서 다루었지만 사실적 서술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 나온 송민희의 “한국기독교 절제운동에 관한 연구”(송실대, 2004)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적인 입장에서 다루었다. 기독교인의 윤리차원에서 절제운동을 다루었지만, 이 역시 자료사용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여성운동을 연구하면서 절제운동을 여성운동의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먼저 천화숙의 “日帝下 朝鮮女子基督教青年會聯合會 研究”(국민대, 1996)가 있다. 이 논문은 YWCA의 역사를 다룬 것으로, 절제운동을 YWCA 활동 한 부분으로 보고자 하였다. 도서출판 해안은 이 논문을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2000)라는 책명으로 출간하였다. 윤정란의 “日帝時代 韓國 基督教 女性運動 研究”(송실대, 1999)는 기독교 여성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다루었다. 특히 YWCA, 여자절제회, 근우회를 민족주의 시각에서 연구하였고, 절제운동을 그 일부로 다루었다. 국학자료원에서 『한국 기독교여성운동의 역사』(2003)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출간하였다. 이 두 논문은 절제운동을 여성운동의 시각의 일부로서

접근한 것이다.

이외에 한국사학회가 『사회와 역사』(2004, 제 65집)에서 “조선후기 섹슈얼리티: 근대적 전환”이라는 특집으로 축첩문제와 매춘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공창제도에 대하여 야마시다 영애(山下英愛)의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와, 금주, 금연, 아편에 관한 내용을 위해선 이철영의 “韓末·日帝初 地方稅制의 役割과 初期 運營(1906-1914)”(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이 있다. 정태헌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역사비평사, 1998)는 일본이 세수를 확보하고자 어떤 정책을 썼으며 그로 인해 한국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강명숙은 자신의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출판한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경제사상』(백산자료원, 1999)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민족주의를 사회경제사상을 대비시켰다. 또한 저자는 개종한 사람들의 직업적 변화와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를 연구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성격도 함께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 자료는 기독교 절제운동보다 해당 문제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한국의 절제운동과 관련된 글들이 있지만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고, 주로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니면 서술식으로 글을 전개함으로 이해의 용의성은 있으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는 적다고 하겠다.

## D.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19세기 미국 기독교에서 시작한 절제운동이 세계 기독교 절제운동으로 발전하여 한국에 어떤 과정으로 통해 정착하고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전체 내용이다. 그러면서 1884-1939년까지 전개된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다룰 내용이다. 1884년은 한국에 기독교가 시작한 년도이고, 1939년은 절제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내선일체(內鮮一體) 영향으로 일본단체에 통합이 완료된 년도이다. 통합이후 모든 절제운동 단체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침체일로

를 걷거나 변질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19세기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었는데, 전반기를 남성이 주도했다면 후반기는 여성이 주도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세계절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WWCTU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터링에 의해 기독교 절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일본의 절제운동도 간략하게나마 다루었는데,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보다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27년 황주선전대회를 동경금주회가 후원하였고, 일본 절제운동 결과물인 <창기취체법>이나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은 한국 절제운동의 목표로 삼을 정도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미국 절제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이라면, 일본 절제운동은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III장에서는 기독교 절제운동(1884-1909년)을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복음 전래와 함께 시작된 기독교 절제운동은 미국선교사들의 성향, 그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 성격, 교회 안에서 전개된 절제운동의 성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목할 것은 이 시기의 절제운동 대상은 대부분 한국인의 폐습과 악습과 연관된 것들이었다. 이 시기의 기독교 절제운동은 따라서 과거 악습과의 단절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일제와 관계된 것은 제한적이거나 국채보상운동에서 보여준 금주 금연운동이었다.

셋째로 IV장은 일제 무단통치기(1910-1919년)의 기독교 절제운동을 다루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교회는 절제운동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절제운동 목표가 한국인의 악습으로부터 일제의 수탈과정에서 형성된 퇴폐문화와 세속화로 점차 바뀌고 있었다.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지만, 3.1운동에서 보여준 절제운동은 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넷째로 V장에서는 일제 문화통치기(1920-1939년)의 시대적 배경과 출현한 여러 기독교 절제운동 단체를 다루었다. 배경으로는 일제에 의한 퇴폐문화유입, WWCTU와 세계적인 초교파 연합운동, 기독교 여성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반응, 기독교 청년운동의 활성화,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운동 등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독교 절제운동단체 중 교과적으로는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엽윗청년회, 청년면려회를,

초교과적으로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YWCA, 근우회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다섯째로 VI장에서는 일제 문화통치기(1920-1939년)의 기독교 절제운동 전개방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여기에 1920-1930년대의 기독교 절제운동의 특징이 나타난다. 기독교 절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방법들 즉, 농촌운동, 강연회, 선전대회, 의학적 연구자료 이용, 정간물과 자료집, 물산장려운동, 저축운동 등이 이용되었다. 이런 방법들은 절제운동이 일반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도록 큰 일조를 하였다. 이 장에서는 절제운동 대상이 대부분 일제와 관련된 것들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독교 절제운동의 목표가 대부분 한국의 폐습과 악습으로부터 일제의 퇴폐문화로 넘어간 것이다.

여섯째로 VII장에서는 일제 문화통치기(1920-1939년)의 기독교 절제운동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려 보았다. 기독교 절제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을 때는 주류세, 연초세, 아편제배량, 매춘관련자가 줄어들었다. 이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여러 통계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1938년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은 절제운동의 또 하나의 성과였다. 그동안 줄기차게 운동을 벌였고 청원했던 것 중의 하나를 법률적인 것으로 얻은 것이다. 1920-1930년대의 기독교 절제운동을 정리하면서 평가한다면, 민족주의적 운동, WWCTU와 세계적인 연합운동과 함께한 운동, 기독교 여성의 리더십이 표출된 운동, 기독 청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사회주의와 차별되는 복음주의 운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절제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약화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나를 함께 다루었다.

일곱째로 VIII에서는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요약과 함께 전체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제언을 하면서 본 논문을 마감하려고 한다.

본 논문을 연구함에 있어,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 일제의 정책 자료집, 『독립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그리스도신문』, 『대한그리스도신문』, 『그리스도신문』, 『기독신보』, 『황성신문』과 당시 주요일간지들을 이용하였다.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 Review*, *The Korea Field*, *The Korea Mission Field*와 각 선교부나 교단의 보고서, 회의록을 1차 자료로 삼았다. 『신학월보』, 『신학세계』, 『신학지남』, 『活泉』, 『구세신문』 등에서도 좋은 자료를 구하였다. 이 자료들을 중

심으로 본 글을 전개하되 특히 『기독신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기독신보』 장감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한 기독교 신문으로 기독교 절제운동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이다.

## II.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 배경

한국 기독교의 절제운동을 이해하려면,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한 절제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발을 내디뎠을 때인 19세기 말, 미국교회는 절제운동의 절정기를 맞고 있었다. 교파를 초월한 절제운동은 각 교회를 거점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선교사들이 선교지였던 한반도에서 복음 전도와 함께 절제운동을 전개시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초기 한국 교회에서의 절제운동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의 절제운동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걸쳐서 발전되었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초기 한국 교회의 절제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미국의 절제운동은 18세기 태동하여 19세기를 지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성격이었으나 후에는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조직화되었다. 결국 1920년 주류금지법을 핵심으로 한 볼스테드 법안(Volstead Act)을 통과시킬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절제운동이 시작된 1780년대부터 1860년까지와 186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였는데, 1860년대 이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74년 설립된 기독교 여성 절제운동단체인 WCTU(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는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WCTU의 영향으로 1884년 12월 일본WCTU가 출범하였다. 일본 기독교절제운동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지만 서로간의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독교절제운동으로 열매맺은 <창기취체령>과 <미성년자금주금연법> 등을 한국 기독교절제운동이 목표로 삼았다. 또한 1927년 황주주일학교연합회에서 절제운동을 전개할 때 일본금주회가 후원하기도 하였다. 사안에 따라 약간의 교류가 있다가, 결국 1939년 일본여성기독교교풍회에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통합되었다. 일본기독교절제운동이 한국 기독교절제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이

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다루었다.

## A.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

1784년 시작한 미국 절제운동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1860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남성중심의 절제운동, 이후는 여성 중심의 절제운동이다. 1860년 이전의 절제운동은 ATS(American Temperance Society)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과<sup>28)</sup> 워싱턴운동(Washingtonianism)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으로 구분된다.<sup>29)</sup> 1860년대 이후는 여성절제운동 단체인 WCTU와 World-WCTU의 주도로 절제운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6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절제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반기 기독교 절제운동(1784-1860년)

#### a. 1784-1840년 사이의 절제운동

##### - ATS를 중심으로

#### 1) 시대적 배경

1776년 7월 4일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강조된<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sup>30)</sup>를 채택한 미국은 1783년 영국과 파리조

---

28) 원래의 명칭은 Americ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Temperance이지만 ATS로 잘 알려져 있다.

29) Washingtonianism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워싱턴사람들, 또는 워싱턴사람들의 사상이나 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워싱턴사람들이 주도한 절제운동이 한 시대를 풍미했기 때문에, 여기에 ‘워싱턴운동’이라고 하겠다.

30) 1776년 6월 7일 버지니아주 식민지 대표인 헨리 리(Richard Henry Lee, 1732-1794)는 대륙회의에서 독립을 선언할 것을 동의했다. 10일 독립선언을 준비할 5인이 조직되고 제퍼

약을 맺고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독립되었다. 서강대학교 서양사교수를 역임한 차하순은 독립전쟁을 “(미국은) 영국의 두 혁명의 정신 즉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왕을 제거하였을 뿐 아니라 왕권을 거부하는데 성공한”<sup>31)</sup> 전쟁으로 정리하였다. 일반 대중은 독립으로 세속의 군주로부터 자유를 획득했지만, 동시에 사회의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 또한 왕으로부터의 보호나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했다.<sup>32)</sup> 기독교도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의 힘을 기르면서 시대적인 “도덕적인 타락”<sup>33)</sup>에 정부를 의지하기 보다는 자원하여 그 한 복판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음주로 도덕적인 타락이 사회에 만연해졌을 때, 기독교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절제운동에 참여하여 개혁을 주도하였다.

미국에서의 상식철학(common sense)은 국민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주요한 철학이었다. 상식철학은 1768년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 된 스코틀랜드의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을 통해 신대륙에 전달되었다.<sup>34)</sup> 상식철학은 반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인간 마음의 구조가 실제 세계를 직접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5)</sup>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칼빈주의적 신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받았다는 신념이

---

슨(Thomas Jefferson, 1743-1827)에게 선언서 초안을 위촉했다. 대륙회의에서 제퍼슨의 작성한 초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선언서는 <http://www.nara.gov/exhall/charters/declaration/declaration/html>에 원문이 실려 있다.

31) 차하순, 『서양사 총론』 (서울: 탐구당, 1986), 363-8. 참고.

32)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들이 가진 제헌회의에서 작성되었는데, 표면상으로는 미국 최초의 헌법이었던 연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수정하는 형식이였다. 이전까지 미국은 영국의 주권아래서 군주제를 따랐지만, 독립이후부터는 민권사상에 기초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33)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3(New York: Harper & Row, Pub., Inc., 1953), 윤두혁 역, 『기독교사 III』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109.

34) John D. Woodbridge and others, *The Gospel in America*. (Michigan: The Zondervan Corporation, 1979), 박용규역 『기독교와 미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51.

35) 말스덴(George M. Marsden)은 스코틀랜드 상식철학을 체계화한 리드(Thomas Reid)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견해에 의하면, 제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실제 세계의 존재, 원인과 결과, 자아의 계속성 등과 같은 진리들을 믿는다”면서 모든 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반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띤 18세기의 미국의 ‘상식’은 하나의 혁명적 표어가 되었다. G.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Oxford University Inc., 1980), 박용규 역 『근본주의와 미국의 문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43.

강조되었다.<sup>36)</sup> 이들은 구원을 위하여 도덕적인 책임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였다.<sup>37)</sup> 결국 상식철학은,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런 특징은 사회에 편만해 있는 음주문화를 자신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연계되었다.

부흥운동<sup>38)</sup>은 절제운동의 불을 지폈고, 곧 사회개혁으로 이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세기 초에 일어난 신학은 기존의 칼빈주의적 전통에 있는 신학과는 다른 것이었다.<sup>39)</sup> 이 신학은 웨슬리에게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기존의 칭의(justification)가 아닌 성화(sanctification)에 초점을 둔 것이다. 모든 신자의 목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 획득되는 그리스도의 ‘완전’(perfect)’이었다.<sup>40)</sup> 미국의 1차 부흥운동은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었

36) George Marsden, 『근본주의와 미국의 문화』, 45.

37) Ian R. Tyrrell, *Sobering Up: From Temperance to Prohibition in Antebellum America, 188-1860* (Connecticut: Greenwood Press, Inc., 1979), 60.

38) 제 2차 부흥운동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초기 각성운동은 침례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1790년대 회중교회 역시 산발적인 부흥운동이 있었다. 이보다 앞선 1780년대 말 함덴-시드니(Hampden-Sydney)와 워싱턴대학교 장로교 30-40명의 학생들 사이에 부흥열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Winthrop S. Hudson & John Corrigan, *Religion in America: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American Religious Life*, Fif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2), 134.

39) 첫째는 1800년 이전에는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이 전체를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알미니안적인 성향으로 그 단일성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는 신학이 미국인의 삶과 협력하는 경향이 차츰 강화되고 있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를 지향했던 열정이 미국 자체를 향하여 전이되고 있었다. 네 번째는 신학이 미국문화에 주는 것보다 미국문화로부터 받는 것이 늘어나고 있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지성(mind)과 교회의 삶(life)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었다. 1800년 이전에는 지성이 삶을 지배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 감성이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John D. Woodbridge and others, 『기독교와 미국』, 40-41.

40) 완전에 대한 관심은 피니(Charles G. Finny)의 신학에서 엿볼 수 있다. 비록 자신은 감리교인이 아니었지만 미국의 칼빈주의적 유산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새로운 노력을 조합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피니는 열정적인 개인의 노력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얻어,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막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1830년대 뉴욕의 브로드웨이 성막(Broadway Tabernacle)의 목사로 있으면서 웨슬리의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를 읽으면서 완전에 대한 소신을 확립시켰다. 이런 확신은 뉴욕을 떠나 오하이오의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전파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제 2차 대각성운동의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오벌린 대학은 세계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한 학교이다. 학장은 피니와 같은 맥락에 있었던 메이한(Asa Mahan)으로, 이 학교 출신자들 중에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나왔다. 제 2차 부흥운동은 오벌린 완전주의와 관계가 있는데 박명수의 『근대 복음주의의 성결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을 보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다. 반면 2차 부흥운동은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최선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런 것은 19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피니의 부흥집회에서 두드러졌다.<sup>41)</sup> 절제운동은 이런 2차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완전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sup>42)</sup> 완전주의자들로부터 절제운동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받았던 절제운동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자신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변혁시킴으로 새천년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2) 절제운동의 전개

미국에서 표면적으로 시작된 절제운동은 17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내과담당 장교였던 러쉬(Benjamin Rush)가 1784년 출판한 소책자 때문이다. 러쉬가 음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An Inquiry into the Effects of Ardent Spirits Upon the Human Body and Mind*(1784)<sup>43)</sup>를 출판한 이후 절제운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sup>44)</sup>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던 감리교인들이 중심이 된 지역에서는 절제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sup>45)</sup> 그러나 당시는 도시의 물이 오염되어 있었고, 우유, 커피, 차 등은 위스키에 비해 비쌌다. 술은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sup>46)</sup>

41) 부흥집회를 며칠동안 연이어서 진행하면서 개인의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불러내어 참회석에 앉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의 발전과 중생,”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62-3.

42)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22.

43) 독립전쟁 중 러쉬는 병사들의 알코올 소비가 피로를 증가시키고, 질병을 악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주시하게 되었다. 그는 약간의 알코올이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지만, 럼주는 교수대로 가는 길을 잘 포장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저자 러쉬는 이 글을 쓸 때, 부흥운동가 비처(Lyman Beecher) 목사의 절제에 대한 설교 *Six Sermons on the Nature, Occasions, Signs, Evils and Remedy of Intemperance*(Boston, 1872)를 기초로 하였다. 비처는 후에 모든 음주를 금지하고 미국 전역에서 럼주와의 전쟁을 후원했던 인물이다. Andrew Sinclair, 37.; 영성과 지성을 앞세운 교육가이면서 목사인 비처는 부흥운동과 사회 개혁에 대한 관계를 공고히 했던 인물이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사회 개혁은 부흥운동에 종속된 것이며 복음으로 자기 사랑에서 타인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George Marsden, 『근본주의와 미국문화』, 33-7.

44) 러쉬는 이 소책자에서 알코올은 성숙하지 못한 영혼에게 위험한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16.

45) Andrew Sinclair, *Era of Excess*, 23-24.

이로 인해 금주는 일정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1813년 상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세워진 MSSI(Massachusetts Society for Suppression of Intemperance)가 조직적으로 금주문제를 다루었다. 이 단체는 절제운동의 첫 번째 단체였다. MSSI는 117명의 회원<sup>47)</sup>으로 시작했지만, 1818년에는 40개 지부를 둘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비록 회원들이 제한되었지만 지부마다 평균 100명 정도에 이르렀다. 회원들은 지역관리들에게 술고래를 체포하고, 주류 판매허가를 제한하고,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에게만 면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MSSI에서는 금주보다는 절주를 옹호했다.<sup>48)</sup>

MSSI을 뒤이어, 1826년 보스톤에서 ATS(American Temperance Society)가 세워졌다. ATS는 열정적인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설립하였다. MSSI와는 달리 일반 대중에게 호소했던 ATS는 폭넓은 금주운동을 펼쳤고, 1930년대 중반까지 계속 성장과 활동을 확대시켜 나갔다.<sup>49)</sup> 그들이 금주운동 프로그램을 내놓았을 때, 여러 해 동안은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참여하여, 5년 뒤인 1930년에는 2,200개의 지역 절제운동단체가 세워졌고 회원이 17만 명이나 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1833년에는 지부가 6,000개 이상이 되었고, 회원도 100만 명에 이르렀다.<sup>50)</sup> 절정기인 이듬해는 8천개의 지부와 150만의 회원(미국인구의 약 12%)을 확보하게 되었다.<sup>51)</sup> 1834년 선출된 ATS 지역대표는 438명으로, 북동지역에 256명, 중부에 74명, 남부에 157명이다. 그 중 213명이 목회자였고, 대부분 미국성서협회(American Bible Society), 미국전도협회(American Tract Society), 미국해외선교부

---

46) 1800년 초기까지 교회에서는 절제서약(abstinence pledge)이 있었다. 그러다 1808년 뉴욕의 사라토가(Saratoga)와 1813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에 설립된 절제운동 단체의 활동으로 교회 영향 아래 계속 퍼져 나갔다.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9.

47) 1/2은 목사와 1/4은 상인이고 나머지는 사업가, 법률가, 의사, 관료 등이었다. Jed Dannenbaum, *Drink and Disorder*, 16.

48)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10.

49) 이에 대하여 카윌티(John G. Cawelty)는 일반대중의 반응은 잭슨(Jackson)이나 링컨(Lincoln) 시대와 유사하다고 할 정도로 컸으며, 그들은 절제, 근면, 성실, 정직과 근면한 전통적인 덕성을 확고히 준수했다고 밝힌바있다. *Apostles of the Self-Made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48-50.

50) John L. Thomas, "Romantic Reform in America, 1815-1865," *American Quarterly* 17 (Winter 1965), 658-81. R. Tyrrell, *Sobering Up*, 87에서 재인용.

51)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14.

(American Board of Commission for Foreign Mission) 소속 회원들이었다.<sup>52)</sup>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절제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1830년대 초 ATS 지부는 증류수, 포도주, 맥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절대금주협약’(teetotal)을 채택하여, 절대금주운동(Teetotalism)을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ATS를 ATU(American Temperance Union)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sup>53)</sup> 계속된 금주운동의 영향으로 사회관습과 제도가 변하여, 가정에서 손님접대나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에게도 술을 대접하지 않았다. 농민, 군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술도 중단됐다. 시골지역이나 개척지에서 선술집(tavern)은 술과 관계없이 사회봉사와 지역 활동의 장소로 제공되기도 했다. 술집은 은행, 숙소, 음악회장, 우체국, 법정, 종교 모임장소(religion meetinghouse) 등으로 제공됐다.<sup>54)</sup>

러쉬의 글을 통하여 절제운동의 불을 지폈다면, 이후 상류 지식인들에 의해 MSSJ가 세워지면서 절제운동의 불길을 일으켰고, 그리고 복음적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ATS는 불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셈이다. ATS는 각 지역과 연계하여 일반인들도 절제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 b. 1840-1860년 사이의 절제운동

- 워싱턴운동(Washingtonianism)을 중심으로

##### 1) 시대적 배경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1800년대 초부터 서진운동을 계속하였다. 스페인령이었던 서부의 오래곤주와 유타주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 주를 점차적으로 합병해 나갔다. 영토가 1840년에 비해 1860년도에는 약 2/3가량 증대되었고, 인구도 약 3100만 정도로 급성장하였다.<sup>55)</sup> 이런 인구 증가는 전체 인구대비 기독교인의 비

---

52) *Seventh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Temperance* (Boston: Seth Bliss, 1834), 98-101. R. Tyrrell, *Sobering Up*, 68에서 재인용.

53)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22.

54) 엘리트층은 직업에 따라 술마시는 습성이 달랐다. 상인, 변호사, 지주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고, 제조업자는 금주했다.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34-7.

을 감소내지는 정체를 의미한다.<sup>56)</sup> 통계는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서부 지역을 병합함으로써 그 비율이 정체내지는 감소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의 비율 감소는 금주의 무풍지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서부개척 당시 무질서가 난무하였기에 절제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시기였다. 보안관이 치안을 맡으면서 혼란스런 사회를 유지시켰다면, 절제운동을 통하여 삶의 변화와 함께 자발적인 사회적 정화를 추구하였다.

지역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 만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노동력 문제를 이민자들로 해결하고자 했다. 미국 법무부 입국관리국의 연중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이 1821-30년에는 143,439명, 1831-40년에는 599,125명, 1841-50년에는 1,713,251명, 1851-60년에는 2,598,214명으로 증가하였다.<sup>57)</sup> 1840-60년 사이의 이민자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민자 중 독일계<sup>58)</sup> 사람이 제일 많았고 영국계와 아일랜드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민자들은 술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였다. 특히 아일랜드계 청소년들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특히 심했고, 독신 남성들도 하위문화로 예측되면서 술을 즐겨 찾았다. 또한 술에 관용적인 태도를 지닌 카톨릭 인구의 증가<sup>59)</sup>도 음주 증가에 일조했다. 개신교 전통을 이어가려는 교회 입장에서 볼

55) 차하순, 『서양사 총론』, 512-3.

56) 기독교인구는 1776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776년에 전체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17%였던 것이 1850년에는 3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860년에는 37%, 1870년에는 35%로 감소하였다. 또한 1850년대 종교인구 분포가 천 명당 메리랜드(Maryland), 오히오(Ohio), 인디애나(Indiana) 지역은 400명 이상되고, 그 외 동부지역은 300명 이상이었던. 그리고 중부지역은 100명 이상이었고, 나머지 서부지역은 종교인구 통계가 없다. Roger Finke & Rodney Stark, *The Churching of America, 1776-1990: Winners and Losers in Our Religious Economy*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7), 68.

57)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Annual Report*;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II* (New York: Image Books, 1975), 208을 참조하라.

58) 독일이민자들은 미국에 새로운 음주를 제공했다. 184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맥주는 집에서 만들어서 마셨고, 미국 전체 음주인구에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그쳤다. 이전의 맥주는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배양기술로 맛이 강했지만, 독일인들은 부드러움과 거품과 저알콜로 이루어진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독일식 맥주는 이민자들만 아니라 미국민들에게도 널리 확산되었다. 결국 일인당 맥주 연간 소비량은 1840년 1.3갤론에서 1860년 3.8갤론으로 증가했다. 1860년 총 알콜대비 1/6정도가 맥주였다.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38-9.

59) 1850년대는 카톨릭 인구가 1,088,000명이었는데 60년대는 2,439,000명으로 증가하고, 70년대는 3,555,000명으로, 90년대는 7,343,000명으로 1906년에는 14,211,000명으로 급

때, 카톨릭의 음주문화는 미국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판의 대상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절제운동은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를 준수하려는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1830년대 말과 1840년대는 많은 미국 기술자들에게 경제적 혼란을 증가시키던 시기였다. 기계화로 출현한 거대한 회사들이 생산을 증가시킴으로 유능한 기술자들에게 대한 요구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필라델피아, 뉴욕과 볼티모어 같은 도시에서, 장인은 더 이상 독립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고, 큰 회사의 기술자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sup>60)</sup> 또한 1837년부터 1843년 사이의 경제침체는 수천 명의 기술자들을 일자리를 빼앗았다. 사회적 경제적인 요동 속에서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술로부터 위안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가정도 파괴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기술자들 중심으로 절제운동이 일어났다.<sup>61)</sup>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계속된 영토확장으로 인한 비기독교인들의 증가와 사회적 혼란, 이민자들의 증가로 새로운 음주문화 형성, 경제적 혼란으로 도피처를 찾는 이들의 증가는 술의 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절제운동이 요구되었다.

## 2) 절제운동 전개

ATU가 주도한 절제운동은 계속 확장되었지만, 이민자들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은 기존의 절제운동을 무력화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음주경험이 없던 지도자들은 흩어진 절제운동을 하나로 묶어 세력을 규합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워싱턴운동’은 그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1840년 5월 볼티모어(Baltimore)의 체이스(Chase)의 한

---

속도로 증가하였다. 1850년대 성인대비 14%에서 1906년에는 32%까지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대비해서도 5%에서 17%로 증가하였다. Roger Finke & Rodney Stark, *The Churching of America, 1776-1990*, 109-44.

60) 초급 기술자들은 더 이상 독립적인 제조업자가 되는 기회를 급속도로 박탈당했다. 신발 만드는 전통적인 기술자는 회사에서 제품으로 생산된 많은 제화로 타격을 받았다. 또한 새로운 산업이나 산업의 확장으로 새로운 기술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기술자들 역시 쓰라린 고통을 겪었다. 철강산업의 출현은 새로운 기술자를 요구했다. Robert Doherty, *Society and Power: Five New England Towns, 1800-1860*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7), 23-6.

61) Ian R. Tyrrell, *Sobering Up*, 158-9.

선술집에 6명의 노동자가 모였다.<sup>62)</sup> 이들은 도덕적 설득으로 음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워싱턴운동의 선구자들은 이 운동을 1839-40년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연결시키고자 하였다.<sup>63)</sup>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 과음하는 노동자들을 찾아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이었다.

볼티모어에 워싱턴운동협회의 본부를 조직한 첫해인 1840년까지 약 300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그들 중 200명 정도가 금주했다. 이듬해인 1841년 워싱턴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볼티모어에 12,000명, 뉴욕에 5,000명, 북부 전체는 200,000명에 이르렀다.<sup>64)</sup>

활발하게 움직이던 워싱턴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ATU를 중심으로 한 절제운동가들은 처음에는 워싱턴운동가들을 환영했으나 방법적인 것에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sup>65)</sup> 친구간의 심각한 견해 차이는 법적제도에 대한 태도였다. ATU를 중심으로 한 절제운동 지지자들은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절대금주를 채택하고자 하였다. 반면 워싱턴운동에서는 법적 제도와 관계하는 것을 비난했다. 워싱턴운동가들은 공장에서 일할 때나 운전할 때 개인의 금주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존의 금주운동자들보다 술판매자들에게 관대하였으며, 술판매자가 절제운동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sup>66)</sup>

62) 블로커는 이들이 술을 마시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하였고(40), 타이렐은 이들이 자신들이 위스키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사실을 한탄하며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159)

63)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40. 경험담이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설립자체가 음주 경험자들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an R. Tyrrell, *Sobering Up*, 167.

64) Ian R. Tyrrell, *Sobering Up*, 160. 워싱턴운동은 처음에는 6개주에서 조직되었으나, 5년 뒤에는 22개주로 확장되었다.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49.

65) 둘 사이의 갈등은 절제운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락(entertainment),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 종교(religion)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나타난 차이는 분명했다. 워싱턴운동가들은 음주자들은 금주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술집을 노래 부르고, 기분 좋게 하고, 친교를 나누는 곳으로 바꾸고자 했다. 반면 이전의 절제운동 지지자들은 워싱턴운동가들의 이런 태도를 반종교적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운동가들이 모임에서 기도를 배제하고 금주결심을 하면서 종교적 회심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46.

66) 워싱턴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배경이나 워싱턴운동 모임에서의 경험에 따라, 술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주장은 기존의 중산층 절제운동가들

위싱턴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그 영향으로 메인법이 입안되었다. 메인주 절제운동연합(Maine Temperance Union)의 의장인 도우(Neal Dow)는 금주 입법화를 목표로 하였다. 도우의 노력으로 주류제조 비허가(no-licence)가 포틀랜드 국민투표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846년에는 메인주에서 주류제조 판매금지법을 얻어냈다.<sup>67)</sup> 메인법(Maine Law)으로 알려진 법안이 1850년 통과되어 주류제조는 금지됐고, 주류판매도 시당국에 의해 의학용 산업용으로만 허용되었다. 계속 어길 때에는 무거운 벌금형이나 감금형을 내렸다.<sup>68)</sup> 메인법은 절제운동이라는 자발적인 운동이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840년대-60년대의 위싱턴운동은 절제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때때로 기존의 절제운동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목표를 잃지 않았다. 위싱턴운동의 특징은 음주 경험자들이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과 그들의 경험담이 많은 금주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절제운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였다는 점이다. 비록 메인법이 실패하지만, 절제운동의 법적인 장치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 2. 후반기 기독교 절제운동(1860년 이후)

### a. WCTU 설립과 주요활동

1860년대부터는 절제운동의 흐름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남성주도의 절제운동이 여성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초교파적이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여성절제운동단체인 WCTU가 출현하였다. 여성이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

---

이나 복음주의자들은 음주나 술집의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금주에 성공한 위싱턴운동가들은 술판매자를 단순히 마귀로 생각하고 내보내질 못했다. 그들은 술의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음주자인 술판매자들에 대한 도덕적 설득을 통하여 그들을 금주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Ian R. Tyrrell, *Sobering Up*, 199-200.

67) 시공무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하자 도우는 주입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 상업에 얽여한 공무원들이 가벼운 벌금만 부과할 뿐 법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68)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32-3.

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남성주도의 절제운동에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권리가 계속 사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남북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도시 가속화로 도시 노동자들의 증가, 경제발전으로 인한 중산층의 여성들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 졌다.

## 1) 시대적 배경

노예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불거진 남북전쟁(1861-1865) 이후 미국은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고, 연방정부의 위상을 강화시키며, 대기업들의 출현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sup>69)</sup> 남북전쟁의 혼란으로 음주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전쟁 후에도 술을 대치할만한 음료가 나오지 않았다.<sup>70)</sup> 또한 전쟁비용 충당 목적으로 세입차원에서 부과된 주정세는 전쟁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정부가 술 제조자와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술산업을 발전시켰다.<sup>71)</sup>

절제운동이 가장 요구되었던 곳은 도심이었다. 1860년대만 하더라도 도심인구가 600만 명 정도였지만, 1870년대는 1천만 명, 1880년에는 1천400만 명, 1900년대에는 3천만 명으로 급증하였다.<sup>72)</sup> 도심 인구의 가파른 상승은 급속도로 증가한 이민자들 때문이었다. 이민자들의 증가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도시화 현상이었다.<sup>73)</sup>

69) 교회에서도 성공적인 사업가를 교회의 이사로 임명함으로 평신도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William S.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 446-7.

70) Jed Dannenbaum, *Drink and Disorder*, 200.

71) 주정제조업에 투입된 자본이 1860년에 2천 9백만 달러였던 것이 1880년에는 1억 9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William S.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 428-9.

72)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11-2; 미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0-60 년대에 이민자의 수는 430만 명 정도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860년 이후의 이민자들의 증가는 1960년대까지의 이민 증가를 훨씬 앞질렀음을 알 수 있다. 남북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이민자수가 잠시 주춤했음에도 230만 명 정도가 증가했고, 1871-80년에는 280만 명과 1881-90년에는 525만 명 정도가 각각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한 증가가 1930년대까지 계속 되었다.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Annual Report*.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II* (New York: Image Books, 1975), 208-9 참조하라.

73) 19세기 중엽부터 산업화는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부족한 노동력을 이민자들로 채웠다.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840년과 50년 사이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는 90%의 증가를 보인 반면 지방은 36%의 증

이탈리아계와 독일계의 이민 증가는 자연스럽게 술의 증가와 연결되었다.<sup>74)</sup> 이민자들은 큰 도시로 가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도시화로 생겨난 술집은 도시 근로자들을 유혹하기 좋은 시절을 맞이한 셈이다.<sup>75)</sup> 남성들은 술집에서 소속감, 인류평등주의, 자기표현의 기회들을 발견했다. 노동자들은 중산층보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셨다.<sup>76)</sup> 스위트는 “급속도로 변화된 미국도시는 사회적 도덕적 필요를 교회에 요청”<sup>77)</sup> 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 대안으로 절제운동을 제시하였다.

남북전쟁이후 미국은 내부를 결속하고 강화하면서 경제 번영을 추구하였다. 철도를 이용해 서부로 이주한 사람들로 미국의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었고, 국민의 경제적 생활을 향상시켰다.<sup>78)</sup> 같이 서부로 이주했던 교회도 교인들 중에 중산층이 증가하는 숫자가 많아졌다.<sup>79)</sup> 교회에서의 중산층 증가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발

가에 그쳤다. 1860년 도시는 산업, 철도, 상업, 자산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가치가 농장의 그것을 훨씬 앞질렀다. 따라서 남북전쟁은 이 산업성장이라는 온실(hothouse)에서 배양된 것과 다름없었다. Winthrop S. Hudson & John Corrigan, *Religion in America*, 207.

74) Winthrop S. Hudson & John Corrigan, *Religion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2), 206;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가장 많은 독일계 이민자들의 뒤를 이었다.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Annual Report*;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II* (New York: Image Books, 1975), 209; 카톨릭 국가로부터의 이민자들은 개신교인과의 갈등을 일으키며 전통적인 교회들을 지방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카톨릭 국가들로부터 이주해 온 이민자들은 모두가 카톨릭 신자들은 아니었지만, 잠재적 카톨릭 신자였다. 카톨릭 교회는 미국의 개신교를 대항하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카톨릭 신자들을 얻게 되었다.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97;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1850년에는 5%, 1860년에는 8%, 1870년에는 9%, 1890년에는 12%, 1906년에는 17%까지 급상승하였다. 특히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1860년대 개신교는 정체되었지만, 카톨릭 신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Roger Finke & Rodney Stark, 114. TABLE 4.1 참조하라.

75) Andrew Sinclair, *Era of Excess*, 64-5. 개신교에서는 도시가 술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절제운동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들은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와 회중교회들이다. 이중 감리교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물론 모든 개신교회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루터교회와 감독교회는 시큰둥하게 대하였다. 예수회와 카톨릭은 금주보다는 절제를 택하였다.

76) 남북 전쟁 이후의 도시화는 시대에 맞는 술을 확산시켰다. 그동안 위스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술시장이 맥주로 그 자리를 바꾸었다. 알코올로 만취되거나, 피해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음주인구는 다시 늘었다. 영국 투자자들이 미국 양조장을 대규모로 구입한 것은 소규모의 양조업자들의 도태를 의미했다. 소량의 알코올성 음료를 만들어 시골에 유통하던 술을 대량생산 체제로 바꾸어 도시화와 맞물려 그 생산을 증가시켰다. Jack S. Blocker Jr.,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66-68.

77) William W.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 477.

78) 차하순, 『서양사총론』, 516.

언권이나 역할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879년대와 1880년대 사이의 증가한 중상류층 여성은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전념할 수 있었다.<sup>80)</sup> 도심의 중상류층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었다.

#### b) 절제운동 전개 과정

남북전쟁 이후의 변화에 맞추어 절제운동 지도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특히 남성 중심의 절제운동에 한계를 느낀 여성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들에 의해 1874년 세워진 WCTU는 1920년 헌법 18조에 금주밀매 및 판매를 반대하는 내용을 삽입했던 볼스테드 법안(Volstead Act)을 통과 시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WCTU의 모체였던 WTC(Women's Temperance Crusade)는 메사추세츠의 전문 강사였던 루이스(Diocletian Lewis)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그는 여성을 위한 활동가이면서 절제운동에 열정을 가진 자였다. 1873년 12월 22일 오하이오의 힐스보로(Hillsboro)에 소재한 음악 홀에서 그는 “우리의 소녀들”(Our Girls)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주일날 저녁 절제운동에 대하여 강연하면서 자신이 왜 절제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가를 밝혔다. 자신의 가정을 예로 들면서 어머니는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거리 행진하여 결국은 술집 문을 닫게 했다고 고백하였다. 루이스의 가정의 예는 청중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고 급기야 당시 감리교 목사 부인이며 복음적인 열정을 지녔

---

79) 교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예배의 형식과 건물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감리교는 1860년대부터 성장이 멈추고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1890년대부터는 급격한 쇠퇴를 보였다. Roger Finke & Rodney Stark, 147. 도표 5-2참조를 참조하라; William W.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 443-4; Winthrop S. Hudson & John Corrigan, *Religion in America*, 222-4.

80)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10-1. 19세기 말 어린이를 돌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도시 중산층 여성들의 일이었다. 상류층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활동을 함으로 가족의 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결국 중산층이상의 여성들은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고, 가정을 부양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제운동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던 톰슨(Eliza Jane Thompson)에게 영향을 끼쳤다.<sup>81)</sup> 그녀는 기도 가운데 절제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WTC가 출범하였다. 루이스의 지도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모임을 갖고 거리를 행진하고 대중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술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sup>82)</sup> 대표적인 경우가 과부였던 오글(Bethiah Yeoman Ogle)의 거리행진이였다. 그녀는 술로 엉망이 된 차남을 구하기 위하여 오하이오주 Washington Court House(1870년대 변화한 시장 중심지)에서 두 딸과 여성 지지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주류 상인들과 술집에 대항하였다. 그 결과 술집이 철거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다른 지역의 여성들도 술 상인들에게 시위하는 횃수가 많아졌다.

그러다 WTC는 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보다 강력하고 규모가 큰 WCTU를 출범시켰다.<sup>83)</sup> 1880년대에 WCTU는 미국의 여성단체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다. 이 WCTU는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1892년에 회원이 거의 15만 명이나 되었고, 어린 여학생까지 포함해 20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2만 명이나 될 정도로 단일 여성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sup>84)</sup> 초대 의장인 위텐마이어(Annie Wittenmyer)는 여성의 참정권을 반대하였는데, 입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이 투표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다.<sup>85)</sup> 그녀는 보수적인 여성으로 절제운동을 복음적인 회심과 금주에 초점을 두

81) 톰슨은 새천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복음적인 열정이 절제운동에 힘을 더해줄 것이며, 영적인 열정이 식어지면 절제운동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Jed Dannenbaum, *Drink and Disorder*, 227.

82)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15-9. 오글(Bethiah Yeoman Ogle)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다. 오글은 오하이오주 Washinton Court House(1870년대 변화한 시장 중심지)에 살던 평범한 중년주부였다. 과부였던 그녀의 차남 마쉬(Marsh, 24세)가 술에 탐닉하며 1871년에는 두 번이나 체포 감금되는 일이 있었다. 침례교인인 오글은 두 딸 브라이티(Brightie), 플로라(Flora)와 함께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873년 12월 26일 두 딸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주류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행진하며 나갔다. 27일에는 남성지지자들의 기도후원을 받으며 다시 행진해 나갔으며, 결국 29일 술집 두 곳이 항복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83) WTC에서 WCTU로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여성운동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었다. 남성 주도의 절제운동은 법률개정에 소극적이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기를 희망하였다. 반면 여성들은 여성활동을 극대화 하기위해선 독자적인 단체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술을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되길 원한반면, 여성들은 모든 술제조 및 허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Jed Dannenbaum, *Drink and Disorder*, 226-8.

84)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3-4.

고 활동하였다.

위텐마이어나와는 다른 인물이 그 뒤를 이어 등장하였다. 성결운동가 팔머의 영향을 받았던 윌라드(Frances E. Willard)였다. 1819년부터 1898년까지 WCTU의 의장이었던 윌라드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미국의 여성들을 움직였다. 1835년 초까지 워싱턴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를 둔 그녀는, 술집과 감옥이 없는 도시와 함께 믿음을 주는 도시를 꿈꾸었다.<sup>86)</sup> 그녀는 실천적인 복음주의자(practiced evangelist)로 복음 송을 즐기며 열정적인 설교를 좋아했다. 헌신적인 감리교인이었던 윌라드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성결운동에 앞장섰던 팔머(Mrs. Phoebe Palmer)였다.<sup>87)</sup> 윌라드는 1860년 종교적인 회심을 한지 2년 후, 누이였던 마리(Mary)의 죽음으로 종교적인 감정에 더욱 집중하였다. 그러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1866년 겨울, 팔머(Mrs. Phoebe Palmer)가 에반스톤(Evanston)에서 인도하는 성결운동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녀는 술 회하기를 “성결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알기 원했고 더욱 열망했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그때를 계기로 영적인 씨름을 하였다. 윌라드의 복음적인 열정과 감성적인 영혼에의 집중은 1866년 성결집회 참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88)</sup>

윌라드의 절제운동은 여전히 금주가 그들의 중요 목표였지만 동시에 여성 참정권, 노동운동의 성공, 미국사회의 복음화에 수반되는 그림을 포함시켰다.<sup>89)</sup> 윌라드는

---

85) Barbara L. Epstein, *The Politics of Domesticity: Women, Evangelism, and Temperanc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1), 36-46; Leslie Kathrin Dunlap, *In the Name of the Home: Temperance Women and Southern Grass-Roots Politics, 1873-1933*, 26-8.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15-32.

86) Mary Earhart, *Frances Willard: From Prayer to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151-73; Barbara L. Epstein, *The Politics of Domesticity*, 118-9;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42.

87) Wallace Thornton, Jr., *Radical Righeousness*, 52. 팔머가 1836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성결증진을 위한 화요집회(Tuesday Meeting for the Promotion of Holiness)를 열었다. 이 집회에 참석자들은 상류층의 사람들로, 그들은 충분하게 성결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 집회가 확대되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를 다니며 약 2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켰다.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92, 326. 참조.

88) Ruth Bordin, *Frances Willard*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155-6.

89)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즉 윌라드가 여성의 참정권이나 사회적인 순결을 강

1873-74년도 겨울부터 절제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1876년 여성들이 참정권이라는 투표라는 무기를 가지고 음주로 인한 가정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0)</sup>

윌라드의 입장에서 볼 때, WCTU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먼저 프로그램의 문제였다. 절제운동을 여성의 인권운동과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것과, 전국적인 조직망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과, 재정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작은 지역단위의 모임을 강화시키되, 정책은 대중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은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하되 자신부터 경비의 일체를 개인 후원자들로 충원하였다.<sup>91)</sup>

윌라드가 중심이 된 이후의 WCTU는 계속 발전을 거듭하다가 1920년대에 절정을 맞았다. 1919년 1월 16일 ‘주류판매 및 양조금지’<sup>92)</sup>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금주법이 헌법 18조 수정안으로 비준되고, 이듬해 1월 19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볼스테드법(Volstead)이라고도 불리는 금주법은 음주와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도덕적 승리라

---

조하고 사회개혁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자서전을 집필했던 에르하트(Mary Earhart)는 그 이유를 그녀의 개인비서였던 고든(Anna Gordon)에게 돌렸다. 고든 때문에 “윌라드는 윌라드식 급진적 사회철학과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가진 것을 숨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윌라드가 보다 사회개혁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나름대로의 여성 개혁운동에 적극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한 것이다.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서론, 97-116; 윌라드는 1881년 WCTU의 전국모임에서 절제운동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동시에 산업화문제, 도시화문제, 이민문제 등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WCTU는 감옥의 개혁과, STI(Science Temperance Instruction)를 공교육에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이혼이나 별거로 집없는 아이들, 매춘이 가능한 나이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Alison M. Parker, "'Hearts Uplifted and Minds Refreshed':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and the Production Pure Culture in the United State, 1880-1930," *Journal of Women's History* 11, no. 2(Summer 1999): 135-58.

90)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46. 윌라드가 절제운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윌라드가 절제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단지 여성권리 확대차원이기보다는 개인의 성결을 사회개혁으로 이어보고 싶은 열망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Ruth Bordin, *Frances Willard*, 155-74.

91)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47-51. 보딘은 초기에 무보수 봉사자로 활동하였고 한때 윌라드가 무디목사의 스텝진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Ibid., 73.

92) “미국 본토와 미국 재판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주류의 제조, 판매, 운반이 금지되며 상기 지역으로의 수입과 동지역으로부터의 수출도 금지한다.”

고 생각했다.<sup>93)</sup> 금주법은 주류 유통과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비난 받아온 주점에서 파생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었다.<sup>94)</sup> 또한 아더 링크(Arthur S. Link)는 *Progressive*에서, 금주정책을 “흑인 노예가 미국 땅에서 사라진 이후 가장 큰 도적적인 승리”<sup>95)</sup>였다고 평가하였다.

WCTU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도모임을 갖고 찬송하며 술집주위를 맴돌았다. 그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를 위하여 술을 판매한다는 관계자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때로는 시장에게 압력을 가함으로 거리에서 기도모임을 갖거나 찬송하는 것을 공공질서차원에서 법으로 막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들도 교인들을 교회에 머물 것을 요청하고 계속되는 기도와 찬송행진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사회적으로 계속 기사화되면서 WCTU의 활동은 더욱 거세져만 갔다.<sup>96)</sup>

정리하면, 절제운동 실천 과정 속에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전면에 나서기 위하여 WCTU를 출범시켰다. 여성들의 힘을 강력하게 집중시킨 WCTU는 절제운동을 넘어서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여성운동으로 발전시켰다. WCTU의 뿌리는 신앙에 있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의 모든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WCTU는 초교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느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이슈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급기야 입법을 통하여 절제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

93) 볼스테르 법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1920년에는 금주법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였으나 22년부터는 금주법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아졌고, 계속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는 금주법 반대가 우세하였다. 이로 인하여 1933년 헌법 수정조항 21조가 제정됨으로 헌법 18조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또한 금주법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공화당 후버(Hoover)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탈락하고, 금주법 폐지를 주창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 김덕호, “미국의 보수주의와 금주시대의 반금주법 운동,” 『美國史研究』 第 1號(1993), 117-42.

94) 김덕호, “미국의 금주법과 Wickersham 특별위원회,” 『西洋史論』 第 40號(1993), 167.

95) Arthur S. Link and Richard L. McCormick, *Progressivism* (Arlington Heights, Ill.: Harlan Division, Inc., 1983), 103. 김덕호, “미국의 금주법과 Wickersham 특별위원회,” 168. 재인용.

96) Jed Dannenbaum, *Drink and Disorder*, 216-8.

## b. WCTU와 World-WCTU와의 관계

윌라드는 “세계가 나의 교구”(the whole world is my parish)라고 할 만큼 선교에 대한 꿈이 강력했었다.<sup>97)</sup> 그녀는 WCTU가 세계 여성 특히 동양 여성을 구원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1887년 영국에서 설립된 BWTA(British Woman's Temperance Association)에 WCTU의 리더중의 한사람이었던 스튜워드(Eliza Steward)가 방문하여 세계절제운동관련 단체 구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891년 11월 보스턴에서 남미를 제외한 5개 대륙에서 파견한 사람들과 WWCTU를 결성하였다.<sup>98)</sup> 이때 1884년 유럽, 일본, 중국을 다니며 절제운동을 전파했던 레비트(Mary Clement Leavitt)가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sup>99)</sup> 레비트만 아니라 대부분의 WCTU의 지도자들은 열악한 조건

---

97) Ruth Bordin, *Frances Willard*, 190. 윌라드의 개인 비서 고든이 집필한 *The Life of Frances E. Willard*, 153에서 재인용.

98) WWCTU의 자세한 내용은 Ian Ty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880-193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을 참조하라.

99) 레비트는 1878년 이혼하기 전에 당시 WCTU의 연락 보좌관이었던 윌라드를 만나서 절제운동의 일원이 되었다. 그후 윌라드가 WCTU의 의장이 된 이후 절제운동의 전도자가 되어 세계를 다니며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다. 이때 그녀가 들린 곳 중의 한곳이 일본이었다. 레비트의 절제운동 전파를 계기로 5개 대륙을 묶어서 WWCTU(World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가 조직되었고, 1891년 윌라드의 추천으로 레비트가 의장이 되었다. 물론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선교사들을 지원한 많은 여성들은 WCTU에 대한 자극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920년대에는 40개국 이상이 여기에 참여하였고, 1927년에는 절정을 이루어 회비를 내는 회원만 766,000명 정도에 이르렀고, 지지자들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 WCTU는 미국의 복음주의교회의 여러 여성 위원회의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았고 국제적인 활동에서도 많은 후원을 받았다. WCTU의 사역이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의 활동이 그 만큼 성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선교지 기독교의 성장과 WWCTU의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개신교의 초교파적인 사회운동으로 기독교와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상승시키며, 사회개혁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 WWCTU의 야망이다. 이 운동은 YWCA가 세계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도 일조하였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관계와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하였다. Ian Ty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880-193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1-10. 볼딘은 WWCTU가 당시 영국의 절제운동의 리더였던 소머셋(Henry Somerset)의 미국방문과 윌라드의 만남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레비트가 절제운동을 각 나라를 순방하며 씨를 뿌리고 다녔고, 또한 그 열매를 거두면서 나라마다 지역조직을 결성하였다.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141; Ruth Bordin, *Frances Willard*, 192.

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세계각지로 돌아다니며 절제운동을 퍼뜨렸다.

WCTU가 WWCTU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19세기 말 미국의 상황과 연계되어 있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후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수출을 늘리고, 1868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하고, 스페인과 전쟁(1898년)을 치르면서 대외 팽창을 감행하였다. 교회도 그 뒤를 따라 ‘프론티어 정신’으로 정부가 문을 연 국가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였다.<sup>100)</sup> 선교를 목표로 대학간의 YMCA운동, 학생자발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제 5번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 선교사후원운동도 이때를 기점으로 출발하였다. 알스트롬은 19세기 말을 “미국 개신교의 해외선교의 절정”을 이룬 시기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내지 선교에 힘을 기울였던 기독교는 해외 특히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sup>101)</sup> WCTU가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이때의 일이다.

최초의 내한 WWCTU선교사는 틴링(Christine I. Tinling)이었다. 그녀는 WWCTU의 과학절제교육국(Department of Scientific Temperance Instruction)에서 활동하다가 해외로 파송받았다. 틴링은 WWCTU 선교사로 세계를 순회하며 각 지역마다 절제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절제운동을 확산시켰던 틴링이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은 1919년의 일이었다. 한국에서 그녀의 활동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1923년까지 3차례 방문하면서 1923년 여자선교사 중심의 WWCTU외국지부와 1924년 한국 최초의 절제운동단체인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틴링의 내한으로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되었다.

### 3.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의 평가

미국의 절제운동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시대마다 절제운동의 성격이 다

---

100) Winthrop S. Hudson & John Corrigan, *Religion in America*, 305-11.

101)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vol. II, 343-5.

르고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구조적인 면에서 몇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절제운동이 복음주의자들이 주도한 제 2차 부흥운동과 깊은 관계성을 가진다. 그들의 신앙 열정으로 절제운동이 시작되었고 계승 발전되었다. 부흥운동을 주도한 피니는 개인의 의지와 도덕을 중시하였고, 신앙은 곧 개인의 의지의 결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신앙인들은 미국의 낙관주의와 개척정신과 맞물려서 적극적인 의지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교회에서조차 어느 정도 용인되었던 술의 해악을 목격한 목회자들은 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평신도들도 동참하면서 절제운동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두 번째는 절제운동에 여성참여가 점차 확대되다가 여성단체인 WCTU가 출현했다는 점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관에 입각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여성들은 그동안 집을 지키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러나 점차 수동적인 지킴이에서 적극적인 지킴이로 바뀌었다. 그들은 남편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밖으로 나가서 문제 자체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기도와 찬양과 거리행진을 함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술판매를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격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절제운동의 내용을 입법화시킴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취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문제의 원인이 술 자체라는데 인식하고, 나중에는 술 제조 및 판매자체를 금하도록 하는 볼스테르 법안을 입법화했다. 입법화 과정 속에서 이익집단과의 충돌과 정치인들과의 반발, 세수 증대를 위한 정부와의 마찰 등이 있었지만, 전국규모로 일어났던 절제운동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물론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문제들이 적지 않았지만, 절제운동가들은 음주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그 목표를 잃지 않았다.

네 번째로 절제운동은 초교파적인 운동이라는 점이다. 비록 초기에는 감리교를 중심으로 참여하였지만, 점차 다른 교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주류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회중교회, 장로교, 침례교 대부분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성결운동에 참여한 교회들도 이 대열에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때, 카톨릭은 구교 이민자들의 증가로 개신교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점차 절제운동에 참여하기에 이르렀

다. 안식교나 물몬교 같은 비복음적인 교회들도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섯 번째로 절제운동이 성결운동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19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 감리교회는 기존의 교단 형태를 답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강조했던 성결의 교리가 점차 퇴색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팔머를 중심으로 일어난 성결운동은 감리교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의 성결운동은 개인의 성결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변화된 개인이 사는 사회의 개혁에도 앞장섰다. 성결운동가들은 도시빈민이나 노예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를 개혁하고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특히 팔머의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은 윌라드는 자신의 종교적 열정을 사회개혁에서 열매 맺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절제운동의 형태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미국의 절제운동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했고, 그 안에서도 두 종류의 절제운동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그만큼 시대마다 절제운동의 성격이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제운동은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그로부터 성격이나 특징이 결정되었다. 초기 한국교회의 절제운동도 시대적인 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 B.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

일본 기독교의 절제운동은 미국 복음적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858년 미일통상조약에 따라 이듬해부터 여러 교파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를 선교의 매개로 하여 일본에 진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사업과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절제운동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초기 복음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은 국지적이었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본격적인 절제운동은 1886년 6월 WCTU 첫 번째 선교사였던 레비트(Mary Clement Leavitt)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sup>102)</sup> 레비트의 영향으로 일본에 동경부인교풍회가 세워졌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절

102) WCTU 첫 번째 선교사였던 레비트는 1884년 단지 35달러만 가지고 3년 동안 39,642마일을 다니며 절제운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하와이 호놀룰루 뉴질랜드 호주 일본 중국 태국 버마 인도 등을 다니며 절제회를 조직하고 절제운동의 불을 조성하였다. 1891년 만하더라

제운동이 체계적이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절제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가정의 중심인 남편이 공장에 빠지지 않도록 폐창운동을 벌였고, 일부일처를 입법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흐름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한계를 깨달은 여성들이 절제운동을 정권 획득과 여성운동으로 발전시켰던 미국의 것과 유사하였다.

## 1. 시대적인 상황

일본에서의 기독교는 1858년 7월 29일 미일통상조약에 따라, 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였다.<sup>103)</sup> 1868년 시작한 메이지(明治)정부는 이전의 막부시대처럼 기독교가 일본신을 모독하고 부모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금교령을 유지하였다. 비록 1873년 2월 금교령 철폐에 따라 기독교의 문이 열렸지만,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시각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sup>104)</sup> 따라서 일본 기독교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는 당시 상황을 타계할 목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절제운동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

---

도 43개국에 100,000마일을 여행하였다. Ruth Bordin, *Woman and Temperance*, 88.

103) 미일통상조약 제 8조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자신의 종교를 위하여 예배당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건물이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인도 일본인의 당궁을 훼손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불상을 파손할 수 없다. 서로는 상호 종교에 대하여 논쟁할 수 없다고 하였다.

104) 반대 이유는 첫째, 유학자 사이에서 기독교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나 자기 자신의 구원을 중심으로 놓는 반면, 천황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무시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천지창조나 아담설화는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일반 민중은 자신들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천황신앙을 맹신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다고 일본 주체를 잊어버린 자, 예수를 국왕보다 더 존경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가업이나 가족과 처자식을 배척하는 자라고 비난을 가했다. 셋째, 서구의 문명에 심취한 공리주의자들은 일본에서 기독교는 타종교에 대하여 관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넷째, 진화론과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던 도쿄대학의 학자들은 과학과 종교 사이의 모순을 밝히면서, 과학은 사실에 의해 논리적으로 검증되지만 기독교는 논리보다는 모두 신에게 돌리려는 생각만 한다고 비판하였다. 인간 창조도 진화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하나님의 창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東京: 新教出版社, 1987), 김수진 역, 『일본기독교사』(서울: 기독교문사, 1991), 38-42.

여, 국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분명히 하였다.<sup>105)</sup> 이들은 절제운동을 하나의 종교적인 운동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메이지유신이 들어서면서, 일본은 왕정복고의 부활을 꿈꾸며 천황을 정점으로 한 통일된 중앙집권적 정치를 꾀하였다.<sup>106)</sup> 천황제를 통하여 서구 문명을 추구한 일본은 부국강병을 추진하였다.<sup>107)</sup> 이때 일본이 부딪치는 문제는 종교문제였다. 천황제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천황보다 하나님을 더 위에 두는 기독교는 위협하였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 것은 기독교 국가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위장일 뿐이다.<sup>108)</sup> 그 틈바구니 속에서 초기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개종 이유가 종교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출세나, 가문의 부흥, 서구문명에 대한 배움 때문이었다.<sup>109)</sup> 개종이유가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105) 1901년 7월 일본 교풍회 목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모든 땅을 위하여” 이었다. 그러다 모든 땅이라는 보편적 의미가 1908년에는 나라를 위하여로 바뀌었다. WWCTU의 “신과 가정과 만국을 위하여”라는 모토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풍회는 일본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교풍회에 애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Rumi Yasutake, *"Transnational Women's Activism: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Japan and Beyond, 1858-1920"*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8), 206-57; 井瀨梶之助, 『日本基督教會』(東京: 東方書院, 昭和 9年), 151.

106)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송이랑은 일본의 천황제가 3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1) 아시아적 전제주의 형태로 고대천황제 부활요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2)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권력의 결합으로 성립된 천황제도는 지배계급과 권력의 원천보다도 신적 권위자로서의 의미가 더 컸었다. 3) 봉건영주제의 해체나 약화를 전제하기보다는 부르주아 군주제 형태로 나타나는 절대군주제이다. 송이랑, 『日帝의 韓國 植民地統治 方式』(서울: 세종출판사, 1999), 33-4.

107) 윤혜원,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성격』(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53.

108) 예를 들어 1889년 2월 일본제국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제 28조에 일본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배반하지 않는 한 개신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또한 천황이 주는 은혜의 결과로 보았다. 1891년 발표한 교육칙어도, 천황을 신격화하고 충성심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99년 8월에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학교가 외국선교사에 의해 운영되었음에도 공개적인 종교교육과 예배의식을 금하였다.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東京: 新教出版社, 1987), 107-28;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서양의 이념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는 측과 기존의 관념을 지키자고 하는 측과의 갈등과,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와의 갈등, 기독교와 불교의 종교적인 갈등도 근처에 깔려있었다. Notto R. Thelle,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Japan: From Conflict to Dialogue, 1854-1899*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53-5.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구마모토지역의 경우를 보면, 1871년 구마모토교양학교에서 제인스(L. L. Janes, 1838-1909) 대위를 교수로 초청하여 5년간 계약교수로 재직하였다. 제인스는 3년간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그 후 뜻있는 사람들에게 한주에 한 번씩 성경을 강의하였다. 처음엔 14-5명이 참석했으나, 1년 정도 지나서 50-60명의 사람들 모이게 되었다. 1876년 6월 30일 35명은 화강산에 올라가 ‘봉교취의서’(奉敎趣意書)를 낭독하고 세례를 받았다.<sup>110)</sup> 이러한 복음적인 회심은 선교사들이 거주하거나 초청되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에서 계속 일어났다. 회심한 사람들은 미국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선교사들로부터 보수적인 엄격한 윤리를 전수 받았다. 이것은 개신교의 생활 윤리로 남녀의 순결, 일부 일처제, 폐창운동, 금주, 금연이라는 절제운동으로 이어졌다.

메이지 시대의 여성은 두 가지 존경 대상이 있었다. 하나는 천황이고 다른 하나는 부권사회에서의 아버지로, 여성은 이들에게 순복해야 했다. 남성은 군사적 의무를 다함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은 군사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국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했다. 국가의 임무는 단지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을 시민으로서 대우하기보단 단지 일하는 노동자로 인식한 결과였다.<sup>111)</sup> 일본의 교육개방은 여성들이

109) 일본인의 입교 동기는, 먼저 개인의 입신을 위해서였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 입교해서 기독교 지도자가 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상실했던 막부시대의 무사계급 출신이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서양학에 대한 관심을 두고 선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던 동기는 생활의 안정과 영달, 가문의 부흥이었다. 두 번째는 서구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지식과 교육적인 식견을 지닌 기독교인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선교사들의 식견이나 인격에 감동하여 입교하였다. 그들의 유교윤리를 기독교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 43-5;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史論』(東京: 教文館新, 1987), 서정민 역 『일본기독교의 사론적 이해』(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48. 도히 아키오의 이 책은 원본과는 달리 몇 편의 글을 빼고 새로운 글을 추가하여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110) 이들이 낭독한 내용 중에 “우리가 배운 기독교를 배우면서 깨달은바가 있어 계속 공부하니 더욱 더 기쁨을 참을 수 없다. 이 가르침을 황국에 펼쳐 백성의 몽매함을 깨우치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하여 문제를 삼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 아프다고 하였다. 隅谷三喜男, 『近代日本の形成とキリスト教』(東京: 新教出版社, 1977), 19.

111) Vera Makie, *Feminism in Mordern Japan: Citizenship, Embodiment and Sexual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6; 일본 여성의 위치를 자

자신의 위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호기였다. 요코하마의 경우, 개항과 함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나 방랑자들이 많았다. 이들 때문에 생긴 혼혈아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방황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존 선교사들이 여성 선교사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112)</sup> 선교사들은 여성들에게 교양과 생활기술을 가르쳐주고자 많은 여학교를 세웠다. 1863년부터 1890년까지 총 66개교를 세워진 중에 기독교계 여학교는 43개교, 남학교는 23개교가 될 정도로 여성교육에 힘썼다.<sup>113)</sup> 교육으로 눈을 뜬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공창제도 폐지, 금주 금연운동, 여성인권 등에 눈을 돌렸다.<sup>114)</sup>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들은 절제운동 단체를 만들고,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면서 기독교가 바탕이 된 절제운동을 확산시켰다. 또한 공창폐지, 청소년에 대한 금주 금연법 등을 입법화시키면서 그 힘을 증가시켰다.

## 2. 일본 절제운동의 조직과 활동

### a. 금주회

---

세히 알려면, 맥키의 *Creating Socialist Women in Japan: Gender, Labour and Activism, 1900-1937*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을 참조하라.

112) 1870년 요코하마에 들어간 프룬(M Pryun), 피어슨(L. H. Pierson)과 크로스비(J. N. Crosby)는 미국부인전도협회에서 파송받아 일본으로 들어간 선교사였다 이들이 일본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일본의 첫 번째 여성 선교사이며 미국화란개혁파 소속 키터(Kidder), 장로교 소속 캐로더스부인의 요청 때문이었다. 村上信彦, 『明治女性史上』 (東京: 理論社, 1969), 332-3.

113) 자세한 것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基督教學校教育同盟 編, 『日本におけるキリスト教學校教育の現状』 (東京: 基督教學校教育同盟, 1961), 119-26; 小澤三朗日, 『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研究』 (東京: 東海文學出版會, 1964), 24-7.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졌지만, 선교사가 직접 세운 학교, 일본 기독교인이 선교사 후원으로 세워진 학교(선교사로부터 독립 운영)와 일본 기독교인이 독자적으로 세운 학교(선교사와 무관)로 구분된다.

114) 일본의 여성운동은 미국의 WCTU와 깊은 관계가 있다. 조직이 더욱 확대되면서, 적십자와 구세군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성차별을 개혁하는데 관심을 가졌고, 매춘으로 인한 희생자들과 알코올남용으로 인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였다. Vera Makie, *Feminism in Mordern Japan*, 27-8.

기독교 이전부터 일본은 절제생활을 중시했었다. 일본이 근대화되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상 이유로 금주하였다.<sup>115)</sup> 그러나 본격적인 금주는 복음주의자였던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 때문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개인의 회심을 중시했고, 성서에 대한 의심없는 신앙, 도덕적인 원칙 강조 등을 중시하였다.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일부일처주의를 강조했고, 주일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술과 담배를 멀리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기독교화 내지는 서양화되려면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sup>116)</sup> 따라서 일본의 절제운동은 기독교가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주는 메이지 시대에 급속한 증가를 가지고 왔다. 술 소비가 증가한 첫 번째 이유는 생산방법이 향상되었고, 아시아로부터 값싼 쌀이 수입으로 생산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술을 세수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양조회사를 대기업화시켰다. 두 번째는 도심 노동자들의 증가와 함께 술 소비도 증가하였다. 이때가 일본 산업이 미국에 개항한 이래 정부의 비호아래 확립되고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때였다.<sup>117)</sup> 세 번째 이유는 술이 더욱 보편화되고 대중적이 되어 매너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거절하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 흐름 때문에 술은 계속 증가되었다.<sup>118)</sup>

115) 澤柳政太郎, 『禁酒讀本』(東京: 丙午出版社, 198), 133-42. 저자는 일본에서의 금주운동의 역사를 태고시대의 음주관, 불교의 금주관과 함께 다루었다.

116) 당시 일본에는 유교, 불교, 신도(神道)라는 세 종교가 있었다. 유교는 막부시대에 지배 계급이었던 무사들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고, 그들에게 엄격한 생활과 고매한 기풍을 지니게 해주었다고 한다. 반면 불교는 일반대중에게 위안을 제공하였다. 일본 고유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도는 신비성과 개인숭배사상으로 범신론적인 수호신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이 세 종교는 기독교에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魚木忠一은 일본의 기독교의 성격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인 불교와 유교와 신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일본 기독교는 정신주의와 국민의식과 구속사상이 심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 기독교의 독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日本基督教の精神的傳統』, 現代基督教叢書 第1編(東京: 基督教思想叢書刊行會, 昭和16); 하우어스(John F. Howes)는 절제운동을 기존 종교와 연관시키면서, 일본기독교가 절제운동에 쉽게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적 배경 때문이라고 하였다. "Japanese Christians and American Missionaries," in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ed. Marius B. Jans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344-6.

117) 송이랑, 『日帝의 韓國 植民地統治 方式』, 26.

118) 1886년 시작된 맥주도 1911년에는 10배로 증가하였다. Elizabeth A. Dorn, "FOR GOD, HOME, AND COUNTRY", 168-72.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범주 내에서 금주의 필요성을 교육시키면서 몸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개인의 회심을 중시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준수하며, 도덕적인 원칙을 지켰다. 요코하마의 회중교회 선교사인 브라운(N. Brown)으로부터 복음을 접하여 개종했던 이부카 가지노스케(井藩梶之助)는 자신의 저서 『日本基督敎會』에서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여준 사역은 사회사업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복음전파와 함께 사회사업을 했으며, 둘 사이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금주운동이라고 하였다. 미국화란개혁과 소속 선교사 발라(J. H. Ballagh)가 1861년 요코하마에 입국해서 한 사역이 1870년대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 당시 기독교인은 세례를 받은 후에 금주를 당연히 실천해야 했다. 발라는 이들을 중심으로 1871년에 금주회(禁酒會)를 발족하였다.<sup>119)</sup> 삿포로농학교에서도 학생들은 금주를 기본정신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지무라 간조(内村監三)가 기도교로의 개종과 신앙생활과 신학과정을 자서전적으로 기술한 *How I Become a Christian*에서 삿포로농학교의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학교에서는 철저한 금주를 요구했고, 모든 학생들은 금주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했다.<sup>120)</sup> 그러나 강요된 금주회를 통한 금주운동이 지속성이나 체계성에서 문제를 노출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였고,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절제운동이 요구되었다.

#### b. 동경부인교풍회

일본의 기독교 절제운동이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의 WCTU의 영향 때문이었다. 1883년 전국 규모의 WCTU모임에서 윌라드는 WWCTU의 설립을 레비트<sup>121)</sup>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레비트에게 WCTU를 위한 전적인 헌신과 여성운동

119) 井藩梶之助, 『日本基督敎會』, 11-6, 137-8.

120) 内村監三, *How I Become a Christian*는 1895년 동경에서 영어로 출판되었고 그 뒤에 독일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덴마크어, 불어로 번역되었고 그 후에 일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어로는 『우찌무라 간조 회심기』라는 제목 하에 양혜원이 번역하였고 홍성사(2001)에서 출판하였다.

121) 뉴잉글랜드 침례교 목사 딸이었던 레비트는 부유했던 남편이 심한 낭비벽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 윌라드를 만나면서부터 절제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을 위하여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처음에 거절했던 레비트는 그 해 말 WWCTU 구성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sup>122)</sup> 그녀는 1884년 WWCTU 설립을 위하여 단지 35달러만 손에 쥔 채 어떤 재정적인 후원도 없이 여행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절제운동 첫 번째 선교사로 발을 내딛었다.<sup>123)</sup>

WCTU의 첫 번째 선교사 레비트는 하와이와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한 뒤에 1886년 6월 1일 오전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레비트는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중국으로 떠날 10월 중순까지 선교여행을 강행하였다. 강연 내용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음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음주의 경제적·학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음주로 인한 타락이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sup>124)</sup>

1886년 7월 17일 레비트는 절제운동에 적극적이었던 『女學 雜誌』주관으로 열린 강연에서 “과음 때문에 생긴 가정의 부도덕에서 여성의 의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곳에 참여하여 강연을 들었던 600여명은 돌아가고 30여명이 남았다. 레비트는 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본 방문 목적을 일본에 미국절제운동단체와 같은 절제운동 단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25)</sup>

7월 24일 메이지여학교에서 준비위원으로 14명이 모였는데 이와모토 요시하루(巖本善治)<sup>126)</sup>와 츠다 센(津田仙)<sup>127)</sup>이 여기에 참석하였다. 『女學 雜誌』는 동경부인교풍

122) Ruth Bordin, *Frances Willard*, 191-2.

123) 당시 WCTU는 초기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윌라드조차도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조달할 정도였고, 대부분의 WCTU 선교사들도 활동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선교지로 가면 그곳의 교파선교사들의 여러 후원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었다. Ian Ty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37-8, 108.

124) 레비트의 강연 주제는 절제와 일부일처제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일본 시민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구절을 이용하면서 절제를 강조했다. 그녀의 강연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종교적 언어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은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Mary Clement Leavitt, *Report Made to the First Convention of the World's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Held in Boston, U. S. A., Nov. 10-19, 1891* (Boston: Alfred Mudge & Son, 1891), 27-8. Elizabeth A. Dorn, "FOR GOD, HOME, AND COUNTRY":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and Reform Efforts in Meiji Japan* (Ph.D. diss., Iowa University 2003, 2), 32에서 재인용.

125)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東京: ドメス出版, 1986), 35-6.

회 창립과정을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부인교풍회의 규약을 함께 실었다. 이와모토를 중심으로 한 동경부인교풍회 설립은 1886년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열렸고 5시 30분에 폐회되었다. 설립규칙에 보면, 설립목적을 “폐풍(弊風)을 바로잡아 도덕을 이루고 음주깍연을 금하여 부인의 품위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하였다.<sup>128)</sup>

동경부인교풍회는 금주운동을 일부일처주의와 폐창운동으로 확장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을 목표로 삼았다.<sup>129)</sup> 교풍회는 먼저 일부일처주의를 요구하는 8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원로원에 제출하였다. 교풍회는 이것을 ‘일부일처의 건백서’(一夫一妻の建白書)라 불렀는데, 그 내용이 『女學雜誌』에 실렸다. 일부일처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운동을 벌였던 교풍회는 형법 제 252조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하였다.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간통죄로 잡히면, 남녀 동등한 처벌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130)</sup> 동경부인교풍회에서 중점사업으로 두었던 다른 하나는 폐창(廢娼)운동이었다. 폐창문제는 여성의 인권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매춘문제가 대두가 된 것은 1872년 ‘마리아 루즈호(the Maria Luz)사건’ 때문이었다.<sup>131)</sup>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매춘부 매

126) 이와모토는 츠다 센에게 농업기술을 배우는 동안 신앙과 함께 절제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녀는 메이지여학교에서 수학하고, 『女學雜誌』에서 일하였다. 1903년 『婦人之友』를 창간하고 1921년에는 自由學園을 설립하였던 이와모토는 기독교 신앙과 합리적 생활주의를 강조하며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윤혜원,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성격』, 310.

127) 1837년 무사계급가문 출신인 츠다 센은 정부의 허락을 받고 독일어와 영어를 공부하여, 후에 정부 통역관으로 일하였다. 또한 이와모토가 잠시 머무르면서 공부하였던 농업학교를 열고 운영하였다. 1873년 비엔나 세계박람회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성경을 접할 기회를 잡았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기독교신앙을 더욱 배우고 싶어서 감리교선교회 선교사인 소퍼(Julius Soper)를 찾았다. 소퍼는 몇 개월 후에 세례를 주고 개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1880년대 절제운동 협회를 세우는데 츠다 센이 돕도록 하였고, 동경 WCTU를 위하여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협력하였다. Barbara Rose, *Tsuda Umeko and Women's Education in Ja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12-26.

128) 『女學雜誌』 44號(12, 1886).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37-40 참조.

129)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23.

130) “倫理の基の要旨,” 『女學雜誌』 161號,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62-5.

131) 페루의 배였던 마리아 루즈호에 중국인 하급노동자 230명이 타고 있었다. 기후가 나쁜 관계로 요코하마에 정박하였다. 그 때 한 사람이 옆에 정박하고 있던 영국함대로 도망가서, 페루인에 의해 자신이 남아메리카의 노예로 팔리게 될 것을 알렸다. 영국의 요청에 따라 배를 억류하고 모든 중국인들을 풀어 줬다. 이에 페루가 재판을 걸면서 매춘부는 그 소유자의 소유라는 문서를 증거물로 채택하였다. 이에 일본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그해 10월 초

매에 대한 금지법인 <대좌부도세규칙>(貸座敷渡世規則)을 발표하였다.<sup>132)</sup> 인신매매하는 자는 종신형에 처한다는 이법이 공포되자 매춘부를 소유하고 있던 업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교풍회는 매음문제가 미풍에 반하기 때문에 영업하는 자를 구속하고 매음자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33)</sup>

교풍회는 1888년부터 위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초대 의장인 야지마 가지코(朱鳴楯子)와 서기인 사사키(佐佐木) 사이에 생긴 갈등이다.<sup>134)</sup> 개인적이고 이념적인 차이로 생긴 갈등으로 회원들이 급감하면서 교풍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갖는 일본제국헌법(1889. 2)과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천황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교육칙어(1890. 10)로 기독교인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었다.<sup>135)</sup> 분열된 절제운동을 추스르고,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절제운동 단체들의 규합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1893년 설립된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가 그 일을 담당했다.

모든 매춘부를 풀어놓아주는 법을 만들었다. 그 법에 따라 매춘부, 기생과 계약한 노예들도 사고 팔수 없다. 윤혜원,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성격』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312-6.

132) 藤野豊, “廢娼と 存娼; その相克と 協調,” 『大正デモクラシー-天皇制・キリスト教』 (東京: 新教出版社, 2001), 134.

133) “公娼全廢の建議,” 『東京婦人矯風雜誌』 32號,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71-4.

134) 사사키보다 나이가 20세나 많은 야지마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을 이름 없이 보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무사계급 출신의 사람과 결혼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지만, 남편이 술 마신 뒤의 행동에는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녀는 십년 뒤에 자기 본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자르며 다시금 남편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 뒤 병든 동생을 간호하기 위해 동경에 갔다가 장로교 선교사 트루(Maria True)를 만났다. 트루는 그녀의 열심을 보고 채용했다. 반면 사사키는 무사계급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으로부터 재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용기를 받으면서 성장했다. 또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고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남성의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시내 한복판을 달릴 정도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개혁신교회 학교에서 수학한 사사키는 성경에서 개인의 성결과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배웠다. 야지마가 복종적인 여성상 또는 좋은 아내되기 위한 훈련을 중시하였다면, 사사키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존중받아야 되며 사회악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Elizabeth A. Dorn, “FOR GOD, HOME, AND COUNTRY”, 60-6.

135)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 107-8.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에 반하는 어떤 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우찌무라 간조의 불경건 사건인데, 천황의 서명이 들어 있는 교육칙어를 정성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일고등중학교 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자세한 것은 小澤三郎, 『内村鑑三不敬事件』 (東京: 新教出版社, 1961) 참조하라.

c.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日本基督教婦人矯風會) 조직과 발전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에는 크게 두 종류의 흐름이 있었다. 여성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와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금주회가 그것이다. 교풍회는 금주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여성인권과 폐창운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동시에 지부별로는 직업, 상담, 육아보호 등 일반 여성이 겪는 실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반면 금주회는 주로 금주에 중심을 두었다. 금주회는 1927년 황주주일학교연합회가 5일간 금주운동을 전개할 때 후원한 단체이기도 하다.

교풍회는 금주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일부일처제와 폐창운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외부적인 문제였던 제국헌법과 교육칙어로 기독교가 감소하는 것을 목격했던 교풍회는 내부적인 문제인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점차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남성 절제운동가들은 WWCTU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WWCTU는 절제운동 사역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실천할 단체를 세우고자 일본에 웨스트(Mary Allen West)를 파송하였다.<sup>136)</sup> 웨스트가 강의하는 내용은 주로, 알코올과 담배가 신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로 인해 비기독교인들도 접근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웨스트는 처음에는 절제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녀는 절제를 복음 전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절제가 성령의 열매중의 하나라는 사실과 절제를 위한 사역은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일본인의 양심을 자극했다.<sup>137)</sup> 웨스트는 절제운동에 대한 강연과 함께 분열된 절제운동 단체들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1893년 2월 4일, 츠다 센의 아들 집에 츠다를 포함한 5명이 모여 전국 규모의 절제운동단체 조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나누었다. 이들은 “미국은 미국을 대표하는 부인교풍회가 있고, 영국에는 영국전체를 대표하는 부인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지역

136) WWCTU는 선교사의 선발과 파송에 있어 조직과 관리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윌라드의 절친한 친구인 웨스트는 WCTU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세울 때 함께 참여한 경험이 많은 가장 적합한 자였다. Ian Ty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84-5.

137) *Union Signal*, 22 December 1892, 5. Elizabeth A. Dorn, "FOR GOD, HOME, AND COUNTRY", 93에서 재인용.

교풍회가 있는데 일본에는 없다. 따라서 일본전국부인동맹회를 조직하려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하였다.<sup>138)</sup> 이들은 두 달 뒤인 4월 3일 레이난자가(靈南坂)교회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sup>139)</sup>

WWCTU의 “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만국을 위하여”라는 표어를 일본기독교 부인교풍회는 “만국의 금주, 만국의 순결, 만국의 평화”로 바꾸어 사용하였다.<sup>140)</sup> 이것은 폭넓은 여성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양한 목표를 위하여 회원들은 교회에 성례전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제출에 참여했고, 국가기념식이나 대중적인 축제에서 기녀(geisha)의 참여를 반대하였으며, 매춘여성이나 빈곤한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여러 기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꽃과 성경카드를 병원에 나누어 주고, 어머니들에게 어린이를 돌볼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일부일처제 등을 개정할 것을 매년 청원하였다.<sup>141)</sup> 이들의 주요활동은 주조전폐, 공장전폐,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행복을 기초로 한 가정과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었다.<sup>142)</sup> 부인교풍회의 사업은 금주금연운동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추구하는 데로 까지 나갔다.

일본교풍회 활동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은 폐창운동이었다. 폐창운동은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된 운동이기도 하다. 최초의 폐창운동은 1889년 11월 30명의 서명을 받아 <공창철폐건의서>를 군마현(郡馬懸)에 제출하였다. 일부 의원들과 관련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킴<sup>143)</sup>으로 각지에서 폐창에 관련된 연설회가 개최되었다. 본격

138)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93.

139)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 먼저 기도와 시편 146편 낭독과 여러 명의 연설과 임원 선거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시편 146편 읽기인데, 그것은 미국 WCTU 설립에 계기가 되었던 토마슨이 절제운동에 참여할 때, 시편 146편을 읽고 결정했던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 시편 146편 낭독은 WCTU의 활동을 위한 다짐처럼 사용되었다. Ian Ty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16-7.

140) 井藩梶之助, 『日本基督教會』, 150-51.

141) Elizabeth A. Dorn, "FOR GOD, HOME, AND COUNTRY", 2.

142) 日本基督教會同盟 編, 『基督教年鑑』 (東京: 日本基督教會同盟, 1919), 44.

143) 道家齊一郎, 『賣春婦論考; 賣笑の沿革と現況』 (東京: 史誌出版社, 1928), 45-54. 특히 이 책은 매춘의 역사를 먼저 다루면서明治와 대정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매춘의 정책이 변화했는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정책변화 과정에서의 각종청원서와 정부의 반응을 원본 그대로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의 매춘부와 공창의 통계를 자세하게 나열하여 독자로 하여금 일본 공창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거의 650쪽에 달하는 분량

적인 것은 1900년부터였고, 일본교풍회가 주관하는 폐창과 관련된 연설회가 여러 곳에서 열렸다. 연설은 주로 이와모토가 맡았다.<sup>144)</sup> 이와모토는 레비트 영향을 받고, 즈다 센과 여성교풍회 설립에 참여한 인물이다.

일본여성교풍회는 힘을 규합하기 위하여 1895년 세워진 구세군과 손을 잡고<sup>145)</sup>, 1922년 폐창을 위해 세워진 광청회(廓淸會)와 함께 폐창운동을 벌여 나갔다. 이들은 창기(娼妓)는 ‘추업부’(醜業婦)라 부르고, 창부(娼婦)는 모성에 반대되며 부부관계를 파괴하며 성병을 옮기는 원흉으로 보았다.<sup>146)</sup>

일본 정부는 1921년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규약>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하나는 이 조약을 식민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는 매춘 금지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내린다는 것이다. 그것에 기초하여 1922년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이 시행되자 여러 폐창운동단체와 일본교풍회는 힘을 합하여 일본 정부의 조건부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국제조약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sup>147)</sup>

공창제도 폐지를 매년 청원했던 교풍회는 자애관(慈愛官)을 운영하였다. 자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비천한 여성을 교육시켜 자활을 돕도록 하였다.<sup>148)</sup> 이들은

이다.

144)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66-7.

145) 일본 구세군 사령관 야마무로 군페이(山室軍平)는 폐창 금주금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공창전폐론』(東京: 警醒社書店, 1911)에서 “일본의 유곽(遊廓)은 ... 인신매매의 악풍을 드러내고 어린소녀는 ... 비참한 가운데 생애를 보내야 하고 허가받은 노비시장이 널려있습니다. 우리 일본국민은 ... 추악한 인신매매제도를 전폐하고 사실상 노예해방을 단행해야합니다”고 하면서 폐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연론이 이 운동에 참여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실패는 세계최악이 아니라 가장 최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서론을 참조하라.

146) 藤野豊, “廢娼と 存娼; その相克と 協調,” 135.

147)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467-72; 교풍회는 구세군과는 1895년에, 불교계와는 1908년에 손을 잡고 폐창동맹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모여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일본의 공창제도 철폐, 둘째는 공창제도에 대한 제반 조사, 셋째는 자유폐업에 대한 법률적인 조사 등이다. 또한 폐창운동을 위해 설립된 광청회(廓淸會, 1922)와 함께 부현(府懸)별 공창폐지운동, 전국폐창주의선전운동, 의회공창폐지운동을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 井瀋梶之助, 『日本基督教會』, 165-70.

148) 자애관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하라. 『婦人矯風雜誌』 8號(1894. 6. 2)에는 여자 자애관 설립취의서가 실려 있다. 기록에 따르면 가난한 여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구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 술집에 종사했던 여성이 그 일로부터 벗어나 돌아오면 그들에게 적합한 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재적 매춘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매춘을 그만두고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자 세운 것이다.

폐창에 앞장섰던 일본교풍회는 또한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1922년 여성의 집단적인 행동이나 정치집회 참여 및 구성을 불허한다는 <대중안정질서법> 제 5조항에 여성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여기에 일본교풍회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단체들과 연합하여 여성의 정당참여, 투표, 집단행동을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sup>149)</sup> 이듬해 열린 교풍회 전국대회에서 5월에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방침을 정하는 등 현실정치에 다가섰다.<sup>150)</sup> 교풍회 회원들은 남성과 여성의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나갔다.

부인교풍회의 활동을 보면, 금주금연, 폐창운동, 일부일처제, 여성의 참정권문제에 전력을 쏟으면서도, 지역현안 문제인 여아보호, 부인구제, 부인숙박, 개인상담, 직업상담 등에도 힘을 기울였다. 다이판(大阪) 지부의 경우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소개, 개인상담을 주로 하였고, 요코하마 지부도 크게 다를 바 없다.<sup>151)</sup> 이해보건데 부인교풍회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활동과 함께 각 지역에서 여성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교풍회가 여성인권차원에서 폐창운동과 참정권에 힘을 기울였다면, 금주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그 열정을 쏟았다. 먼저 네모토조(根本正)의 주도하에 1899년 <미성년자유희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sup>152)</sup> 그는 계속해서 미성년자음주금지법도 계속 청원

---

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모두를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여성교풍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하였다; 『婦人新報』 1929년 6월호에는 자애관의 규칙이 실려 있는데, 그 목적이 하층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149) 계속된 청원으로 1931년 하원에서는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에선 부결되었다. Vera Makie, *Feminism in Modern Japan*, 130-2.

150) 이듬해 열린 교풍회 전국대회에서 5월에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다섯 가지의 방침을 정하였다. 첫째 모든 후보에게 폐창과 금주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고 왕복 엽서를 동봉한다. 둘째 장소를 정하고 연설회를 개최한다. 셋째 정당정파를 초월한다. 넷째 광청회 금주회 폐창기성동맹회 기독교단체 남녀청년회 등은 정의실현을 위한 병사로 투표한다. 다섯째 회원 유권자 이름 앞에 후보자의 명단을 써 붙인다. 『婦人新報』 (1927. 5),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450-2.

151) 日本基督教會同盟 編, 『基督教年鑑』 (東京: 日本基督教會同盟, 1943), 336-50.

152) 日本キリスト教 婦人教會 編, 『禁煙運動の 歴史』 (東京: 日本キリスト教婦人教會, 1980).

하였지만 관련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대부분 부유한 지역 유지였던 이들은 육체노동자들에게 술이 필요하며 금주주장은 단지 종교적 도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매도하였다. 이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22년 뒤에나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이 통과되었다.<sup>153)</sup> 금주회는 여세를 몰아 1925년 금주 나이를 20세에서 25세로 올리자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음주금지법개정을 위한 청원을 하였다.<sup>154)</sup>

일본의 절제운동은 크게 금주운동과 여성의 인권운동으로 구분된다. 금주운동은 주로 금주회와 금주연맹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다 1896년부터 부인교풍회와 금주활동을 연합하며 적지 않은 열매를 거두었다. 여성이 주축이 된 부인교풍회는 여성의 인권을 역설하면서, 남녀의 순결, 일부일처제, 매춘문제, 참정권 등을 다루었다. 그들은 매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본이 세계국가로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 3.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의 평가

일본 기독교절제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는 점이다. 초기 일본 기독교는 선교사가 머무르거나 사역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sup>155)</sup> 복음을 접했던 일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색채를 분명히 밝혔다. 요코하마밴드의 이부카가 그 예이다. 그는 자신이 저술한 『日本基督教會』에서, 금주운동을 “복음적” 운동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서 금주운동은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의 독점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sup>156)</sup> 일본 초기 기독교는 당시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대하여 힘을 규합할 필요성을 가졌고, 주요한 사업에 협

153)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395-400; 네모또조의 헌신으로 1922년 3월 25일 중의원과 귀족원에 청소년음주금지법이 통과되었다. 동년 4월 1일부터 법이 집행되었다. 이 법을 통과 시킨 목적을 “국가가 청소년의 심신을 세워주고, 순결을 보호하며, 건강을 좋아지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바 국가가 부흥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에서 청소년이라고 할 때 나이는 20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澤柳政太郎, 『禁酒讀本』, 154-8.

154) 『婦人新報』(1927년 2월),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440-50.

155) 그 중에서 요코하마, 구마모토, 삿포로 세 지역을 중심으로 요코하마밴드 구마모토밴드 삿포로밴드가 형성되었고, 여기에서 많은 초기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156) 井瀨梶之助, 『日本基督教會』, 145.

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1893년 <일본기독교도복음동맹>(日本基督教徒福音同盟)을 조직하였다. 이 복음동맹회의 기본은 “복음주의”라고 칭하는 제 교회가 연합을 목표로 한 것이다.<sup>157)</sup> 절제운동가들이 여기에 소속된 선교회나 교단에 몸을 담고 있었다. 복음을 통하여 개인의 회심과 함께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음주의 흐름은 일본 기독교절제운동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 기독교절제운동은 복음적인 초교파적인 연합운동이었다. 일본의 금주운동은 WCTU선교사 레비트의 일본방문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전부터 선교사 개인이 금주회를 결성하여 금주운동을 펼쳤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것에 불과 하였다. 레비트의 방문을 계기로 구마모토밴드, 요코하마밴드, 삿포로밴드에서 금주회가 결성되었다. WWCTU선교사 웨스트와 패리쉬(Clara Parish)의 방문과 사역에서도 초교파적인 지지를 받았다. 1922년 세워진 <일본기독교연맹>(日本基督教聯盟)은 여러 교파와 선교회와 기독교계통의 단체들이 망라되었다. 이 연맹은 기독교 여러 단체들을 연합하여 상호교류하고 사업을 같이하며, 공동이해와 관련된 종교적 도덕적 문제에 같은 입장을 취하며, 해외 기독교단체와 함께 교류를 목적으로 세워졌다.<sup>158)</sup> 이 연맹에 가입한 교풍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세 번째로 일본 기독교절제운동은 여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운동이었다. 일본교풍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여성운동은 남녀순결과 일부일처제와 매춘문제 등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로 남녀동등을 주장하고, 공창폐지로 여성피해를 근절하고, 술과 담배로부터 청소년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물론 각 지부 교풍회는 개인상담, 직업안내나 유아돌보기 등의 일도 하였지만, 규모가 큰 사회적인 문제에는 공동 대처하였다. 또한 여성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여성이 스스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sup>159)</sup>

네 번째로 일본의 기독교절제운동은 하나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절제운동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입법화 과정으로 금주, 폐창, 청소년 보호, 여성인권 등이 지속되

157)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 155-6.

158)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세워진 연맹은 상대방의 신학이나 신조, 정치에 간섭하거나 강제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였다. 土肥昭夫,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 226-8.

159) Vera Makie, *Feminism in Modern Japan*, 37-8.

길 기대하였다. 물론 주조공장과 판매회사의 회유와 방해, 공창관련 업주들의 난폭한 대응, 남녀차별금지와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정치 관료들의 비토가 있었다. 그럼에도 1899년 <미성년자깁연금지법>, 1922년 <미성년자음주금지법>, 1900년 18세 이하는 매춘할 수 없다는 <창기취체규칙>(娼妓取締規則) 등을 얻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각 현마다 있는 폐창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함으로 지속적인 폐창 감소를 가져왔다.

### III. 초기 기독교 절제운동(1884-1909년)

기독교를 한국에 처음으로 뿌리내렸던, 복음주의자들이었던 미국 선교사들은 신앙적인 열정과 엄격한 도덕률을 갖고 있었다. 19세기 말 부흥운동과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그들은 미국절제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기독교는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악습과 폐습에 대치하게 되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도덕률을 견지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은 “신앙의 겉과 속을 일치”<sup>160)</sup>시키기 위하여 한국 교인들에게 동일한 순결과 엄격성을 요구하였다. 선교사들의 일련의 요구는 교회 안에서 절제운동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이해하려면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절제운동의 주체였던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영향 받았던 미국 선교사들의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일제의 한국에 대한 태도도 기독교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편적으로 복음 전파는 정복자의 힘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경향과 달랐다. 복음은 미국에 의해 전파되었으나, 정치와 경제는 일제에 의해 주도되었다. 미국 선교사의 성향과 일제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초기 한국 기독교 성격을 만들었다.

1884-1909년의 절제운동 대상은 한국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폐습과 연관되었다. 그 중에서 본 논문은 음주, 흡연, 아편, 축첩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시기의 절제운동은 거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교회 내의 절제운동은 개인의 회심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또한 조직된 교회가 절제운동과 관련된 제도나 규범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 A. 기독교 절제운동의 배경

본 장에서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절제운동의 초기 형태를 다

---

160)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15.

루었다. 초기 절제운동의 범위를, 필자는 1910년 한일합방 전까지로 한정하였다. 한일합방을 시점으로 절제운동의 형태가 한국인의 악습과 폐단으로부터 일제와의 관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1884년부터 1909년까지를 범위로 정하고 절제운동의 초기 형태를 다루고자 한다.

전개 방법은 먼저 미국정부 정책과 선교사들의 태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서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선교사가 기독교를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절제운동을 전개했는지 연구하였다.

### 1.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성향

19세기 말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팽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는 미국이 대 아메리카(the Great America)를 구상하면서 해외진출을 기도하던 시기였다. 1860년대 남북전쟁을 치른 미국은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구입사업을 완결하는 한편 국내 산업화를 서두르고 해외수출을 진작시켰다. 미국은 당시 필리핀 군도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과 전쟁(1898, Spanish-American War)을 일으키는 등 대외팽창을 감행하였다.<sup>161)</sup> 19세기 초에 이미 지금의 영토 2/3이상을 차지한 미국은 계속해서 서부로의 이주를 계속하면서 태평양연안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1875년 아시아로 향하는 중간 거점지역인 하와이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태평양연안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국의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고, 일본은 길목에 있는 석탄 공급지였다.<sup>162)</sup>

경제적 목적으로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미국의 팽창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은 매우

161)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174.

162) 태평양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하이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를 개척해야 해야 했다. 미국에서 생각한 항로는 샌프란시스코-> 하와이(석탄 공급기지)-> 일본-> 상하이로 연결되는 항로였다. 또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5년 기존의 동인도 및 중국해 함대가 아시아 함대로의 확대개편으로 나타났다.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27-37.

우호적이었다. 스페인과의 전쟁 후 필리핀제도(Philippine Islands)와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 영토를 소유하겠다는 미국정부의 결정을 미국 개신교회는 지지하였다. 외국선교에 적극적이었던 교회는 이것을 인도주의적인 것이며 복음화의 문을 여는 섭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이를 “공의의 제국주의”라고 주장하였다.<sup>163)</sup> 더 나아가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였던 엘린우드(F. F. Ellinwood)는 “오는 十數年間,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종던 나쁘던, 우리 宣敎事業의 存續與否와 成敗는 國交와 通商關係의 影響에 달려 있을 것이다”<sup>164)</sup>라고 하여 정부와 교회가 서로 밀접한 관계임을 자인하였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당시 도시화와 교회성장으로 각종 자발단체가 설립되었고, 산업화 부작용으로 생긴 사회 불만에 교회가 해결자로 참여하여 절제운동을 확장시켰다. 침체되었던 해외 선교운동도 교회부흥과 경제적 성장으로 다시금 고조되었다.<sup>165)</sup> 대표적으로, 학생자발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은 침체된 선교에 불길을 지피는 데 충분하였다.<sup>166)</sup> 학생자발운동의 영향을 받아 1900년 4월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10일간 약 20만 명이 참석하는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한국 초기 선교사들 중에는 이 운동 출신자들이 많았다.<sup>167)</sup> 존스톤(Arther P. Johnston)은 그의 저서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sup>168)</sup>에서 뉴욕대회를 기점으로 선교형태가 협력

163) William Warren Sweet, 457-9.

164) N. P. *Report* for 1905, 18, 白樂濬, 『韓國改新教會史』(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93), 281에서 재인용.

165) Winthrop S. Hudson, *Religion in America*(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2), 282-311; 1890년에는 2716명, 1900년에는 4159명, 1910년엔 7219명, 1915년에는 9천명 이상이 파송되었다고 한다. 김경빈,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유형과 그 사상적 배경,” 『교회 민족 역사』, 솔내 민경배박사 교회기념논문집(서울: 민경배박사교회기념논문집출판, 2004), 93.

166)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36-7.

167) 이 대회에 북장로교의 언더우드(H. G. Underwood), 베어드(W. M. Baird) 부부, 에비슨(O. R. Avison) 부부, 빈톤(C. C. Vinton) 부부가, 남장로교의 헤리슨(W. B. Harrison) 부부와 밀러(F. S. Miller)가 참석했다. 그밖에 북감리교의 모리스(Morris)와 스크랜튼 부인(S. B. Scranton)과 남감리교의 레이드(C. F. Reid)가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언더우드는 ‘자립·자치·자전하는 본토교회’를 역설했는데 교회연합을 통해서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race G. Underwood, “자립의 객관적 교훈,” 옥성득 편역, 『한국기독교와 역사』 8호(1998), 269.

168) Arther P.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Illinois : Tyndall House Pub., 1978).

(Co-laboration), 반교과적 연합회(Non-denominational Association), 교과별 세계연맹 조직, 교회연합회(Federation of the Churches), 교과 합동(Church Union)등의 모양을 띠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연합활동은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선교사 중심으로 1905년 세워진 재한복음주의통합공의회는 대표적인 실례이다.<sup>169)</sup> 초교과적인 연합활동은 한국의 절제운동 속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다만, 이때는 한국 기독교가 본격적인 절제운동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곤 하는 정도였다.

복음주의자인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미국 부흥운동과 성결운동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성결을 강조하였고, 엄격한 도덕률에 근거한 절제운동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선교지의 사회적 변화도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따라오는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였다.<sup>170)</sup>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폐습과 악습과 맞닥뜨려야 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였고, 과거의 폐습과의 단절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제도나 규범을 세워 제도적으로 절제운동의 근거를 확립하였다. 부흥운동으로 개인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절제운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제도와 법률체계를 세움으로 절제운동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 2. 일제의 한국침략 정책

1868년 천황을 정점으로 출발한 메이지정부는 서구 자본주의를 끌어들이어 산업발전을 도모하였다. 산업자본이 서구처럼 발달하지 못했음도 일제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참여하였다.<sup>171)</sup> 일제는 서구 자본에 의존하여 산업화를 이루며 신흥강국으로 급성장

169) 장금현, “재한 복음주의선교부 통합공의회에 관한 연구,” 『성결교회와 신학』 6호(2001), 161-91.

170) James S. Dennis, *Christian Missions and Social Progress: A Sociological Study of Foreign Mission*, Vol. I(New York: Fleming H. Revell, 1897) 참조하라. 24쪽에 보면, 데니스는 “사회운동은 부차적인 것이고 간접적이 것이다. 각 개인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좌우된다. ... 이런 것들은 선교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하여 개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사회개혁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171) 犬丸義一, “戰前日本の 國家權力と 天皇制,” 『歴史評論』 245號(東京: 教倉書房, 1970),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외채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여 재정악화가 가중되었다.<sup>172)</sup> 제국주의적 침략에 필요한 군사물자도 1903년 총 수입액의 21%였지만, 1904년 33%, 1905년 36%, 1907년 35%로 높게 유지되었다.<sup>173)</sup> 일본의 높은 서구자본 의존도와 재정압박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재정적자와 함께 분출된 내부적인 불만을 해소하려는 일제에게 한국지배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미국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군대를 파견했던 청과 일제에게 자국의 군대를 철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제는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군대를 더욱 증강하였다. 공동철병안을 반대한 이유는 한국에서의 이권획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경인철도 부설권, 금광채굴, 서남해안 항구 개항, 기타 재정적 이권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sup>174)</sup> 이러한 일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일제는 1894년 8월 1일 청일전쟁<sup>175)</sup>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러일전쟁<sup>176)</sup>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9.

172) 국채에 의한 외채 의존도는 1903년 17.4%(총 국채 53,896만엔 대비), 1904년 31.4%(103,763만엔), 1905년 51.3%(208,221만엔), 1906년 51.7%(219,905만엔), 1907년 51.2%(224,390만엔), 1908년 51.8%(221,451만엔), 1909년 44.7%(258,555만엔), 1910년 54.2%(263,016만엔), 1911년 55.2%(255,542만엔), 1912년 58.7%(252,405만엔), 1913년 58.9%(259,171만엔), 1914년 59.9%(256,078만엔)로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高橋誠, 『明治財政史研究』(東京: 青木書店, 1964), 230, 송이랑, 『日帝의 韓國殖民地 通治方式』, 75 <표 2-11>에서 재인용.

173) 이것은 군비확충에 따른 서구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高橋誠, 『明治財政史研究』(東京: 青木書店, 1964), 231, 송이랑, 『日帝의 韓國殖民地 通治方式』, 77<표 2-12> 재인용.

174) F. A.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5), 37-50.

175) 청일전쟁은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로 한국에 들어오자 청은 한국에 대한 종주국임을 자칭하며 군대를 파견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었다. 또한 1894년 전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서의 대립이 결정적으로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청일전쟁은 1895년 7월 9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그 막을 내렸다. 조약의 골자는 조선의 독립,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에 양도하는 것으로, 일본은 한국만 아니라 청에도 그 세력을 뻗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민식, “청일전쟁 전후의 한미관계: 1890-1895,” 『근대 한미관계 연구』(서울: 백산문화, 1998), 254.

176)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 일본의 뤼순항에 정박 중이던 전함을 공격하고, 다음날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를 공격한 다음에 10일 전쟁을 선포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지

차지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책략으로 일제를 이용하여 적극 지원하였다. 양국의 지원으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러시아로부터도 한국에서의 패권을 인정받았다. 이것은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조약(Katsura-Taft Memorandum)<sup>177)</sup>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일제는 식민지 작업을 위한 수순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온갖 수탈을 자행하였다. 특히 전쟁비용으로 외채의존도가 더욱 가중되자, 일제는 자국에서 1-2차 특별 소비세를 거두었다.<sup>178)</sup> 또한 한국에서는 조세를 통한 수탈을 자행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주세법>제정이다. 비록 1909년 2월 13일에 <주세법>과 <연초세>가 발효되었지만,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은 통감부 설치시기인 1905년부터였다.<sup>179)</sup> 기존에 없던 세금이 재원확보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한국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주류업과 전매사업을 실시한다는 의미이며, 그 대상은 한국인인 것이다. 금주금연운동을 강조하며 일어났던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애국운동차원에서 전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일제는 한국에 매춘업을 도입하여 확장시켰다.<sup>180)</sup> 앞서 살펴본 대로 일본에

---

원을 힘입은 일본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은 러시아를 격파하고 계속해서 1905년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의 승리로 이끌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루즈벨트의 권고를 받아들여 포츠머스(Portsmouth) 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일전쟁으로 한국 국민의 궁핍한 상황은 더욱 심해졌다.

177)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William H. Taft)와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郞)이 만나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체결하였다.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에 동의하며,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한다. 가쓰라-태프트밀약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76에 나온 각주 112를 참조하라.

178) 러일전쟁비용 총 1,721만엔을 지출한 일본은, 패전국 러시아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하자 특별세금으로 충당해야했다. 송이랑, 『日帝의 韓國植民地 通治方式』, 70-1 <표 2-7>, <표 2-8>, <표2-9> 참조.

179) 정태현,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8), 68.

180) 한국에서 일제의 공창제도 운용 및 실태에 대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孫禎睦, “개항기 한국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매춘부. 고리대금업,” 『한국학보』 18호(1980); 孫禎睦, “일제하의 매춘업-공창과 사창,” 『도시행정연구』 3호(1988); 宋連玉, “朝鮮植民地支配における公娼制,” 『日本史研究』 371號(1993);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集(1994);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제도 전개,” 『사회와 역사』 51집(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강정숙, “대한제국 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제도 도입,” 『서울학연구』 11호(1998); 山下英愛,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대여성학석사학위논문, 1992); 宋連玉, “일

서는 공창제도가 발달해 있었다. 일정장소에 유곽을 세워 매춘업을 실시하는 공창제는 1876년 조일수호조약(朝日修好條約)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 왔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춘업무에 관여하는 자들이 많아지자, 일본정부는 1881년 11월 부산과 12월 원산영사관에서는 해당지역 거주 일본인에게 <대좌부영업규칙>(貸座敷營業規則)과 <예창기영업규칙>(藝娼妓營業規則)을 허락하였다.<sup>181)</sup> 일본인에게만 이라는 조건부를 단 매춘업은 부산과 원산에서 성업했다.<sup>182)</sup> 그러나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매춘업을 확대시켰다. 공창문제가 한국 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1910년대 중반이었지만, 그 시작은 이미 그 전부터 내재되어 싹트고 있었다.

### 3. 초기 한국 기독교의 성격

한국은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청국,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된 신흥 일본, 남하정책으로 세력 확대를 꿈꾸던 러시아에 둘러 싸여 있었다. 정부 관료들은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자기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대안이 될 수 없었다.<sup>183)</sup> 이런 상

---

제 식민지화와 公娼制 도입,” (서울: 서울대국사학과석사학위논문, 1998).

181)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좌부영업규칙>(貸座敷營業規則)에서는 첫째 대좌부업(貸座敷業)은 면허지에서 영업해야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영업하지 말 것. 둘째 대좌부업을 하려면 책임자는 영사관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것. 셋째 영업하는 자는 영업취체비와 매독병원비로 매월 일정액을 바칠 것. 넷째 창기를 바깥에서 보이게 하면 안되고 허가받지 않은 일반 부녀를 창기와 같은 숙소를 쓰게 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예창기영업규칙>(藝娼妓營業規則)은 첫째 예창기업(15세 이상)을 하는 자는 필자는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면허 감찰을 받을 것. 둘째 예기영업하는 자는 영업취체 및 병원비로 매월 2원씩 정부에 바침. 셋째 창기영업자와 예창기도 대좌부 외에 기숙할 수 없음. 넷째 외박하더라도 12시까지 들어 가야 할 것. 다섯째 매주 1회 매독 검사를 받을 것 등이 주 내용을 되어 있다. “貸座敷營業規則,” “藝娼妓營業規則,” 『韓國警察史』 第一卷(서울: 내무부치안국, 1972), 50-7, 230-8.

182) 이유인즉, 일본은 “일본과 청나라에 있는 외국인 거주지에 대좌부나 창기업을 허가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일본은 타국에서 거주민 대상으로 매춘업을 다른 나라처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의 체면상 매춘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하였던 것이다. “明治十六年十月十六日起草,” 『韓國警察史』 第一卷(서울: 내무부치안국, 1972), 388; “明治十八年二月二十四日附井上外務卿發信釜山前田總領事宛回訓機密第五號,” 『韓國警察史』 第一卷(서울: 내무부치안국, 1972), 398.

183) “론설,” 『황성회보』 (1898년 1월 30일); “매관매직하는 자를 拔本塞源하라,” 『황성회

항 속에서 한국인들은 외부세력에 반기를 들거나 종교에 귀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sup>184)</sup>

여러 종교 중에서 한국인들은 강대국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를 찾기 시작하였다. 1895년에 200명 미만이었던 장로교 세례교인이 이듬해에는 2천명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성장은 1905-1906년에도 반복되는데, 감리교는 1904년 1만 명에서 1906년 3만 2천명으로, 장로교는 2만 5천에서 5만 7천으로 급성장했다.<sup>185)</sup> 그 만큼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증거다. 당시 관료였던 다이라 마고이치(俵孫一)는 한국인이 교회를 찾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그들(한국민)이 매우 혐오하는 바지만 이를 벗어나려면 힘있는 다른 강대국에 의뢰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다. ... 오직 미국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많고 인민과 관계도 점차 밀접하여 갈뿐만 아니라 ... 자기 나라의 구제는 미국을 나누고 달리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상의 한국 상태가 날로 비관적이라고 보는 유식자 특히 다소 기개(氣概)있는 무리들은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그 고통과 불안의 위안을 종교의 신 안에서 구하는 자도 있다. ... 그리하여 기독교회가 이 요구에 대하여 위안의 장소로서 환영받는 것도 이러한 이 종교의 세력을 확충시키는 것이다.<sup>186)</sup>

혼란의 시기에 일반 대중은 교회를 찾아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황해도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샤프(Charles E. Sharp)는 황해도지역 교회의 성장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한 바 있다. 첫째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보호받기위하여, 두 번째는

---

보』(1896년 8월 15일); “간신배를 몰아내고 국정을 바로잡아라,” 『황성회보』(1898년 12월 16일); “론설,” 『매일신보』(1898년 9월 16일); “잡보,” 『독립신문』 제 1권 제 104호(1896년 12월 3일); 인천의 경무관 김순근의 부패. “잡보,” 『독립신문』 제 1권 제 66호(1896년 9월 5일); 덕천과 의주관료 부패. “잡보,” 『독립신문』 제 2권 제 89호(1897년 7월 29일).

184) Martha Huntley,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차종순 역 (서울: 牧羊社, 1995), 20.

185)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편, 『기독교 연감』(서울: 기독교교회협의회, 1992);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2).

186) 다이라 마고이치(俵孫一), “선교사에 대한 의견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김승태 편역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21-2.

서구의 문명과 교육을 받기위하여, 세 번째는 영적인 갈급을 위하여 교회를 찾았다고 하였다.<sup>187)</sup>

일반 대중이 청일전쟁으로 교회를 피난처로 삼기위해 입교했다면, 유식계층의 입교는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함이었다.<sup>188)</sup> 신앙적인 열망으로 교회를 찾은 이들이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였다. 아무튼 교회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성장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남감리회 소속 선교사였던 무어(J. R. Moose)의 말대로 이때는 “황금같은 기회”의 시기였다.<sup>189)</sup>

미국은 정치적인 면에서 일제의 한국지배를 인정했다. 반면, 종교문제 만큼은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을 지속시켰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은 교회의 정교분리를 주창하였다.<sup>190)</sup> 대표적인 것이 “비정치화 선언”이다. 장로교공의회는 1901년 9월 20일 오전 9시 정동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른바 비정치화를 선언했다.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도건을 작정하여 각처에 있는 지교회와 교우에게”<sup>191)</sup> 서한을 각 교회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선교사들은 미국 정책에 기초하여,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세력 확장을 금했다. 또한 1906년 열린 장로회선교부 연례회의에서 “미국장로회 한국선교부는 …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해 야기된) 내용은 선교정책을 대표하는

---

187) C E. Sharp, “Motives for Seeking Christ,” *KMF*, Vol. II, No. 10(Aug. 1906): 182-3.

188)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6.

189) J. R. Moose, “A Great Awakening,” *KMF*, Vol. II, No. 3(Jan. 1906): 51-2.

190) 김승태, “한말 일제 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1894-1910),”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6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67.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 시기구분에 있어 김승태는 5기로 구분한다. 제 1기는 견제기(1894-1905)로 일본 외무성의 미일외교를 통한 선교사 견제 정책을 사용하면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이루었던 시기, 제 2기는 회유와 이용기(1906-1910)로 통감부의 선교사 회유 이용정책을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 약화시기, 제 3기는 억압과 제한기(1911-1919)로 총독부의 선교사 억압 제한 정책을 통한 동아시아에 대한 이권으로 대립하는 시기, 제 4기는 분열책동기(1920-1935)로 총독부의 선교사 회유 분열정책을 통한 대립 갈등의 심화시기, 제 5기는 탄압과 추방기(1936-1945)로 총독부의 선교사 탄압 추방정책을 통한 극한적 대립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1910)과 정미 7조약(1907), 한일합병(1910)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강공에 따라 선교사들은 대부분 일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다.

191) “장로회 공의회 일기,” 『그리스도 신문』 5권 40호(1901년 10월 3일). 선교사들은 나라일과 정부일과 관원일에 간섭하지 않겠으며, 교회와 나라가 할 일이 따로 있으며, 백성은 하나님 말씀과 국가에 순종해야 하며, 백성들의 정치참여 문제는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라일을 의논하는 집이 아니니 나라일을 공론하러 모여서는 안된다는 다섯가지 입장을 천명했다.

것이 아니며, 한국의 정치에 일절 관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의미를 배제한 한국 기독교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 정치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며, 기독교가 도덕적인 힘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결의하였다.<sup>192)</sup> 이런 결의는 절제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는 정치보다는 도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교사들이 정치보다 도덕에 관심을 갖고 더욱 힘을 기울인 까닭이기도 하다. 도덕적인 관심은 절제운동으로 표현되었고, 운동 대상은 교인들 속에 녹아 있는 전통적인 폐습과 악습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이 힘을 앞세워 한국을 강탈하는 과정에 있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은 민족의식에 고취되어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sup>193)</sup> 당시 기독교신문인 『독립신문』은 “조선 인민이 독립이라 호는거슬 모로난 7월에 사람들이 조선을 업수히 녀여도 분흔줄을 모로고”라고 하며 청일전쟁을 하나님께서 호재로 주셨으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동등한 입장에 서야한다고 주장하며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sup>194)</sup> 또한 반도대륙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니 그분을 전심으로 믿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sup>195)</sup> 1904년 7월 『신학월보』에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혼란을 염두에 두고 “나라를 근심하라면 먼저 예수씨를 믿어야”한다고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96)</sup> 대표적인 애국적 모습은 고종의 생일을 맞이하여 보여준 기독교청년들의 행동이다. 이들은 오전에 제물포의 한 곳을 예배실로 꾸미고, 밖에 태극기를 높이 달았다. 오후에는 이화학당에 모여 축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기도를 드렸다. 저녁에 제물포 예배실로 가서 “대황데하를 위하야 하느님께 기도”는 모임을 가졌다.<sup>197)</sup> 기독교청년들의 행동 속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전통적인 민족주

192) "Missionary Work in Korea," *The Korea Review*, Vol. VI(October, 1906), 361-6.

193) 기독교와 민족주의를 이해하려면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평민서당, 1986); Michael E. Robinson,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역(서울: 나남, 1990); 윤춘병, 『全德基 牧師와 民族運動』 (서울: 韓國監理敎會史學會, 1996); 신기영,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부산: 동혁, 1995); 이덕주,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사역사연구소, 1995), 121-260.

194)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33호(1896년 6월 20일).

195) “십자군의격서 만엘루청년회, 『신학월보』 제 4권 6호(1904년 6월), 256-60.

196) “나라를 근심하라면 먼저 예수씨를 믿어야,” 『신학월보』 제 4권 7호(1904년 7월), 287-9.

197) “대황데탄신경축함,” 『신학월보』 제 1권 10호(1901년 10월),

의가 내재되어 있었다.

대한예수교우들과 감히한마디 질문하고저하노니 지금우리대한이 무삼처디에잇노뇨 전쟁 마당에 잇지아니호뇨 타국군사들이 내나라 디경에서 대전을시작호야 승부를 결단호니 우리는 당장무산한것만 편히녁여 영원히태평홀줄로 녀이노뇨 우리는 감안히안것스면 더 타국이다 우리를 도케만 도아줄줄로밋고 안것슬가 남은나라를 위호야 군사가되여 몇만 리들어가서 몇천명몇만명씩 혈서를써서 죽기를자원호고 디되포뭇은곳슬 물밋듯나아가며 다토어죽어서 나라영광을 들어내며 국중에안즌 백성들은 돈을내며 물건을내여 전쟁뒤를 밋치기에 상하가 일심호며 ... 우리예수교인들은 모를슈도업고 또한 모른다함슈도 업난 지라 ... 충국애국이 무어신지 세상을 건지난거시 무어신지도 모지모르고 다만체뭇하나 와 제영혼하나의 구원엇었는것만 데일이라홀진대 이는 결단코 하느님의 참리치와 예수 의 근본뜻을 알지못호다일을지라 ... 예수교가 난곳마다 변혁의주의가 가자라난법이라 ... 우리와함께 일군이될진대 얼마만에 전국이 모도충군호며 자주독립호는 동포가될지 니<sup>198)</sup>

이승만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뛰어 들라는 것이다. 이것이 민족운동이며, 사회개혁 주체인 신앙인의 모습이며, 기독교인이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공경”이다.<sup>199)</sup>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구습타파라는 절제운동을 사회개혁의 한 형태로 이해하였고, 국가독립의 한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형태의 절제운동은 선교사들 중심의 절제운동과는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폐습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합방 이전에는 선교사들의 복음주의에 입각한 구습타파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족의식 회복차원에서 구습타파가 서로 맞물려 있다. 기독교 복음을 접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악을 발견하고 그대로 내려오던 관습을 정죄하고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sup>200)</sup>, 이것 역시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이때 기독교 절제운동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198) 이승만, “론설: 대한 교우들의 힘쓸 일,” 『신학월보』 제 4권 8호(1904년 8월), 333-40.

199) “나라를 근심하라면 먼저 예수씨를 밋어야,” 289.

200) 閔庚培, 『韓國基督教社會運動史: 1885-1945』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7), 16.

## B. 기독교 절제운동의 전개와 방법

기독교는 절제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개인의 회심을 통한 절제운동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교회관련 기관의 제도적 준비와 참여를 통한 절제운동이다. 전자는 개인이 회심으로 절제운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형태이고, 후자는 교회나 교회관련 단체가 절제운동에 관련된 제도나 규범을 체계적으로 세워 절제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그 경향성에 따른 것이다.

### 1. 교회 내의 절제운동

#### a. 개인의 회심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개인의 회심 곧 내적 변화이다. 내적변화는 부흥회를 통하여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으로 문을 연 사람이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R. A. Hardie)였다. 그의 무능력을 고백함으로 시작된 1903년 부흥운동은 원산지역 전체로 퍼져나갔다.<sup>201)</sup> 부흥운동은 점차 강원지역과 개성지역으로 계속 확산되었다. 1904년 2월 개성부흥운동은 원산에서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몇달전에 원산에 계신 하목사가 이회(부흥회)를 설치하시고 여러날을 전도하시매 여러 형제자매들이 만히모여 성경을착실이 공부할뿐아니라 각각 자기외과를 자복하여 뉘웃쳐 곳치고 또 성신의능력으로 새마암을 엿어 거듭난 사람이 되엿스며 ... 또하목사피서 서 울로 올라와 크람목사와 갓치 송도에 내려가서 이회를 열매 거긔잇는 여러형제자매들도

---

201) 중국에서 활동하던 남감리교 화이트(Mary C White)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매컬리(Louise H. McCully) 두 여선교사는 자신들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곤 하였다. 그러다 화이트의 제의로 남감리교 선교사 캐롤(A. Carroll), 노울즈(Knowles), 하운셸(Josephine C. Hounshell)과 매컬리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성경공부겸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를 인도하던 사람은 바로 하디였다. *Official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Session of Korea Mission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03). 26, 53, 57.

죄과를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고 깃분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냈으며....<sup>202)</sup>

하디로 시작된 부흥운동이 계속 확산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sup>203)</sup> 부흥회만 아니라 사경회가 열린 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부흥회가,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는 사경회가 열렸다. 사경회는 “각 지방에 있는 직분가진 형테를 혼회로모여 성경과 교칙과 교법을 공부”<sup>204)</sup>함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다. 이곳에서도 부흥회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지실ㄴㅣ 평강 학포 김성량턴 이여러곳에서 온형테가 남녀노소 유합스십여인이 모혀서 두주일동안을 공부헐엇습는다 하느님끼서 은혜를나리샤 공부에유익을 만히밧은것슨 모 혼회원들 중에 혹이통헐느밧음으로 죄를즈복헐는이도잇고 가속기도를 설시헐이도잇고 술팔기와 먹기를거절헐는 이도잇느의 회원중 리봉순씨는 성경에 남을 범죄케헐는이느죄가 더크다는 말슴을 깨듯고 술장샤를거절헐고떡장스밥장스헐기로 작정하엿스니<sup>205)</sup>

부흥회나 사경회가 있는 곳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였다. 때로는 옛 직업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나서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봉순이라는 사람은 그 예이다. 이봉순은 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 일을 청산하고 떡장사와 밥장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의 회심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부흥운동은 190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 블레이어(W. N. Blair), 베어드(W. M. Baird), 리(G. Lee)와 길선주 장로가 주요 강사로 참여했다. 이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대부분 내적인 죄만 아니라 실천적 회개운동도 함께 경험하였다. 실천적 회개운동은 결국, “새로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식 창출”이었다.<sup>206)</sup> 이것은 사회개혁과 밀접한 것이다. 박용규는 1907년 부흥운동과 사회개혁과의 관계를 “참된 부흥운동은

202) “사설, 부흥회,” 『신학월보』 제 4권 6호(1904. 6), 243.

203)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62.

204) “신학회와 스경회,” 『신학월보』 제 1권 2호(1900. 2), 55.

205) “교보, 감리교스경회,” 『신학월보』 제 2권 5호(1902. 5), 227.

206) 이덕주, 『초기한국 기독교사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161-3.

개인의 영적 각성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변혁에 근거한 사회 변혁으로 이어져 왔다”<sup>207)</sup>고 하면서 깊은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기독교 절제운동이 교회 안에서 점차 교회 밖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전의 부흥회처럼 1907년 대부흥운동도 초기엔 그 대상자가 기존신자들이었다.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은 마음의 정결(heart cleansing)이었다. 김(Kim)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폭음의 희생자였던 그는 주기적으로 술을 마셨으며, 그로 인해 부인과 자녀들은 무자비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죄를 고백하였다. 그러다 다시 술에 빠져들곤 해서 교회는 그를 제명하였다. 부흥회 기간에 그가 다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 전에는 술집을 지나친 적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sup>208)</sup> 평양부흥회에 대하여 해리스 감독는 다음과 같이 총회에 보고하였다.

수천명이 혼곳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며 또 여러천명이 글뉘기를 공부하는데 ... 술꾼과 노름꾼과 도적과 간음자와 살인자와 스스로 의롭다하는 석가와 공작의 문도들과 마귀숭배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교에 드러와 새사람이 됨으로 넷일은 영원히 업서져도다.<sup>209)</sup>

부흥회에서 수 천 명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술꾼은 금주하고, 각종 범법자들은 회개하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였다. 무어(J. Z. Moore)는 1906년 크리스마스부터 1907년 2월까지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오후 집회는 좀 열린 모임형태를 지녔는데, 예를 들면, 조기결혼, 교육, 청결, 담배사용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원주민들이 참여한 토의 주제는 명백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질문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담배 사용을 거부하는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최상의 논의가 어떤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에 의해 이끌어졌다. 이 회의의 직

---

207)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451; 박명수, “성결운동과 한국 교회의 초기 대부흥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14호(2001), 47.

208) George H. Jones & W. A. Noble, *The Korean Revival: An Account of Revival in the Korean Church in 1907*(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0), 12.

209) “론설,” 『신학월보』 제 6권 2호(1908), 51-2.

접적인 결실로서 나는 최소한 8명의 인사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그들은 지도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로 사역하고 있다. 그들은 담배를 끊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적 행사로서의 금연회가 출발하기 전이었다. …(중략)… 죽은 조상이 지배하던 3000년 동안 한국은 죽은 민중이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그들을 조상제도로부터 구출할 살아있는 구세주다. 기독교에서 발견된 구세주는 날마다 점점 명백해 진다. 조상제도에 대항한 선교사들의 특별한 진취적 행동은 없을지라도 기독교와 이런 부흥운동이 조상제사를 반대하는 것은 명백하다.<sup>210)</sup>

평양부흥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기도로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침에는 기도와 함께 성경공부, 저녁에는 부흥회에 참석하였다. 오후에는 교회생활에 대한 주제 즉 조혼, 교육, 청결, 흡연 등의 문제로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통하여 자신들의 새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바른 방향을 모색하면서 나뉠대로의 엄격한 도덕률을 정하기도 하였다.<sup>211)</sup> 이런 모습은 절제운동의 방향성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규정되고 제시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b. 절제운동관련 교회법규 제정

교회 제도와 법규제정을 통한 절제운동은 교회나 교회관련단체가 제도, 법률,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형태는 교육, 의료, 기독교계 매체, 교회법 제정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런 제 형태들이 절제운동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직이나 단체를 정리하고자 한다.

1884년 6월 24일 일본주재 감리회 선교사였던 맥클레이(Robert Samuel MacLay)가 내한함으로서 복음전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맥클레이의 내한으로 교육과 의료선교에 대한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일본사역을 경험으로 한 그의 조언<sup>212)</sup>에 따라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에 집중하였고 종교적인 삶으로 복음을 확산시

210) J. 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KMF*, Vol. III, No. 8(August 1907),

211) George H. Jones & W. A. Noble, *The Korean Revival: An Account of Revival in the Korean Church in 1907*, 13-4.

212) 1873년부터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던 맥클레이의 한국 방문으로, 교육과 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는 일본교회가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교육과 의료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국에도 접목시켰다.

켰다.<sup>213)</sup>

그 결과 1885년 11월 아펜젤러가 민족 운동가들을 대거 배출시킨 배제학당을 세웠다. 1886년 5월 스크랜튼(M. F. Scranton) 부인은 1920년대 여성절제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키워낸 이화학당을 세웠다.<sup>214)</sup> 특히 이화학당은 여성차별로 야기된 사회적인 문제들을 절제운동으로 승화시킨 교육의 장이었다. 여성이 누리고 있는 육체적 도덕적 상황은 극도로 열악한 것이었다. 『독립신문』 1898년 1월 4일자에 1897년 12월 13일 정동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 남녀차별문제로 토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실었다. 여기에 윤치호가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 교육시키고 남녀에게 동등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의하였다. 모인 청년들은 새해부터 남녀가 같은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동등권을 부여받는 것이 나라에 크게 유익하고 긴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sup>215)</sup> 이런 토의와 결론은 당시 한국 전통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다. 당시 한국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타성에 젖어 있었다. 프랑스 한 외교관이 당시 여성을 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적 능력은 외래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쉽사리 계발될 가능성이 보였으나, 그들 자신들의 처지를 그냥 감내하고 있었을 뿐 결코 개혁적인 방향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적이 있다.<sup>216)</sup> 여성들은 교육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사회적인 역할도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화학당과 연이은 여학교의 설립은 여성을 자극했고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기에서 배운 여학생들은 1920년대 한국의 지도자뿐 아니라 절제운동의 리더로 성장하였다.

---

213) 예를 들어 알렌(Horace H. Allen)의 삶은 일본인 요리사나 중국인 유모보다도 그의 어학 선생이었던 노춘경(盧春京)에게 도전이 되었다. 그는 초기엔 기독교에 반감을 가졌지만 점차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헤론의 어학선생에게 접근하였다. 그 후 1886년 알렌의 통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접하였다. 알렌이 책상위에 놓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언더우드를 찾아가 기독교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집회에도 몇 번 참석했던 그는 그해 7월 18일 언더우드의 집례와 아펜젤러의 보좌로 세례를 받았다. 노춘경은 한국에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열매인 셈이다. *H. G. Underwood's letter to Dr. Ellingwood*, July, 9. 1886.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9), 242-3.

214) 千和淑, 『한국 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서울: 혜안, 2000), 94-112.

215) “男女同等의 教育政策을 펴라,” 『독립신문』 (1898년 1월 4일).

216) Madame C. Vautier, Hippoly Frandrin, *En Corée*(Paris: Paris Librairie C. H. Delagrave, )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김상희 김성언 역(서울: 태학사, 2002), 31.

의료선교도 의료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절제운동이 의료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다. 의료선교사 에비슨은 토론토 대학에서 금주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정도로 절대 금주자였다.<sup>217)</sup> 의료 여선교사 커틀리(M. M. Cutler)도 평양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절제운동 동조자를 모으며 활동하였다.<sup>218)</sup> 이들이 주도한 의료사업에서 절제운동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다. 민경배는 의료선교가 다음 여섯 가지의 사회 개혁적 요소들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첫째, 몽매한 전근대적 미신의 폐습과 무의(無醫)의 폐해를 근절하였다. 둘째, 위로는 고종으로부터 아래로는 천한 하류층의 거래들을 함께 시료(施療)함으로 계층 간의 소외의식을 제거하는데 현저한 작용을 하였다. 셋째, 의료를 통하여 기독교의 인간애를 실현하였고 그 영향력을 파급시켰다. 넷째, 근대 과학적 의학보급과 새로운 시대로 문호개방이었다. 다섯째로 의료에 여성을 참여시킴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여섯째, 의료선교로 기독교나 그 문명세계에 대한 접촉과 교류의 통로가 개방되었다.<sup>219)</sup> 교육과 함께 의료선교도 구습타파에 앞장섰는데 그것은 기독교 절제운동의 한 모습이기도 하였다.

절제운동의 주요 매체는 기독교계 신문이나 잡지였다. 비록 그런 매체가 각 선교부의 기관지 성격을 지녔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절제운동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 실행들과 교회법등을 실음으로 기독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97년 2월 2일 아펜젤러가 발행한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4월 1일 창간한 『그리스도신문』은 순 한글로 된 신문으로 기독교 소개만 아니라 사회윤리관이나 도덕심 함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220)</sup> 1900년 12월 창간된 『신학월보』, 1901년 감리교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집필한 *The Korea Review*, 장로교 빈톤(C. C. Vinton)이 제작한 *The Korea Field*, 장감연합으로 제작한 *The*

217) 하—디, “에비슨박사의귀국,” 『기독신보』, 제 805호(1931년 5월 6일);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37-8; 에비슨부인도 절제운동에 적극적이었는데, 에비슨자택에서 열린 여선교회절제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회장은 벨링스부인, 서기는 반우거부인, 미스 철실라, 회계는 합스부인, 과학적 절제교육부는 어원부인, 절제선교부는 쿤스부인이 선출되었다. “서양인연합절제회총회 금주운동을대대적계획,” 『기독신보』, 제 626호(1927년 12월 7일).

218)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August-September 1893).

219) 閔庚培, 『韓國基督教社會運動史』, 95-101.

220) 이만열,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87), 365-80.

*Korean Mission Field*도 절제운동의 내용들을 싣고 있다.<sup>221)</sup> 또한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sup>222)</sup> 역시 사회폐습을 자주 기사화함으로 기독교의 애국적인 절제운동의 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기독교 단체도 본격적인 절제운동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감리교의 엠피청년회(Epworth League)인데, 1897년 9월 정동교회에서 설립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후의 과격한 행동이 발단되어 해산<sup>223)</sup>되었던 엠피청년회는 1916년 다시금 재건되었다. 이 엠피청년회는 1923년 설립된 장로교청년회 면려회와 함께 1920년대 농촌운동을 전개하면서 절제운동을 펼쳤다. 두 청년회와 함께 1920년대 절제운동을 벌일 때, 함께 참여하였던 YMCA가 1903년 조직되었다.<sup>224)</sup>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YMCA에서 게일(J. S. Gale, 초대 한국 YMCA 책임자)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뒤이어 예비슨도 파송했다. YMCA는 1923년대 세워진 YWCA와 함께 절제운동에 참여하였다.

교회적으로는 감리교가 1893년 선교부내에 절제위원회를 두었고, 이듬해는 금주에 관한 규칙을 세웠다. 1895년에는 일부다처제를 정죄하고 첩을 가진 교인을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이 교회에 나오더라도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해 장로교에서도 이틀 만나질 동안 첩을 둔 사람들에게 대한 처리문제로 회의를 계속 가졌다. 찬성과 반대파가 있어 미국, 일본, 인도의 예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첩을 두는 것은 교회에서 엄금하기로 결의하였다.<sup>225)</sup> 이 결의는 일부일처를 강조했던 일본의 예가 보다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1897년 북감리교는 12회 연환회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술을 금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sup>226)</sup> 또한 1901년 절제위원회를 사회개량위원회와 통합하여 금주, 결혼, 주일성수, 금연을 다루었다.<sup>227)</sup> 1903년 감리

221) 金良善, “韓國基督教 初期刊行物에 關하여,” 『史叢』 12권(1968), 571-97.

222)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1호(1896년 4월 7일).

223) 을사 5조약이 체결된 후 상동교회에 엠피청년을 중심으로 1905년 11월 수 천명이 모여 구국 기도회를 1주간 가졌다. 주도자는 김구와 전덕기였으며, 이들은 기도회를 마치고 궁궐로 나가 조약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을사 5조약 주모자를 암살할 것을 모의 하였다.

224)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297-303.

225) 곽안전, 『한국교회사』, 심재원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76.

226) “계주론,”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제 22호(1897년 6월 30일).

227)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August-September 1893; June 1920). 참조

교는 ‘절제와 사회개량회’에서 감리교회의 교회규칙 요약을 다루었다.<sup>228)</sup> 일련의 교회 제도나 제정은 초기 절제운동의 특징이다. 또한 초기부터 교회가 얼마만큼 교인들에게 절제생활을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 2. 교회 밖의 절제운동: 국채보상운동

일제와 관련해서 나타난 절제운동은 미약하지만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 볼 수 있다. 1905년 12월부터 총감이 된 이토오(伊藤博文)는 ‘시정개선’(施政改善) 명목으로, 차관형식을 빌어 자국으로부터 돈을 끌어왔다.<sup>229)</sup> 차관의 목적은 한국의 각종 이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내정간섭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일제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으므로 정치적인 이유가 더욱 분명하였다.<sup>230)</sup> 계속 쌓이는 차관은 1907년에 1,3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중 세입이 13,189,300원이었고 세출이 13,963,000원이었다. 결국 외국에 진 빚이 1년 예산과 거의 같다고 할 때,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sup>231)</sup> 1907년 1월 30일 대구의 광문회(廣文會)출판사에서 출판사 명칭을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로 바꾸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 뒤에 부사장 서상돈(徐相敦)은 국채보상운동을 제의하고 자신부터 800원을 내겠다고 하였다. 참석한 회원들이 그 제의에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고 사장 김광제(金光濟)가 당장 실시하겠다고면서 담뱃대와 담배쌈지를 없애고 3개월간의 담배 값 60전과 10원을 더 내자, 회원들도 동참하여 2천원을 만들었다.<sup>232)</sup> 2천만 국민이 3개월간 금주금연하여 국채 1천 3백만 원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이렇게

228) "Official Minutes of the Nineteen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62. 규칙 6가지는 1)주일성수, 2)술의 사용, 3)결혼, 4)노름과 도박, 5)담배와 권련사용, 6)노예소유 등이다.

229) “夢夢裏이득득錢던,”『大韓每日申報』(1906년 4월 19일); “千萬元之一大消融方法,”『大韓每日申報』(1906년 4월 22일); “논설,”『大韓每日申報』(1906년 10월 13일); “第三回借款問題,”『大韓每日申報』(1906년 10월 18일).

230) 趙恒來, “國債報償運動의 發端과 發展,”『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서울: 아세아문화사, 1993), 202.

231) 朴容玉, “國債報償運動에의 女性參與,”『史叢』12권(1968), 621-43.

232) 趙恒來, “國債報償運動의 發端과 發展,” 207.

시작되었다.<sup>233)</sup> 윤치호가 사무를 담당하던 국채보상운동은 한국인의 나라사랑하는 마음 자체였다.<sup>234)</sup> 기독교는 일찍부터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한 터라 이를 전도의 계기로 삼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모금에 나섰다. 또한 지방마다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진명부인회같은 기독교 단체들이 세워졌다.<sup>235)</sup>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5일자에 김문근이라는 교인이 국채보상운동 권고문을 읽고 연설한 후에 10원을 내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성금을 냈다는 기사를 실었다. 3월 21일에도 김만준이라는 사람이 예배 후에 교인들로부터 120원 40전을 모아 대한매일신보사에 보냈다는 기사도 실었다. 이토오는 이런 일련의 운동을 YMCA, 대한자강회, 대한매일신보사 등의 지원 하에 진행된 배일행동으로 간주하여 방해하였다.<sup>236)</sup> 일제는 『大韓每日申報』 사장이었던 베텔(E. T. Bethell)을 횡령혐의로 뒤집어 씌워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6천만 엔의 차관 추가를 강요함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다.<sup>237)</sup>

국채보상운동에서 보여준 기독교 절제운동은 제한적이었다. 전형적인 기독교 절제운동은 개인의 변화와 함께 사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한시성이 아닌 지속성에 있다. 반면, 국채보상운동은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습관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절제운동으로 일반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C. 절제운동 내용

일제의 한국점령 의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무질서는 계속 가중 되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과거의 악습과 단절할 것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선교사들은 교인들에게 과거의 악

233) “雜報,”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1일).

234) “한人忠愛,”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일); “논설,”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일).

235) 이덕주, 『한국감리교여성선교사의역사』 (서울: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 1991), 214-7; 한국기독교연사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350.

236) “논설,”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6일).

237)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성선교사의 역사』, 217.

습과 폐습의 단절을 촉구하였다. 선교사들이 한국인에게 유독 강하게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했던 것은 교인들의 외적 증가가 생각보다 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대적인 혼란은 교회의 외형적인 증가의 동기를 제공했지만, 실제 생활의 변화는 기대보다 적었다. 선교사들은 엄격한 도덕률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내면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여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거절하고,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38)</sup> 사람이 마음을 정결해야 할 것은 1)마음의 악한 것, 2)무식한 것, 3)몽매한 것, 4)우상섬기는 것, 5)양심의 병든 것, 6)간사와 방탕, 7)더러운 일 등이다.<sup>239)</sup> 이런 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정결한 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절제생활을 하는 삶이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가 음주, 흡연, 아편, 축첩에 어떻게 반응하며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 1. 음주문제

조선시대부터 음주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고위관료와 지역유지들은 엄격한 금주령을 피하였고, 일반 백성들도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화살을 비껴갔다. 한국에서 영문으로 간행된 최초의 잡지인 *The Korean Repository*<sup>240)</sup>에서 한국인의 음주문화를 설명하면서, “음주벽”(Inebriatio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알코올을 탐닉하는 습관은 한국인들 사이에 폭 넓게 퍼져있다. 음주벽이 이웃

238) “집안을정결케할것,” 『신학월보』 제 4권 9호(1904년 9월), 381-4.

239) “론설,” 『신학월보』 제 4권 9호(1904년 9월), 385-92.,

240) *The Korean Repository*은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F. Ohlinger) 부부에 의해 처음으로 월간지로 출판되었다. 아펜젤러의 요청으로 1887년 내한 한 올링거는 배제학당 내에 삼문출판사를 만들어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The Korean Repository*가 출판된지 일년 만에 올링거가 고국으로 돌아가자, 아펜젤러와 험버트가 1895년부터 그 뒤를 이어 계속 발행하였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풍습, 종교, 언어 등 한국사회의 전체를 상세하게 소개해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유영렬과 윤정란이 *The Korean Repository*를 분석하여 집필한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서울: 京仁文化社, 2004)를 참조하라.

들 사이에 넓게 퍼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완전한 금주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보고된 대로 드문 것은 아니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서울보다 도쿄나 베이징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음주 습관은 보편적이며, 언어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 “거리가 음주벽이 있는 사람에겐 충분치 않다”는 속담이 한국에서는 “하늘과 땅이 음주자들에게는 너무나 좁다”로 번역되었다. ... 알코올은 도박 빚처럼 술값과 댈 수 없는 관계다. ... 누가 3년간 술값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 술을 탐닉한다는 것은 끝이 없다.<sup>241)</sup>

성공회 소속 의료 선교사 랜디스(E. B. Landis)가 의료선교 중 술로 야기된 경험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랜디스는 한국에서 음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적지만, 음주벽이 폭넓게 퍼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도박 빚처럼 술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음주가 심각하게 문제시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황성신문』에도 음주에 관한 소식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일본중의원에서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이 통과되었다”<sup>242)</sup>라고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반면 선교사들은 음주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대처하였다. 선교사들은 먼저 성경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의무로 금주를 요구하였다. 감리교 존스(George H. Jones)가 창간한 『신학월보』 1901년 8월호에 “존절호는 공과”라는 제목 하에 ‘술은 속이는 물건이니 과음하면발광호느니 술에 침윤호야속논이는 심히지혜업느니라’는 요지의 내용이 실렸다. 성경공부를 통하여 음주는 곧 죄로 여기면서 7가지의 고난이 따른다며 금주를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sup>243)</sup> 또한 1893년-1901년 장로교 선교회활동 중에 한국인이 버려야 할 악습 중에 음주와 도박을 다루었다. 이것들로부터 싸움, 투쟁, 살인, 상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그 근거를 성경에 두었다. “성경은 술과 도박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44)</sup>

241) E. B. Landis, "Things in General," *The Korean Repository*, Vol. IV(June 1897), 229.

242) “禁酒法案可決,” 『황성신문』 (1906년 2월 26일); “禁酒法案의 經過,” 『황성신문』 (1908년 2월 18일); “外人禁酒,”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1일).

243) 7가지 고난은 타툼, 원망함, 몸상함, 병, 색욕, 어지러움, 술에 종노릇 등이다. “존절호는 공과,” 『신학월보』 제 1권 9호(1901. 8), 466-8.

244) Charles A. Clark, *Korean Church and Nevius Methods*(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0), 98.

선교사들은 성경과 함께 술에 대한 무익성을 가르쳤다. 술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육신과 영혼과 하는 일과 생활도 해로우니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술값을 저축하여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을 권면하였다.<sup>245)</sup> 『신학월보』 1902년 6월호에, 술을 “모든 죄를 짓는 것과 패가망신호는근본”으로 보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까지 하며 술을 경계하였다.<sup>246)</sup> 선교사와 함께 본토 전도인으로 사역했던 김기범도 음주한 농부의 예를 들면서 “술은 패가망신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는 악”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더라도 마시지 못하게 해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sup>247)</sup>

음주에 대한 교육이나 권면만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 금주운동을 전개하였다. 복감리교 소속 노블부인(William A. Noble)은 “술을 금하는 찬미”를 지어 금주의 필요성을 보급시켰다.

- 一 술은에령혼을죽게하니 먹는자결단날줄아나니  
만지지마라만지지마라 잔을만지지마라  
그속에 마귀잇는줄몰나 죽음주는잔을삼가하고  
소경갓치구렁에빠진다 맛보지도말어라
- 二 그잔속에고은빛잇서도 자만호갓치빛최되  
만지지마라만지지마라 잔을되만지지마라  
이잔속에쏘는것잇스니 저를살피지못하게하니  
그독한거맘속드러가오 잔을만지지마라
- 三 방울만큼도마시지말고 사랑하는자의권면듯고  
만지지말고마시지마라 잔을만지지마라  
네집을위하여먹지말고 하나님과나라를위하여  
친구위하여그만두어라 잔을만지지마라<sup>248)</sup>

선교사들의 분명한 금주태도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금주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엄격하게 다루어졌고,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도 하였다.

245) “탐주로살님망흠,” 『신학월보』 제 1권 2호(1900년 2월),

246) “술의낭패,” 『신학월보』 제 2권 6호(1902년 6월), 255-9.

247) 김기범, “결주론,” 『신학월보』 제 1권 2호(1900년 2월).

248) “술을 검하는 찬미,” 『신학월보』 제 4권 5호(1904년 5월), 209.

1900년 감리교 존스는 전도자, 권사, 속장들에게 술을 마시는 교인들은 즉시 출교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sup>249)</sup> 경고만 아니라 구체적인 금주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일본에 금주회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금주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술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sup>250)</sup> 1903년 감리교 연회록을 보면, “절제와 사회 개혁”이라는 항목을 두고 감리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규칙 요약에 실었다. 금주는 교인으로 교회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규칙 중 하나였다.

- (a)교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종류의 술이든 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의료선 교사가 약으로서 처방해준 병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b)교인은 술의 제조나 판매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될 수 없다.
- (c)모든 교인은 술의 제조, 판매 혹은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서 단념하도록 권고한다.<sup>251)</sup>

법적으로 교인들의 금주는 분명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금주를 전제해야 했다. 1903년 2월 『신학월보』에 한 간증문이 실렸다. 운천교회 성도 장치연의 동생 장문옥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술에 빠졌던 사람으로 행실이 마귀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부인과 자식을 내버려두고 함경도 원산으로 놀러갔던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장문옥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형과의 갈등도 해소되고 가정도 회복되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이다.<sup>252)</sup> 장문옥이 술로 찌든 생활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것은 절제운동의 중요한 모범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실례 즉, 개천부암사가 예수를 믿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개천부암사는 술장사였다. 그는 금전판에서 딴 돈으로 호의호식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복음을 접한 뒤에 자기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되, 술장사를 그만두고 도박을 금하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충실한 동생이 되고자 하였다. 이 사람의 변화는 주변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귀중한 모범이 되었다.<sup>253)</sup> 초기 한국 기독교

249) G. H. Jones, “교회법에도 술먹지 못할거시 분명함,”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년 3월 7일).

250) “술은 사람이 먹지못할 음식,” 『신학월보』 제 2권 8호(1902년 8월), 364-8.

251) "Official Minutes of the Nineteen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62.

252) “장치연씨 혼자 귀화함,” 『신학월보』 제 3권 2호(1903년 2월), 55-7.

의 절제운동은 복음을 통한 실제적인 변화로 자기만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것은 곧 복음주의의 입장이며, 변화된 개인에 의해 자기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인 것이었다.

## 2. 흡연문제

담배는 한국인에게 기호품이었고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다. 1888년 토론토대학 YMCA선교사로 왔던 게일은 *Korea in Transition*에서 북경주재 미국공사였던 록힐(Hon. W. W. Rockhill)의 말을 인용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보기란 열 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양반의 아들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였다.<sup>254)</sup>

나는 전에 북경주재 미국 공사인 록힐이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만약 파이프가 입에 물려 있는 시간에 따라 측정한다면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담배를 소비하는 문제라면,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참 뒤떨어진다. 한국인은 사색적이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운다. ... 한국인의 담배는 아침 첫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라>는 인경이 울릴 때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간의 유대를 형성해 주는 매개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은 열 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양반의 아들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한국인에게 담배는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였다. 이로

253) “주의 권능은 양날 가진 칼과 같함,” 『신학월보』 제 4권 5호(1904년 5월), 207-8.

254)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Cincinnati: Jennings & Graham, 1909). 본 저서의 저자 게일은 1888년 토론토대학 YMCA 소속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선교비가 끊어지자 1892년 북장로교로 교적을 옮겼다. A Korean English Dictionary(한영대사전)를 편찬할 정도로 어문학사에 공헌하기도 했던 그는 성서공회 전문번역위원으로 또한 한국성교서회(대한기독교서회 전신) 창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는 1903년 황성 YMCA 출범 당시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활동적인 사역을 한바 있다. 본 저서는 신복용이 『전환기의 조선』(서울: 집문당, 1999)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참조, 20-1.

인해 한국인들은 담배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진듯하지만, 담배의 해악성이나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선교사 중에 담배를 악마로 규정한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적을 악마로 규정하고 이 세상에서 악마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의 입장에서 담배는 노예제도, 인종차별, 여성억압, 춤, 도박, 술, 주류업과 함께 악마의 한 형태였다.<sup>255)</sup> 아펜젤러는 담배문제를 음주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올링거(Franklin Ohlinger)도 담배가 기독교인에게 해악을 끼치기에 그것을 멀리해야한다고 하였다. 만일 담배를 가까이 한 사람은 “감리교인이 아니다”<sup>256)</sup>고 할 정도로 담배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그었다.

1897년 5월 7일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서는 흡연의 해악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sup>257)</sup> 감리교에서는 사회개량위원회를 두어 담배문제를 다루다가 절제위원회에 그 일을 부속시켰다. 그러다 1903년 감리교 연회록에 다시 절제와 사회개량회에서 담배와 궤련문제를 다루었다. “(a)직분을 맡은 자는 절대로 담배나 궤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b)직분을 맡지 않은 교인의 담배와 궤련사용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지해야 한다.”<sup>258)</sup>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담배의 해악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sup>259)</sup>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은 담배를 엄격하게 금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초기 재한 선교사들은 담배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대었다. 기독교인이면 담배를 가까이 못하게 하는 그들의 자세는 곧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기독교인은 술과 담배를 금해야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리기 시작한 것이다.

255) Henry G. Appenzeller, "The Christian Soldier," in *Missionary Research Library Collection*(Uni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Archives, New York).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111에서 재인용.

256) *Annual Report, Methodist Episcopal, Missionary Society*, (1892), 287.

257) “담배의 해로움이라,” 『조선 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5월 7일)

258) "Official Minutes of the Nineteen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62.

259) “담배의 해로움이라,” 『그리스도신문』 (1897년 5월 7일); “담배,” 『그리스도신문』 (1906년 5월 17일); “담배의 해로움이라,” 『조선 그리스도인회보』 (1897년 6월 2일); “삼가지연권,” 『신학월보』 (January 1901), 73-4; “담배를 그르치는 일,” 『그리스도신문』 (1906년 1월 18일); “흡연의 해되는 증거가 무엇이뇨,” 『조선 그리스도인회보』 (1911년 7월 15일).

### 3. 아편문제

선교사들이 담배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것 중의 하나가 아편과 연관된 것으로도 생각된다. 중국에서 만연되어 있는 아편을 가까이 못하도록 한 방편으로 금연을 더욱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sup>260)</sup> 사실 아편과 담배는 길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1907년 7월 8일자 『황성신문』에 “禁煙祝賀會”라는 기사가 실렸다.<sup>261)</sup> 내용을 보면 흡연문제가 아니라 아편금지에 대한 기사였다. 내용은 상해에서 보내온 전보를 근거로 공자묘(孔子廟)에서 아편금지회를 열었다는 간략한 기사다. 중국에서는 아편을 담배처럼 흡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다.<sup>262)</sup> 『황성신문』에 실린 다른 기사다. 북경에서 보낸 전보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이다. 아편금지를 단연(斷煙)이나 금연으로 표현하였다.<sup>263)</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재한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만연된 아편이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 듯하다. 담배를 금지하여 아예 아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8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는 아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지 않은 듯 보인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 1884년 의료선교사로 내한한 알렌(Horace Allen)은 한국에서의 아편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한국에 도착해서 느낀 아편에 대한 생각이다.

1883년 난징(南京)에서 아편 중독은 흔한 일이다. 나는 그 가운데 중독자 한 사람을 아트로핀(attropine)의 피하 주사로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끊임없이 다른 중독자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나의 생활은 비참해져 버리고 말았다. 아편중독자들은 항상 밤에 방문했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어떠한 방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정했다. ... 그곳에서의 그러한 생활은

260)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111.

261) “禁煙祝賀會,” 『황성신문』 (1907년 7월 8일).

262) 倉橋正直, 『日本の阿片戰略: 隠された國家犯罪』 (東京: 共榮書房, 1996), 박강, 역 『아편 제국 日本』 (서울: 지식산업사, 1999), 110. 엄격하게 말하면 아편연고로 생아편에 향료와 혼합물을 섞어 만들어 사용하였다.

263) “禁煙檢査規則,” 『황성신문』 (1906년 6월 18일); “禁煙實行,” 『황성신문』 (1908년 6월 23일); “禁煙의 實行,” 『황성신문』 (1908년 8월 4일); “禁煙準備의 實行,” 『황성신문』 (1908년 8월 6일); “禁煙의 困難,” 『황성신문』 (1908년 10월 22일).

비참하고 불안했다. 그러다가 아편의 저주가 아직 퍼지지 않은 조선에 도착하자 나는 무척 기뻐했다.<sup>264)</sup>

알렌은 중국에 널리 퍼져있던 아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1884년 한국에 들어온 알렌은 아편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을 보고 안심하였다. 중국 거주 선교사들은 중국의 아편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아편금지령을 공개적으로 촉구한바 있다.<sup>265)</sup> 또한 오남용되고 있는 아편 사용을 약용에만 한정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266)</sup>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편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아편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아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1892년으로 추정된다. 북장로교 선교사 모펏(S. A. Moffett)은 의주를 방문하고 아편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발표한 적이 있다. 거기서 만난 한 한국인이 자신에게 아편매매 금지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sup>267)</sup> 평양에서는 부자 청소년들 사이에 아편사용자가 확산되어 “그슈효는 오류백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었다.<sup>268)</sup>

1901년 4월 4일자 『그리스도신문』에 따르면, 정부에서 방을 붙여 아편을 사용하는 자는 잡아 죽인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1904년 4월 25일 서울의 한 아편소굴을 급습해서 여러 명을 붙잡았다는 것을 보면<sup>269)</sup>, 정부는 아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문제되는 마약문제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대저 아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비상보다 더 독한 것이라. 이것으로 집안이 패하고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 사람이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 일전에 새로 붙인 방

---

264) Horace N. Allen, *Things Korean*(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윤후남 역, 『알렌의 조선체류기』(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207.

265) “淸國에 阿片問題,” 『대한매일신보』(1907년 12월 25일).

266) “阿片禁止運動 同電을 據호則香港,” 『황성신문』(1906년 8월 22일).

267) S. A. Moffett, "To the Editor of The Korea Repository," *The Korea Repository*, Vol. I(Jan. 1892), 35.

268) “아편만면,” 『대한매일신보』(1905년 2월 13일).

269) "New Calendar," *The Korea Review*, Vol. IV(1904), 217.

을 본즉 아편먹는 자는 잡아 죽인다는 말이 있으니 그 금하는 뜻은 아름답거니와 항상 영을 내릴 때에 행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어야 하는 법이라. … 대개 사람의 악한 일을 법률로만 금하려 하면 법률이 아무리 밝아도 그 악한 뿌리를 없이지 못하나니 이는 법률이 능히 사람의 마음을 고치지 못하여 그 마음이 은밀한 중에 나타나는 연고니 … 기어이 선한 일이 악한 마음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본의요, 충애의 근본이라.<sup>270)</sup>

내용은 아편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본질적인 것은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아편을 금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법률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는 요지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아편을 막아야 되는데, 그 대안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서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초기에 한국의 아편문제가 중국보다 심각하지 않고, 정부방침에 잘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다 아편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기독교는 교인들에게 아편에 대하여 심각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 4. 축첩(蓄妾)문제

당시 한국에 다녀갔던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여성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 제도를 존속해 왔었다. 조상숭배나 효도문제도 엄밀히 말하면, 가부장제도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예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버드대학교 총장을 지낸 로렌스 로웰(L. Lowell)과 한 형제였던 로웰(Percival Lowell)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을 기록하였다.

이장의 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성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사에서 여성의 지위는 부정이나 부인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선에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질적, 육체적으로나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정신적, 도덕적,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은 거의 무에 가깝다. … 첩

---

270) “아편 금할론,” 『그리스도신문』 제 5권 14호(1901년 4월 4일).

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인 역시 남자의 동반자가 아니다. 여자들은 사회의 한 부분이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다. 사회적인 지위 뿐 아니라 극동에서의 여성에게는 법적 지위도 없다.<sup>271)</sup>

한국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독립신문』은 당시의 여성을 “세상에 불상한 인생은 조선 녀편네”라고 그 위치를 정의하였다.<sup>272)</sup> 여성은 남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고 법적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축첩이었다.<sup>273)</sup> 집안이 어려워지면 여성들이 돈을 벌어 살림을 꾸리는데,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남성들은 첩을 얻어 생활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내들은 눈물과 원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했다.<sup>274)</sup> 아내는 단지 남편을 위한 존재일 뿐, 남편과 대등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또한 남편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도 당연시 하였다. 이런 남성의 태도에 대하여 초기 기독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첩이나 다른 여자문제를 단호하게 끊어야 했다. 특히 기독교 남성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였다. 당시 첩문제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목격한 선교사들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1894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연례회의에 제물포와 강화에서 목회하던 북감리회 존스(G. H. Jones)목사가 한 남자를 안전에 붙였다. 이 남자는 3명의 아이를 둔 부인과 2명의 아이를 둔 첩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학습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결론은 그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부터 제명하는 것이었다.<sup>275)</sup> 이런 결정은 장로교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부부로 삼으셨고, 남자는 교회에서 여러 여자를 둘 수 없다고 결정

---

271) Percival Lowell,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Harvard University Press, 1885),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조경철 역(서울: 예담, 2001), 120, 126.

272)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제 7호(1896년 4월 12일).

273)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인화 역(서울: 살림, 1995), 395. 비숍이 청일전쟁이 막 시작할 무렵인 1894 겨울부터 1987년 봄 사이까지 네 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은 경험과 인상들을 기록하였다.

274)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제 31호(1896년 6월 16일).

275) "The Annual Meeting of the Methodist Mission," *The Korean Repository*, Vol. II(August 1895), 356-7.

하였다.<sup>276)</sup>

초기 교회는 엄격한 법 적용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일처제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김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sup>277)</sup>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기 기독교는 대략 3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를 둔 남성들이 첩을 데리고 살거나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것은 정욕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학월보』에서는 사람에게 두 종류의 원수, 즉 정욕과 마귀가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이 두 원수 때문에 패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78)</sup> 두 번째는 술을 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술노릇야금 범죄함이니 음부와긔치놀때 무엇스로 슈작거리를 만달며”<sup>279)</sup>라고 하여 술과 여자문제는 깊은 함수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초기 교회가 술을 강력하게 끊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도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로 남성은 정결을 회복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80)</sup> 정리하면 남성이 정욕으로 인하여 다른 여자를 찾게 되는데, 이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믿고, 술을 금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천에 사는 김제안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도에 열심을 다하였다. 그는 직업을 포기하고 전도에 집중하며, 교회 두 곳을 세웠고, 8명을 회개시킬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신학월보』에 실렸던 “첩잇는 폐단”을 읽고 아이가 없어 첩을 얻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회

---

276) W. L. Swallen, "Polygamy and The Church," *The Korea Repository*, Vol. II(August 1895), 289-94. 장로교선교부는 일부일처제와 조상숭배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일부일처제에 대한 논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William M.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I," *The Korean Repository*, Vol. II(August 1895), 288-92; William M.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II,"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August 1896), 323-333; William M. Baird,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I,"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September 1896), 350-60; "Polygamists in Christian,"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September 1896), 373-4.

277) “첩잇는 폐단,” 『신학월보』 제 1권 9호(1901. 8), 429-33.

278) “두 가지 원수,” 『신학월보』 제 4권 3호(1904. 3), 107-9.

279) “술의낭패,” 『신학월보』 제 2권 6호(1902. 6), 256.

280)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제 31호(1896년 6월 16일).

개하였다.

제가 심히 어리석고 무식하고 이와같이 큰 더러운 죄를 범하여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다가 이에 월보를 보온즉 과연 하나님의 노를 발하고 죄가 심히 크온지라 제가 이제 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첩을 내어보내오니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곤절히 기도한 후에 첩을 내어 보내엿시니 춤 밋음의 회개는 하나님의 권능인줄 밋노라.<sup>281)</sup>

기독교는 첩을 들이는 남성에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동시에 첩에게도 그 생활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첩 생활을 하다가 청산하고 회심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sup>282)</sup> 축첩문제는 남성의 문제이기도 첩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기독교는 축첩문제가 조혼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기독교는 1)남녀가 동등한 권리가 있는 줄 알고, 2)남녀 간에 같은 학교에서 학문을 함께하고, 3)부모가 억지로 혼인시키지 말고, 4)혼인시기를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83)</sup> 특히 조혼은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제도로 돈거래, 축첩문제, 남녀불평등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막고자 조혼을 금하였다.

## D. 초기 기독교 절제운동 평가

기독교 선교는 기독교권에서 비기독교권에 끼치는 종교적 도덕적 영향까지도 전부 포괄한다.<sup>284)</sup>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그들의 신앙적 성향이나 특질을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절제운동이 태동하는 배경에도 이들의 복음적인 신앙과 엄격한 도덕률에 있었다. 이것에 기초하여 한국 기독교는 절제운동의 전면에서 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구습을

---

281) 구춘경, “리철읍 김제안씨의 첩보린 일,” 『신학월보』 제 2권 3호(1902년 3월), 119.

282) 이효재, “한국교회 여성 100년사: 개관과 전망,”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한국기독교 여성100년사』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5), 23-6.

283) 엽윗청년회, “혼인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제 3권 16호(1899년 4월 19일).

284) 백락준, 『韓國改新教會史』, 61.

타파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기독교 형태가 있었다. 일제라는 신흥 강국의 힘에 맞닥뜨린 기독교는 항일 형태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전통적인 악습과 폐단의 단절을 촉구하였다. 비록 선교사들은 정교분리를 외치며 이들과 분명한 선을 긋고자 했으나, 초기에는 분명한 단절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독립운동 또는 민족운동이라는 기조아래 펼쳐진 운동도 축첩문제(여성문제), 애국문제, 우상문제, 조혼문제, 음주흡연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절제운동 대상은 전통적으로 한국 내에 내재되었던 악습들이었다. 악습이 때로는 법으로 인정받거나, 시대의 조류와 함께 적당히 타협되거나, 비밀리 자행되기도 하였다. 이런 악습이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수용되었고, 때로는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기도 하였다.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폐단이 절제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절제운동이 복음적인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의 복음적인 특성이 그대로 한국교인들에게 전이되었다. 복음을 통하여 개인이 변화되고, 변화된 개인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는 복음주의 전통이 한국 절제운동에서도 그대로 전개되었다.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급증한 것은 선교사들로부터 엄격한 기독교인 만들기 에 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에 필수 조건인 셈이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은 넘쳐나는 개종자보다는 그들을 관리 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더욱 힘든 때였다고 볼 수 있다.<sup>285)</sup> 이들은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킴으로 기존의 사회악으로부터의 수동적인 단절만아니라 적극적인 변혁의 주체를 기대하였다.

셋째, 절제운동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교회밖에 있는 사람이 절제운동의 대상이 아니었다. 기독교는 교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엄격한 도덕률을 적용하였고, 절제운동에 관한 교회 제도나 규범을 세워 갔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면 그에 따른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고쳤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에게도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교회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이 사는 생활로 그대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신앙과 생활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

285) J. R. Moose, "A Great Awakening," *KMF*(January 1906): 52.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절제운동은 선교부별로 진행되었다. 장로교공의회와 남북감리교회는 전도와 관련된 문제나 행사는 서로 협의하였지만, 절제운동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다루지는 못했다. 한 선교부에서 다른 선교부의 결정을 수용하거나, 참고로 하여 발전시키는 경우는 있었다. 한일합방 전에는 주로 교파별로 교회 안에서 절제운동을 전개하였고, 초교파적으로 연합하거나 함께 행동을 통일시키지는 못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초교파적인 절제운동은 수면 하에서 내재된 시기였다.

다섯째, 절제운동은 교회 내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개인의 회심 형태로의 절제운동과 교회 제도와 법규를 세우는 형태로의 절제운동이다. 전자는 부흥회에서 보여준 개인의 내적 회개운동이다. 복음적인 회개운동은 개인의 변화만 아니라 사회개혁의 동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후자는 먼저 교육으로 예비 지도자를 준비시켰고, 의료선교로 생활에 노출된 악습에 다가섰다. 둘째로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하여 교회의 입장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들을 전하였다. 셋째로 절제와 관련된 교회법을 제정하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일반인과 협력하여 금주금연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은 1907년 국제보상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대상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폐습과 악습이었다. 기독교는 그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촉구하였다. 이것 기독교 절제운동이기도 하다.

## IV. 일제 무단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1910-1919년)

1910년부터는 기독교 절제운동이 사회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일합방을 계기로 기독교는 일제의 수탈과정에서 나타난 음주, 흡연, 아편과 공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악습을 절제운동 대상으로 삼았던 기독교는 일제에 의한 문제들까지 포함시켜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교회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회를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정리하면 1910년 이전에는 한국의 내재된 악습이 절제운동 대상이었다면, 1910년대는 192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한국의 악습과 일제에 의한 퇴폐문화를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적으로는 전자보다 후자가 주요 대상이었다. 일례로 3.1운동도 일제에 의해 확산된 아편문제나 공창제도에 대한 절제운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1920년대 기독교는 일제에 의한 세속화와 퇴폐문화에 초점을 두면서 절제운동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본 장의 절제운동은 1910년부터 1919년 사이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대상도 한국의 악습에서 일제에 의한 퇴폐문화와 세속화로 넘어가고 있었다.

본 장을 전개함에 있어 먼저 시대적인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압으로 한일합방을 주도한 일제는 무단통치<sup>286)</sup>로 온갖 수탈을 자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조세제도를 만들거나 개편하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일제는 <주세령>과 <연초세령>을 신설하여 자국의 자본으로 주초산업을 확대시켰다. 그 결과로 일제는 세수를 증가시켰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술과 담배소비를 급증시켰다. 일제는 또한 1차 세계대전 직후 급등하는 아편가격을 잡기위해 한국을 아편재배지로 삼았다. 일찍 끝난 세계대전으로 아편가격이 폭락하자 과도하게 생산된 아편은 한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살포되었다. 일본교풍회의 비판대상이었던 공창제도도 축첩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를 한국인에게 안겨 주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는지 다루고자 한다.

---

286) 무단통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이다. 오직 군사력에 의하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며, 가혹한 탄압과 수탈과 유린을 자행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한다. 송이량, 『일제의 한국 식민지 통치방식』, 95-7.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독교 절제운동이 전개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장의 절제운동은 한국의 폐습과 함께 일제의 수탈과정에서 형성된 폐단을 대상으로 삼았다. 절제운동은 전개과정에서 교회 안팎으로 조직화되고 확대되었다. 장로교와 감리교만 아니라, 1908년 한국에 들어온 구세군도 절제운동에 합세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본 장은 교회 안에서 진행되던 절제운동이 사회를 향하여 확산되는 길목에 있으며, 1920년대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한 절제운동의 통로가 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 내용과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평가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 A. 일제에 의한 시대적인 상황

일제는 러일전쟁 직후 미국과 카쓰라-태프트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을사 5조약(1905. 11)을 맺었다. 한국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내세워 한국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구실아래 경찰 조직과 정규군을 관장하였다.<sup>287)</sup> 또한 1907년 7월 정미 7조약으로, 일제는 군대를 해산시키고, 신문출판을 통제하고, 보안법으로 집회를 통제하였다. 그러면서 한일합방을 위한 수순을 하나씩 밟아갔다.<sup>288)</sup>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을 강제로 조인한 일제는 8개 조항으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택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데라우찌 마사타케(寺內正毅) 자작을, 한국 황제 폐하께서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위 전권위원은 합동 협의하고 협정하였다.

287) 자세한 것은 朴秀妍의 “統監 伊藤博文의 對韓政策과 이에 대한 愛國啓蒙派의 認識,” 『한국민족운동사의 새로운 방향』 한국민족운동사 편(서울: 국학자료원, 1998), 221-57을 참조하라.

288) 을사 5조약(1905)과 정미 7조약(1907)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이종범, 최원규가 공동으로 편집한 『자료 한국근현대사입문』(서울: 혜안, 1998)중에서 168-72를 참고 하라.

제 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 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 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동지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sup>289)</sup>

한일 양국의 행복과 동양평화의 증진이라는 미명아래 조인된 한일합병으로 한반도에서 한국인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었다. 한국은 한일합병으로 모든 주권을 빼앗길 뿐 아니라, 1919년까지 무단통치라는 철권으로 온갖 억압·유린·수탈을 겪어야 했다.<sup>290)</sup>

일제는 한국을 수탈하기에 앞서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1910년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선교문제를 함께 거론하였다. 선교가 일본 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미국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했다.<sup>291)</sup> 이를 계기로 일제는 선교사들과 보다 명확한 관계를 희망하고, 그들에게 더욱 비정치적일 것을 요구하였다. 1910년 10월 일제는 외국인들은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냈다.

(일본)정부와 행정부에 편견을 갖지 않으면서 교육과 다른 유익한 사업에 종사했던 모든 종교적인 선교활동을 보호하고 지지(encouragement)하는 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sup>292)</sup>

289) “한일합병조약,” 『자료 한국근현대사입문』, 172-3.

290) 송이랑, 『日帝의 韓國 植民地統治 方式』, 95.

291)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 ed,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翰林大學 아시아文化研究所 자료총서 I』 (춘천: 한림대학교출판부, 1987), 30-31. 이 자료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미국의 대한 정책이 자세히 나와있다. 연구 보고서로 된 이 문서는 미국정부의 조선 개항노력과 그 실현, 한미조약체결 이후의 정책,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관련된 정책, 한일합방과 그 이후의 정책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선교사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힘으로 한반도에서의 선교사업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자료다.

일제는 선교사가 순수한 종교적인 활동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교사들에게 일제가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정치적일 것과 종교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활동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활동을 선교에만 한정시킨 일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sup>293)</sup> 우선 손을 댄 것은 조세제도였다. 정태헌은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에서 일제의 조세제도 변화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1910-18년 : 자본주의적 조세구조 형성의 과도기. 2단계는 1919-33년 : 자본주의적 조세구조의 형성기. 3단계는 1934년 이후 : 전시수탈의 장기적 기반 구축을 노린 자본주의적 조세 정책의 발전기 등이다. 조세제도에서 하나 눈여겨 볼 것은 1909년부터 시행된 <주세법>과 <연초세법>이다. 1910년대 초 만하더라도 주류는 보통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소규모로 빚는 가내수공업의 형태였다. 일제는 주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주류를 제조할 때는 모두 면허를 받고 다음해의 예상 주종(酒種)과 생산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것이 <주세법>의 골자이다. 1915년 <주세령>을 공포한 일제는 제조와 소비를 분리시키고자 자가용주를 통제하고, 한국의 영세 주조업을 축출하여 자국의 대자본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sup>294)</sup> 일제의 조세제도 초점은 조세수탈로 자국의 열악한 재정충당이였다.

<표-1>을 보면 1910년 16만 3천 엔으로 시작한 주세가 1915년까지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주세령>이 적용되는 1917년에는 147만 3천 엔으로, 1919년에는 170만 엔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표-2>에 보면 주류제조장 수가 1910년에 197,094개소였다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1916년 이후에 갑자기 132,987

---

292) Japanese Minister for Foreign Affair to American Ambassador in Tokyo, Oct. 6, 1910, enclosed in O'Brien to Knox, Oct. 14, 1910, 322-24,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32에서 재인용.

293) 이윤상, “식민화 과정과 민족경제의 동태,” 『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 (서울: 한길사, 1994), 298.

294) 1918년과 1934년을 각 시기구분의 경계년도로 잡은 이유는 1918년에는 ‘조선토지조사사업’ 완료로 지세제도의 정비가 마무리되었고, 1934년에는 개인소득세제가 도입되어 ‘세제 정비’가 일단락됨으로써 조세수탈이 훨씬 효율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정태헌,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8), 41-4를 참조하라.

개로 감소하였다. 1919년에는 84,436개로 1915년에 비해 대략 1/3로 줄어들었다. 공장이 줄어들었음에도 주세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주류공장이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류를 산업화시킴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일제의 의도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표-1> 조세 대비 주세 비중

| 연 도  | 조세총액(만 엔) | 주세(만 엔) | 비율(%) |
|------|-----------|---------|-------|
| 1910 | 906.2     | 16.3    | 1.8   |
| 1911 | 1,244.1   | 26.0    | 2.1   |
| 1912 | 1,336.3   | 38.4    | 2.9   |
| 1913 | 1,390.4   | 44.5    | 3.2   |
| 1914 | 1,668.4   | 47.7    | 2.9   |
| 1915 | 1,749.4   | 51.5    | 2.9   |
| 1916 | 1,887.6   | 88.1    | 4.7   |
| 1917 | 2,268.0   | 147.3   | 6.5   |
| 1918 | 2,918.4   | 170.8   | 5.9   |
| 1919 | 3,852.2   | 288.7   | 7.5   |

\* 『朝鮮總督府統計年表』, 각 연도별 참조.

<표-2> 주류제조 공장수

| 연 도  | 공장 수    |
|------|---------|
| 1910 | 197,019 |
| 1911 | 207,647 |
| 1912 | 316,400 |
| 1913 | 353,668 |
| 1914 | 374,978 |
| 1915 | 390,367 |
| 1916 | 132,987 |

|      |         |
|------|---------|
| 1917 | 122,866 |
| 1918 | 101,314 |
| 1919 | 84,436  |

\* 『朝鮮總督府統計年表』, 각 연도별 참조.

<연초세법>도 1909년 시행되었으나 1914년 <연초세령>으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거두어 들였다. <연초세법>이 면허제로 세원 파악을 중심에 두었다면, <연초세령>은 연초세의 세분화를 거쳐 보다 폭넓게 세금을 수탈하였다. 그러다 1921년부터는 연초전매제를 시행하여 수익을 늘려나갔다. <표-3>을 보면, 1910년 25만 6천 엔의 연초세가 1916년 98만 엔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 1917년에는 120만 8천 엔으로, 1919년에는 484만 9천 엔으로 급상승하였다.

<표-3> 조세 대비 연초세 비중

| 연 도  | 조세총액(만 엔) | 연초세(만 엔) | 비율(%) |
|------|-----------|----------|-------|
| 1910 | 906.2     | 25.6     | 2.8   |
| 1911 | 1,244.1   | 29.2     | 2.3   |
| 1912 | 1,336.3   | 34.6     | 2.6   |
| 1913 | 1,390.4   | 38.0     | 2.7   |
| 1914 | 1,668.4   | 74.0     | 4.4   |
| 1915 | 1,749.4   | 95.3     | 5.4   |
| 1916 | 1,887.6   | 98.0     | 5.2   |
| 1917 | 2,268.0   | 120.8    | 5.3   |
| 1918 | 2,918.4   | 258.5    | 8.9   |
| 1919 | 3,852.2   | 484.9    | 12.6  |

\* 『朝鮮總督府統計年表』, 각 연도별 참조.

연초세는 주세와 함께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런 증가는 업자들을 산업차원에서 적극 지원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업자들도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술과 담배 판매를 강화시켜 수익을 더욱 높였다. 역으로 기독교인들의

금주금연운동은 일제나 업자들에게는 큰 방해요소였다.

일제는 세제 신설과 개편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다른 쪽으로는 교육령을 통하여 한국인들을 자신들의 통제에 두려고 하였다. 일제는 자국에서 내려졌던 <교육칙어>를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였다.<sup>295)</sup> 일제의 이런 교육정책은 동화정책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었다. 이는 일제가 한일 양국의 차별을 교육정책에도 접목시켜 실제로는 우열정책 내지는 차별 정책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쓰마모토(隈本繁吉)는 한국인에 대한 교화정책을 어떻게 펼치는 것이 좋은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두발을 꺾고 서양모를 쓰고 안경을 끼고 서양화를 신은 이른바 다소 신문명의 공기를 마신 것 같은 고결한 풍의 무리들 가운데는 통감정치 및 일본민족에 대한 반감이 거동에 혹은 언어에 혹은 그 면모에 분명히 나타나는 자가 적지 않다. 이들은 천박하지만 국가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막연하지만 세계 형세를 엿보고 조선민족이 일본민족에게 압도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금후 일본 제국의 통치에 대하여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이 민족적 자각심일 것이다. 그렇다면 금후 교육 시설에서는 가장 이점에 유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 자각심을 각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고찰하더라도 초등교육 이외에 해야 할 교육상의 시설은 그들의 생업에 직접 관계있는 것에 한하여 착실 온건한 교육을 받게 하여 제국 통치 아래서 행복한 생활을 향락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지도할 것을 요한다.<sup>296)</sup>

한국인은 초등교육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교육은 오히려 자국에 해가 될 수 있다.

---

295) “우리 천황폐하는 일찍이 신민의 교육에 전념하셔서 전에 교육에 관한 칙어를 선포하시고 이제 또 이를 조선에 내려 주셔서 이 제국 교육의 근본을 밝히고 일시동인으로 민중을 자애하시는 성스러운 뜻에 불과한 것이다. ... 진실로 교육의 직에 있는 자는 항상 이를 봉독하여 생도의 훈도에 노력하고 특히 학교의 식일에는 삼가 이를 봉독하여 생도로 하여금 밤낮 복응하게 함으로써 교화의 실을 거두어 성지에 보답하기 바란다.” “교육칙어,” 『조선총독부 관보』 제 405호(1912년 1월 6일),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47.

296) 隈本繁吉, “교화의견서,”(1910년 9월 8일), 渡部學・阿部洋 편, 『일본식민지교육정책사료집성』(東京: 龍溪書舎, 1991),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40.

따라서 한국인을 위한 교육은 초등교육 외에 생활과 밀접한 직업교육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쓰마모토의 견해는 일제의 한국 교육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sup>297)</sup> 한국인의 독립사상을 고취시키지 않게 하고, ‘신민’으로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게 하느냐가 일제의 교육방향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을 자신들의 통제아래 두려는 일제의 교육방향은 분명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서구 세력의 지원을 받는 기독교로 판단했다.<sup>298)</sup> 그들에게 선교사가 운영하여 직접 개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선교사들에게 정교분리 준수를 요구하였다.<sup>299)</sup> 그 직후 1911년 10월 공포한 <사립학교규칙>으로 모든 학교의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1915년 3월 총독부령 24호 <개정사립학교법>은 교과목에서 성서를 제외하고 교사들에게 일본어 학습을 의무화시켰다.<sup>300)</sup> 이런 일련의 교육법은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식민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미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신앙에 기초한 지식인들은 일제에 대하여 그리고 민족의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일제는 한국에서의 아편문제를 엄격하게 다룬 것처럼 보였다. 이런 배경에는 1909년 2월 19일부터 8개국이 모여 상해아편회의가 열렸다.<sup>301)</sup> 뒤를 이어 1911년 12월 헤이그에서 제 1차 국제아편

297) 일제의 고등교육은 식민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기초 일본어와 직업기술만 강조하였다. 朝鮮總督府, 『合邦以後 朝鮮行政 3年』(京城: 朝鮮總督府, 1914), 49; 韓基彦, “日帝의 同化政策과 韓民族의 教育的 抵抗,” 『日帝의 文化侵略史』, 韓基彦외 3인 共著(서울: 玄音社, 1982), 11-84.

298)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331.

299) 데라우찌 총독은 1911년 7월 1일 각도장관회의 석상에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태도를 비판하고 종교와 교육을 분리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는 치외법권 때문에 종래에는 거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히 감독하고 종교와 학교를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京城: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27), 364.

300)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서울: 景仁文化社, 2001), 57-69; “개정사립학교규칙,”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87-89.

301) 1차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各國은 協同하여 阿片密賣을 防止할 事,  
二. 모루히네의 善良品製造及販賣를 嚴重取締할 事,

회의가 열렸고 1912년 헤이그 아편조약을 맺었다.<sup>302)</sup> 계속해서 제 2회(1913년 7월)와 제 3회(1914년 6월) 아편회의가 개최되어 아편금지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회의들은 거의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청교도적 입장에 있었던 미국은 술보다 아편을 더 악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편국제회의에서 아편밀매를 완전히 막기로 결의하였다. 영국은 아편협정에 따라 1917년까지 인도산 수출을 금하였다. 일제도 아편회의의 결과를 준수하기로 하였다.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일제는 정부차원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며 불법으로 아편밀매를 자행하였다.<sup>303)</sup> 먼저 그 대상은 대만이였다. 대만에서 <아편전매제>로 올린 막대한 수익으로 일제는 대만통치의 주요한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편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제는 많은 액수의 아편대금을 지불해야 했다.<sup>304)</sup> 1차 세계대전으로 아편가격이 급등하자 일제는 수입 의존도를 줄일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대안은 한국을 아편재배지로 삼는 것이다.

1차 대전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아편가격이 급락하였다. 떨어지는 재원을 보충하고자 당시 아편재배 및 판매를 담당했던 대정(大正)제약주식회사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아편밀매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이전부터 아편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1910년 1월 28일 기준으로 모르핀주사 사용자가 5,198명에 이를 정도였다.<sup>305)</sup> 아편중독자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1919년 <아편취제령>

---

三, 阿片休煙令 結果로 阿片劑를 學理上 調査할 事,  
四, 能力의及할대 阿片의 使用을 制限하다가 漸次禁止할 事,  
五, 淸國居留地에서 近日內로 吸煙館을 閉鎖할 事,  
六, 阿片又는 모루히네를 混用한 藥品은 醫師의 證明이 無하면 販賣키 不得할 事,  
七, 阿片又는 모루히네를 混用한 藥劑販賣함에 關하여 各國이 取締規則을 設함은 各國領事  
가 淸國各城에 通告할 事

“萬國阿片會議場所,” 『황성신문』 (1908년 12월 24일); “阿片會議案,” 『황성신문』 (1909년 2월 27일); “阿片會議決案,” 『황성신문』 (1909년 3월 4일).

302) 생아편의 생산과 배분은 국가가 직접하되 적합한 법제도를 정하여 통제하고, 약용을 위하여 외국산 아편에 대한 수출입을 원활하게 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ジョン バーマー ガビット, 『阿片』, 安藤明道 譯(東京: 日本評論社, 1936), 278-93. 부록에 회의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外務省, 『國際阿片條約』 (1919). 2차 국제회의와 3차 국제회의 참석자와 결의안이 수록되어 있다.

303) 倉橋正直, 『日本の阿片戰略: 隠された國家犯罪』 (東京: 共榮書房, 1996), 박강 역, 『아편 제국 日本』 (서울: 지식산업사, 1999). 30-45.

304) 倉橋正直, 『아편제국 日本』, 54-60.

305) “阿片吸者の 増加함을歎함,”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8일).

으로 아편재배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sup>306)</sup> <아편취체령> 추진비로 268,732원을 준비할 정도로 아편재배에 혈안이 되어있었다.<sup>307)</sup>

일제는 자국에서 용인되던 공창제도<sup>308)</sup>를 허가함으로써 기독교의 폐창운동의 동기가 되었다. 근대 공창제도는 성매매의 영업장소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여 관에서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마리아 루즈호(the Maria Luz)사건’으로 매춘부매매 금지법인 <대좌부도세규칙>(貸座敷渡世規則)을 발표하였다.<sup>309)</sup> 이 법에 따라 일본에 공창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876년 부산, 원산, 인천 등이 개항되면서 다수의 일본인이 입국하게 되었고, 매춘여성들도 따라오게 되었다. 1881년 부산과 원산에서는 <대좌부영업규칙>(貸座敷營業規則), <예기취체규칙>(藝妓取締規則)등을 규정하여 영업구역을 한정하고 일본의 해당 매춘법령을 적용하였다.<sup>310)</sup> 그러나 러일전쟁이후 다수의 일본군속과 상인들의 내한으로 일본인 거주 지역에서 매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제는 한국 내에서 공창제 도입으로 자국의 병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sup>311)</sup> 한국정부는 이들에게 거주지를 제한하고자 했지만, 일제에 의해서 점차 그 범위가 더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까지는 공창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거주지 내에서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창문제가 차츰 대두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합방이후 경무총감부와 각도 경무부는 공창제도에 관한 법규 정비에 착수하였다. 함경북도의 경우 예기와 작부의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었다. 이전까지만 하더

---

306)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아편을 자급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일제는 새로운 생산지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아편재배에 지질과 기후가 일본에 비해 적합하고, 토지와 노임도 저렴하며, 아편소비가 거의 없어 밀매매단속에 비용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지였다.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 『한국민족운동사의 새로운 방향』, 한국민족운동사 편(서울: 국학자료원, 1998), 310.

307) “阿片施行令,” 『매일신보』 (1919년 2월 19일).

308) 불특정한 다수에게 성을 매개로 하여 금전이나 경제적 유익을 얻는 행위를 매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한 자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일정한 장소에서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 공창제도의 주요 골격이다.

309) 藤野豊, “廢娼と 存娼; その相克と 協調,” 『大正デモクラシー-天皇制キリスト教』 (東京: 新教出版社, 2001), 134.

310)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8.

311)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62.

라도 의무화되어 있는 성병 의무진단을 해당 경찰서장의 판단에 맡겼다. 또한 예기의 폐업과 자유가 있었던 일본인에 비하여 한국인은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sup>312)</sup> 또한 1916년 매춘관련 업무를 통일하고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일제는 경무총감부령 제 4호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선포하였다. 일제 시기동안 지속된 이 법은, 매춘부 나이가 15세에서 17세로, 일본인도 같은 17세(일본은 계속 18세)로 조정되었다. 또한 창기나 대좌부업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창기는 대좌부 밖으로 외출 숙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국인이 창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좌부는 당분간 예외를 둔다고 하였다. 또한 영업장소 이외의 곳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13)</sup> 이 규정은 앞으로 발생될 공창문제가 일제의 자국보다 심각하게 대두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910년 일본인 접객업부는 4,091명, 한국인은 1,193명이었다. 일본인 접객업자는 1,908명, 한국인 40,358명이었다. 그러다 1916년 일본인 접객업부는 4,310명과 한국인 1,708명으로, 접객업자는 2,568명과 65,657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1920년 일본인 접객업부는 4,330명과 한국인 3,492명으로, 접객업자는 각각 2,644명과 69,270명으로 증가하였다.<sup>314)</sup> 공창이 있던 유곽지역도 1911년부터 16곳이 생기면서 그 숫자도 계속 증가하였다.<sup>315)</sup>

일제에 의한 공창제도 및 매춘업은 한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한국에 비록 축첩문화나 기생문화가 있었으나 성을 매개로한 매춘은 일본을 통해 들어 온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수절이나 정절을 중시해온 한국에서 매춘업이 급성장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에 처한 현실 때문이었다. 자신이나 딸의 성을 매매함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한 현실이 큰 문제였다. 변질된 퇴폐한 서구 성문화가 일제를 통해 들어 왔을 때, 한국 기독교는 절제운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본격적인 운동은 1920년대부터였지만 그 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12) 공식명칭은 <平安北道 警務部令 第 9號 藝妓及 酌婦取締規則>으로 자세한 내용은 송연옥의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56의 각주 175참조하라; 山下英愛,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41.

313) 강정숙,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公娼)제도의 도입,” 197-237.

314) 야마시타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편, 제 51호(1997), 170-1의 <표-8>와 <표-9>를 참조하라.

315) 이 숫자는 강정숙의 “대한제국 일제초기 서울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에 나온 통계와 山下英愛의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에 나온 통계를 참고로 하였다.

침묵문화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던 기독교는 매춘문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설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합병을 통하여 일제는 한국에서 온갖 수탈을 자행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먼저, 일제는 <주세법>과 <연초세법>으로 세수를 증가시켜 자국의 이익을 창출했지만, 그로인해 한국에서 음주와 담배소비가 계속 확산되었다. 둘째로 교육제도를 바꾸어 한국인을 우민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선교사들을 통하여 서구지식을 습득한 기독교인은 일제에 의해 피해를 보는 현실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셋째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제가 펼친 아편제배정책이 실패함으로 결국 한국인을 아편사용자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넷째로 일제는 공창제도를 한국에 유입함으로 퇴폐문화를 조장하였다.

## B. 일제에 대한 기독교 대응과 절제운동

1910년대의 기독교 절제운동은 교회 안에서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전의 운동을 기초로 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위하여 교회법이나 제도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갔다. 이 과정은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1920년대의 초교파적이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절제운동을 향한 준비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기독교 절제운동은 사회를 향하여 확산되는 과정을 겪었다. 대표적인 것이 엽뵘청년회의 재건과 3.1운동이다. 1905년 과격한 집단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체된 엽뵘청년회가 1916년 재건되었다. 비록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절제운동에 참여했지만, 이미 금주부를 두어 금주금연운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20년대 청년 절제운동에 앞장섰던 YMCA은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316)</sup> 뒤에서 다

---

316) YMCA회원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Y의 학생 책임자였던 박희도(朴熙道), 구한말 군인이었고 초창기 Y의 체육부 간사였던 이필주(李弼柱), Y의 종교부 위원장이었던 오화영(吳華英), Y이사를 거쳐 일요강화 및 학생 하령회의 명강사였던 정춘수(鄭椿洙)와 최성모(崔聖模), Y의 열성 회원이었던 박동완(朴東完), 학생 Y의 창설자이며 강사인 양전백(梁甸伯), 오산학교 설립자이며 학생 Y의 창설자인 이승훈(李昇薰)이었다.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그중에 Y관계자가 9명이었다.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서울: 범우사, 1994), 227-8.

루겠지만, 3.1운동에서 절제운동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제에 의해 자행된 문제에 직접 부딪치는 것이었다.

## 1. 교회 내의 절제운동

교회 안에서의 절제운동은 1910년 이전의 형태처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먼저, 이전의 부흥운동처럼 개인의 복음적 회심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는 과정에서 절제운동이 나타난다. 둘째는 교회가 제도나 법규를 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절제운동을 조직화내지 체계화시켰다.

### a. 개인의 회심

절제운동의 전형적인 방법은 개인의 복음적인 회심으로부터 출발한다. 1903년 원산부흥운동으로부터 촉발된 1907년 부흥운동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회개였다. 개인의 회심은 곧 주변을 변화시키는 회개이다.<sup>317)</sup> 남감리교 선교사 도이명(都伊明, Charles S. Deming)은 진정한 회개는 “악독한 사회를 정결케”한다고 하면서, 사회를 감화시키는 일에 힘쓸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바로 “담배와 술과 아편”을 버리는 절제운동인 것이다.<sup>318)</sup> 절제운동의 기본은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회심한 기독교인의 “주의”(主意)였다.<sup>319)</sup>

절제운동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개인의 내면의 상태였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음주, 흡연, 아편사용, 축첩이나 공창문제는 내적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표현일 뿐이다. 결국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면세계가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

317) 박명수는 1907년 대부흥운동의 특징을 성령충만에 대한 갈망, 철저한 회개, 열심있는 기도회, 공개적인 자백, 변화된 삶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은 영적갱신과 더불어 사회 갱신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부흥운동과 사회개혁의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초기 한국교회의 영성: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신앙분석,” 『한국교회와 1907년 대부흥운동』, 제 8회 영익 기념강좌 자료집(부천: 성결교회역사연구소, 2004), 23-46.

318) 도이명, “조선그리스도교의 장래가 엿더하뇨,” 『神學世界』 第二卷 特別號上(1917), 87.

319) 도이명, “종교는 성품에 관혼일이 아니라,” 『神學世界』 第二卷 特別號上(1917), 184.

대개 이세상에 가득한바 여러가지 악의근원은 오직탐욕이라 고로만일이거시 이세상과 이세상사람 무익가운데 잊지아니하면 악한것도 역시업서져 이세상이 실노 깨끗한 하느님의 나라를 일우게될지라 그러나 탐욕이라하는것은 곳사람이 술취하는 것으로 인증할수 있는거슨 일백가지 악이 술취한가운데로부터 생겨 흑도적질하며 음담한가운데 빠지기도 하며 헛기운을 이기지못하여 남으로부터 싸호기를 일삼으며 헛탄한말과 밋친소리로 남을들어 욕하기를 도화하며 자기가정에 분접을일아켜 그아해와 그즈녀를 무지한 무익으로 인정업시쳐는 일이 종종 잇서 다만더의 도화하는것과 더의질져하는 것으로말미암아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어 안전(安全)을 방해하니 이것지욕심사오나온 것이 아니며 또한 사람이 술에혹하여 날노술취하는 것으로 정스를 삼는자는 다만 제업으로마시여 제업설을취난 것만생각하여 저로말미암아 그부모쳐즈가 굶고주리는 것을보고 엄동설한에 홋옷을 입고 차운방속에서 취위를 견디지못하여 이심상히덕이던하에 의리업는 사람이되고 말뿐이라 ...<sup>320)</sup>

악은 탐욕에서 비롯되며, 탐욕은 술로 나타나는데 일백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술은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악인 것이다.<sup>321)</sup> 이 악은 오직 성령으로 “무익을 정케”될 때에만 가능하며, 그래야 모든 소욕에서 벗어 날 수 있다.<sup>322)</sup> 성령으로 인간 내면의 모든 악한 것이 제거될 수 있다는 인식은 1903년부터 강하게 일어났던 성령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실례는 당시 기도회, 사경회, 부흥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회나 교회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도하는 성경공부나 부흥회와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절제운동대열에 동참하였다. 구세군의 허가두(許嘉斗, Robert Hoggard)<sup>323)</sup>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한 청년의 변화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320) 리의춘, “술은 사람의 원수라,” 『구세신문』 제 3권 제 8호(1916년 3월 1일).

321) “계훈비설(戒訓比說), 단번에 끈홀일,” 『구세신문』 제 2권 제 18호(1914년 11월 1일).

322) “스욕을막고 무익을 정히홀것,” 『구세신문』 제 2권 제 3호(1912년 4월 1일).

323) 허가두는 1880년 구세군 부위로 임관된 후 세계구세군확장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그는 1908년 한국 구세군 개척자로 부인과 함께 내한하여 노방전도, 순회집회를 통해 복음전도에 힘썼다. 또한 1910년 사관학교를 개설하여 한국인 사관 양성에 힘을 썼다. 김승태, 박혜진 엮음,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자료총서 제 18집(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02.

일전에 허가두씨가 연설하기를 이육신은 성신의 집이 되므로 누구든지 구원박은사람들은 그육테를 결박하고 정하게하여 성신이 드러와거접하기에 덕당한 곳이 되도록하여야 하겠다는말을듯고 마음가운데 홀연히 깨닫기를 이는 곳우리가 하나님과 죄지은것을 이제야 드러내놓고나하고 즉시 상각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더럽고 더러워 나의 육테까지 더럽게하는 악습에 빠자 흡연도하고 다른 악행일도 하는것이 결단코 내가끈허바리리라 하고 레배를 맞치고 가섯는데 그후로 하나님께서 힘을만히주시샤 계속하여 그와갖흔것을 모도이기게 되엿다<sup>324)</sup>

청년은 복음적 회심으로 과거의 모든 악습과 단절을 하였다. 절제운동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지만, 본질적인 것은 영혼의 변화이다. 그 변화된 사람은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신의 주변을 개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주의 절제운동의 핵심이기도 하다.

#### b. 절제운동관련 교회법규 제정과 보완

본 장에서 교회 내의 절제운동은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교회는 절제운동 관련 법규와 제도를 세워나가고 때로는 보완을 하였다. 교인들에게 절제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간물을 활용하였다.

WWCTU와 한국 기독교와의 직접적으로 연결된 때는 1911년 12월의 일이었다. 재한 여자와외국선교사들은 한국에 WWCTU 해외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들의 주도로 금주금연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고 논문집도 발간하면서 절제운동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一千九百十一年 十二月에 朝鮮內에 宣教師들이 萬國女子基督教節制會外國支部를 設立하고 一年間事業을 行하는가운데 禁酒禁煙清潔에 關한 小冊子를 發行하며 論文懸賞을 行하여 一千九百十二年에 ‘喫煙의 害毒’이라는 問題로 募集된 三十三人의 論文中에 長老會學生이 一等賞을 受하고 監理敎學生이 二等賞을 受하였다.

日本の 女子基督教節制會는 일즉이 完全한 組織을 이루었으니 電車內에서도 煙을 禁한

324) “병스단연,” 『구세신문』 제 5호(1910년 7월 1일).

것도 其效果의 한가지이다 朝鮮內日本人支會에서도 堅實한 日本聯合會의 後援으로 科學的 節制運動의 指導를 行하여 節制에 關한 雜誌 등을 各小學校에 配置하였다<sup>325)</sup>

WWCTU 해외지부로 한국에 절제회를 세웠던 여선교사들은 금주금연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금주금연에 관한 논문도 공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그 이후부터 1923년까지 침체되었다. 또한 WWCTU의 영향을 받은 일본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절제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기독교 절제운동이 한국사회로 확장되는데 한계를 가졌다.

북감리회는 1912년 3월 5일 상동교회에서 제 5차 연회를 열고, 절제와 사회개량 위원회에서 음주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sup>326)</sup> 음주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었던 절제와 사회개량위원회는 제 6차 연회에서 풍속사회개량회로, 그 다음해에 다시 절제와 사회개량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제 7차 연회에서는 각 지방마다 두 명씩의 절제위원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했다. 1918년 제 11차 연회에서는 다시 사회풍기개량(社會風紀改良)위원회로, 12차 연회에서는 금주회로 명칭을 계속 바꾸면서 음주 문제를 다루었다.<sup>327)</sup> 남감리교도 『남감리교회도리와장정』에서 음주를 “큰 악행”하는 일로 간주하였다.<sup>328)</sup> 1918년 판 『남감리교회도리와장정』에서는 금제와 자선사업부(禁制와 社會慈善事業部)를 두고 그곳에서 음주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sup>329)</sup> 구세군은 『구세신문』을 매개로 하여 금주운동을 펼쳐나갔다. “구세군 규측이라 허는 책이 잇스니 이는 우리대장 윌리엄 뿌드씨가 이 세상인류에 관한바 모든방해로운 것들을 설명하야 … 그중에 계검(戒禁)이라호는문제가잇스니 … 마시고취호는 술을 … 악의 근원이라”<sup>330)</sup>고 하여 구세군은 창립 이래로 술을 법으로 금하였다. 이것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흡연문제는 흡연자체보다 음주문제와 함께 거론되었다.<sup>331)</sup> 1912년 절제와 사회개

325) 田瑪大嬢, “節制運動,” 『기독신보』 848호(1932년 3월 2일).

326) 연회에서 절제위원 반복기가 작성하여 보고한 절제회 맹세서가 채택되었다. 一은 주초를 쓰지아니하며, 二는 너즈의덕행을보전하며, 三은 다른사람의게 된면흠이오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五回會錄』, 5, 14.

327)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會錄』, 6회 연회 회록부터 12회연회록 참고하라.

328) 『남감리교회도리와장정』(경성: 조선예수교서회, 1915), 100.

329) 『南監理教會道理와章程』(京城: 南監理教會朝鮮每年會, 1918), 140-3.

330) “검주,” 『구세신문』 제 21호(1911년 12월 1일).

량위원회에서 흡연을 다루면서, 금연도 함께 제도로 규정하였던 것은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북감리교는 청소년의 흡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연회는 1910년 금주회를 조직하여 청소년 흡연문제를 다루었다. 내용을 정리하면, 1)흡연은 신체에 해가 되어 미성년자의 신체가 발달하지 못하며, 2)흡연은 총명에 해가 되는데 니코틴이 신경과 뇌를 약하게 하고, 3)흡연은 도덕에 해가 되고 술을 마시게 하며 영혼을 더럽히게 하고, 4)흡연은 경제에 해가 된다고 하여 단연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1938년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향한 첫걸음인 셈이다.

아편을 사용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중심으로 아편사용자가 계속 증가하였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북장로교에서는 1909년 샤록스(A. M. Sharroks), 휘팅(H. C. Whiting), 어드만(W. E. Erdman)에게 아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sup>332)</sup> 자세한 보고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919년 10월 4일에 열린 장로회 총회에서 아편에 관한 결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政治部の報告에 의하여 認許받은 醫師外에는 阿片烟을 吸煙하는 것과 막아비 使用하는 것이나 營栗角을 栽培하는 것을 治理하기로 決定하니라.”<sup>333)</sup> 감리교에서도 교인들의 아편재배나 매매를 금하도록 결의하였다. 북경에서 WWCTU선교사로 사역하던 틴링(Tinling)이 1919년 제 12차 연회에 만국개량회(萬國改良會) 문제로 참석하였다. 틴링은 강연 중에 교인이 아편재배와 아편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강연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교인들이 아편재배와 영업을 못하도록 결의하였다.<sup>334)</sup> 이 결의는 교인의 개인적인 아편사용이나 매매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다.

축첩제도는 전통적인 한국의 폐습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축첩은 창조질서인 일부일처제를 크게 훼손하는 악습인 것이다. 축첩문제를 초기부터 단호하게 다루었던 기독교는 나름대로 축첩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차적인 원인은 인간의 욕망이지만, 또한 조혼이 문제이기도 하였다. 전자는 복음으로, 후자는 제도개선으로

331) “교중회보, 추초거절,”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911년 3월 30일); “흡연하는대 독과해가 유흔실증(實證),” 『구세신문』 제 4권 제 12호(1918년 12월 1일).

332) H.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1884~1934*, Vol. I(1934), 516.

333) 韓國教會史學會 편, 『朝鮮예수교長老會史記 下卷』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68), 26; 『長老教會史典彙集』, 87.

334)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十二會會錄』, 20.

다가섰다. 1901년 장로교 공의회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내용은 남녀가 장성하기 전까지 혼인하면 안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sup>335)</sup> 남녀가 장성해야만 비로소 결혼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조혼으로 인한 폐해가 심한 결과였다. 그러나 ‘장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1909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1909년 감리교회와 장로교는 총회에서 신랑 나이는 20세로, 신부 나이는 18세로 법으로 정하였다.<sup>336)</sup> 1894년 갑오개혁 때 조혼을 금지하고, 혼인 적령기를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로 규정한 바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다.<sup>337)</sup> 결혼 나이를 고친 것은 1914년에 장로교 총회에서였다. 총회에서 신랑은 만 17세, 신부는 만 15세로 결의하였다.<sup>338)</sup>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보다 훨씬 뒤에 결혼하는 것이 흐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 1월 『神學世界』에 실린 내용을 보면, 결혼 적령기를 남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로 보았다. 남자는 25세, 여자가 20세에 결혼하는 것이다.<sup>339)</sup> 교회 안에서는 법적인 나이보다는 그 후에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그리고 1915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수양남매(修養男妹)관계를 부도덕한 관계로 보고 폐지하였다.<sup>340)</sup> 사회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조혼이나 복잡한 남녀문제를, 교회는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가정의 건강과 순결을 위하여, 성적인 문란을 막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제정만 아니라 각종 기관지나 잡지로 기독교 절제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인들에게 널리 알렸다. 1915년 장감연합 기관지로 탄생한 『기독신보』는 절제운동에 관한 내용을 독자인 교인들에게 전달하였다. 1909년부터 구세군에서 발간한 『구세신문』은 처음부터 주초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고 1921년부터는 매년 1회씩 절제에 관한 내용으로 특집으로 냈다. 신학지인 『神學世界』는 1916년 감리교에 의해, 『神學指

335) 그 외에도 과부가 두 번 결혼하는 것과, 교인이 불신자자와 결혼하는 것과, 혼일할 때 돈을 주고받는 것과, 부녀를 폭행하는 것도 하면 안된다고 함께 결의하였다. 『그리스도신문』 (1901년 10월 3일).

336) “사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신학월보』 제 7권 6호(1909), 1

337) 갑오개혁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삼국간섭, 민비시해사건 등을 배경으로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계속된 조선정부의 제도개혁 운동을 말한다. 1차에 210건의 제도 개혁안 내지 정책을, 2차에는 214건이 결의되었다. 최덕수,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한국사 11: 근대민족형성 1』 (서울: 한길사, 1994), 117-46.

338)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 대삼회 회록』 (1914), 29.

339) 趙尙玉, “模範的婚姻,” 『神學世界』, 第 六卷 第一號(1921. 1), 119-20.

340)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 대사회회록』 (1915), 33.

南』은 1818년 장로교에 의해 출간되었다. 두 신학 잡지에서도 절제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실었다. 특히 『神學世界』는 1920년대부터 별도로 절제란을 두고 절제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북장로교 선교사 밀러(F. S. Miller)가 1913년 출판한 『언설초집』과 길선주가 1916년 출판한 『만스성취』는 절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계주론』(戒酒論)도 당시 교인들에게 보급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sup>341)</sup>

## 2. 교회 밖의 절제운동: 3.1운동

국채보상운동에서 보여준 기독교 절제운동은 외형상으론 교회 안의 절제운동을 밖으로 표출시킨 운동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일제 항거가 목표지 금주금연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절제운동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금주금연운동으로 대표되는 이 운동이 한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채보상운동과는 다른 성격의 절제운동이 1919년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19년 3.1운동이었다. 3.1운동은 이전까지 없었던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다. 이 운동의 핵심 주체는 기독교였다.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중에 1920년대 절제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YMCA관련인사는 9명이었다.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장로교인만 3,804명이었다. 남자가 2,125명이고 여자는 531명이 투옥되었다.<sup>342)</sup> 당시 총 인구 2천만 명 대비 기독교인이 1.5%이었지만, 피검자 중 기독교인은 17.6%나 되었다.<sup>343)</sup> 이런 숫자는 그만큼 3.1운동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일제가 조사하여 결론을 내린 것처럼 3.1운동은 이후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그 결과 여러 단체들이 결성되었다.<sup>344)</sup> 요약하면, 3.1운동은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여 준 대표적인 운동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절제운동의 촉진제라 할 수 있다.

3.1운동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절제운동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341) 閔老雅, “戒酒論,” 『신학지남』 1권 3호(1918. 10), 422.

342) The Commission on Relation with Orient, *The Korean Situation* II, 5.

343) 김승태,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 『韓國基督教史研究』 제 25호, 22-4.

344) 『日帝植民官僚가 분석한 朝鮮人』(1927년 조선총독부 대외비 조사자료 20집), 하종근 역(서울: 세종출판사, 1995), 145.

일반적으로 3.1운동의 원인은 일제의 주권탈취와 한국강점에 따른 민족적 탄압의 증대, 민족자결주의와 고종의 붕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sup>345)</sup> 반면, 김승태는 1)일제의 주권탈취와 경제침략을 수반한 민족탄압, 2)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독립청원, 3)비폭력적 평화운동의 신앙적 접근으로 3.1운동을 이해하였다.<sup>346)</sup>

일제는 3.1운동을 크게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으로 나누었다. 전자로는 역사적 대일 경멸의 정, 왜구(倭寇)에 의한 악감정, 풍신수길(豐臣秀吉)의 정한론(征韓論)에 의한 악감정 등이다. 후자로는 합병 그 자체에 대한 반감, 일제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동, 정치적 불만, 경제적 불안, 사회적 악대우(惡待遇)에 대한 반발, 일본인의 도덕에 대한 반감 등이다.<sup>347)</sup>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일본인의 도덕에 대한 반감이다. 재한 선교사들은 그 내용을 3.1운동을 비밀리 조사하여 작성한 *The Korean Situation I*과 *II*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였다.<sup>348)</sup> 선교사들은 3.1운동 원인을 1) 독립에 대한 열망, 2) 군부의 횡포, 3) 민족말살정책, 4)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한국인 배제, 5) 한국인에 대한 차별, 6)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박탈, 7) 제한된 종교집회, 8) 한국인의 유학과 해외여행 금지, 9) 비옥한 토지 약탈, 10) 비도덕적인 것을 끌어들이 11) 만주로의 한국인 강제 이주, 12)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에게 유익을 끼침 등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0번째의 분석이다.

345)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0), 26.

346) 1907년 부흥운동으로 초월적 신비체험과 내면의 실존과 윤리질서를 수립하고, ‘기독교인 의식(Christian Identity)을 갖게 되었고 이 의식이 민족 수난의 역사적 체험을 거치면서 역사현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사의식으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선주와 이필주였다. 김승태,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235-42.

347) 鈴木高志, “조선의 事變에 대하여,” 『福音新報』 제 124호(1919년 5월 1일). 小川圭治, 池明關 編, 『韓日그리스도教 關係史資料:1876-1922』, 金允玉, 孫奎泰 共譯(서울: 韓國神學研究所, 1990), 723.

348)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미국 기독교연합회)의 The Commission on Relation with Orient(동양관계위원회)가 3.1운동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 작성하여 *The Korean Situation I, II*를 1919년 7월과 1920년 4월에 각각 발간하였다. *The Korean Situation I, II* 자료총서 제 19집(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자료해제 참조하라.

1. 모든 도시에서 허가받은 공창이 부도덕한 형태로 시작되어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한국의 청소년에게 비도덕적인 영향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 모르핀 주사기 많은 지역에서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sup>349)</sup>

3.1운동의 직접적인 동기 중의 하나가 일제의 공창제와 아편전매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제의 공창제와 아편전매제도로 인한 폐해가 3.1운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절제운동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하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금주금연은 일제에 진 빚을 갚기 위한 국민적 역량을 모은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기독교 절제운동 측면에서 볼 때, 소극적인 것이다. 주초를 금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보다는 일제에 항거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3.1운동은 기독교 절제운동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표현인 셈이다.

3.1운동은 1907년 부흥운동으로 초월적 신비체험, 내면의 실존, 윤리질서를 수립한 기독교인들의 주도로 되었다. ‘기독교인 의식(Christian Identity)’을 갖고 민족 수난의 역사적 체험을 거치면서 역사현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장로교의 길선주와 감리교 이필주였다.<sup>350)</sup>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의 수탈과정에서 형성된 공창문제와 아편문제는 심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문제 제공자 일제에 대한 애국적인 신앙적 항거였다.

3.1운동 원인에 일제의 잘못된 부도덕한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재한복음주의선교부연합공의회(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는 1919년 9월 29일 총독부에 도덕개혁(Moral Reform)을 건의하였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공창설립과 관련된 법의 과감한 개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보호받고,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관습과 느낌에 충격을 주는 공창제도를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아편과 모르핀의 생산, 제조, 판매에 관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술 매매와 관련된 법의 개정을 또한 요구하며, 이전 한국정부아래 시행된 지역 선택권의 복구를 요구하며,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술집을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 지금,

349) The Commission on Relation with Orient, *The Korean Situation* I, 124.

350) 김승태,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242-50.

경찰비호 아래서 진행되는 허가는 문제되고 있으며, 술집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워졌다.

우리는 일본에서 집행된 (청소년)담배사용 금지법이 한국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노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관계 입법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직 정치범으로 기소된 기독교인이 주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어떠한 형태도 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덧붙여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와 도덕의 필요를 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sup>351)</sup>

선교사들은 3.1운동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일제에게 공창문제, 아편문제, 술집문제, 청소년 흡연문제, 어린이 노동문제와 노동환경, 기독교인의 주일 지키기, 죄수의 종교와 도덕함양을 요구하였다. 정리하면, 3.1운동을 절제운동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은 일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기독교가 절제운동을 전개할 때, 무엇을 다루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선교사들 역시 3.1운동의 문제가 기독교 절제운동의 한 부분이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3.1운동보다 앞선 1916년 제 9차 연회에서 1905년 해체된 엽윳청년회의 재건을 승인하였다. 그 이듬해인 1917년 6월 6일, 평양남산현미감리회 제일교회에서 북감리회 제 10차 연회가 열렸다. 이 연회에서 절제와 사회개량위원회를 사회개량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엽윳청년회의 활동 방향성을 정하였다. 엽윳靑年會規則에 보면, 설립 목적을 “敎會内外를 勿論하고 靑年の 靈聖을 培養하며 信仰增進케 하여 聖潔한 生活를 得케 하며 救靈의 事業을 勉勵케 함”<sup>352)</sup>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총 6개의 부서, 즉 전도부, 구제부, 문학부, 사회부, 사교부, 서기부, 회계부를 두

351) 재한복음주의선교부연합공의회의 법 개정 요구서는 원래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齊藤實)에게 제언서 형태로 보내진 것이다. 처음에는 제언서를 보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종교자유, 교육, 의료, 기독교문학, 재정과 함께 도덕 개혁(Moral Reform)을 다루었다. 본문은 내용 전문이다. The Commission on Relation with Orient, *The Korean Situation* II, 9-12;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1910-1945』, 168-76에 전문이 번역되어 있다.

352) 『基督教美監理會朝鮮第十會年會錄』, 47-8.

었다. 특히 구제부에서는 병자와 노약자를 방문하고 빈민을 도울 뿐 아니라 금주금연 사업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때가 1920년대지만, 엽월청년회가 조직되는 곳에서는 금주금연운동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절제운동이 교회 밖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은 한국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주초문제를 끊음으로 일제에 대한 항거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운동은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진 완전한 금주금연이 목표가 아니었다. 단지 한시적인 3개월간의 일제 항거 수단으로 보여준 금주금연운동이었다. 반면, 3.1운동에서 나타난 절제운동은 일제에 의해 자행된 공창제도, 아편문제, 청소년문제의 완전 해결이 목표였다. 이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절제운동이 교회 밖으로 확산되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 3.1운동은 1910년대에 절제운동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운동이다. 1920-30년대 청년 절제운동을 주도했던 엽월청년회가 1916년 재건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 C. 절제운동 내용

1910년 이전 기독교 절제운동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악습이나 폐습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다 한일합방과 함께 절제운동의 대상이 일제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그 초점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악습과 일제에 의해 형성된 퇴폐문화와 세속화가 때로는 별개로 때로는 중복해서 나타나곤 하였다. 특히 1910-1919년의 절제운동의 대상인 음주와 흡연문제가 어디로부터 연유된 것인지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차적으로 한국의 폐습으로부터 일제의 의해 이루어지는 제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 1. 음주문제

앞서 살펴본 대로 절제운동은 협의의 의미에서 금주운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운동은 다른 것보다 금주에 관한 활동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금주운동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전개되었지만, 1910년이 되기 전부터 이미 교회 밖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몇몇 지역에서 조직된 금주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금주운동에 술 관련 업자, 학생, 지역유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황해도신천군에 사는 김봉연(金奉淵)과 곽인호(郭仁浩) 등 10명은 술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그들은 1908년 음력 7월 28일 밤에 강은성(姜恩聖)의 집에 모여 스스로 주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일절 금하기로 결의하고 그날 밤 금주회를 조직하였다.<sup>353)</sup> 또한 야학에 출석하여 공부하는 학생들도 금주운동에 참여하였다.

박천舊진에 夜校를 設立하고 학徒를 募集할시 有志동長 金得賢씨가 熱心勸裝하야 학徒가 三拾餘名에 달하리라 壹般 학徒與 동長이 동내에 酒禁하기로 相議하고 愛酒者와 飲酒者를 嚴禁하매 遠近人民이 莫不稱頌하더라.<sup>354)</sup>

박석진이라는 사람이 야학을 설립하고 금주운동을 벌였는데, 이일에 지역유지인 김득현(金得賢)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30여명의 학생들을 만나 동네에서 금주할 것을 요구하고, 애주가와 음주자를 엄단하였더니 그 지역 외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한다. 이런 교회 밖에서 금주운동은 몇몇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기독교에서는 금주운동을 전개하는데, 이전처럼 기독교관련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했다. 특히 『계주론(戒酒論)』은 술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으로 당시 교인들에게 보급되어 영향을 주었다.

엇던 경성에 한부인이잇는디 즈기남편이 과도이 음주함으로 매양크게근심하더니 이책헌 권을 사다가 그남편의게드려 념게를 권하엿소 그후로이책을 잘읽은힘을인하야 그술을근헛다하호 그런즉 여러분 친척고구간에 술노인하야 근심하시느니 가게실것 갓하면 이책을사서 복되게 도와주시오.<sup>355)</sup>

353) “禁酒會組織,”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8일).

354) “說教禁酒,”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일).

355) 閔老雅, “戒酒論,” 『신학지남』 1권 3호(1918. 10), 422.

음주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전과 다른 점은 신앙적인 면 이외에 다른 면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신앙으로 출발하지만, 이전보다 여러 각도에서 음주문제를 다루었다.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출판한 『언설초집』에 보면, 술을 마심으로 그 피해를 자녀에게 안겨준다고 하였다.

서국에 의학스들이 여러해브터 술을 과음하는 사람의 죽손을 솟혀 본즉 엇던 죽손은 날적브터 어림장이 되는이도 잇고 엇던 죽손은 밋쳐질 기질이 잇서 밋칠 7돛이 조금만 잇스면 밋치기 쉽고 엇던 죽손은 술 먹을 욕심이 과하야 이르기 어렵다하며 합중국 동편 마사주셋에 있는 삼백명 실진흔 사람의 부모 래력을 알아보니 실진흔 사람 일백오십명의 부모는 술을 과히 먹는 사람이오 ... 영국에서 미친병 치료하는 의원이 말하기를 술먹는 사람이 제몸만 해롭게 하고 약하게 아홉뿐 아니오 그 죽손7지 약하고 병되게하며 허랑방탕하고 밋치게 하기 쉽다하며 ...<sup>356)</sup>

서양에서 술마신 사람의 자녀들을 연구한 것을 참고로 한 내용이다. 저자 밀러는 미국의 술 중독자 30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150명은 부모의 영향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술로 인하여 자기만 아니라 자녀를 병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금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음주로 인한 자녀피해만 아니라 다른 해악성에 대해서도 접근하였다. 또한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술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도 금주가 필요한 것이다.<sup>357)</sup> 노불부인은 음주가 개인이나 자녀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나라를 망케하는 근본임을 누구던지 비판치 안는이가 업는지라”<sup>358)</sup>고 하여 음주가 국가의 장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독교 금주운동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것이었다. 개인의 금주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국가적 민족적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확신하였다. 이일에 참여하면 결국 승리의 월계관을 쓸 것이란 논리가 자연스럽게 사용되

356) 에프 에스 밀러, “술 먹는해가 죽손의게 밋침,” 『언설초집』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13), 77.

357) “단음흡이가흠,” 『구세신문』 제 8호(1910년 10월 1일); “기담,” 『구세신문』 제 2권 제 4호(1913년 9월 1일).

358) 노불부인, “금주,” 『기독신보』 66호(1917년 3월 7일).

고 받아들여졌다.<sup>359)</sup>

매음, 부랑, 강도, 절도, 이등류들은 양성하는 초입문은 술이오 술이로다 망신패가 망국을 스스로 불너드리는 문호는 술이오 술이로다 술잔을 잡고 망국스를 기초하는 것과 술잔을 깨트리고 흥국스를 넘는 것과 이 둘중에 어느 것을 퇴하여라 ... 조선반도 그리스도인이아 우리는 임의 밋던 날에 금주하여스니 만족한다 생각하노는 아니라 일반덕 동양덕 금주를 실행치 못할 거시던 나의 마시지 아니한 술잔까지 남의게 갖쳐줌이 되야 ... 엇지 대각성 대분 발치안으리오.<sup>360)</sup>

요약하면, 술로 인하여 매음, 부랑, 강도, 절도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술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데, 그길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술을 끊고 국가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 것인지 택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로 금주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마시지 않는 술잔을 남에게 줘서도 안되고 오직 모두가 끊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神學世界』에서는 술의 피해를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는 생리적인 피해로 음주하면 신체적으로 기력이 쇠하여지고 정신에도 생기가 줄어들다는 것이다. 둘째는 도덕적인 피해로 쟁론, 비방, 공포, 노여움, 살상 등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취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업적인 피해로 음주자는 술을 마시는 시간과 마신 뒤의 취중시간에 일을 못하고 그 후에도 기력이 떨어져 사업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넷째로 재산상 피해로 술로 가정과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금주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上帝)께서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니 행동을 잘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하였다.<sup>361)</sup>

1910년 이후 금주운동은 그 시야를 한국에 한정하지 않았다. 금주운동의 범위를 국내만 아니라 세계로 향하게 했다는 점이다. 금주운동은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것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주운동의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런 내용은 주로 『기

359) “禁酒斷煙은 國家文明富強의 基礎,” 『기독신보』 236호(1920년 6월 16일).

360) “評淸林림,” 『기독신보』 171호(1919년 3월 12일).

361) 趙尙玉, “酒는 如何한 飲料인가,” 『神學世界』 第五卷 第四號(1920. 7), 62-4.

독신보』가 많이 다루고 있다. 금주운동은 세계적인 대세인데, 독일과 러시아가 금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도 청교도의 엄숙한 종교적 정의로 시행되고 있으니 한국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62)</sup> 또한 절제운동의 결과로 미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다루면서, 한국도 금주운동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뉴욕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보도하면서, 볼스테드법이 통과된 이후 음주문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다루었다. 금주법안 통과로 술마시고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도둑질 하는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 곳은 범죄자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반절로 줄어들었고,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격감했다는 내용이다.<sup>363)</sup>

한발 더 나아가 효과적인 금주를 위해서는 최소한 동양 3국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일에 기독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과 일본처럼 한국도 금주회를 조직하여 3국이 서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금주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양삼국에 일본에서는 금주회가 창설되야스나 아직까지 종교 일부분에 지니지못하였고 지나도 그러코 오직 조선에는 금주라는글조로써 보지못한터이니 이거시 일대문제로다 그러나 다만 조선만 위하야 말하고저함은 결코 아니로다 조선 일본 지나 세나라 그리스도인이 춤으로 그리스도정신덕 신앙가아닐거시면 일테덕 공동각오하고 금주회를 협동조치하야 대대덕으로 실제덕 활동으려야 홀줄노 생각하여지노라.<sup>364)</sup>

교회 안에서의 금주운동이 일반인들에게 확산될 때, 신앙적인 것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 자녀, 건강, 경제, 국가 문제도 언급함으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또한 금주운동을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 범위를 점차 세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 특색을 이룬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금주로 사회를 개조하고 국가를 번영한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362) “禁酒斷煙은 國家文明富強의 基礎,” 『기독신보』 236호(1920년 6월 16일).

363) “미국에서 금주회 첫주일형편,” 『기독신보』 205호(1919년 11월 12일).

364) “評評林림,” 『기독신보』 171호(1919년 3월 12일).

## 2. 흡연문제

본 장에서의 흡연문제는 주로 음주문제와 함께 다루어졌다. 이전의 절제운동에서는 아편문제와 중복해서 흡연문제를 다룬 경향이 있었다. 1910년 이후에서는 아편과 구분하고 음주문제와 함께 취급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음주의 피해나 무익성을 언급하면서 흡연문제도 함께 묶어서 다루었다. 흡연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음주보다는 비교적 적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흡연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한 기관은 구세군이었다. 구세군에서는 “술을 사람의 원수”로 규정하고, “악의 근원”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담배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기관지 『구세신문』에서는, “연초는 인명을 살해하는 독의 몽치”라고 하면서, 술만큼 해로운 것이 바로 담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담배는 폐를 위험하게 하며,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해악이니, 단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365)</sup> 특히 의학적으로 접근하여 단연을 촉구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하다.

미국 지가고 서북에 잇는 대학교의 교수 의학박스 윈필드호스씨가 말하기를 권연초이나 여송연을 물론하고 흡연하면 그독이 장성훈사람의게도 해가불사흔즉 어떤회가 흡연하면 그해가 성년사람에게보다 더 밋침으로 거의 자살하는것에 밋치는도다 ... 어려서부터 담배피는습관을 배호지말도록 주의해야 가라치시기를 본디자는 곤절히 브라는이다<sup>366)</sup>

흡연의 폐해는 음주에서처럼 건강상, 정신상, 경제상 손실이 많았다. 흡연은 비생산적이어서, 재산상의 피해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술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sup>367)</sup> 금연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금주에서처럼 신앙적인 것과 함께 일반인인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다음은 밀러의 『언설초집』에 나온 내용이다.

연기라 하는거슨 더럽고 내암새가 흥하여 사람의게 해로운거시라 집을 지으대 굴뚝을

365) “연초는 인명을 살해하는 독의몽치,” 『구세신문』 제 2권 제 18호(1914년 11월 1일).

366) “담배의 독은 인명을 살해함,” 『구세신문』 제 2권 제 14호(1914년 7월 1일).

367) “禁酒會의 無實,” 『매일신보』 (1920년 7월 2일); “禁酒斷煙은 國家文明富強의 基礎,” 『기독신보』 236호(1920년 6월 16일).

눅히 싸하 연기를 멀니 호는거슨 이 연고라 성경말씀을 보건대 주를 신봉호는 사람의 몸은 성신의 성단이 된다 호섯느지라 엇던 사람은 주를 밋는다 하며 성신의 성단을 가지고 더럽고 내암새 나는 굴뚝을 삼느거시 도치 안토다. ... (중략) ... 담배라 호는거슨 변변치 아닌 물건이나 만국이 다 먹기는 호대 사람의게 해됨이 비상호거시니 사람의 형기를 조호게호야 화기를 돕고 정신을 호리게 호는 거시오 너무 착미호면 시간을 어기는 줄도 몰나 일에 방해됨이 잇스며 인아 박히며 아니 먹기 어려워 널으는 말이 밥은 굴머도 담배는 아니먹지 못호겟다 호니 쓸대 업시 재정도 량비하거니와 구기본호면 사람의 해됨이 적지안토다.<sup>368)</sup>

정리하면, 사람은 성령의 전이기에 깨끗하게 보전해야 되는데 담배 연기로 더럽게 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담배는 형기(形氣)을 답답하게 만들고, 정신을 호리게 하고, 흡연을 너무 좋아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인이 베면 끊기가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는다면서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길선주도 『만스성쥬』에서, “담배는 흉악호 즘생이 즐기는 식물이오 사람을 해롭게호는 독약이다”고 하면서 흡연의 해악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해악은 건강상의 것이며, 둘째 해악은 경제적인 것이다.<sup>369)</sup> 이런 접근은 일반인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이런 논리의 전개방법은 절제운동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단면이다.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보다 폭넓게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흡연의 해악을 알려주고 있다.

금연운동도 금주운동처럼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산현교회의 지회로 1913년 설립된 재령군에 소재한 하오면 부성리 교회의 이야기다. 부성리교회는 150-60명 정도가 출석할 정도로 성장하는데, 그중에 10여명의 청년들이 헌신적이었다. 청년 박명수(朴明洙)와 김두환(金斗煥)의 주도로 단연회(斷煙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연초대금을 모아 빈곤한 청년의 의류비나 학비로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이런 단연회의 활발한 활동은 주변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sup>370)</sup> 비슷한 경우가 부성리교회만 아니라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런 일화들이 많이 나온다. 그것은 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368) 에프 에스 밀러, “굴뚝,” 『언설초집』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13), 25-6.

369) 吉善宙, 『만스성쥬』 (平壤: 光明書觀, 1916), 25-6.

370) “斷煙同監會,” 『기독신보』 235호(1920년 6월 2일).

교회 안에서의 금연운동은 성경공부나 부흥회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원도 울진에 소재한 읍내리교회는 엠윗청년회를 조직하여 매주 1회씩 성경공부와 문학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연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연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을 들은 청년들이 단연하기로 동맹을 맺고 연기로 사라지는 액수 일부를 모아 께종시계를 구입하여 교회에 달았다. 매시간 치는 께종소리에 단연에 대한 자세를 추스르곤 하였다. 또한 남자들을 위한 사경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계연회에 참여한 자가 40명이 되었다고 한다.<sup>371)</sup>

기독교 금연운동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운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기독교 절제운동이 교회 밖으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복음으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복음적인 기독교 절제운동 전반에 깔려 있다.

### 3. 아편밀매

1910년대 전반기만 하더라도 기독교 내에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듯 보인다. 반면 일반 여론은 아편문제에 심각성을 제기하며 <아편전매>나 <아편취체령>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였다. 아편사용자의 급증은 “身家與國에 大害毒”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한 언론은 아편폐해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sup>372)</sup>

비霜에 死호며 銃劍에 死호는者는 一身만 死할뿐아니라 一家人을 死케호며 一國民을 死케 호는배라 淸國이 前에 在호거니엇지 戒치아니호리오 ... 告호노니 此여 銃에 死호지 언딩 阿片에 死치말며 劍에 死호지언딩 阿片에 死치말며 비霜에 死호지언딩 阿片에 死치말지어다.<sup>373)</sup>

371) “監理會通信,” 『기독신보』 199호(1919년 10월 1일).

372) “阿片의 害毒,” 『매일신보』 (1910년 12월 21일).

373) “阿片吸者의 增加함을歎息,”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8일).

아편은 총칼보다 눈비보다 무서운 것이기에 그것을 끊어야 산다는 주장은 중국의 경험을 염두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제는 오히려 아편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에 급급했다. 총독부는 1914년 1월 24일 그해 아편전매수익이 208,807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격적으로 전매를 실시하였다. 이 일은 전매과에서 담당키로 하였다.<sup>374)</sup>

『매일신보』는 사설을 통하여 “阿片은 人의 生命을 殘害케 하며 人의 財産을 蕩盡케 하는 禁物”이라고 하면서 아편전매하는 일제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아편을 철저히 감시하여 매매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자세이다. 그러나 일제는 오히려 전매제도를 취함으로 백성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편을 세수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통탄할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sup>375)</sup>

일제는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자 하였다. 1917년 10월 서울 사직동에서, 12월 전남 영암에서 불법 밀매조직을 잡았다.<sup>376)</sup> 그러나 밀매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했다. 중국은 아편밀매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였다.<sup>377)</sup> 반면 일제는 고작 징역 10개월로 느슨하게 처벌 함으로 아편사용자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sup>378)</sup>

기독교에서도 아편문제에 대한 언론의 시각과 대동소이하였다. 길선주는 『만스성

374) “阿片專賣開始,” 『매일신보』 (1914년 1월 24일); “阿片專賣審議,” 『매일신보』 (1914년 3월 21일).

375) “社說, 阿片專賣의 理由,” 『매일신보』 (1914년 1월 31일).

376) “阿片을 密賣코져,” 『매일신보』 (1917년 10월 26일); “阿片五百圓 가진자를 잡었다,” 『매일신보』 (1917년 12월 7일).

377) 중국은 아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1)40세 이하의 아편흡입자 남녀무론하고 사형, 2)아편밀매자 사형, 3)40세 이상의 아편흡입자 영구히 감옥, 4)모루히네 아편 갖고 있는 자 10년 감금으로 처했다. “阿片罪를 死刑으로,” 『매일신보』 (1920년 9월 25); 중국정부는 1908년 6월 8일부터 아편전매규칙을 42개항으로 세분화하여 1908년 6월 18일부터 실시하였다. “阿片專賣局,”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21일); “阿片轉賣의 計劃,” 『황성신문』 (1905년 10월 27일); 중국은 아편법으로 최소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아편을 국가가 직접 전매하여 수입을 증대하여 국가예산을 늘이고 “阿片轉賣,” 『대한매일신보』 (1905년 3월 7일); 중국정부는 아편을 전매하면 매년 1억 위안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제조기를 영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하였다. “阿片轉賣의 實行,”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5일); 둘째는 개인의 재배 및 매매를 금지하여 아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阿片轉賣法,”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6일); 아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에 어려우니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법을 어긴 자는 엄벌에 처하기로 결정하였다. “阿片禁止의 上諭,”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8일).

378) “阿片賣買截取 슈범은 징역십개월,” 『매일신보』 (1917년 4월 1일).

쥬』에서 아편에 대하여 “사람을 패망케 하는 심흔 독이 잇는 거슬 엇지 말노다 하리오”라고 하면서 아편의 해악성을 비판하였다.

첫재는 그몸을 패케 하느니 정신을 혼미케 하며 용맹의 수양을 소멸하며 아모일에던지 작덩하느니 결심을 일허버리는고로 이약을 먹는 사람들은 이약이 괴악한줄을 알고도 능히 스스로 끈히버리지 못하며 둘째는 그몸을 망케 하느니 노(腦)를 약하게 하며 비위(脾胃)의 진액을 물니우고 폐(肺)를 약하게 하며 피를 물니우며 근육(筋肉)을 연약케 하느니 그생명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셋재는 재산을 패망케 하는 거슬 말하지 아니하여도 다알거 시어니와 이약을먹는사람은 무슨실업을 흥생각도업고 또능히 홀수도 업슬뿐더러 밋친사람긔치 그재산의 귀흔거슬 깨닫지 못하느고로 귀흔 재산을 허랑방탕히 허비하매 필경은 즈긔쳐자 깎지 파라먹는 악습이 생기는지라<sup>379)</sup>

정리하면, 아편은 마음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려 생명을 갉아먹고, 재산을 낭비하여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는 악이다. 사람을 패망시키는 악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막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었다. 아편단속에 소극적이었던 일제에게 아편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기독교는 앞장서서 아편을 절제운동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는 한 목소리를 냈다. 1919년 열린 감리교와 장로회 총회에서는 아편 사용금지와 함께, 교인 중에 아편과 관련된 직업 갖는 것을 금하였다.

#### 4. 축첩과 공창문제.

앞 장에서 살펴 본대로, 첩문제는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론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일부일처제가 천리(天理)이고, 인사(人事)의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축첩은 그 가정을 찍어 내어버리는 독이 든 도끼이며, 나라를 해쳐 망치게 하는 화를 일으키는 계제(階梯, 좋은 기회)라고 하였다. 가정의 화목을 끊고, 부모자식간의 정을

---

379) 吉善宙, 『만스성쥬』, 26-8.

파괴하고, 가문의 화를 자초하고, 가정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음란한 풍속이라고 첩문화를 규정하였다.<sup>380)</sup> 음란한 풍속 때문에 첩을 두고 가정이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첩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왔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규례를 세우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제사문제와 첩문제였다. 장로교는 이를 만나질 동안 첩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다. 그만큼 첩문제가 한국인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다. 첩문제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결론은 일본 교풍회에서 여성인권 운동차원에서 벌였던 일부일처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첩문제에 접근하려면 기독교의 결혼관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결혼관은 무엇인가. 한석원(韓錫源)은 기독교인의 결혼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一夫一妻를 嚴守하야서 夫婦는 同等의 位置에 立히며 悲喜와 順境이느 逆境에서 生涯의 伴侶로서 傷害와 尊敬을 保히며 死에지히기까지 조금도 不變하고 美혼 그리스도敎의 結婚에 比較하면 大蓋生覺함에 不及함이라.<sup>381)</sup>

부부는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며,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부일처를 엄수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회는 건강한 가정과 부부관계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였다. 첫째는 음란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첩이나 공창문제<sup>382)</sup>로 야기된 문제는 음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길선주는 음란이 육신의 생각인 사로(思路)를 통하여 음란로(淫亂路)가 열렸다고 보았다.<sup>383)</sup> 또한 음란은 개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

380) “蓄妾者를 경계함,”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8일).

381) 韓錫源, “世界에 對한 基督教의 貢獻,” 『神學世界』 第五卷 第四號(1920. 7), 69.

382) 한국의 공창제도는 일제가 도입한 것으로 여성을 철저하게 양분한 제도이다. 한쪽은 순결하고 정숙한 여성으로, 또 다른 한쪽은 못 남성의 성적 욕구대상인 여성으로 나눈 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전자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지만, 후자는 남성의 성욕구 발산 대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인 것이다. 강정숙,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公娼)제도의 도입,” 『서울학 연구』, Vol. 11, No. 1(1998), 197-237.

383) 사로(思路)는 취주로(醉酒路), 연락로(宴樂路), 음란로(淫亂路), 정로(正路), 자만로(自滿

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인간 내면의 모든 죄를 제거 할 때에, 비로소 악한 사회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84)</sup> 길선주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말년에 음란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온통 어지럽혀졌다고 하면서 “대스업을 일우고저 하여 성취국(成就國)으로 가는 군자들은 삼가 이길을 피할지어다”라고 권면하였다.<sup>385)</sup> 음란은 곧 육신의 생각이며, 이에 따라 성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음란 문제는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없이할 악이었다.

두 번째는 교인으로서 ‘정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부도덕한 생활이 통용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순결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교역자는 결혼할 사람이 순결한 생활을 하였는가를 의사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결혼예식을 집례했다. 그만큼 교회는 정결과 순결한 생활을 엄격하게 요구했다.<sup>386)</sup>

세 번째는 첩문제가 조혼으로 발생된 것<sup>387)</sup>으로 보고, 제도를 통하여 이를 방지하였다. 교회는 1909년 감리교회와 장로교 총회에서 결혼 적령기를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혼인허는법은 금년구월에 감리회와 장로회가 총회로 모일때에 신랑과 신부의 년기를 작  
 덩허기로 결덩허고 그동안에는 작년매년회에서 결덩허대로 신랑은이십세 신부는십팔세  
 로 시행함 일<sup>388)</sup>

신랑 나이는 20세, 신부 나이는 18세로 법으로 정하였다. 이 규정은 교회 안에서 계속 지속되었다. 이 후부터 기독교 청년단체 행사 때마다, 결혼에 대한 내용을 자주 다루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192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전개된 절제운동에서는 첩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일부일처제 입장을 고수한 선교사들은 일본의 공창문제나 한국의 첩문제를 유사한 것으로 보았을

路), 이심로(二心路), 급심로(急心路)를 향하여 열려 있다. 吉善宙, 『만스성취』, 6-8.

384) 도이명, “조선그리스도교의 장래가엇더호노,” 『神學世界』 第二卷 特別號 上(1917), 87.

385) 吉善宙, 『만스성취』, 14.

386) 韓錫源, “世界에 對한 基督教의 貢獻,” 『神學世界』 第五卷 第四號(1920. 7), 71.

387) 일제는 한국인의 조혼풍습은 자기 후계자를 빨리 얻기 위해, 빨리 손자를 보기 위해 자식들에게 조혼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日帝植民官僚가 분석한 朝鮮人』, 233.

388) “샤설, 하느님의 풍성하신 은혜,” 『신학월보』 제 7권 6호(1909), 1.

것이다. 그들이 한국의 첩문제를 처리할 때, 일본의 실례를 참고했다는 점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사실 첩문제도 공창제도에서 발생한 피해, 즉 가정과 여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의 첩문제는 일본의 공창제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공창은 성을 매개로 하여 여성을 사고파는 인신매매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여성은 온갖 남성의 성적 대상에 불과하고, 남성에 대한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공창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장되기 시작된 것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였다.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인 거주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합방 이후 도시마다 생긴 공창이 더욱 확장되면서, 그 피해가 청소년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는 확장되는 공창제에 대하여, 3.1운동으로 대응하였다.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기독교는 1920년대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창폐지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10년대를 정리하면, 공창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목격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 D. 무단통치기의 절제운동 평가

한국인의 내재된 폐습과 함께 일제의 합병과정과 수탈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와 연관되어 있다. 일제는 자국의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수탈목적으로 각종 세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쳤다. <주세령>, <연초세령>, <아편취체령>과 <대좌부창기취체규칙> 등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술과 담배를 산업으로 육성시키면서, 자국민의 자본을 끌어 들였던 일제는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사업자 지원은 일제의 세입 증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에게 넘겨졌다. 또한 일제의 아편정책 실패는 한국인의 아편사용과 밀매를 용인하는 꼴이 되었다. 공창제도 역시 한국인을 성의 혼란으로 퇴폐문화를 조장시켰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가운데 기독교는 절제운동으로 대응하였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기독교 절제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독교 절제운동이 한일합방을 계기로 대상을 바꾸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일제의 수탈과정에서 조장된 음주, 흡연, 아편, 공창제도가 절제운동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차적인 대상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폐습타파였지만, 그것과 함께 그 대상범위가 확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 절제운동은 일제의 항거로서 표현되기도 하였다. 3.1운동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비록 비폭력적으로 펼쳐졌다 하더라도 일제에 대한 항거가 내재되어 있었다.

둘째로 기독교 절제운동은 교회로부터 사회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절제운동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는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물밀듯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였다. 제도적인 개선이나 교회법, 또는 부흥운동을 통한 회심으로 그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계기로 기독교 절제운동은 점차 사회로 향하기 시작했다. 3.1운동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절제운동차원에서 볼 때, 한일합방을 계기로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사회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로 절제운동이 교회 밖으로의 관심을 돌리면서 신앙이외의 것도 함께 다루었다. 이전에는 절제운동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주로 다루었다. 일반인들에게 까지 기독교 절제운동이 확대되면서 신앙적인 것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음주문제만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자녀, 가정, 사회, 국가의 장래까지 문제 삼았다. 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착점의 다양화이기도 한 것이다.

넷째로 절제운동은 복음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다. 절제운동 대상이 넓어지고 방법이 다양화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복음적인 부흥운동과 회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도나 부흥회는 절제운동의 주요 수단이었다. 제도와 법률보다도 부흥회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적인 사회개혁의 동력인 것이다.

다섯째로 WWCTU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11년 재한 여자선교사를 중심으로 설치된 WWCTU 외국지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하였다. 1919년 감리교 연회에 참석한 WWCTU선교사 틴링은 절제운동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기독교인의 아편사용과 매매금지를 제안을 하였다. 감리교는 그것을 받아들여기로 결의하였다. 본격적인 WWCTU의 1923년부터지만 1911년부터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정리하면, 기독교 절제운동은 한일합방을 계기로 일제에 의해 자행된 퇴폐문화에 맞서기 시작했다. 절제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항일적인 요소가 내포되었다. 절제운

동 내용이 포함된 3.1운동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절제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항일적인 요소가 내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복음적인 회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음적인 회심을 통해서 사회를 진정하게 변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기독교 절제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절제운동이 확산될 때, 일반인들에게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여러 방법으로 동원하여 절제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쳤다. 또한 WWCTU와의 본격적인 관계는 1923년부터였지만, 1911년부터 이미 접촉이 시작되었다. 비록 그 접촉이 큰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920년대를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

## V. 일제 문화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1920-1939년)1:

### 시대적 배경과 기독교 절제운동단체 출현

1920년대부터 기독교 절제운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문화통치가 시작되는 1920년대 절제운동이 이전과 다른 점은 절제운동의 전국적인 규모로의 성장, 전국적인 절제운동 단체의 출현, 그에 따른 초교파적인 협력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기독교는 일제에 의해 조장된 퇴폐문화를 제거하고, 사회주의와 차별성을 두며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헌신적인 그들의 노력은 1938년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을 이끌어냈다.

본 장을 전개함에 있어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가 세수 탈취 목적으로 술과 담배를 산업화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인은 경제, 건강, 가정을 희생해야 했다. 아편정책의 실패는 아편중독자를 양산하였고, 확산되는 공창은 성문제를 일으키며 퇴폐문화를 조장하였다. 둘째로 1919년대부터 세계적인 초교파 연합운동이 펼쳐졌고<sup>389)</sup>, WWCTU와 한국 기독교와의 본격적인 관계가 1923년부터 이루어졌다. 셋째로 그 동안 교육을 받아왔던 여성들이 1920년대부터 사회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것은 사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선두에 기독교 여성이 서 있었다. 넷째로 여성운동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부터 기독교 청년단체가 재정비되거나 새롭게 세워져 절제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다섯째로 192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기독교운동을 펼쳐나갔다.<sup>390)</sup>

이런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출현한 단체들은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교파적 단체로는 장로교중심의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朝鮮基督教節制運動會), 절제운

389) H. E. Blair, "A Constructive Forward Movement Program," *KMF*, Vol. 15, No. 11(November 1919): 224.

390)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에 유입되었다.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요, 독립정신을 말살시킨 장본인이요,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맹종하는자라고 매도하며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무신론에 근거한 사회주의의 비판은 곧 반종교운동이기도 하였다. 강인규, "1920년대 反基督教運動을 통해 본 基督教," 『韓國基督教史研究』 9호(1986), 13-4.

등을 함께 펼쳤던 감리교의 엠윗청년회, 장로교의 청년면려회 등이 있다. 절제운동회는 절제운동을 목표로 세워졌고, 엠윗청년회나 청년면려회는 기독교 청년단체이지만 절제운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와는 달리 초교파적인 단체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근우회 등이 있다. 가장 먼저 세워진 여자절제회는 기독교 여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최초의 절제운동단체이고, 기독교 여성청년단체인 YWCA,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조직된 근우회 등은 기독교 절제운동을 이끌었다.

본 장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 즉 시대적인 배경과 절제운동단체와 관련기관의 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할 것은 여러 절제운동단체가 상황에 따라 합종연횡을 함으로 단체별로 진행된 운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것은 각 단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A. 시대적인 배경

### 1. 일제의 수탈과 유입되는 퇴폐문화

1910년대 초 만하더라도 주류는 보통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소규모로 빚는 가내수공업의 형태였다. 일제는 주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주류를 제조할 때는 모두 면허를 받고 다음해의 예상 주종(酒種)과 생산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것이 <주세법>의 골자이다. 1915년에는 <주세령>을 공포하여 일제는 제조와 소비를 분리시키고자 자가용주를 통제하고, 영세 주조업을 축출하여 대자본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sup>391)</sup> 일제의 조세제도 초점은 조세수탈로 자국의 열악한 재정충당이였다.

<표-4>을 보면 1910년 16만 3천 엔으로 시작한 주세가 1915년까지 미미한 증가

391) 1918년과 1934년을 경계년도로 잡은 이유는 1918년에는 ‘조선토지조사사업’ 완료로 지세제도의 정비 마무리되었고, 1934년에는 개인소득세제가 도입되어 ‘세제 정비’가 일단락 됨으로써 조세수탈이 훨씬 효율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정태현,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8), 41-4를 참조하라.

세를 보였다. 그러다 <주세령>이 적용되는 1917년에는 147만 3천 엔으로, 1920년에는 376.8만 엔으로, 1925년에는 842.4만 엔으로, 1930년에는 1,232.2만 엔으로, 1935년에는 1,959만 엔으로, 1939년에는 2,649.2만 엔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총 조세대비 주세 비중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1910년에는 1.8%, 1920년에는 10.8%, 1930년에는 20.0%로 급상승하였다.

<표-4> 조세 대비 주세 비중

| 연 도  | 조세총액(만 엔) | 주세(만 엔) | 비율(%) |
|------|-----------|---------|-------|
| 1920 | 3,484.0   | 376.8   | 10.8  |
| 1921 | 3,689.2   | 515.4   | 12.5  |
| 1922 | 4,252.5   | 850.5   | 17.3  |
| 1923 | 3,439.3   | 775.0   | 19.6  |
| 1924 | 3,739.6   | 833.5   | 18.5  |
| 1925 | 3,862.9   | 842.4   | 17.5  |
| 1926 | 4,194.8   | 946.0   | 17.3  |
| 1927 | 4,322.5   | 1,122.3 | 19.5  |
| 1928 | 4,463.3   | 1,286.0 | 22.3  |
| 1929 | 4,598.9   | 1,323.0 | 21.4  |
| 1930 | 4,347.8   | 1,232.2 | 20.2  |
| 1931 | 4,039.3   | 1,124.9 | 17.5  |
| 1932 | 4,116.5   | 1,136.6 | 19.2  |
| 1933 | 4,762.5   | 1,352.9 | 20.0  |
| 1934 | 5,618.8   | 1,658.4 | 22.1  |
| 1935 | 6,480.0   | 1,959.0 | 22.8  |
| 1936 | 7,539.2   | 2,175.5 | 21.7  |
| 1937 | 8,641.5   | 2,406.7 | 20.6  |
| 1938 | 11,448.8  | 2,649.2 | 17.4  |
| 1939 | 15,023.1  | 2,649.2 | 14.0  |

\* 『朝鮮總督府統計年表』, 각 연도별 참조.

<연초세법>도 1909년 시행되었으나 1914년 <연초세령>으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거두어 들였다. <연초세법>이 면허제로 세원 파악을 중심에 두었다면, <연초세령>은 연초세의 세분화를 거쳐 보다 폭넓게 세금을 수탈하였다. 그러다 1921년부터는 <연초전매제>를 시행하여 수익을 늘려나갔다.

<표-5> 조세 대비 연초세 비중

| 연 도  | 조세총액(만 엔) | 연초세(만 엔)/비율(%) | 전매수익/ 비율(%)   |
|------|-----------|----------------|---------------|
| 1920 | 3,484.0   | 626.9/ 18.0    |               |
| 1921 | 3,689.2   | 397.2/ 7.2     | 424.8/ 10.3   |
| 1922 | 4,252.5   | 46.9/ 1.0      | 652.6/ 13.3   |
| 1923 | 3,439.3   | 41.9/ 1.1      | 518.0/ 13.1   |
| 1924 | 3,739.6   | 39.1/ 0.9      | 716.1/ 16.1   |
| 1925 | 3,862.9   | 36.0/ 0.7      | 946.7/ 19.7   |
| 1926 | 4,194.8   | 27.8/ 0.5      | 1,279.9/ 23.3 |
| 1927 | 4,322.5   | 39.4/ 0.7      | 1,435.1/ 24.9 |
| 1928 | 4,463.3   | 35.5/ 0.6      | 1,315.3/ 22.8 |
| 1929 | 4,598.9   | 25.4/ 0.4      | 1,571.1/ 25.5 |
| 1930 | 4,347.8   |                | 1,758.0/ 28.8 |
| 1931 | 4,039.3   |                | 2,387.1/ 37.1 |
| 1932 | 4,116.5   |                | 1,789.3/ 30.3 |
| 1933 | 4,762.5   |                | 1,999.8/ 29.6 |
| 1934 | 5,618.8   |                | 1,885.1/ 25.1 |
| 1935 | 6,480.0   |                | 2,102.2/ 24.5 |
| 1936 | 7,539.2   |                | 2,486.8/ 24.8 |
| 1937 | 8,641.5   |                | 3,068.6/ 26.2 |
| 1938 | 11,448.8  |                | 3,795.5/ 24.9 |
| 1939 | 15,023.1  |                | 5,048.5/ 25.2 |

\* 『朝鮮總督府統計年表』, 각 연도별 참조.

\* 1921년부터 일제는 연초를 전매제로 바꿨기 때문에 연초세가 계속 감소하였다.

연초세는 주세와 함께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런 증가는 업자들을 산업차원에서 적극 지원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세금의 증가는 곧 주류와 담배산업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것은 한국인의 경제, 건강,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는 원인이었다. 절제운동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되었다. 과도한 주초로 개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절제운동이 막아야 할 목표였다.

한국을 아편 재배지로 삼고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이로 인해 아편가격이 급락하자 아편재배 및 판매를 담당했던 대정(大正)제약주식회사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아편밀매에 나섰다. 일제는 대정의 업무를 직접 관장하여 폐해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919년 신설한 <아편취체령>으로 아편재배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1920년대 아편중독자 인구가 전남에만 3천명이고, 전국적으로는 3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한다. 대부분 청년들이며, 재산가의 자녀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92)</sup> 이런 증가에는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아편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393)</sup> 합법적으로 세워진 회사의 아편밀매와 러시아를 통하여 들어오는 아편밀매에 한국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일제는 1929년 세계에서 최초로 <아편전매제>를 실시하였다.<sup>394)</sup> 그 근거를 아편 조약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이용하여 재정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다. 한국을 아편재배지와 함께 소비대상으로 삼았다. 일제의 이런 정책은 과도한 아편중독자를 양산시켰다. 또한 일제는 1932년 만주국(滿洲國)을 세워 아편재배를 확대하였다.<sup>395)</sup> 1938년 중일전쟁은 많은 재정이 요구되었고, 그만큼 재정확보를 위하여 아편재배는 필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만주국과 대만은 아편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당시 아편으로 피해 받는 한국인에 대한 글이 있다. 1920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김준연(金俊淵)<sup>396)</sup>이 1년 동안 정치학연구실 조교로 있으면서 쓴 글로 보인다.

392) 崔昌淳, “阿片은 朝鮮靑年界에 해독,” 『매일신보』 (1920년 6월 4일).

393) “朝鮮人の 阿片栽培와 集散의 概況,” 『매일신보』 (1921년 12월 24일).

394) “全世界에서 最初인 朝鮮의 阿片專賣,” 『매일신보』 (1929년 11월 24일).

395) 朴樞, “滿洲國의 阿片政策,” 『中國學論叢』 Vol. 8, No. 1, 87-123.

396) 金俊淵, 『獨立路線』 (서울: 時事時報出版局, 1947); 허도산, 『(朗山)金俊淵』 (서울: 지성사, 1998).

지금 조선에는 모르핀중독자가 매우 많다. 의사가 확인하는 바에 따르면 경기도 이남만 그 수가 1만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모르핀은 아편에서 정제한 것으로 그것을 주사하는 것이다. 그 작용은 아편연(阿片煙) 흡식(吸食)과 전혀 차이가 없다. 요컨대 오늘날 조선에 모르핀 중독자가 1만 명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편연 상습흡식자가 1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아편연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 지금은 그 병독이 검은 손을 뻗어 조선을 옥죄고 있다. ... 따라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상의 교정이다. ... 아편연을 허가없이 판매 공급한 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모르핀을 멋대로 공급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5백 엔 이하의 벌금, 아편연을 흡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모르핀을 주사한 자는 무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97)</sup>

일제는 아편전매로 재정을 확대하였는데, 그 희생양은 한국인이었다. 한국을 아편원료 생산지로, 동시에 소비자로 인식한 일제는 한국 소비를 더욱 확대하였다. 앞날에 대한 희망없는 한국인은 아편으로 위로를 삼았다. 한국인을 의도적으로 모르핀에 중독이 들게 한 일제는 자국에서는 매우 엄격했다.<sup>398)</sup> 이런 일제의 행태는 기독교 절제운동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16년 일제는 매춘관련 업무를 통일하고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선포하였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자 오히려 매춘업자들이 증가하였다.接客업자들은 1910년 일본인이 1,908명과 한국인 40,356명이었다. 1920년에는 2,644명과 69,270명으로 증가하였다. 1930년에는 3,042명과 50,302명, 1940년에는 2,976명과 35,660명을 유지하였다. 1910년 일본인接客업부 4,091명, 한국인 1,193명이 1920년에는 각각 4,330명과 3,492명으로 증가하였다. 1925년에는 약간 줄었다가 1930년에는 다시 4,431명과 4,885명으로 증가하였다. 1935년에는 6,715명과 7,492명으로, 1940년에는 6,499명과 11,725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sup>399)</sup>

397) 金俊淵, “朝鮮モハヒホ問題,” 『中央法律新報』 第一卷 第九號(1921年 6月), 7-8. 倉橋正直, 『아편제국 日本』, 166에서 재인용.

398) 倉橋正直, 『아편제국 日本』, 177-8.

399)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장제도의 전개,” 170-1. <표-8>과 <표-9>를 참조.

<표-6>接客업자와接客업부 통계

| 연 도  |     | 接客업자(명) | 接客업부(명) |
|------|-----|---------|---------|
| 1920 | 한국인 | 69,270  | 3,492   |
|      | 일본인 | 2,644   | 4,330   |
| 1925 | 한국인 | 59,346  | 2,805   |
|      | 일본인 | 2,965   | 4,085   |
| 1930 | 한국인 | 50,302  | 4,885   |
|      | 일본인 | 3,042   | 4,431   |
| 1935 | 한국인 | 43,112  | 7,492   |
|      | 일본인 | 3,165   | 6,715   |
| 1940 | 한국인 | 35,660  | 11,725  |
|      | 일본인 | 2,976   | 6,499   |

\*강정숙의 “대한제국 일제초기 서울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과,

山下英愛의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의 통계를 참고하였다.

한국인接客업자나接客업부의 증가는 최소한 세 가지 의미를 제공한다. 첫째로 그곳을 이용하는 남성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매춘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피해대상은 청소년과 가정이다. 둘째로 매춘의 증가는 열악한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1931년 만주사변이나 1936년 중일전쟁으로 일제의 강탈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강탈이 가중될수록 경제적인 빈곤은 더하였고, 그럴수록 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이들은 일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셋째로 매춘의 증가는 한국 내에서 퇴폐문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점이다. 일제의 병사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도입된 공창제는 결국 한국의 성문화를 파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한일합방이후 일제는 수탈과정에서 한국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일제는 주조산업을 확장시키면서 세수를 증가시킨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되었다. 아편은 젊은이들의 몸과 정신을 황폐화시켰다. 공창은 퇴폐문화를 조장하며 성문화를 파괴시켜나가고 있었다. 1920년대 이후의 기독교 절제운동은 이전보다 심각한 상태에 직면한 사회문제에 맞닥뜨려야 했다. 이에 기독교는 조직적이면서 다양한 방

법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절제운동은 결국 한국을 살리는 운동이었다.<sup>400)</sup>

## 2. WWCTU와 초교파적 연합운동

1900년 들어서면서부터, 초교파적인 기독교 연합운동이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WWCTU와 기존 선교부의 연합이다. 일반적으로 절제운동은 선교지 거주선교사에 의해 진행되었고, 주로 아편금지, 금주, 공창폐지, 복음적 절제모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다 1908년 미국선교회협의위원회(United States of a Department for Cooperation with Missionary Societies)에 WWCTU를 설치한 이후, 선교전략이 바뀌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선교를 절제운동과 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복음 전도에 초점을 두었지만, WWCTU와 함께 절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만큼 절제운동이 선교지에서 큰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둘째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절제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에 왔던 틴링이었다. 그녀는 WWCTU의 과학절제교육국(Department of Scientific Temperance Instruction, 이하 DSTI)에서 일했었다. WWCTU에서는 선교지로부터 술, 아편, 공창문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절제운동에 교과를 초월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sup>401)</sup> WWCTU와 미국선교회협의위원회와의 협력은 대표적인 연합운동의 결과였다. 협력은 선교지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WWCTU선교사 틴링이 세 번째 내한했을 때, 재한여자선교사들은 그녀의 지도를 받았다. 특히 1923년 틴링의 내한으로 WWCTU 외국지부에 소속된 여자선교사들은 총회를 열었다. 선출된 임원은 모두 초교파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초교파단체인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이듬해에 조직되었다. WWCTU관련 문답이 노불부인에 의해 『기독신보』에 실렸다. 초교파적인 연합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다음과 같다.

四, 세계녀주기독교절제회의큰원칙이무엇이뇨

400) 『기독신보』, (1926년 12월 3일).

401) Ian Tyr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109-11.

답, 우리가 신과 인류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었던 종족이나 교파를 관계치 안코 전세계  
 녀즈를 단합하야 우리의 연합혼 조신과 실행이 신의 은혜안에서 생의정결혼 공중도  
 덕 곳사롭의 신경을 마취식히는 독소스용을 엄금하는 것과 알콜, 아편, 담배, 매음  
 제도를 파괴하야 가정을 잘보호하는 것과 도박을 업시하며 부인참정권을 었으며 전  
 쟁을 업시하는 것등을 실현하고자하는 운동에 만흔 공헌이 잇스리라는 신령을 가짐  
 六, 본회의 공약이무엇이뇨

답, 하나님의 도아주시는 안에서 모든주정 곳 증류법으로 지은것이라든지 누룩으로 만  
 든것이라든지 길금으로 만든 것등을 스용하는 것과 각종 아편스용하는 것을 엄금하  
 며 이러흔것을 매매하는것까지 일결철폐하기로 로력함<sup>402)</sup>

WWCTU의 일차적인 원칙은 “엇던 종족이나 교파를 관계치 안코 전세계녀즈를 단합”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절제에 관한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음주,  
 흡연, 아편, 공창과 관련된 것들이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WWCTU의 설립 목적인  
 것이다.

WWCTU의 정신은 그대로 한국의 여자절제회에도 적용되었다. 다음 장에서 자세  
 하게 다루겠지만, 1924년 설립 이래로 한국 절제운동을 주도했던 조선여자기독교절제  
 회는 “초교파적인 여성단체”로 출범하였다. 1928년 회장을 역임했던 홍에스더가 쓴  
 글에도 여자절제회가 “초교파적인 단체”임을 밝히면서, 교파를 초월하고 지방색도 버  
 리고 합심하자고 역설하였다.

우리의 회합은 교파를 초월한관이며 연합적사업입니다 장로교 혼자하는 사업도안이요  
 감리교 혼자서하는 것도 안이요 구세군이나 성결교회서만 안입니다 ... 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교파도 초월하고 지방적관렴도 떠나서 우리는 합심하여 일하자는 합니다  
 또는 우리가 맞당이 행하여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모든 것 다 도라보지말  
 고 참으로 이것저것을 초월해서 사업만을 되도록 하느님의 사업만이 인생을 위하여 성  
 공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인애라는 두글자가 절대필요한줄 압니다<sup>403)</sup>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임원들은 대부분 YWCA임원을 겸하거나 중요한 위치에

402) 노불부인, “세계녀즈기독교절제회문답,” 『기독신보』 471호(1924년 12월 17일).

403) 洪愛施德, “忍耐力,” 『기독신보』 1034호(1935년 9월 25일).

있었다. 절제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던 YWCA의 구성원도 대부분 교파를 초월하여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1923년 장감연합협의회와 재한선교사연합회가 합병하여 세운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1929년 조선야소교연합공의로 이어지는 연합운동에서도 절제운동은 계속 확장되었다.

### 3. 여성들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절제운동에서 볼 때, 1907년 국채보상운동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 운동이다. 비록 남성들의 주도로 금주금연운동이 진행되었으나, 여성들도 비녀와 반지를 모으거나 머리를 잘라 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기독교 여성들은 국미적성회(掬米積誠會), 의성회(義誠會), 꽃피교회 부인회, 이화학당 등을 통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sup>404)</sup> 그러나 이 때의 여성역할은 제한된 부분에 참여한 것이다.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사회에 뛰어든 것은 1919년 3.1운동이었다. 일반 여성보다 기독교 여성들의 수감비율이 월등했다. 3.1운동은 그동안 쌓인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표출된 운동이기도 하다. YWCA 초대위원장을 지냈던 김활란은 “己未運動當時와 其後女子團體上向을 目的한 某某女子團體의 活動이 그例證”<sup>405)</sup>이라며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1920년대 기독교 여자청년단체가 수 십 여개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06)</sup> 3.1운동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한국 YWCA 설립 핵심일원이었던 김필례도 3.1운동 이후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아들만 교육시키고 딸은 집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였지만, 딸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0년 전인 1912년만 하더라도 보통학교에 3,886명, 중등학교에 291명이 다녔으나, 1922년에는 각각 42,816명과 3,284명으로 증가하였다.

404)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성교회의 역사』, 216-7.

405) 金活蘭, “朝鮮女子運動의 今後,” 『기독신보』 714호(1930년 1월 1일).

406) 동아일보, 1920년 5월 15일, 1921년 2월 8일, 3월 8일을 참조하면, 이 당시 기독교 여성단체가 수 십 여개 생겨났다고 한다.

둘째, 여성은 결혼생활에서 새로운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결혼 전까지 상대방의 얼굴도 보기 전에 결혼을 승낙해야 했다. 오늘날에는 약혼자끼리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협력자로 변화되었다.

셋째, 10년 전 처녀들은 머리에 치마를 쓰고 부인은 장옷을 입고 다녀야 했다. 이제는 낮에도 자유롭게 외출 할 수만큼 자유가 생겼다. 도시나 마을의 부인들은 야학이나 유치원을 책임 맡고 있으며, 몇몇 정규학교에서도 교사로 봉직하고 있다. 교회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졌는데, 교회예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전도부인의 교육수준도 높아져 충분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사업 면에서도 여성의 참가가 눈부시게 두드러졌다. 이전에는 여성들이 물건을 사는 것조차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여러 상점을 직접 경영할 정도로 참여가 확대되었다.

다섯째, 지난 10년간 여성단체의 성장은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인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 여성단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1922년 기준으로 58개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역량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407)</sup>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이 성장한 여성들은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들은 교육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가져왔다. 자기 발전은 곧 사회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며, 그 결과 1920년대 여성운동으로 표출되었다.

#### 4. 기독교 청년운동의 활성화

1920년대를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을 겪어야 했다. 문화정치를 표방한 일제의 교묘한 민족말살 정책, 확산되는 퇴폐문화와 세속화, 민족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의 대두, 피폐된 농촌경제가 혼재되어 있었다.<sup>408)</sup> 이런 상황에서 당시 청년들은 다음 세 영역에서 반응하였다. 첫째로 정치에 불만을 가진 자들은 민족운동에 앞장서고, 둘째로 경제에 불만을 가진 자는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셋째로 사회제도와 풍습에 불만을 가진 자는 구습타파에 앞장서고 있었다.<sup>409)</sup>

407) Choi, Pil Ley(Mrs), "The Development of Korean Women during the Past Ten Years," *KMF*, Vol. 19. No. 4(November 1923): 222-3.

408) 김인수, 『한국기독교의역사』, 447-75.

409) 邊成玉, “敎會와 靑年,” 『기독신보』 579호(1927년 1월 12일).

기독교 청년들도 민족주의 운동을 위하여 전면에 나서거나, 사회주의노선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청년들은 일제에 의해 피폐된 농촌을 일으키고, 퇴폐 문화를 제거하고, 한국인의 의식을 깨우치는데 전념하였다. 영변의 승덕학교교장이었던 사월(史越)은 나이든 사람은 안방에 안주하길 바라고, 어린아이는 놀기에 바쁘게 이들이 과연 현실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교회는 현실을 도피하고 그것을 종교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금의 현실에서 대안은 바로 청년이라는 것이다.

청년들은 활동하기를 심히 깃버한다. 주일학교를 가르치게하고 야학을 인도하게하라. 또는 문맹한타으로 이러나는 모든죄악을 퇴치하여 전자운동을 일으키도록 제의하자 그러면 청년들은 교회에 밋치리라 ... (중략) ... 청년들은 말보다 실행을 도와한다. 바라건대 교회로서는 말하는중에라도 실행을 꺾어버리지 안키를 갈망한다.<sup>410)</sup>

현실문제에 가장 앞장서서 타개할 사람들은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청년들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미래이며 기독교의 미래이기 때문에, 교회는 청년들이 사회문제에 전력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sup>411)</sup>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가시적인 결과들은 금주운동에서 나타났다.<sup>412)</sup>

기독교 청년들은 일의 효용을 위하여 여러 단체를 조직하여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기독교 청년단체는 YWCA와 면려회다. 기존의 YMCA와 엽윳청년회와 함께 1920-30년대 기독교청년단체로서 앞장섰다. YMCA와 YWCA가 초교파적이라면, 엽윳청년회와 면려회는 각각 감리교와 장로교라는 교단을 배경으로 한다. 기독교 청년단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들은 독자적으로, 때로는 연합하면서 절제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공헌하였다.

기독교 청년들은 가장 먼저 시대정신을 강화시켰다. 각 기독교 청년단체들은 주요 행사 때마다 시대적인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가졌다. 제 1회 관서지방 남녀청년수양회가 1929년 8월 22일부터 송실전문학교에서 열렸다. 주요 토의 내용은 남녀

410) 史越, “教會와 靑年,” 『神學世界』 第十四卷 第四號(1929. 8), 82-6.

411) “社說, 中央基督銀紀念,” 『기독신보』 673호(1928년 10월 31일).

412) “全國의 禁酒禁煙運動,” 『기독신보』 379호(1923년 3월 14일).

의 풍기문제, 농촌사업, 재물과 청년, 신구풍습의 취합, 시대와 성경해석 등이었다. 강연은 기독교와 사회주의, 기독교사회주의, 세계여성운동의 확장, 기독교청년의 진로, 세계청년운동,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413)</sup> 제 2회 수양회 때에는 농촌지도자의 책임, 우리가 가질 경제관, 여자교육문제, 종교의 정의, 청년지도, 종교와 인생관, 부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 외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sup>414)</sup> 대부분의 내용들이 시대정신과 연관된 내용들이다. 기독교 청년들이 시대정신을 분명히 하면, 사회와 교회의 리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청년들은 연합을 강조하였다. 『기독신보』의 한 사설을 보면, 청년들은 어떤 교파나 단체보다 “예수의 이상”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예수의 일함으로 일치단결”하여 한국교회의 선두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sup>415)</sup> 한국 교회는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주요한 사안에는 연합하여 활동을 함께 하였다.<sup>416)</sup> 이일에 청년들도 보조를 같이하자는 의미이다. 비록 교파형태를 띤 엽월청년회나 청년면려회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연합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연합활동은 절제운동에서 보여주었다. 1927년 황주주일학교연합회에서 진행된 절제운동과 1939년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시행을 위하여 활동할 때 함께 하였다. 이것은 시대적인 연합운동의 영향이기도 하다.

## 5.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 운동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한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무신론자인 사회주의자들은 종교를 비판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고, 계급주의의 지배자이며, 자본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도구라고 매도하였다.<sup>417)</sup> 한국에 처음 세워진 단체는 1920년 2월 7

413) “第一關西男女基督青年修養會,” 『기독신보』 713호(1929년 8월 7일).

414) “第二基督教男女青年夏令會,” 『기독신보』 764호(1930년 7월 30일).

415) “社說, 基督青年諸君에게,” 『기독신보』 711호(1929년 7월 24일).

416) 李泳根, “基督青年의 新使命,” 『기독신보』 1031호(1933년 9월 4일).

417) 金京河, “反基督教運動에 鑑하여 우리 敎人の 自省을 促함,” 『기독신보』 527호(1926년 1월 13일); 박헌영, “歷史上으로 본 基督教의 內面,” 『開闢』 63號(1925), 64-70.

일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이며, 그 뒤를 이어 여러 단체들이 세워졌다.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와 1924년 1월 경성신흥청년동맹회(京城新興靑年同盟會)는 종교의 의의를 부정하고 반기독교적 입장을 취하였다.<sup>418)</sup> 특히 1925년 10월 25일 한양청년연맹은 반기독교입장에서 ‘기독교는 미신이다’, ‘양이랑심(羊而狼心)의 기독교’, ‘현하 조선과 기독교의 해독’, ‘악마의 기독교’ 등의 제목 하에 강의를 준비하였다.<sup>419)</sup> 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반기독교적 비판은 계속되었다.

1928년부터 사회주의자들은 제 2차 반기독교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1928년 7-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6차 결의에 따라 반기독교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 대회에서 ‘식민지, 반식민지 제국에서의 혁명운동에 관하여’라는 테제를 결의하였다. 이 가운데 36항은 한국공산주의운동과 관련된 조항이다. 내용은 한국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인 단체에 들어가 혁명적 계몽활동을 하여 민족개량주의 지도자를 고립시키고, 그들로부터 근로 대중이 떨어져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였다.<sup>420)</sup> 이전의 사회주의 반기독교 전선은 기독교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민족주의자들과 연계하였다. 1928년부터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비혁명을 비판하고 결별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1920년대에는 김익두(金益斗)를, 1930년대에는 이용도(李龍道)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1920년대의 부흥운동을 이끈 김익두는 비운에 사로잡힌 일반 대중에게 부흥운동으로 일제하라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인물이다.<sup>421)</sup> 그의 부흥집회에서의 메시지가 “내세 지향적”이라는 특징에서 비롯된다.<sup>422)</sup> 김익두의 이런 특징은 사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기회였다. 비현실적인 미혹으로 백성을 유린한다는 것이다. 김익두를 선두에 서서 비판한 사람은 김명식이었다.

金益斗는 迷亡者이다 그 言語가 迷亡이며 行動이 迷亡이다 원래 無識한 者이니 知識이며 人格이며 思想이며 品性은 말할 것도 없다 神聖한 牧師의 名義도 倫하고 基督을 買

418) 金俊燁,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二卷(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29-56.

419) 姜元敦, “韓國民族民主主義에 비추어본 韓國基督教,” 『神學思想』 六十號(1988), 14-5.

420) 村田陽一 編譯, 『コミンテルン資料集 4』 (大月書店, 1981), 444. 윤정란,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 연구,”(서울: 숭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38에서 재인용

421)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251-3.

422) 閔庚培, 『韓國基督教史』, 改訂版(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95), 401.

하야 朝鮮社會에서闊步한다 … 金益斗의 歷史와 出身과 品性은 이제 論할 必要가 업건  
이와 彼는 牧師가 되야 基督의 奇蹟과 異行을 말한다 이것을 基督教라하야 每樣醜陋한  
言語와 行動으로써 저純潔하며 거룩한 基督을 買한다. 그리하여 世를 惑하며 民을 誣한  
다. 彼는 僭稱하되 自己에게 基督과 여한 奇蹟異行이 잇다고 한다 基督은 救世主이다  
義가 잇스며 熱이 잇스며 誠이 잇스며 憤이 잇스며 愛가 잇스며 最後의 朝血이 잇섯다  
基督에게 잇는것이 이것이오 奇蹟과 異行이 아니다 基督이 救世主가 된것도 奇蹟과 異  
行이 아니라 愛이며 義이며 最後의 潮血이다 이러한 基督을 彼는 買하야 僭稱하되 自己  
가 基督의 奇蹟異行을 한다함은 基督에 對하야 큰罪人이오 社會에 對하야 公敵이다<sup>423)</sup>

김명식은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하여 우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부흥운동으로 대변되는 김익두를 비판함으로 현실적인 기독교를  
요구하였다. 김명식은 김익두의 언어와 행동을 비판하고, 기적을 미신으로 매도  
하였다.

1920년대 중반 민족운동을 주도한 사회주의자들은 더욱 반기독교전선을 전개하였다.  
학생들과 학생 조직을 이용하여 미션계의 동맹휴학, 학생과학운동, 선교사 배척운  
동 등을 전개하며 기독교를 압박하였다. 조선공산당 산하 공산청년회가 조직되면서  
기존의 반기독교운동과 경쟁적으로 더욱 격화되었다.<sup>424)</sup> 이들의 비판 내용을 정리하  
면, 첫째로 앞서 언급한대로 기독교를 제국주의 앞잡이로 인식하였다. 둘째로 종교를  
마취제로 인식한 사회주의는 기독교로 인간해방을 이룰 수 없다면서 종교사멸론을 주  
장하였다. 셋째로 민중을 현실로 도피하게 만들어 현실변혁의 주체로서의 잠재력을  
말살시켰다. 넷째로 사회현실에 대하여 민중의 무관심은 계속 증가되었다는 것이  
다.<sup>425)</sup> 이런 비판은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사상운동의 일환이었고, 교회 내의 청년세  
력을 끌어들이려는 확산운동의 도구였다.<sup>426)</sup>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대상은 이용도였다. 3.1운동 때 시위했다는 이유로

423) 金明植, “金益斗의 迷亡을 論하고 基督教徒의 覺醒을 促하노라,” 『新生活』 6號(1922. 6.), 5-6.

424) 강명숙,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경제사상』 (서울: 백산 자료원, 1999), 42-3.

425) 김정권, “1920년대 후반 기독교세력의 반기독교운동 대응과 민족운동의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14호(2001), 81.

426) 강명숙, “1920년대 초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 『한국기독교와 역사』 5호 (1996), 54.

2개월간 옥고를 치루기도 했던 그는, 1924년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4차에 걸쳐 3년 이상 감옥에서 살았다. 1928년말부터 1929년 초까지 중생을 체험하고 신비주의에 몰입되었다. 기적을 일으키며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했던 그는,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좋은 비판대상이었다. 이용도를 정신병자에 비유한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사선위에서 발악하는 광무하는 형태라고 비판하였다.<sup>427)</sup> 사회주의자들은 한국사회 특히 농촌이 피폐된 원인은 이런 무지한 기독교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족개량주의자인 기독교가 실제원인을 호도하며 일제의 지배구조를 고착시키고 계급적 모순을 강화시켜준다고 비판하였다.<sup>428)</sup> 기독교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비판을 무시하거나, 그들로부터 자기 방어를 해야 했다. 때로는 그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공격적으로 비판해야 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외형상으로 현실 변혁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달랐다. 대표적인 문구는 이것이다. “改造! 改造! 무엇을 改造? 勿論 이 社會를 改造함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急先務는 이社會를 改造하려는 者가 먼저 自己몸을 改造하여야지.”<sup>429)</sup> 기독교는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하여 사회를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절제운동이 복음주의 입장에서 전개되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1920년-1939년의 시대적인 배경을 정리하면, 첫째로 일제에 의해 유입되는 퇴폐문화와 세속화를 경험하였다. 둘째로 세계절제운동단체인 WWCTU와 세계적인 초교파 연합운동의 영향으로 여자절제회와 YWCA가 세워졌고,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와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가 출범하였다. 셋째로 그동안 교육받은 기독교 여성들이 사회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넷째로 기독교 청년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연합활동을 하며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절제운동이었다. 다섯째로 사회주의 노선의 반기독교운동에 기독교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대처해야했다.

427) 벽파생, “평양에 발생한 기독교재림 사건정체,” 『신계단』 1호(1933년 2월), 윤정란,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 연구,”(서울: 숭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40에서 재인용

428) 김정권,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서울: 숭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5), 40.

429) “改造,” 『기독신보』 485호(1925년 3월 25일).

## B. 절제운동단체의 출현

절제운동단체는 1924년 설립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1932년 설립된 조선절제운동회이다. 이 두 단체는 절제운동만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전자는 초교파적인 여성단체이고, 후자는 교파적 남성단체이다. 절제운동만을 위하여 세워진 단체는 아니지만, 절제운동을 중심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힘을 기울였던 단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23년 YWCA, 1927년 근우회, 1921년 청년면려회, 1916년 재건되었지만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애플청년회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 단체들을 교파적 단체와 초교파적 단체로 구분하여 절제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교파적 절제운동 단체

#### a.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는 1932년 5월 5일 평양장로회신학교 기도실에서 창립모임을 가졌다. 여자절제회가 여성중심, 초교파, WWCTU의 영향으로 세워졌다면, 절제운동회는 남성중심, 교파적(장로교), 자발적으로 세워졌다. 감리교는 이미 여자절제회와 연계하여 절제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반면, 장로교는 교단이 전면에서 절제운동을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430)</sup> 그동안 그 부분을 면려회가 담당했었다. 장로교는 절제운동회 출범으로 교단차원에서 절제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절제운동회 창립에 관한 내용이다.

---

430) 장로교가 교단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12년 계연회(戒煙會)를 조직하고, 1917년부터 주일학교공과에서 절제공과를 실시했으며, 1919년 아편사용을 제한했다. 192년에는 누룩문제를 당회차원에서 다루기로 하였고, 1926년 오공선의 공창폐지안을 가결시켰고, 1929년 북감리교가 작성한 미성년자깁연음주금지법안에 장로교도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宋相錫, 『韓國節制教育研究史料集』, 148-9.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발기총회를 五월五日 평양신학교기도실에서 개최하였는데 발기인과 기타동지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임원과 리사를 선정하였고 규칙을 통과하였다

임원

회장 채필근 조만식 서기 우호익 리권찬

회계 정두현 강봉우 총무 송상석

고문 객안련 편해도 리사 十五인(씨명은 생략)

朝鮮基督教節制運動會趣旨

暗黒의漆夜를 不夜光明의 世界로變하기 爲하야 電燈 瓦0燈을 發明하고 寒冷의 嚴冬을 不凍00의 世界로變하기위하야 炭爐蒸汽爐를 創作한것이 우리人類一다 物質世界의 機器方面에는 이와같은 苦心苦闘의 繼續征服과 勇往邁進의 長足發展이 人類社會로하여금 今日の 文化世界를 形成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精神世界의 人格方面으로 一般社會를考察할것이면 暗黒凍結의 方面인罪惡, 迷信 등이 얼마나많은지 다말할수없다 酒類, 煙草, 阿片, 娼妓, 惡質, 弊習 등이 우리의身體와 精神에 多大한害毒을 준다는것은 東西古今의 上下賢愚가 公認하는것이다 그뿐 아니라 近年에 와서 科學的知識이 日就月將함에따라 그런毒物들은 놀라지아니할수 없으리라만 치 胸幅한 破壞性과 殘酷한殺0性を가지고 생명財産을 奪取하되 無抵抗과같이 自足할줄 모르는 惡魔의 武器인 것을 하여 더욱明確하게 證明하여준다 …

이와같은 惡魔의 作業罪罰의市場을 征伐克復하기위하여 膽大하게또는 強勇하게 ‘내가하겠다’고 先鋒隊員으로 선듯나설사람이 그누구인가 아— 科學的으로 認識한일이지마는 科學者들이나서지 아니하며 道德的으로 斷定된일이지마는 道德家들이나서지 아니한다 이 赤是 惡魔의 誘惑이오 犯罪의結果一다 아—그러면 이것을 爲하야 나설사람은 아조없을것인가 … 各代各國의 基督教徒은 各其政勢를따라 禁酒會, 斷煙會같은것을 設立하며 혹은 矯風會節制會같은 것을 組織하고 또혹은 公娼廢止 迷信打破같은 熱烈한運動을 니르키어 社會를改善하기에 努力하는 것이다

(중략)

예수降生 一千九百三十二年 五月 日

朝鮮基督教 節制運動會發起人

蔡弼近外 四十九人<sup>431)</sup>

사회는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죄악의 폐단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31) “朝鮮基督教 節制運動會發起人” 『기독신보』 860호(1932년 5월 25일).

주류, 연초, 아편, 창기, 악질, 폐습은 정신생활에 해독을 주는 것으로 악마의 무기인 것이다. 각국은 사정에 따라 금주회, 단연회, 교풍회 등을 세워 대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금주금연과 절제생활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세력을 더욱 규합해야 한다. 이일에 참여할 자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절제운동회취지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절제운동회의는 “節制生活과 社會淨化運動을 遂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주요사업은 금주, 단연, 교풍, 공창폐지, 저축장려, 미신타파 등이다. 이를 위하여 조사, 연구, 출판, 선전, 순회강연, 강습회개최, 기금적립, 지회설치를 일차 목표로 삼았다.<sup>432)</sup> 제 2회 절제운동회 총회가 12월 17일 평양장로회신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회장 채필근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4가지 중요한 결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長老教會에 基督教社會事業을 包含한 節制部를 加設하도록 請願할것
2. 萬國統一工課에 配定되어있는 節制工課를 使用하도록 할것
3. 長老會各宣敎部에 補助金을 請求할것
4. 專任幹事 一人을 둘것<sup>433)</sup>

절제운동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면, 감리교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는 이미 교단 내에 절제부를 두고 활동하였다. 전임 간사제나 순회총무제도 시행하고 있었고, 재정도 WWCTU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감리교의 선례를 많이 참조 한 것으로 보인다.

1935년 장로교선교회는 각 교회에 절제운동 동참을 요청하는 근청서(謹請書)를 보냈다. 내용을 보면, 2차 절제운동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절제부를 선교회에 설치하고, 절제운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절제공과를 만드시 사용할 것과 교회사회사업 관련 서적을 필독하도록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교인은 술집, 담배, 공창, 아편 장사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창기의 영혼을 구하는 일, 자녀를 성결하게 살도록 교육하는 일,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요청하였다.

432) “朝鮮基督教 節制運動會創立, 『동아일보』 (1932년 5월 20일).

433) “朝鮮基督教節制運動會 第二回定期總會概況,” 『기독신보』 940호(1933년 12월 6일).

주님은혜중귀교회 교우여러분의 평강을축하하오며

구령(救靈)사업과 교세(教勢)발전을 병축(병축)하옵나이다 아리올말씀은 물질문명(物質文明)이 발달(發達)되는 덩반대(正反對)로 정신생활(精神生活)의 ‘타락’의 여지(餘地)없는 방향(方向)으로 기우러져가는 위험한 세대에처한 우리로써는 이를그대로 보고지낼수없읍니다 복잡한 모던사회문제를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다해결을 지일수없스니 위선구령사업에 가장 많은 장애를주고 잇는것들을 교회가 책임을지고 힘써싸와 물리치지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그것은무엇일가요 이는곳 ‘술의 해독’과 ‘아편과 담배’며 ‘공창’(公娼)과 ‘사창’(私娼)의 해독이 그것입니다 이에대한 해독은 날노더하야저서 사람의 귀중한 생명 재산을 여지없이 빼앗고잇지만은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하야 힘쓰는이가 만치못한것을 심이유감으로 생각하딘차에 본선교회에서는 생각다못하야 위신좌괴멧가지만을 조선각교회에 근청(謹請)하야 힘쓰기를 바래와서 아뢰옵나이다

- 一, 신자들의 소유인 부동산(不動產)이나 기타엇더한것이던지 ‘창귀’ ‘괴생’ ‘요리업’(술장사) ‘아편’ ‘담배’ 장사의게는 절대로빌너주지안이할일이오며
  - 二, 각교회에서 경영하는 학교에 일보는 선생들의 ‘금주’ ‘금연’은 물론이요 아희들의게 그 해독을 밋지안이 하도록하고 몸과맘을 거룩하게 가지도록 잘가라쳐서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이되도록 할일이오며
  - 三, 주일학교절제공과를 특별이잘리용하야 교인들노하여금 절제생활을하도록 하는동시에 믿지아니하난사람의게까지라도 이것을가라쳐줄일이오며
  - 四, 근자에와서 ‘창녀’ ‘괴생’ ‘카페녀급’의 수요는 날노만하가며 그들은 인육시장(人肉市場)에서 ‘생지육’의 고초를 당하고 잇는 것은 동정심과 도덕성을 가진자로써는 참아 그해보고 지낼일이 못됩니다 그들의 ‘령’과 ‘육’을 우리가구해내도록 힘쓸것며
  - 五, 각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제생활에대한 교육을 하야 성결한생활을 하도록 지도할일이오며
  - 六, 교역자들은 누구를물론하고 자괴의사는지방에서 이문제를이르켜서 사회덕여론이 되도록할일이오며
  - 七, 이른죄악을 조선에서다모라내고 령과육이 건전하고 성결한생활을 하도록 위하야간절한 기도를하실이이옵시다
- ‘참고’로 올리는 말씀은 이문제를 연구하시기에 덕당한책을 예수교회에서 발매 하

는 교회사회사읍이라는 책이올시다

(특고) 특별이 올니는 말슴은 이것을 공례배때에 반다시 한번읽어주시오

長老敎宣敎會 節制部 謹請書

一千九百三十四年 一月 日

朝鮮各敎會 貴中<sup>434)</sup>

총무였던 송상석은 절제운동회를 실질적으로 이끈 리더였다. 그는 조선여자기독교 절제회가 주관한 금주논문현상모집에 참여하여 수상한 바 있을 정도로 절제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매우 컸다. 1935년 10월 12일 총 22개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된 미성년자금주금연촉성회의 총무로 활동하였다. 또한 1935년 12월 13일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 실행운동촉성회에서도 총무로 선임되어 입법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sup>435)</sup> 그 결과 1938년 4월 1일부터 미성년자각연금지법과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이 시행되었다.<sup>436)</sup>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시행축하 모임에서 송상석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할 정도로 그의 관심은 각별하였다.<sup>437)</sup> 1933년부터 기관지『절제시보』(節制時報)를 발간하였는데, 송상석이 주간을 맡을 정도로 절제운동과 관련된 글을 많이 남겼다.

절제운동회를 정리하면서 아쉬운 점은 남아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당시 총무였던 송상석이 편집하여 출간한『韓國節制敎育研究史料集』은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한 모금의 생수였다. 그렇지만 송상석이 여러 곳에 자신이 기고한 글들을 중심으로 편집했다는 점, 연대기적인 활동 내용이 빈약하다는 점, 절제운동회의 활동내용과 과정이 거의 없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시 절제운동회의 역동적인 활동을 재현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해야 할 듯하다.

#### b. 감리교 엠윗청년회

434) 宋相錫, 『韓國節制敎育研究史料集』, 164.

435) 미성년자금주금연법에 관한 내용과 송상석의 활동을 보려면 『韓國節制敎育研究史料集』, 493-581을 참고하라.

436) “未成年禁酒, 禁煙法 閣議서도一致可決,” 『매일신보』(1938년 3월 26일).

437) “未成年禁酒禁煙法 施行祝賀會盛況,” 『매일신보』(1938년 4월 19일).

1916년 재조직된 엽윳청년회는 지역마다 절제회를 조직하며 절제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본격적인 것은 3.1운동 이후이다. 엽윳청년회는 3.1운동 실패로 교회도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평양 시내 감리교회를 찾아다니며 신앙심을 일깨우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8월에는 총 3개조로 구성된 전도단을 중심으로 평양연합 청년전도대회를 열었다. 1조는 신흥동, 태평동, 청산포, 진지동, 사천시, 원양시, 산수동, 영악동, 샘골, 칠리를 담당하였고, 2조는 순안읍, 부백, 석암, 성재, 영유읍, 숙천읍, 입석, 안주읍, 개천읍, 군우리를 담당하였으며, 3조는 검이포, 장동, 황주읍, 외하리, 용연리, 중화, 유동, 장천, 미림을 담당하며 순회 전도집회를 열었다. 청년 전도단은 이듬회에도 계속 전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단속과 반대로 충돌이 계속 되자 밤에 교회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전도하였다.<sup>438)</sup> 엽윳청년회 전도단은 3.1운동 이후 계속된 전도로 수천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대전도단”이었다.<sup>439)</sup>

다른 청년단체보다 가장 앞서 세워진 엽윳청년회는 기독교로부터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엽윳청년회가 1927년부터 매년 정구대회를 열었다. 『기독신보』는 사실을 통하여 “新時代의 新本”을 제시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였다. 단순한 정구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청년단체의 전체적인 연합을 기대하였다. 또한 남녀가 함께하는 정구대회로 새로운 남녀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라는 것이다. 이는 엽윳청년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昨年에는 京城地方北監理教會에 限하였던것이 今年에는 한거름더나가서 男監理教會까지 聯合해진것은 實로 協同爲一の 聖訓을 實踐하는 아름다운 現狀이며 將來에는 長老教會 青年會까지 聯合하게돌줄을 맞는바이다. … 이 大會가 다른 社會團體에서 主催하는 그것과 다른점은 勿論 그 精神에 잇지만 또 한가지異彩를 가진것은 男子뿐 아니라 女子까지 結合하여 運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機會삼아 朝鮮基督教青年男女한자리에서 運動하는 美德良風을 普及식혀야할것이다 우리는 過去 朝鮮女子解放運動의 先頭가 되었던것이나 마찬가지로 男女가서로 天性에 合하여 出戰함으로써 新時代의 新本을 세우게 하자<sup>440)</sup>

438) 『韓國監理教會史: 초기-1930』(서울: 基督教大韓監理會本部教育局, 1975), 258-60.

439) 『동아일보』(1920년 4월 8일), 3.

440) “社說, 엽靑聯合庭球大會,” 『기독신보』 671호(1928년 10월 17일).

1930년 남북감리교의 통합으로 엽윳청년회는 총리원 산하 교육국에 흡수되었다. 교육국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다가 1934년 10월 다시 엽윳청년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 뒤에 엽윳소년회, 소년적후대, 엽윳청년회로 나누어 세분화하였다.<sup>441)</sup> 이전부터 절제운동에 적극적<sup>442)</sup>이었던 엽윳청년회는 1934년 1월 행사를 계획하면서, 사회현황을 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주관은 사회부에서 담당하고, 사회개선운동 차원에서 자선사업, 금주운동, 교풍운동을 조사하기로 결의하는 등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443)</sup> 중화(中和)지역 석양(石陽)교회 엽윳청년회에서는 교양부 주관으로 6월 21일(목) 저녁 9시 30분에 평양지방 절제회장 김봉준(金鳳俊)을 초청하여 금주금연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酒煙의 害, 우리의 살길, 教育의 必要”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기 위하여 교회만 아니라 불신자와 사회 인사를 포함해 7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sup>444)</sup> 1936년은 엽윳청년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였다. 사회부는 사회개량운동, 금주금연 강연회, 교풍운동을 주관하면서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sup>445)</sup>

### c. 장로교 청년면려회

1921년 2월 첫 번째 주일에 경상북도 안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면려회는 1924년 11월 조선기독교청년면려회연합회를 출범시켰다. 면려회연합회가 출범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신보』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출범하

441) 『韓國監理教會史: 1930-1945』(서울: 基督教大韓監理會本部教育局, 1980), 120.

442) 예를 몇 개 들면, 구사평(九沙坪)엽윳청년회 주관으로 금주강연이 있었다. 1934년 1월 24일 술과 담배의 해독을 중심으로 강연이 이루어 졌다. “九沙坪葉青主權로 禁酒講演, 『감리회보』 第二卷 第二號(1934년 2월 10일); 안현읍엽윳청년회에서 1935년 1월 19일 한국 선교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금주운동을 펼쳤다. 악대를 선두로 유아원아들과 주일학생들, 남녀회원이 금주가를 부르며 전단지를 뿌렸다. “葉青禁酒宣傳,” 『감리회보』 第三卷 第二號(1935년 2월 10일); 사리원엽윳청년회는 구정 50일에, 홍천지역 각교회와 기관은 1월 30에 거행 “各地禁酒宣傳,” 『감리회보』 第三卷 第三號(1935년 3월 10일).

443) 『基督教朝鮮監理會第二會總會錄』(1924년 10월), 47; “葉원會欄,” 『감리회보』 第二卷 第一號(1934년 1월 1일).

444) “石陽葉青年教養部主權로 禁酒斷煙大講演會,” 『감리회보』 第二卷 第七號(1934년 7월 10일).

445) 『韓國監理教會史: 1930-1945』, 121-2.

는 면려회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둘째로 그리스도를 배워 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셋째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되 청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거하고, 넷째로 그러면 청년들의 사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원하는 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족을 위하여 큰 행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446)</sup> 면려회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면, 청년운동이 민족을 위하여 큰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만큼 면려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이다.

청년면려회는 1925년부터 기관지 『진생』을 발간하여 장로교 청년회 운동을 확장시켰다.<sup>447)</sup> 청년면려회가 YMCA와 다른 점은 면려회가 교파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졌다. 이것이 초기 면려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기독신보』 1932년 6월 15일자를 보면, 면려운동은 “全朝鮮的 … 이라기보다 … 全民族的으로 손을 편” 운동이라 하였다. 즉 면려회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구성된 신앙단체라는 것이다.

우리勉勵事業은 主日學校만을 主로하고 지나시든 그 意識을가지고 左右할수없는 事業을 가지고잇스니 過去의 勉勵運動順序는 그 大部分이 社會性을 띄고 잇다 물론 우리의 運動이 一般社會運動과는 全然 그 精神이 같지아니하나 敎會內的 集中한 青年의 勢力이 社會를 向하야 비치는것이 敎會自體의 비치는 그것과 並行하지아니하면 안될 것이다<sup>448)</sup>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면려회가 구성되었다면, 당연히 교회와 사회를 병행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약화되었는데, 그 원인이 교회 안으로 집중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면려회는 교회의 안과 밖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충고다. 면려회의 사회적인 활동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더욱 분발해 달라는 요구이다. 실제로 면려회는 가장 큰 기독교청년조직단체이다. 1934년 9월 1일부터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전조선청년면려회가 출범하는데, 1,200개 지회와 28,000명의 회원

446) “社說, 青年과 宗教,” 『기독신보』 467호(1924년 11월 19일).

447) 安大善, 李大偉 共著, 『勉勵會指南』(京城: 基督青年勉勵會朝鮮聯合會, 1933), 17-9.

448) 劉載漢, “勉勵運動과 우리의 獻議,” 『기독신보』 863호(1932년 6월 15일).

으로 구성되었다.<sup>449)</sup> 만국기독교청년면려회 창립총회가 1924년 12월 2일 피어선성경학교에서 개최될 때, 단지 20여개 지회만 참가하였다.<sup>450)</sup> 이런 급속한 증가는 그 만큼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면려회의 확장은 그만큼 절제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1928년 7월 27일과 28일 열린 면려회 연합총회에서 “각 지회에 계독부를 두어 금주금연을 철저히 실행”<sup>451)</sup>하기로 결의할 정도로, 금주회는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절제운동은 1930년 5월 4일과 5일에 있었다. 청년면려회 연합회는 양 이틀을 전국적인 “조선의 금주선전일”로 정하고 각 지방 면려회에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면서 필요한 전단지와 포스터구입부터 해서 당일 선전방법까지 알려주었다.<sup>452)</sup> 전국적인 활동이외에도 각 지회별로도 절제운동을 실천하였다. 경안지역의 면려운동연합회는 안동의 면부동교회에 모여 금주금연 운동을 결의하였다.<sup>453)</sup> 이런 분위기는 다른 지역 면려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절제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교과파적인 절제운동 단체는 1932년 세워진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가 있다. 장로교 중심으로 결성된 절제운동회는 그동안 감리교에 비하여 소극적이었던 이전의 자세를 완전히 탈피하였다. 절제운동회는 다소 늦게 뛰어 들었지만, 절제운동 관련단체를 아우르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1938년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엮어 낼 수 있었다. 감리교 엠윗청년회는 여자절제회와 힘을 규합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면려회도 1924년 전국적인 연합체가 구성됨으로 당시 시대적인 절제운동의 확산에 협력하였다.

## 2. 초교파적인 단체

449) “第一回全朝鮮勉勵會四年大會,” 『기독신보』 978호(1934년 8월 29일);李大偉, “朝鮮教會와 節制運動” 『宗教時報』 (1934), 9.

450) 당시만 하더라도 면려회가 미조직된 교회가 적지 않았다. 이를 위하여 각 교회에 면려회를 조직하는 문제를 갖고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만국기독교청년면려회(一),” 『기독신보』 387호(1923년 15월 9일); “基督教勉勵會聯合創立總會,” 『기독신보』 472호(1924년 12월 24일).

451) “면려회연합회총회,” 『기독신보』 660호(1928년 8월 1일).

452) “勉勵青年會禁酒運動,” 『기독신보』 749호(1930년 4월 16일).

453) “勉勵, 엠윗, 青年會消息,” 『기독신보』 718호(1929년 9월 11일).

#### a.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여자절제회를 서술함에 있어 먼저,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WWCTU 선교사 틴링, 순회총무 손메레, 이효덕이었다. 틴링은 여자절제회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손메레는 순회총무로 여자절제회 설립과정에 참여하였고 정착과 확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손메레를 뒤이은 이효덕은 여자절제회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절제운동의 리더단체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 다음에는 여자절제회의 설립과정과 목표,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주요 인물

##### a) 틴링(Christine I. Tinling, 1869-1938)

여자절제회 설립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틴링이었다. 틴링은 세계를 다니며 절제운동을 펼쳤던 장기 선교사였다. WWCTU 선교사들은 활동 내용에 따라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세계를 여행하며 활동하는 공식적인 선교사, 둘째로 WWCTU를 위하여 활동한 단기 선교사, 셋째로 국제적인 단체에 속하면서 활동한 선교사, 넷째로 선교지 거주선교사, 다섯째로 선교지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한 선교사, 여섯째로 특별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 등이다. 이 중에서 틴링은 첫 번째로 분류되는 선교사였다.<sup>454)</sup> 그녀는 WWCTU의 선교사로 세계를 다니며 각 지역마다 절제회를 조직하면서 절제운동을 확산시켰던 인물이다.

틴링은 영국출신으로 WWCTU 선교사들에게 요구되었던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글을 쓴 것을 보면, 그녀는 글 쓰는 것을 좋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55)</sup> 한국어로 번역된 도서로는 『금주미담』이 있는데, 절제운동을 펼치면서 성경입장에서 강연한 것을 모은 것이다.

---

454) 여섯 가지의 구분은 WWCTU 총회 인명부에 기초한 것이다. Ian Tyr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291-3. 부록을 참조하라.

455) Ian Tyr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90.

근세에 과학이 진보한 이후로 의약가들은 술의 해롭고 악한 영향을 미침이 개인의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후손의게까지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니 이책의 기록한 이야기의 목적은 교사와 부모되신이의게 현대 청년으로 하여금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물리구조에 중요한 원인을 깨닫게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술취함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증거하시고 모든 일에 절검(節儉)함을 권장하시 이를 준행하는 사회나 국가에는 행복이 되게하신것을 알게할 재료를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함이라<sup>456)</sup>

틴링은 이 책에서 과학과 의학의 진보로 술의 독성과 영향력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주시시켰다. 그러면서 교사와 부모가 젊은이들에게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윤리를 바르게 제시하고, 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도록 돕기 위해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각처에서 아편, 알코올, 공창의 문제들이 속속 WWCTU로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STI(과학절제교육국)를 설치하였다. 또한 DSTI는 복음적 절제운동과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틴링은 DSTI에 소속되어 각처에서 들어오는 문제들을 과학적이면서 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1921년 황(Frances Willard Whang)과 함께 중국에 가서 DSTI관련법을 세우기 위하여 활동하였다.<sup>457)</sup>

중국에서 WCTU 선교사로 활동하던 틴링이 한국을 첫 번째 방문했던 때는 1919년 11월의 일이다. 12차 북감리교 연회에 참석한 그녀는 연회 5일째 되는 11월 10일에 강연을 하였다. 그녀는 강연 중에 교인들이 아편재배와 아편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강연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교인들이 아편재배와 영업을 못하도록 결의하였다.<sup>458)</sup> 1922년 1월에 경성에 와서 매일 3-4차례의 금주강연을 하였다. 1월 23일-27일까지 낮에는 협성신학교에서, 밤에는 성경학원에서 금주강연을 하였다.<sup>459)</sup> 틴링의 강연내용은 대부분 아편, 알코올, 니코틴, 해독 등이었다.<sup>460)</sup> 틴링은

456) Christine I. Tinling, Lecturer Department of Scientific Temperance Instruction, 『금주미담』, 蔡聖錫 譯(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3), 서론.

457) Ian Tyr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110-1.

458)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十二回會錄』, 20, 12회 연회에서 절제와 사회개량부를 금주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제 13회 연회(1920)에서는 풍기개량(금주)위원회로, 제 15회 연회(1922)에서는 절제(금주금연)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다.

459) 李鎮九, “금주와 금연, ‘틴링’여사금주강연을 聽하고,” 『기독신보』 323호(1922년 2월 15

1923년 5월 3차로 내한하여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였다. 이때는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금주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sup>461)</sup> 감리교 협성신학교와 성경학교에서도 강연하였다.

미국 너즈금주회총대로 청국에서 수년간 로력하던 크리스틴, 아이, 틴링부인이 현금 조선에와서 두류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일전부터 랑동협성신학교와 성경학원학생에게 매일 하오세시반에 강연하는중인데 부인의강연으로 혼학술덕일뿐아니라 뜻는자로 감동케하여 자못금주를 용이하게 되리라는바 각학교까지다니며 금주강연을 대대적으로 시험홀터이라더라<sup>462)</sup>

틴링의 강연은 학문적이면서도 감동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그녀는 강의 중에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하우씨’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다. “나는 아름다운맛있는 술을 쥘와하지 안이하고 쥘흔말을 쥘와흔다”라고 말한 하우씨의 말을 인용하면서 금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463)</sup>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도 금주교육을 시켜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464)</sup>

전국을 다니며 순회 강연할 때, 틴링은 손메레와 함께 다녔다.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성품이기도 하였다. 그녀가 선교지의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인종간의 협력을 강조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465)</sup>

복음주의 입장에 서있었던 틴링은 절제운동에 과학을 접목시켰던 인물이다. 과학적인 접근은 음주, 흡연, 아편사용, 공창의 해악성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 결과 일반대중이 절제운동에 참여시키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손메레가 순회총무로 활동할 때, 틴링에게 받은 자료를 많이 사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

일).

460) 李鎮九, “금주와 금연, ‘틴링’여사금주강연을 聽하고(二),” 『기독신보』 323호(1922년 2월 22일).

461) 郭安連, “神學校消息,” 『神學指南』 第五卷 第四號(1923년 10월), 167.

462) “금주회의강연,” 『기독신보』 323호(1923년 5월 23일).

463) 틴닝, “하우씨,” 『神學世界』 第八卷 第三號(1923년 6월), 83-4.

464) 틴링, “흔배,” 『神學世界』 第七卷 第一號(1922년 1월), 75-8.

465) Ian Tyrrell, *Woman's World: Woman's Empire*, 163.

b) 손메례(孫袂禮, 1885. 11. 19-1963. 10. 5).

본명은 이정규(李貞圭)로, 메례는 세례명 메리(Mary)를 한문으로 바꾼 것이다. 그녀는 서울 계동 양반 가문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은 그녀가 어려서 별세한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에게 『열녀전』, 『행실록』, 『제사법』 등 조선 여인이 걸어야 할 평범한 삶의 길에 대해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17세 되던 해 손봉순(孫奉順)과 결혼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손봉순은 그 당시 남대문 안에 있는 상동교회의 독실한 교인이었다. 손메례는 남편을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결혼한 지 3년 만인 1906년 4월 스크랜튼(W. B. Scranton)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으면서 얻은 메리(Mary)라는 이름과 남편의 성을 따라 부르는 서양식 전통에 따라 그의 이름은 이정규에서 손메례로 혹은 손메리로 불렸다. 손메례는 상동교회 교인 여메례(余袂禮)가 설립한 진명(進明)여학교에서 수학하고, 상동교회 안에서 시작된 감리교 여학당(Bible Woman's Training School)에 입학하였다. 손메례는 1912년 1회 졸업생으로 청년회 일을 맡아보면서 남대문 밖의 서울 근교 전도부인으로 활동하였다.<sup>466)</sup> 그녀의 열심에 대하여 북감리교 연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손메례는 지난 여름에 한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믿는 여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지방에서 심방하며 열심히 전도한 결과 지금은 상당수 믿는 가정 이 생겼고 교회 출석인원도 매주일 30명이 넘고 있습니다. …… 그는 이미 결혼 혼수감의 상당수를 팔았고, 보석도 여럿 팔았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받은 봉급의 대부분을 보태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닥치면 그곳에서 교인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sup>467)</sup>

틴링이 1923년 내한하여 전국을 다니며 절제운동을 일으킬 때, 손메례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듬해 1924년 8월 28일 이화학당에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세우고, 본인은 순회총무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주된 역할은 전국을 다니며 절제운동에 대한

466) 기독교대한감리회역사위원회, 『한국감리교인물사전』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2002), <http://www.kmc.or.kr/gamri/our-faith/pdic/data/pd081.htm>.

467)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3.

강연을 하고, 여자절제회 지부를 세우는 일이었다. 손메레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강연은 틴링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녀는 강연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달걀을 깨어 놓고 알코올을 부어 달걀이 익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술의 해독을 설명하였다. 또한 숫자를 동원하여 총독부에 주세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83,429,170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일반인 받는 가구당 수입 360원과 비교하여 금주의 경각심을 불러 넣어주기도 하였다.<sup>468)</sup> 대략 290개 마을에 절제회를 조직했던 그녀는 가는 곳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정주에서 강연을 하고나니 그곳의 구장이 담뱃대를 꺾어 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42년 동안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며 이후로 예수를 진실이 믿고 금주금연 선전자가 되어 소년 금주운동까지 하여 자기 동리를 깨끗하고 부요하게 살게 하겠다고 결심하며 간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강연한 후에 금주금연을 결심하는 자가 60명이요, 부녀분들은 역시 수건을 벗고 다래를 저마다 다 내어 한데 뭉쳐 놓고 교육사업에 쓸것을 결심하였고, 또 소년소녀, 청소년 학생들이 대동단결하여 절제회를 조직하고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고, 매종리에서는 15세 소년이 담배쌈지를 가지고와서 울며 죽기까지 금연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의 큰일꾼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감격한 일도 당해 보았습니다.<sup>469)</sup>

손메레가 인도하는 강연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처럼 회심자도 나왔고 과거와 단절하는 이들도 속출하였다. 절제운동에서 보여준 그녀의 복음주의 성향은 그의 고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예수는 나의희망인 동시에 우리에게 2천만 조선민족 전체의 유일절대의 희망이 되신다.”<sup>470)</sup>

복음주의자였던 손메레의 신앙은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금주운동을 한국을 살리는 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조선의 금주운동은 모든운동중에 가장큰운동이다 육을살리고 영을살리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살리는 운동”라고 하며 금주운동을 민족 살리는 운동으로 연결했다.<sup>471)</sup> 그녀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은

---

468) C. Erwin, "Mrs. Mary Son of W. C. T. U.," *KMF*, Vol. No. 1(January 1928), 21.

469) 손메레, “재미있고 괴롭던 옛 추억,” 『한국절제운동 70년사』, 129.

470) 손메레, “깃뵈과 예수,” 『기독신보』 737호(1930년 1월 22일).

근우회(權友會)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927년 5월 27일 세워진 근우회는 1927년 여성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과의 합작의 결과였다.<sup>472)</sup> 손메레가 발기인으로 참석한 근우회에 여자절제회의 중심인물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비록 1930년 사회주의자들과의 노선 차이로 해체되었지만, 그 속에는 민족주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리하면 손메레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고, 절제운동에 헌신적으로 뛰어 들었던 여성 지도자였다. 그녀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근우회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여자절제회와 비슷한 정도로 일제에 의해 유입된 퇴폐문화 제거에 앞장섰다. 이런 모습은 복음적인 민족주의적인 신앙이기도 한 셈이다.

c) 이효덕(李孝德, 1895. 1. 24-1978. 9. 15)

이효덕은 평남 용강에서 평범한 농부였던 이인수와 박성일 사이에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다섯 살 무렵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어 온 가족이 30리나 떨어져 있는 예배당에 나가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효덕의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완고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종했던 그녀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신학을 가르쳤다. 이효덕은 정진소학교 시절 평생 전도부인이 될 것을 결심했다. 셋째 오빠가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만주로 망명하게 되어 집안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승의여자중학교를 1911년에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고향 삼화읍교회의 초청을 받아 교사와 전도부인으로, 1912년 모교 승의여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과(理科)를 담당했던 이효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 역사를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중화 곤양의 양무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3.1운동을 맞이하였다. 양무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이효덕은 3월 3일 경찰에게 잡혀, 1920년 4월 출옥하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어머니의 죽음과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누워야 했다. 병에서 완쾌된 이효덕은 서울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하여, 1924년 제 1회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태화사회관 성경학원의 교사(1925-1928), 전

471) 손메레, “朝鮮의 禁酒運動” 『기독신보』 751호(1930년 4월 30일).

472)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성교회의 역사』, 266.

주 기전여학교 교사와 전주YWCA 활동(1928-1929)에 참여하였다.<sup>473)</sup>

손메례가 근우회 문제로는 1929년 순회총무직을 사임하자, 이효덕이 그 후임으로 1937년까지 활동하였다. 이효덕도 전임자처럼 복음적인 입장에 서서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9년간 전국을 순회하며 대략 300여 곳에 지회를 세웠던 이효덕은 지역에 따라 청년절제회나 소년절제회도 조직하였다.<sup>474)</sup> 그녀가 절제운동을 펼쳤던 곳은 주로 경기 이북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효덕은 건강상의 문제와 1936년 후반 일제로부터 6개월간의 강연 중지처분을 받아 사무를 중단하였다. 그 후 1937년 절제회 총무직을 정식으로 사임하였다.

이효덕은 두 권의 책을 집필했다. 『금주독본』은 여자절제회에서 출간한 것으로, 음주에 대한 해악성과 금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sup>475)</sup> 『금주실화집』은 금주한 성공담을 내용으로 9명의 실화를 담았다.<sup>476)</sup> 이외에도 『기독신보』에 다수의 글을 실었는데, 절제운동에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경향이 있다. 또한 절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화들을 제공해 줌으로 독자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 절제운동을 펼쳤던 이효덕은 손메례와 함께 근우회의 발기인으로 참석할 정도로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화학당 중등과를 졸업하고 송의여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황애덕, 군수집 며느리인 안정석, 송의 출신으로 평양 송현여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경희 등과 함께 이효덕은 1913년경 송의여학교 상급반 학생들로 “송(松)형제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의 추천한 하급생을 중심으로 “죽(竹)형제회”도 조직하였다. 이 둘을 합해 “송죽형제회”라 부르고 매달 15일 “생일잔치”로 위장하여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상해 임시정부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독립기금을 모으는 데 목표를 맞추고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sup>477)</sup> 이효덕에게 절제운동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사회변혁의 일환이었고, 동시에 일제에 의해 폐폐되는 한국사회를 회복시키려는 민족주의적 운동이기도 하였다.

473) 기독교대한감리회역사위원회, 『한국감리교인물사전』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2002), <http://www.kmc.or.kr/gamri/our-faith/pdic/data/pd150.htm>.

474) 이효덕, “개척자의 고심기,” 『한국절제운동 70년사』, 131-2.

475) 이효덕, 『禁酒讀本』 (京城: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19--).

476) 李孝德 編, 『禁酒實話集』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36).

477) 기독교대한감리회역사위원회, 『한국감리교인물사전』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2002), <http://www.kmc.or.kr/gamri/our-faith/pdic/data/pd150.htm>.

## 2) 설립과 발전과정

여자절제회는 WWCTU의 영향과 도움으로 시작됐다. 먼저, WWCTU 외국지부의 도움이다. 여자절제회가 태동하기 전, WWCTU 외국지부가 한국에 이미 존재했었다. 1911년 12월 재한외국여자선교사들이 한국에 WWCTU의 외국지부를 세웠다. 이들은 1년간 열심히 활동하면서, 금주금연에 대한 소책자를 발행하였다. 또한 ‘喫煙에 대한害毒’이라는 제목의 논문현상모집으로 33명의 참가자를 얻는 등(1등은 장로교 학생, 2등은 감리교 학생)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는 활동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1923년 틴링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다시금 활동을 재개하였다. 외국지부는 1923년 9월에 손메레를 순회총무로 선발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틴링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순회하면서, 손메레는 1년간 전국적으로 16개 지회를 세웠고 1,508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1924년 8월 여자절제회가 조직되자, 외국지부는 WWCTU와 연계하여 물질적으로도 적극 후원하였다.<sup>478)</sup>

외국지부만 아니라 연합선교사회도 여자절제회에 도움을 주었다. 1923년 9월 15-19일까지 연합선교사회가 피어선성경학교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결의하였는데, 바로 1924년 9월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의 출범에 관한 사항이다. 이 모임에서 절제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도 함께 결의하였다.

### ◇ 矯風에 關한 事項

- 一, 청루(靑樓)에서 노혀나온녀즈를 보호하기위하야 경성에 구육소(敎育所)를 두기로 하고 즉시 연금을 모집에 착수할 일
- 一, 창기영업과 인신매매(人身賣買)가 죄악임을 공중의게 깨듯게하지 안으면 그업을 금할수가 업스니
  - (가) 예수교서회에서 상당한 책자를 발간하며 (나) 각학교 과정중에 사름이 제몸을 청결히스용함을 ㄱ르치며 (다) 이에관한문제로 강연회를열어 공중의 여론을 니르키도록 각단체에 통지할 일
- 一, 기독교녀즈금주회를 조선각처에 조직함을 협찬할일

478) 田瑪大嬢, “節制運動,” 『기독신보』 848호(1932년 3월 2일).

◇ 其他事項

금번회의에는 손님두분이 출석하여 강연까지 행하였는데 분은 일본에서 시무하던 미국의로간박스오 또한 분은 세계녀자금주회의 간부원 틴링부인이라 함<sup>479)</sup>

연합선교사회에서 결의된 주요 내용은 경성에 매춘으로 부터 탈출한 여성들을 위해 보호소를 설치하고, 공창제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기독교여자금주회를 조직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 등이었다. 그 결의에 따라 여성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WWCTU 외국지부가 세워졌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sup>480)</sup>

회장 채핀(A. B. Chaffin) 부인  
부회장 윈(E. A. Winn), 맥레란(E. A. McLellan)  
총무 어윈(C. Erwin)  
서기 쿤스(E. W. Koons) 부인  
회계 홉스부인(T. Hobbs)<sup>481)</sup>

북감리교의 채핀, 남장로교의 윈, 캐나다장로교의 맥레란, 남감리교의 쿤스부인, 구세군의 홉스부인 등은 모두가 교파를 달랐다.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절제운동을 위하여 교파를 초월해서 힘을 합쳤다. 서로 다른 교파의 여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다.<sup>482)</sup> 이는 당시 세계적인 초교파운동의 흐름이기도 한 것

479) “宣教師團의 重要決議,” 『기독신문』 41호(1923년 10월 17일).

480) "Miss Tinling's Work in Korea," *KMF*, Vol. 20, No. 1(January 1924): 12; C. I. Tinling, "The W.C.T.U. In Korea," *KMF*, Vol. 19, No. 11(November 1923): 227-8.

481) 채핀은 1913년 북감리교 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내한하였다.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남편이 소천하자 북감리회에 청원하여 감리교여자성서학원 교수가 되었다. 1920년엔 협성여자성서학원의 초대 교장이 되었고, 조선감리회 연회에서 한국최초로 여자목사로 안수 받았다. 김승태, 박혜진 편, 『내한선교사총람』, 200; 윈은 1911년 남장로교선교사로 내한하여 전주선교부에서 사역하였다.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여성계몽사업에 전념하였다. Ibid., 529; 맥레란은 1913년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함남함흥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Ibid., 371; 1905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개성 성서학원에서 교육활동을 하였다. 1919년에는 앤더슨(Mrs. E. W. Anderson)과 철원으로 가서 여전도회사업에 힘을 쏟았다. Ibid., 245. 1929년에는 이효덕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공동총무로 함께 활동하였다; 쿤스부인은 1903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왔던 쿤스를 따라 190년에 내한하였다. Ibid., 334; 홉스부인은 1910년 구세군선교사로 함께 내한했던 홉스(Thomas Hobbs)의 아내다. Ibid., 300.

482)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이다. 또한 이들은 연령대가 대략 40대 전후였기 때문에 가정의 가치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앞장서서 WWCTU 외국지부를 만들어 절제운동에 매진하고자 하였다. 여자선교회 절제위원들은 1927년 1월 24일 세브란스병원 에비슨 자택에서 여자절제회임원들을 초청하여 절제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회의에 손메레, 최활란, 유각경, 김보린, 문인순 등이 참석하였다.<sup>483)</sup> 또한 12월 에비슨자택에서 총회를 열고 새롭게 임원을 선출하고 절제운동에 전력하기로 결정하였다.<sup>484)</sup>

WWCTU 외국지부 재건에 영향을 끼쳤던 틴링은 여자절제회를 세우는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1922년 9월 정동교회에서 북감리회 제 15차 연회가 열렸다. 절제위원회는 틴링의 재방문을 계기로, 그녀와 함께 전국적인 순회강연회를 개최해줄 것을 청원할 정도로 그녀에 대한 기대감을 컸었다.

틴링의 전국 순회강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주도하는 절제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485)</sup> 결국 1924년 8월 28일 이화학당에서 여자절제회가 조직되었다. 이 일에 남장로교 선교사 쉐핑(Elizabeth J. Shepping)의 공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신자인 부모 아래서 독일에서 태어난 쉐핑은 뉴욕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다가 개신교로 바꾸었다. 그녀는 1922년 광주에 최초로 한국여성부(Korean Woman's Auxiliary)를 조직하며 여성 활동에 앞장 선 인물이다. 많은 소녀들을 공창으로부터 구출하고, 13명을 양녀로 받아들이고, 좋은 기독교 가정에 결혼시키기도 하였다. 여성문제에 적극적이었던 그녀는 1923년 한국간호사협회를 세웠고 여자절제회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던 인물이었다.<sup>486)</sup> 쉐핑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여자절제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

*Church in the U. S. A.*, 자료총서 제 27집(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102.

483) “基督婦人の 禁酒宣傳,” 『매일신보』 (1927년 1월 26일).

484) 회장 뵐링스 부인, 부회장 에비슨 부인, 서기 반우거 부인 천실라 양, 회계 합스 부인, 순회강연부장 밀러 부인, 과학적 절제교육부 어윈 부인, 절제선전부 쿤스 부인, “서양인연합 절제회총회 금주운동을 대대덕계획,” 『기독신보』 626호(1927년 12월 7일).

485) “주초를 배우지마라,” 『동아일보』 (1923년 5월 29일); “금주단연강연회,” 『동아일보』 (1923년 7월 7일); “틴링여사 금주강연,” 『동아일보』 (1923년 7월 12일); “틴링여사금주강연,” 『동아일보』 (1923년 7월 17일).

486)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62. 120-1.

여자절제회는 초기에는 금주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총무를 역임한 바 있던 이효덕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창립된 이후 …간접으로 직접으로 제가 듣기는 이 회 명칭은 금주회라고 알게 되었습니다.”<sup>487)</sup>고 언급했듯이 여자절제회의 가장 큰 핵은 ‘금주’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연운동, 아편금지, 공창폐지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WWCTU의 영향으로 보인다. WWCTU는 파송 선교사들로부터 음주, 흡연, 아편, 공창, 축첩, 우상 등의 문제들을 전달받았다. 그런 배경 하에 WWCTU는 음주, 흡연, 아편, 공창문제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여자절제회 초대회장은 박인덕, 총무는 정마리아였다.<sup>488)</sup> 그러나 곧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여자절제회가 발전되었다. <표-4>는 여러 자료를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다.

<표-7>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임원<sup>489)</sup>

| 구 분 | 1924 | 1926         | 1928        | 1929      | 1931       | 1932       | 1933       |
|-----|------|--------------|-------------|-----------|------------|------------|------------|
| 회 장 | 유각경  | 유각경<br>최활란   | 유형숙<br>홍에스더 | 최활란       | 최활란        | 김병규        | 유각경<br>최활란 |
| 부회장 | 김선   |              |             |           | 홍에스더       |            |            |
| 총 무 | 손메례  | 뵐링스<br>손메례   | 손메례         | 어원<br>이효덕 | 이효덕        | 이효덕        | 이효덕        |
| 서 기 | 문인순  | 문인순<br>김보린   | 문인순         |           | 김경자<br>김노득 | 김현숙<br>이은경 | 정현숙<br>장정심 |
| 회 계 |      | 밀러부인<br>홉스부인 | 최활란<br>양매륜  |           | 유형숙<br>양매륜 | 유형숙        | 양매륜<br>박양무 |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조직될 때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WWCTU의 영향을 받았

487) 이효덕, “절제운동 어떠케할가,” 『기독신보』 894호(1933년 1월 18일).

488) 황애덕,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유래와 그발전,” 『절제』 再建 제 2호(서울: 大韓女子基督教節制會, 1955), 9. 『절제』 복간에 대하여,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회, 전국여성단체, 기독교연합회, 침례교회에서 축하를 보냈다.

489) 『기독신보』 (1933년 1월 18일), (1928년 8월 29일), (1929년 10월 30일), (1931년 11월 26일), (1932년 4월 27일), (1933년 7월 10일), (1934년 2월 21일), (1935년 9월 11일) 참조.

다. 여자절제회가 내건 목표는 WWCTU의 것을 따라 “하나님과 가정과 세계를 위하여”로 정하였다.<sup>490)</sup> 1930년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 34개국 54개 단체에서 보낸 3000명이 참석하였다. 여자절제회 대표로 참석한 최활란은 회의에서 금주교육, 금주입법, 절대금주 등을 협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결의하였다.

- 一, 미청년자와 미성년자에게 금주를 장려하자고 사회여론을 환기하기로 함
- 一, 우리는 그보다 더 결속하여 금주운동의 목적을 관철하기로 함
- 一, 국력을 진흥케함이 금주에 잇습을 선전할 일
- 一, 우리는 먼저 본고향을 비롯하여 금주화하게 힘쓰기로 함
- 一, 금주교육은 현재에 급무라고함 우리는 넌니힘을 합하여 공동적활동을 촉진케 하기로함<sup>491)</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먼저 음주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여자절제회 총무는 전국을 다니며 금주강연을 한 뒤에 절제회를 조직하였다.<sup>492)</sup> 예를 들어 남평개군북면 원리교회(南平价郡北面院里教會)는 1930년 3월 14일 총무 이효덕을 초청하여 보통학교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500여명이 참석하고 강연 후에 절제회를 조직하였다. 평북영변군 구장시교회(球場市教會)에서도 이효덕을 초청하여 3월 15일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강연을 들었다. 강연 후 절제회를 조직하였다. 용천 남시교회에서 모인 500여명에게 강연을 하고 절제회를 조직하였다.<sup>493)</sup> 여자절제회를 조직할 무렵에는 15지회가 있었다.<sup>494)</sup> 1932년 통계에 따르면 여자절제회 지부는 114지회, 회원은 2,535명으로 성장하였다.<sup>495)</sup> 1938년 일본교풍회와 합쳐질 때는 3000명의 회원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490) 1930년대부터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기독신보』에 매주 절제란을 두고 관련 내용을 실었다. 목표는 항상 “하나님과 가정과 세계를 위하여”이었다. 이것은 앞서 미국 절제운동에서 살펴보았듯이 WWCTU의 목표이기도 하다.

491) 최활란, “금주운동의 대세,” 『구세신문』 第三卷 第二十號(1934년 3월).

492) 1930년 3월 26일 총무 이효덕의 강연으로 5곳에서 절제회가 조직되다. 삼교 18명, 서산 25명, 홍성 31명, 대천 37명, 청양 31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절제회를 조직하였다. “홍성지방 절제강연,” 『기독신보』 746호(1930년 3월 26일).

493) “節製會消息,” 『기독신보』 750호(1930년 4월 23일).

494) “朝鮮女子基督教節製會聯合會,” 『기독신보』 457호(1924년 9월 10일).

495) “조선녀자기독교절제연합회 統計比率,” 『기독신보』 856호(1932년 4월 27일).

회원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했고, 연회비를 벅커부인(Mrs. Bunker)에게 보냈다. 서약서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인도해주실 것을 믿는다. 또한 포도주, 맥주, 사이더를 포함한 모든 주류를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들에게는 열매, 평화, 개혁의 의미를 가진 흰색리본을 달아줬다.<sup>496)</sup> WWCTU의 상징인 흰색리본은 모든 회원들에게 주어졌다. 일본교풍회에서도 회원들에게 흰색리본을 달아줌으로 소속감을 고취시켰다.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다. 1924년 3월 26일자부터 『기독신보』는 절제부를 두고 정기모임에 대한 방법, 순서, 중보기도 내용, 주요의제 등을 실어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97)</sup> 기도는 주로 중보기도 성격이었다. 예를 들어 1) 음식의 호불호불을 막게 하소서. 2) 타인을 죄의 길로 들게 하는 것이 큰 죄임을 알게 하소서. 3) 선한 길로 인도할 지도자 두 명을 보내주소서.<sup>498)</sup> 또는 1) 육신의 살길을 찾게 하소서. 2) 정신의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3) 영원히 살게 하소서<sup>499)</sup> 등의 내용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 중보기도를 했다. 또는 1) 한국 내의 공사창폐지 운동을 위하여, 2) 유년들의 금연실시를 위하여, 3) 신자 중에 술과 담배먹는 자를 위하여, 4) 각 교육계의 지도자 금주단연을 위하여 기도하였다.<sup>500)</sup> 1931년 4월 모임에서는 1) 각 교회에 절제회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2)한국에 금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3) 공창폐지를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다.<sup>501)</sup> 순서는 대부분 비슷하였다. 일반적으로 모임은 찬송가-기도-성경-찬송-문제-기도-점명-회록낭독-신구사건토의-회비-찬송-폐회기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sup>502)</sup> 때로는 중간에 금주가를 부르거나 특별찬송이 삽입되었다.<sup>503)</sup> 모임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정기적

496) Cordelia Erwin, "The WCTU Movement in Korea," *KMF*, Vol. XXI, No. 2(February 1925), 31.

497) “절제회 순서,” 『기독신보』 768호(1930년 8월 27일).

498) “절제회 순서,” 『기독신보』 772호(1930년 9월 24일).

499) “절제회 순서,” 『기독신보』 781호(1930년 11월 16일). 또는 1)절제회지회가 증가하기를 위하여, 2)각 가정의 모녀가 술 마시는 남자들을 감화시킬 수 있기 위하여, 3)술집들이 없어지기 위하여

500) “女子基督教節制會順序(六月分),” 『기독신보』 809호(1931년 6월 3일).

501) “절제회 순서,” 『기독신보』 815호(1931년 4월 19일).

502) “절제회 순서,” 『기독신보』 799호(1931년 3월 31일).

503) “절제회 순서,” 『기독신보』 879호(1932년 10월 5일); 『기독신보』 755호(1930년 5월 28일).

인 모임이 필요하였다. 여자절제회는 정기모임에서 시급한 일과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나누었다. 또 그것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절제운동 리더십을 더욱 고양시켰다.

여자절제회의 일차적 관심은 가정 지키기였고, 청소년인 자녀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청소년문제는 이미 1925년경부터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1925년 2월 18일자 『기독신보』에 여자절제회에서는 “주酒연煙담談叢”을 싣고 청소년문제를 다루었다. 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하였다. 1) 아이들은 어른처럼 담배피우라고 할 때 고통을 받으며, 2) 좋은 금주제목은 담배피우지 말며 술 마시지 말고 날마다 일찍 일어나며, 3) 주일학교에서 반드시 금주서약을 하고, 4) 술 마시는 것을 죄악의 원인이라 가르치는 것 등이다.<sup>504)</sup> 여자절제회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 음주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술로 인한 청소년 범법자가 성인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년에 술노인하야 생긴범죄의 수효는 성년보다도 미성년에더잇다 연령별로보건대 대체로 三十세이하에 그보다도 二十五세이하에 그보다도 二十一세이하에 범죄자가 더만타 ... 미성년이 술을입에대인다는 것은 가정을위하야서나 사회를위하야서나 참으로 큰관계이다 종교의지으로던가 국가법률에 의지하야서던가 무삼재제는 기필코잇서야만 조홀것이다<sup>505)</sup>

청소년 음주문제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어떤 제제를 가해서든지 청소년 음주문제만큼은 분명히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1932년에는 소년소녀 절제부(단)을 조직하였다. 그해 10월 『기독신보』를 보면, “소년소녀 절제부(단)”과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표어, 선서, 문답 형식으로 된 과정은 소년소녀절제부의 방향성이기도 하였다.

표어 우리는 조선의 장래를 옹호한다  
우리는 자라는 우리이다

504)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주酒연煙담談叢,” 『기독신보』 480호(1925년 2월 18일).

505) “미성년자를위하야,” 『기독신보』 803호(1931년 4월 1일).

선서

1. 술을 마시지 않기를
2.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3. 더러운 언행을 삼가기로 선서한다

문답

1. 소년절제단원이되려면 소년소녀가 술의 해와담배의 해가 참 정말두려운 것인 줄 알고서 차후로는 결코 술이나 담배를 입에대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기명하면단원이다
2. 소년절제단원의의무는? 세가지의선서를 지킴은 물론이다 따라서 나와같은 주의로 동무를 인도하는데에 힘쓰는것이다
3. 일정한기도시간?  
소년절제단원은 매일아침조반전에 우리민족의 금주사업을 위하야기위한다<sup>506)</sup>

절제회는 이와 함께 영아부 절제회 신설을 촉구하기도 하였다.<sup>507)</sup> 이런 분위기에 따라 1933년 6월 24일 경성중앙교회에서 회장 최활란의 사회로 개최하고 신임임원 선출과 새로운 사항을 결의하였다.<sup>508)</sup>

회장, 최활란 유각경

서기, 김현숙, 장정심

회계, 황애덕, 정매륜

총무, 이효덕

연합위원, 채부인(蔡副仁), 배의례(裴義禮), 미세스 합스, 김선, 경병규, 윤활란,

미세스 허스터, 홍 에스더

결의 내용, 1. 소년절제부를 둬, 부장 배의례

2. 유년절제부를 둬, 부장 유각경

3. 물산장려부를 둬, 부장 황애덕

이상 3부를 지회에 두고 사업하기로 하였다.

506) 배의례, “소년소녀절제부(단),” 『기독신보』 879호(1932년 10월 5일).

507) 李孝德, “절제운동을 어떻게 할까,” 『기독신보』 894호(1933년 1월 18일).

508) “朝鮮女子基督教節製會總會,” 『감리회보』 第一卷 第七號(1933년 7월 10일).

1932년에 소년소녀절제부의 방향성을 설정한 여자절제부는 이듬해에 소년절제부와 유년절제부를 설치하였다. 1934년 『구세신문』에 회장 최활란이 “금주운동의 대세”라는 제목 하에 여자절제회의 방향을 실었다. 여기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여자절제회의 애정이 깊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1) 미청년자와 미성년자에게 금주를 장려하기로 함. 2) 이전보다 더 결속하여 금주운동 목표를 관철키로 함. 3) 먼저 각자의 고향을 금주화시키기로 함. 4) 금주교육을 활성화시킴.<sup>509)</sup> 최활란이 보여준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은 1935년 절제운동회와 함께 다른 선교사회와 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미성년자금주금연 축성회>를 발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자절제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기독교 청년 단체인 엡윗청년회, 청년면려회, YMCA, YWCA 등과 협력하는가 하면, 감리교와 협력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때로는 장로교의 절제운동회와 연합하기도 하였다. 1927년 2월 19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YMCA를 중심으로 1월 28일 기독교총연합회가 발족되었다. 이 연합회는 일본교풍회 경성지부장과 협력하여 공창폐지청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sup>510)</sup> 이런 협력은 이미 폐창운동 경험이 있었던 일본교풍회의 도움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보다 앞선 1924년 공창폐지기성회(公娼廢止期成會,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단체), 선교사연합회, 일본기독교청년회가 연합하여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 총독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sup>511)</sup> 일본교풍회와도 손을 잡을 만큼 절제운동은 초교파적인 연합운동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여자절제회와 감리교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절제회 임원이 감리교 연회에 참석하여 절제강연을 하거나 협력을 모색하였다. 1924년 9월 17일 북감리회 제 17차 연회에 손메레가 참석하여 강연하였다. 이 연회에서 절제운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의하였다. 1) 2월 첫 번째 주일을 금주선전일로 지키기로 하다. 2) 전국에서 금주하기로 총독부에 청원하기로 하다. 3) 열차에 금연칸을 만들어 철도국에 청원하기로 하다.<sup>512)</sup> 1929년 6월 평양남산현제일교회에서 북감리회 제 22차 연회가 열렸다. 20일 수요일 저녁 안석준(安錫濬) 목사의 강연이 있었다. 뒤이어 기독교여

509) 최활란, “금주운동의 대세,” 『구세신문』 第二十卷 第三號(1934년 3월).

510) “公娼廢止請願提出,” 『매일신보』 (1929년 2월 19일).

511) “공창폐지운동,” 『신한일보』 (1924년 7월 3일).

512)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十七回會錄』, 47; 21차(1928년 10월) 북감리회 연회에서도 경성여자절제회총무 손메레가 보고한 바 있었다.

자연합절제회 회장 유형숙(柳潐淑)이 감리회절제회와 협동으로 사업을 같이 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sup>513)</sup> 특히 여자절제회는 1929년 재한 남감리회 선교부에서 총무로 파송한 어원과 함께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기독교련합절제회에서는 남감리교선교부에서 파송한 어원양을 총무로 리효덕녀사를 순회총무로 직원을 개선하는 동시에 순회총무는 각교회의 요구에 의지하여 수시로 출장할수있도록 만반의 준비를하고있다는바 엇던교회에서든지 절제회를 조직하거나 강연회를 개최하기위하여 순회총무를 초빙하려할때는 러비의 반분만 동교회에서 부담하여주시면 다른반분은 절제회에서 책임을 지고보충하기로 ... 순회총무 이효덕양은 일찍이 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태화여자관에서 다년간근무하며 특히녀자기독교청년회 회장으로 비상한 활동을한고로 절제회에도 압력으로 만흔발전이잇스리라<sup>514)</sup>

여자절제회는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절제운동을 계속 확대시켜 나갔다. 일제에 의해 금주강연이 금지되기도 했지만<sup>515)</sup>, 절제운동은 계속 확장되어 1939년에는 회원이 3천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1936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37년 국민정신총동원령, 1938년 장로교 신사참배 결의, 1939년 종교단체법 공포와 조선기독교 일본기독교단에 편입 등이 계속 이어졌다.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39년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총회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회원 3천명)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3년 동안 매년 500엔씩을 후원하기로 결의하였다.<sup>516)</sup> 이 결의에 따라 조선여자절제회는 WWCTU로부터 탈퇴하고 일본부인교풍

513) 이외에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농촌부와 진도부와 연합하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다. 2)경성절제회 사업비로 필요한 4천원을 감독 주정(周施)의 지원으로 미감리회각교회와 일반사회와 절제회미국본부와 교섭하기로 하다. 3)연회에 상설절제기관을 둘 때까지 경성절제부가 그 일을 담당기로 하다. 4)소년음주, 흡연금지법안실시운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경성절제부에 위임하다. 5)평양지방에서 발간하여 사용중인 『절제생활』의 경비로 50원을 후원해주기로 하다. 6)홍성지방회가 절제회 설치를 위해 순회강사 한명을 파송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순회강사경비로 20원을 보조기로 하다.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二回會錄』, 79-80.

514) “녀자련합절제회,” 『기독신보』 725호(1929년 10월 31일).

515)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연혁,” 『한국절제운동 70년사』, 187.

516) 1939년 총회에서 크게 두 가지를 결의하였다. 첫째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만주국에 부녀자기숙사를 짓는데 2천엔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회에 통합되었다.

WWCTU의 후원과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1924년 출발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는 절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많은 가시적인 열매가 있었지만, 일제의 강요로 일본교풍회에 예속되어 초기의 뜨거운 열기가 쇠퇴하였다. 해방을 맞이하여 다시금 절제운동의 불을 지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b. YWCA

3.1운동이후 여러 여성단체가 세워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YWCA의 영향을 받은 김필례, 유각경, 김활란은 전국규모의 기독교청년여성단체를 모색하게 되었다. 1922년 3월 27일 이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이 모여 YWCA설립을 위한 1차 발기회를 가졌다. 6월 16일 협성여자성경학원에서 전국 공사립 고등여자학교 대표와 각계 여성단체 대표 65명이 모인 가운데 제 1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하령회가 개최되었다.<sup>517)</sup> 이 하령회에서 여성의 의식을 고조시키는 강연과 토의가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이틀 동안은 축첩, 이혼, 공창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이 하령회에서 YWCA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다.<sup>518)</sup> 이듬해인 1923년 8월 제 2회 하령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조선YWCA가 탄생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여성의 역할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1925년 3회 정기총회에서 사회연구부를 두고 1)폐첩문제, 2)조혼문제, 3)각 지방의 무녀문제, 4)금주금연, 5)여자노동문제, 6)공창폐지문제 등을 다루었다.<sup>519)</sup> 이는 초기부터 YWCA가 기독교 절제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YWCA의 주요 인물들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의 임원을 겸하였다. 1923년 YWCA 회장이었던 유각경은 1924년 여자절제회 회장으로, 1925-6년 회장이었던 최활란은 1926년과 1929-31년 회장으로, 1927-30년 회장이었던 홍에스더는 1928년 회장으로, 1925년 연합위원이었던 김선은 1924년 부회장으로, 1922년 재정검사위원이었던 문인순은 1924년부터 여러 해 동안 서기로 활동하였다.<sup>520)</sup> 이들 대부분은 미

---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673.

517) “경성녀자기독교청년회의 조직과 그의첫소리,” 『기독신보』 388호(1924년 5월 16일);

“YWCA 十二주년 창립기념식 新會館奉獻式盛況,” 『기독신보』 969호(1934년 6월 27일).

518) 千和淑, 『한국기독교여성운동사』, 30-5.

519) 千和淑, 『한국기독교여성운동사』, 45-7.

국, 일본, 중국 등에 유학한 이화, 진명, 정신여학교출신들로 체계적인 교육받으면서 준비한 여성들이다. 이들이 주도한 절제운동은 다른 청년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 c. 근우회

1927년 YWCA와 여자절제회의 주요 인물들이 사회주의 계열 여성과 합하여 근우회를 조직하였다. 1930년에는 이념과 인식의 차이로 해체되었지만, 설립 당시 주요 7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sup>521)</sup>

-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의 차별철폐
- 2) 일체의 봉건적 인습과 미신타파
- 3) 조혼(早婚) 폐지 및 결혼의 자유
- 4) 인신매매 및 공창폐지
- 5) 농촌부인의 경제적 이익옹호
- 6) 부인 노동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産前産後)의 임금지불
- 7) 부인 및 소년공(少年工)의 위험노동 및 야업(夜業)폐지

근우회의 목표는 대부분 YWCA와 여자절제회의 절제운동 목표와 비슷하였다. 여성들은 일제에 의해 조장된 퇴폐문화에 정면으로 대응하였다. 그 일에 기독교 여성들이 앞장섰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의욕과는 달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여자가 약하다는 것과 여자의 운동이 미약하리라는 것은 세상의 취척이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를 개량하는데와 또한 여러 가지죄악과 싸와익이는데는 우리녀자의 꾸준한 힘보다 더욱 힘잇는 것이 엄습니다 그것은 역사가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조선의 절제운동 곳금주단연과 아편금지운동에는 우리녀자가 선두에서서 나아가지 아니

520) 千和淑, 『한국기독교여성운동사』, 95-6, <표 2-9> 참조.

521) 李兌榮, “3.1運動 以後의 女性運動,” 『三一運動50周年記念論文集』 (서울: 동아일보, 1978), 807.

하면 아니될것입니다<sup>522)</sup>

여성이 음주, 흡연, 아편, 공창문제와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개혁과 악한 세력과 싸우는데 여성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금주, 금연, 아편사용금지, 폐창운동에 여성들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 지키기였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문제와 맞싸워야 했다.<sup>523)</sup> 가정은 곧 절제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한 것이다.

1920년대 세워진 초교과적인 절제운동단체는 공교롭게 여성이 주도한 단체들이었다. 이것은 그만큼 여성의 위치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여성들은 절제운동을 매개로 하여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운동을 주도하였다.

---

522) 류형숙, “여자절제회순서,” 『기독신보』 768호(1930년 8월 27일).

523)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일가요 묻저 나자신을 살피고 우리가정을 아십시다 ... 절제문제를 힘있게 부르지저서 성공의 길을 뚫으려면 녀성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십습니다 우리의 계는 무엇이든지 남음이잇습니다 그리하여락심치말고 개체가 문쳐서 서로도으며 붓드러줍니다. 李孝德, “절제생활,” 『기독신보』 755호(1930년 5월 28일).

## VI. 일제 문화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1920-1939년)2:

### 기독교 절제운동의 전개방법과 내용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기독교 절제운동이 사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다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섰다. 그러면서 기독교 절제운동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절제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목표, 방향, 방법 등을 결정하였고, 미비점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절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이전에 없던 방법들로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절제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개인의 회심과 변화는 잃지 않았다. 이것이 기독교 절제운동의 가장 큰 핵심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였지만, 이것은 존속되었다.

1920년대 이후의 절제운동은 교회 내에서의 운동과 사회를 향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이전의 운동처럼 개인의 회심과 교회의 제도나 법규를 제정 실행함으로 진행되었다. 후자는 초교파적이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가 앞장서서 사회를 대상으로 펼친 운동이다. 주의할 점은 이런 구분을 자로 잰 듯이 엄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경향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A. 교회 내의 절제운동

##### 1. 개인의 회심

1903년 원산부흥회 이후 교회 내 절제운동의 한 축은 복음적인 회심이었다. 복음적인 회심의 특징 중의 하나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다.<sup>524)</sup> 기독교 절제운동은 단순한 금주금연이 목표가 아니었다. 더 큰 목표는 복음적인 회심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함께 절제운동 참여였다. 순회총무였던 손메레나 이효덕이 절제강연을 할 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 한 예이다.

삭주대관교회에서 교역하는 신봉상조사가 전도하러나아가다가 보통학교학생 삼사인이 술이 취하여 길에서 빗틀거름을마치고 떠드는 것을보았담니다 신조사는 너무나 괴가막혀 그학생들을 붓들고 술의해독과 학생신분으로 그러케할수엄습을 닐렸드람니다 그런즉 그학생들이 이상한눈을뜨고 한차치여다보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술먹는것이 그러케 큰해독이 잇는줄도모르고 또한 우리부모와 가족들이 다, 술을먹는고로 먹어도 무방한줄아릿습니다라고 말하더람니다 이말을드른 신조사는 그학생들을 붓들고 울엿습니다 그후에 신조사는 금주의운동이 필요한줄알고 열심히 운동하여 나를 청하게된것임니다 내가 그 곳에 가서 사흘동안 강연하였는데 큰효력을엿엇습니다 담배대를꺼고 눈물을흘리고 크게 뉘웃친후에 자기만 금주단연합이 너너지못하다하야 이운동을 힘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sup>525)</sup>

신봉상이라는 전도자가 술마시고 주정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금주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음주의 해악성을 모르는 학생들을 붙잡고 울던 신봉상은 손메레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손메레가 찾아가서 강연할 때, 학생들과 청중은 회개하고 금주금연하기로 결심하였다. 또 다른 예는 손메레가 충남 공주에 가서 금주강연을 할 때다. 그 지방에 술먹기로 유명한 사람이 강연을 듣고 회개하였다. 그리고 헌금도 가장 많이 드리고 절제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sup>526)</sup> 전주의 한 강연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강연을 감시하던 순사도 감동받고 금주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고, 동시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다.<sup>527)</sup>

524) 예를 들어 온갖 장신술을 걸치고 길흉화복을 점치던 박규수(朴奎洙)는 회심을 하고 모든 술수가 적힌 서적을 불태웠다. “悔改의 復興,” 『活泉』 第一卷 第四號(1923. 2), 54.

525) 손메레, “禁酒運動의 發展,” 『기독신보』 649호(1928년 5월 2일).

526) “孫女史의 禁酒講演,” 『기독신보』 573호(1926년 12월 1일).

527) “조선녀자기독절제회활동,” 『기독신보』 472호(1924년 2월 24일).

1920년대부터 이전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술관련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었다. 처음엔 조금씩 마시다가 점차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경성에서도 토굴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술 때문이었다고 한다.<sup>528)</sup> 대표적인 예가 아현 성결교회 교인인 최은애의 경우다. 그녀는 남편의 폭음으로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는가를 보여 주면서, 복음적인 회심으로 남편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최인애는 문벌종고 재산가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술과 더불어 지내는 자였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모두 술로 날려버릴 정도로 술중독자였다. 최은애가 남편의 금주를 위해 할 수 있었던 마지막은 교회를 찾는 것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최인애가 들은 것은 교회에 가면 술을 끊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결국 그녀는 교회를 출석하게 된 동기가 남편의 술을 끊기 위해서였다.

심중에는 만단슈심이 가득하고 육신은 곤궁에 싸였스되 평생소원은 남편이 술끊는거이더니 누가와서 권면하기를—레배당에 가서 예수를 밋으면 술도끈코 도흔사람이 된다—하매 술끊는다는말에 예수밋는다는것이 엇지도반갑던지 레배당에를 차자가서 한번구경하고 찬미소래도 드르니 웬일인지 심신은 상쾌키는하되 무삼뜻인지는 알수업스되 좌우간에 술을 끈는다닛가 뜻을 알고모르는것이야 고사하고 덤허넛코 두어쥬일 참석하엿스니 이것이 장차 구원을밧을 기조러라<sup>529)</sup>

남편은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점차 술을 줄여갔다. 교회 출석한지 몇 주 지나서 남편은 주초, 잡기, 모든 악습을 끊었다.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가족을 위해 사용하였다. 전에는 모두 술값으로 사용했지만, 교회에 출석하면서 모두가 달라졌다. 최인애는 비록 토굴 속에서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피폐됐지만, 남편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것은 이전에 맞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sup>530)</sup>

복음적인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

528) 최석주, “酒毒의 普遍性,” 『기독신보』 704호(1929년 6월 25일).

529) 一傍觀生, “土窟속의 恩寵(一),” 『活泉』 第三卷 第四號(1925. 3), 46; “土窟속의 恩寵(二),” 『活泉』 第三卷 第五號(1925. 4), 40-4; “土窟속의 恩寵(三),” 『活泉』 第三卷 第六號(1925. 5), 41-44; “土窟속의 恩寵,” 『活泉』 第三卷 第七號(1925. 6), 38-41.

530) 一傍觀生, “土窟속의 恩寵,” 『活泉』 第三卷 第七號(1925. 6), 38-41.

고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변화의 결과가 금주나 금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세속화되는 사회를 변혁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 2. 절제운동관련 법규와 제도 설립

절제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제도와 법을 체계화시켰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기도 했지만, 교회, 교회기관, 기독교단체의 회의를 거쳐 방향이나 방법이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면려회는 초기부터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되던 퇴폐문화에 대항하는 절제운동을 펼쳤다.<sup>531)</sup> 1924년 만국기독교청년면려회 창립총회에서 금주에 대한 강연이 있을 정도로 절제운동에 큰 관심이 있었다.<sup>532)</sup> 1928년 하기수양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몇 가지를 결의하였는데, 그 중에 “각지회에 계독부(戒毒部)를 두어 금연을 철저히 실행키로” 결의하였다.<sup>533)</sup> 1930년에는 5월 4일을 “조선의 금주실천일”로 정하고 각 지회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달하였다. 선전물과 포스터는 본부차원에서 준비하였다.<sup>534)</sup> 1933년에 편집된 『勉勵會指南』에 보면, 면려회는 금주단련회를 구성하고 계독부의 지도로 절제운동을 실천해 나갔다.

戒毒部委員中 어떤 사람으로하여금 特히 禁酒禮拜會를 計劃하여 司會케 할 것이다. 特別講師를 請하여 講話하여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會中에 몇사람이 말아가지고 各各意思를 發表하여도 좋으니 이야기할 材料는 다음과 같다.

一, 술의 害毒

二, 담배의 害毒,

三, 아편의 害毒

四, 모－핀의 害毒等

萬一 特別講師를 請할 것같으면 特別讚頌과 그他자미있는 順序를 作成하여 愉快하게 지

531) 閔庚培, 『韓國基督教社會運動史』, 267-8.

532) “萬國基督青年勉勵會 第一回全朝鮮大會順序,” 『기독신보』 460호(1924년 11월 26일).

533) “면려회련합회총회,” 『기독신보』 660호(1928년 8월 1일).

534) “勉勵青年會禁酒運動,” 『기독신보』 749호(1930년 4월 16일).

낼것이오 이러한 會에서의 問題는 ‘술과 戰爭’이란것이 보통이다.<sup>535)</sup>

면려회가 계독부를 통하여 절제운동을 전개했지만, 또한 각 지부도 독자적인 절제운동을 펼침으로 당시 절제운동의 한 몫을 담당했다.<sup>536)</sup>

YWCA도 1923년 8월 여성의 역할 증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1925년 3회 정기총회에서 사회연구부를 두고 1) 폐접문제, 2) 조혼문제, 3) 각 지방의 무녀문제, 4) 금주금연, 5) 여자노동문제, 6) 공창폐지문제 등을 다루었다.<sup>537)</sup> 근우회도 YWCA가 추구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목표로 출범하여 절제운동을 실천하였다.

엠피청년회는 회원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로 구성되었다. 1916년 재건한 엠피청년회는 1930년 남북감리교의 통합으로 총리원 산하 교육국에 흡수되었다. 1934년 10월 2차 총회에서 엠피청년회로 명칭을 다시 바꾸었다. 절제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엠피청년회는 산하에 사회부를 두고 자선사업, 금주운동 교풍운동을 담당하기로 하였다.<sup>538)</sup>

1925년 9월 19일부터 경성 피어선성경학원에서 제 14회 장감선교회연합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당시 중요한 공창문제가 다루어졌다.

국제평화위원회와 사회봉사위원으로부터 당시중요한 문제가되어 창부구호원(娼婦救護院)을 속히 건축하여 붓그러운생활을 버리라고해쓰는녀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교위원의데의가 가람되었고<sup>539)</sup>

장감선교회연합회는 매춘했던 여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것은 이미 감리교나 장로교에서 공창폐지운동을 결의한 다음의 후속 대책인 것이다. 감리교에서는 1922년 연회에서 공창폐지를 총독부에 청원하기로 하였고, 세브란스안에서는 오공선을 중심으로 ‘공창폐지기성회’가 조직되어 폐창운동을 전개하였

535) 安大善, 李大偉 共著, 『勉勵會指南』, 81.

536) “강촌교회통신,” 『기독신보』 663호(1928년 8월 22일); “新昌港教會雜信,” 『기독신보』 689호(1929년 2월 20일); “勉勵, 엠피, 靑年會消息,” 『기독신보』 718호(1929년 9월 11).

537) 千和淑, 『한국기독교여성운동사』, 45-7.

538) 『基督教朝鮮監理會第二會總會錄』(1924년 10월), 47; “엠피會欄,” 『감리회보』 第二卷 第一號(1934년 1월 1일).

539) 하리영, “장감민선련합회,” 『기독신보』 513호(1925년 10월 7일).

다. 폐창운동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지려면, 매춘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장감선교회연합회는 매춘부를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감리교는 매 연회마다 절제운동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북감리교의 절제운동에 관한 회의록 중 주요한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절제운동을 시행할 위원회를 사업목표에 따라 명칭을 바꾸었다. 1919년 11월 6일 정동제일교회에서 북감리회 제 12차 연회를 열고 명칭을 금주회로 바꾸었다. 13차 연회에서는 풍기개량(금주)위원으로, 1922년 15차 연회에서는 다시 절제(금주금연)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둘째로 매 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결의 하였다. 1922년 회의에서는 미성년자 금주금연법과 공창폐지를 총독부에 청원하기로 하였다. 1923년에는 10월 첫 번째 주일을 금주선전일로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1924년에는 전국에서 금주하기로 총독부에 청원하기로 결의하고, 열차에 금연칸을 만들어 철도국에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1926년 19차 연회에서 중요한 결의를 하였는데, 이듬해 2월 첫째주일을 금주선전일로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매년 2월 첫째주일을 금주선전일로 지켰다. 또한 각 지방 사경회를 이용하여 금주운동을 실천하기로 하면서 부흥회와 금주운동을 연계하였다. 1929년에는 전도방침(傳道方針)위원회에서 절제부와 농촌부가 연합하여 순회 전도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절제운동을 농촌운동과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여자절제회 회장 유형숙이 감리회절제회와 협동으로 사업을 같이 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소년음주, 흡연금지법안실시운동을하기로 결의하고 경성절제부에 위임하였다. 평양지방에서 발간한 『절제생활』 경비로 50원을 후원해주기로 하였다.<sup>540)</sup> 남북 감리교가 통합된 뒤에도 부흥 사경회 때에 절제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활동상황을 교회기관지와 신문에 소개하고 홍보를 확대하기로 결의하였다.<sup>541)</sup> 이러한 일련의 절제운동이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운동임을 분명히 하였다.<sup>542)</sup> 1922년부터 북감리교는 교단차원에서 절제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갔다.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청원, 공창폐지 청원, 전국적인 금주 청원, 열차에 금연

540)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會錄』의 해당연도 연회록을 참조하라.

541) “第 四會 中部年會狀況 大要, 『감리회보』 第 二卷 第 四號(1934년 4월 10일).

542) 『基督教朝鮮監理會 第 三回 中部 年會會錄』.

칸 설치 청원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여자절제회와 협력, 농촌운동과 연합, 매년 1회씩 금주선전 실시, 부흥회 때에 절제운동을 함께 벌이자고 결의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1907년 정빈과 김상준에 의해 시작한 성결교회는 회심으로 내면적인 성결을 이루며, 성결한 삶을 외면적인 생활로 표현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성결, 즉 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성결교회의 특징이다.<sup>543)</sup> 19세기 미국의 세속화에 반기를 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성결운동은 한국 성결교회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성결교회는 1920년대 들어서면서 스며들어온 세속화와 퇴폐문화에 반대하였다.<sup>544)</sup> 대표적인 인물은 성결교회의 사부로 알려진 이명직(李明植)이었다. 이명직은 『活泉』에서 세속화되는 사회에 성결교인의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였다.<sup>545)</sup>

온전한 복음을 목표로 한 성결교회는 술, 담배, 축첩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1933년 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임시약법』을 제정하였다. 1편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동양선교회와 교회정치에 대한 내용으로 약술하였다. 2편은 교리와 총칙을 다루었고, 3편은 교회정치에 대하여 실제적인 교회조직과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절제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2편에 2장 총칙에서 나와 있는데 성결교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총칙 1절 3조에 보면 “주류를 매매하거나 마시지말지니라”고 하여, 성결교회는 교인들로부터 음주를 확고하게 단절시켰다. 7조는 고리업을 금하고, 9조는 사치한 의복과 진리에 부합한 오락이나 도서를 금하였다. 4절은 연초와 술을, 7절은 축첩문제를 각각 다루었다.

543) 성결교회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다음의 도서들을 참조하라. 이명직, 『聖潔教會略史』(京城: 聖潔教會出版部, 昭和四年); 박명수, 『근대복음주의 주요 흐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박명수, 『초기한국성결교회사』(서울: 대한예수교서회, 2001); 박명수,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와 신학』(부천: 서울신학대학출판부, 2004).

544) 박명수, “이명직 목사와 1920년대 한국성결교회: <활천>을 중심으로,” 『韓國教會史學會誌』 2004 제 14집(2004), 67-8.

545) 이명직, “남녀의 청결,” 『活泉』 第一卷 第一號(1922. 12), 17-20; 포원생(이명직), “남녀의 근신,” 『活泉』 第一卷 第四號(1923. 3), 7-10; 이명직, “음행은 말세의 징조,” 『活泉』 第三卷 第十號(1925. 10), 3; 이명직,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活泉』 第三卷 第十二號(1925. 12), 3-7; 이명직, “장식에 대하여,” 『活泉』 第四卷 第六號(1926. 6), 15-8.

#### 第四節 煙草와 酒를 禁함

第一條 무릇 飮食中에 自己에게 害롭다고 認定하는 것은 斷然히 拒絶하고 有益한것만 利用할지니라 學問이던지 經驗이던지 聖書가 한가지로 술(酒)은 害로운것이라고 認定하는바니라 그렇면 술을 만드는 것이나 賣買하는 것은 道德上으로나 經濟上으로나 生活安全의 理에 違反되는 것이니라 故로 聖潔教會信者들은 聖書의 敎訓과 良心에 좇아 또는 하나님의 恩惠로 말미암아 害는잇으되 有益이 없는 술과 煙草를 끊을뿐만 않이라 술과 煙草에 墮落된 個人과 社會를 救濟하기에 努力할지니라

#### 第七節 有妻娶妻와 妾

第一條 하나님께서 太初에 一男一女로 夫婦가되게 하셧으니 勿論男女間 이에서 지나면 다— 하나님의 誠命을 違反하는 ‘姦淫罪’니라 故로 聖潔教會는 有妻娶妻와 妾을 두는 것과 本妻가 잇는 男子에게 식집가는것과 本夫가 잇는 女子에게 장가드는 것을 合法한 婚姻으로 認定하거나 許諾지 않이하나니라<sup>546)</sup>

내용을 정리하면 술과 담배는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익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서 성결교인은 주초로 타락한 개인이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축첩도 성경의 일부일처원리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성결교회 임시약법』에 기록된 내용은 성결교회가 절제운동에 어떤 입장이었느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성결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와 연합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행보를 유지하며, 1922년 11월부터 출간한 『活泉』으로 절제운동을 소개하고 운동 확산에 참여하였다.

1908년 시작한 구세군은 음주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구세군의 음주에 대한 입장은 1909년부터 발간한 『구세신문』에 잘 나와 있다. 먼저 술에 대한 구세군의 입장이다.

酒精은 … 出血의 慘劇을이르키고 喪服을입게하고 家庭을팔고 사람들을 破産식히고 惡黨을만들고 어린이들을 죽이고 結婚指環을 掠奪하고 純潔을賣買하고 눈을멀게하고 이성을無力케하고 男性을 損失케하고 女性을 侮辱케하며 心情을 傷하게하며 生命을 短縮시키고 人間들노 自殺을 스사로 取케하며 만흔무덤을파게하였다<sup>547)</sup>

546) 『朝鮮耶蘇敎東洋宣教會 聖潔教會臨時約法』(1933), 18-24.

547) “救世軍大將의 禁酒觀,” 『구세신문』 第二十四卷 第二號(1938. 2), 4.

음주로 발생하는 문제를 나열한 것이다. 술은 피를 유발시켜 살인하는 문제를 일으키며 가정을 파탄시켜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든다는 것이다. 음주문제에 단호했던 구세군은 『구세신문』 제 1호부터 금주문제를 다루었다. “회개인의게 하는 규칙”을 1면에 실었다. 내용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주일예배에 두 번 참석하고, 성경을 구입하여 날마다 읽고, 늘 기도하며,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구세군 지도자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실었다.

- 一, 병스는 주일을 잘 지켜야 하며 상대편 경배를 하지 말고 구세군회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말하며 주일에는 아모일도 아니하며 저주도 내지 말며
- 二, 구세군병스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술먹기를 끊으며
- 三, 병스마다 주일동리에 구세군 일하는대 휴슈잇는대로 연쥬하며
- 四, 병스마다 휴슈잇는대로 속속히 복장을 준비하여 입을지며
- 五, 아모던지 우리병스는 정치상일에 갑섭지못하고 정부관리가 행정하는대 곤란을 니르키지못하고 구세군은 인민의 영혼에게 조혼일과 구원받난일을하며 예수의 일과 좌나 마귀의 속박을 버셔는 주유함을 전파함을 항상 생각할것시이외다<sup>548)</sup>

병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주일을 잘 지키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술을 끊어야 한다. 셋째 서로 다른 교파와 협력하라. 넷째 복장을 잘 준비해서 입어라. 다섯째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영혼구원에 힘써라 등이다. 구세군은 다른 복음주의 교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한 당시 다른 교파의 성향 즉, 정교분리와 영혼구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세군은 절제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성결교회와는 달리 다른 교단과 협력하곤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홉스(T. Hobbs)부인의 활동이다. 홉스부인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없으나, 남편 홉스(Thomas Hobbs)와 함께 1910년 내한하였다. 진명여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던 홉스부인은 1934년 죽기까지 절제운동에 적극적이었다.<sup>549)</sup> 1923

548) 허가두, “회개인의게 하는 규칙,” 『구세신문』 제 일권 제 일호(1909. 7), 7

549) 김승태, 박혜진 편, 『내한선교사총람』, 300.

년 한국에 WWCTU 외국지부를 세울 때, 회계를 맡았다. 또한 여자절제회와 통합했을 때와, 그 이후에도 계속 회계를 맡아 활동하였다. 1933년 총회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전면에 나섰지만, 홈스부인은 연합위원으로 여자절제회와 협력하는데 힘을 기울였다<sup>550)</sup>.

『구세신문』에 타교파 사람의 절제운동에 대한 글을 실으면서 협력을 고취시켰다. 1938년 2월호 금주특집호에는 김영주(金英珠)의 글을 실었다. 1934년 창세기저작 부인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루었던 김영주는 일본 칸사이(關西)학원 신학부를 졸업하였다. 사회복음주의 신학 분위기가 강했던 칸사이학원에서 수학한 김영주에게 절제운동은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51)</sup> 그는 『구세신문』에 “禁酒하는 方法”이라는 제목하에 글을 실었다. 그는 여러 가지 금주방법이 있겠지만, 중독자조차도 금주법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금주하기로 결심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금 음주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금주법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52)</sup> 김영주의 글 이외에도 초교파적으로 대표적인 글쓴이들은 다음과 같다. 1918년 제 1회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초대회장인 김필수(金弼秀), 절제운동회 회장 채필근(蔡弼近), 세브란스병원에서 교수로 활동한 북감리회 반 버스커크(James Dale Van Buskirk, 潘福基), 창문사가 창간한 『신생명』의 주간을 맡고 아빙돈성경주석(Abingdon Bible Commentary)을 번역한 감리교의 전영택(田榮澤), 『신생명』의 주요 필자였던 이관용(李灌鎔), 배재고보부교장姜邁(姜邁), 여자절제회총무를 역임한 손메레, 조선중앙일보사장 여운형(呂運亨), 조선감리회감리사 이윤영(李允榮), 절제운동회 총무인 송상석(宋相錫), 여자절제회 회장 최활란 등은 대표적인 경우다.

구세군이 절제운동을 전개할 때, 전위대 역할을 했던 것은 『구세신문』이었다. 1921년 3월부터는 매년 1회씩 특집으로 <금주호>를 만들었다.<sup>553)</sup> <금주호>는 술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운동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였다. 기존의 신문은 분량이 4면이었지만, <금주호>는 총 8면으로 확대하였다. 내용도 95%이상이 절제운동에 관한 것들이

550) “朝鮮女子基督教節製會總會,” 『감리회보』 第一卷 第七號(1933년 7월 10일).

55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II』, 157.

552) 金英珠, “禁酒하는 方法,” 『구세신문』 第二十四卷 第二號(1938. 2), 8.

553) 자세한 내용은 구세군에서 1000호 특집으로 만든 CD 『디지털 구세공보』를 참고하라. 일반적으로 3월호가 <금주호>로 꾸며졌다. 1927년은 5월호에, 1938년과 41년에는 2월호에 <금주호>로 편집되었다.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3월호를 <금주호>로 꾸몄다.

다. 특집으로 꾸밈기 때문에 절제운동단체나 다른 교파에서 절제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글, 자료, 분석기사 등을 싣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절제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크게 교회 안에서와 밖으로 구분하였다. 교회 안에서의 절제운동은 내면적인 형태와 외형적인 형태로 분류하였다. 내면적인 형태는 개인의 회심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외형적인 형태는 회심한 기독교인들의 사회를 향한 준비과정인 것이다. 교회와 교회관련 단체가 본격적으로 절제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회의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운동 목표나 방법을 결정하였다. 필자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의 외적인 형태의 절제운동이라고 이해하였다. 절제운동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제도를 세우고, 활동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B. 교회 밖의 다양한 절제운동

1920년대부터 전개된 절제운동은 이전보다 더욱 교회 밖으로 확산되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확연하게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절제운동단체, 관련단체, 교회들이 지역에 설치된 절제회나 지부와 연계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였다. 때로는 비기독교 사회단체들과 규합하여 절제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절제운동은 초교파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교회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1927년 황주주일학교연합대회에서 주관한 금주운동과 1938년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시행을 위한 운동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절제운동을 전개할 때 방법을 서로 공유하거나 협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제운동이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나 방법이 합종연횡을 이루어 구분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는 이런 전체 하에 다양한 절제운동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전개과정이나 방법이 1910년대와는 다른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술을 마시지마시다” 함만보면 그것이 얼마나 陳腐한말이오 이社會實情에 얼마나 어긋남이 만함을 발견할 수 잇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넷것을 清算함과 아울러 다시새로운 방

법을 再出發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라고보는바이다<sup>554)</sup>

## 1. 농촌운동의 일환

한국은 당시 전국 토지 중에 1/5가 농지이고, 전 인구의 8할인 1천 460만 명이 농사업무에 종사하고, 총 수출액의 2/3이 농산물이었다. 이로 보건데 한국은 농업국이였다. 농업이 피폐해가면서 농촌을 떠나고 해외로까지 유리하는 자가 많아졌다.<sup>555)</sup>

농촌이 피폐하였다 농촌이 파멸된다하는 것은 모다 농촌경제 생활을 표준하여 말하는것이다 농촌구제니 농촌진흥이니 하는소래가 낡아질때에 우리는 그이들의 경제생활을 가히 짐작하고도 넘어지갠다 ... 사람은 달마다 해마다 더하야간다 더하야가는사람들에게 집이잇서야겠고 먹을것과 입을것이 필요하다 이러케되야 우리는 또한 전보다 만흔돈을 쓰게된다 그러나 우리의 수입은적다 작년에 두섬난논에서 금년에도 두섬밭게나지 아니하였다 작년에는 보리가 닻섬이엇더니 금년에는 환재로서 두섬도 되지못하였다 즉수입은 작년이나 금년이갠던지 도로혀 못하던지 하드래도 쓰는것은 점점더만허지니 이것 이농가경제의 파멸이다 이것이 금일의 농촌진흥을만인이갠치 부르짖게된 큰 원인이다 ... 소유재산이 업는사람은 고리로 빚을 내어쓰고 집을팔아먹고 움집에 살며 쌀밥을 먹던것이 조밥 조밥을먹던것이 피죽 피죽이변하야 풀뿌리를캐여 그것으로 죽을썬어먹고 겨우연명한다<sup>556)</sup>

김포 농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조민형(趙敏衡)의 진술이다. 그는 날마다 가족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농가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자연재해로 줄어들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고리를 끌어다 쓰고 나중에는 토지나 집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그 결과 농촌은 계속 피폐해 간다는 것이다.

1928년부터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농촌운동에 매진하였다. 그 이유는 농촌의 피폐화로 기독교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6년부터 1927년 사이에는

554) 勉勵生, “禁酒卽活路,” 『기독신보』 751호(1930년 4월 30일).

555) 梁株三, “農民의樂園인 丁抹(四),” 『기독신보』 672호(1928년 10월 24일).

556) 趙敏衡, “朝鮮農村振興策(一),” 『기독신보』 682호(1928년 12월 30일).

38,748명의 교인이 감소하였다.<sup>557)</sup> 이러한 감소는 농촌의 생활기반이 붕괴됨으로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1928년 예루살렘대회에서 농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농촌부를 신설하고 농촌문제에 전념하기로 하였다.<sup>558)</sup>

또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29년 농촌사업협동위원회(農村事業協同委員會)가 조직되었다. 북장로선교회의 함가륜(咸加倫), 장로회총회의 정인과(鄭仁果)와 전필순(全弼淳), 북감리선교회의 우리암(禹利岩)과 사월(史越), 남감리선교회의 하리영(河鯉泳)과 윤치호(尹致昊), 남장로선교회의 남대리(南大理), 호주선교회의 추마전(秋馬田), 캐나다연합선교회의 매도날(梅道捺), YMCA의 신흥우(申興雨), YWCA의 최활란(金活蘭), 연합공의회의 홍병선(洪秉璇)과 김인구(金仁九)와 김수철(金洙喆), 클락(Francis O. Clark) 등 16명이 1929년 9월 16일 피어선성경학교에서 농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윤치호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일차적으로 농촌강습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559)</sup> 1932년에는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와 YMCA가 연합하여 양계, 목축, 농사개량, 양봉, 시멘트, 농기구개량 등을 강의하러 전국을 다녔다.<sup>560)</sup> 또한 농촌여성지도자를 위한 수양회를 열고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요리, 재봉, 세탁, 염색, 육아돌보기 등의 교육을 하며 자급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sup>561)</sup>

폐쇄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는 가운데, 북감리교는 1929년 연회에서 전도방침(傳道方針)위원회의 요청을 허락하였다. 내용인 즉 절제부와 농촌부가 연합하여 순회 전도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농촌문제를 절제운동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해결해보고자 한 것이다. 당시 농촌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적었던 것으로 보였다. 특히 농한기에는 “힘드려번돈을 술노낭비하야 술장사의 이득을 남겨주는 자”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피

557) 한규무, 『일제하 한국 기독교 농촌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35.

558) “社說, 農村傳道” 『기독신보』 668호(1928년 9월 26일); 上海聖山, “朝鮮教會의 六大運動,” 『기독신보』 909호(1933년 5월 3일).

559) “農村事業協同委員會,” 『기독신보』 720호(1929년 9월 25일); 채필근, “一九二九年度教會總評(七),” 『기독신보』 739호(1930년 2월 5일).

560) “基督教聯合公議會 農村講習會開催,” 『기독신보』 840호(1932년 1월 6일).

561) 최마리아, “農村婦女指導者 修養會를마치고,” 『기독신보』 958호(1934년 4월 11일).

폐해져 갔다. 절제운동 입장에서 볼 때, 농민에게 여러 기술을 습득시키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의식변화였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는 사경회를 주장하였고, 그로인한 도덕성 회복을 기대하였다.<sup>562)</sup> 기독교 절제운동은 단순히 농촌에 금주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성회복에 초점을 두고 생활전반에 걸친 절제생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래야 농촌이 산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 2. 강연회로 절제교육

강연회는 절제운동의 백미였다. 강연회에서 절제운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예를 들어 YMCA회관에서 1920년 4월에 금주강연회가 있었는데 방청자가 밀려와 아래층까지 가득하였다고 한다.<sup>563)</sup> 강연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음주나 흡연의 해악을 각성시켜주는 것이다. WWCTU선교사 터링, 여자절제회 총무였던 손메레와 이효덕이 순회강연을 주도하였다. 전북 전주에서는 아편이 문제가 되었다. 부인들이 일할 때는 아이들에게 아편을 주사놓고 잠들게 하였다.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 할 일을 하였다. 강연들은 들은 후로는 아편사용을 중지하였다.<sup>564)</sup> 1923년 10월 평북선천에서 있었던 일이다. 손메레의 강연을 감시하러 나온 순사가 감동을 받고 자신의 무지를 뉘우쳤다. 그리고 금주하겠다고 서약했다. 술장사하는 사람도 손메레의 강연을 듣고 영업을 폐지하기로 결심하였다.<sup>565)</sup>

대부분 순회강연은 총무가 담당하였다. 대표적인 순회총무는 손메레였다. 아마도 손메레가 가장 순회총무로서의 길을 닦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sup>566)</sup> 그녀는 1919년부터 10년 동안 290여 곳을 다니며 절제회 지회를 세웠다. 일이 과중한 관계로 1929

562) 사월, “사경회와 농촌문제,” 『기독신보』 678호(1930년 12월 3일); 趙敏衡, “朝鮮農村振興策(一),” 『기독신보』 682호(1928년 12월 30일).

563) “朝鮮禁酒會의 講演,” 『매일신보』 (1920년 4월 19일).

564)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활동,” 『기독신보』 472호(1924년 2월 24일).

565) 손메레, “순회강연일기중에서,” 『기독신보』 631호(1928년 1월 11일)

566) “감리회년회절제부순회 총무손메레씨의신임,” 『기독신보』 800호(1931년 3월 11일); 손메레, “재미있고 괴롭던 옛 추억,” 『한국절제운동 70년사』, 129.

년도부터는 남감리교회에서 어원을 총무로 임명하여 내근시켰다. 외근은 손메레 후임 이효덕이 담당하고 순회강연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경비는 초청하는 곳에서 반, 절제회에서 반을 부담하였다.<sup>567)</sup> 강연이 필요한 기관이나 사람은 밀러부인에게 연락하였다.<sup>568)</sup>

이효덕은 9년 동안 순회강연하면서 대략 300여 지회를 조직하였다.<sup>569)</sup> 또한 감리회에서도 1931년부터 절제부에서 손메레를 순회총무로 임명하고 절제운동에 앞장섰다.<sup>570)</sup> 회양읍내 엠윗청년회는 1930년 7월 유아원, 주일학교학생, 청년회원과 함께 전단지를 뿌리며 금주금연운동을 하였다. 저녁에는 이효덕을 초청하여 “절제생활에서 活路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들었다.<sup>571)</sup> 때로는 유명 인사나 외국인사가 강연을 할 때는 신문에 광고를 내고 참여를 독려했다.<sup>572)</sup>

여자절제회의 순회총무가 전국을 다니며 절제운동에 관한 강연회를 열었지만, 다른 단체나 교단에서도 강연강사를 파송하였다. 북간도 용정 감리교회는 절제운동을 교인과 주일학생 300여명과 함께 실시하였다. 악대를 선두로 시가를 행진하며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저녁에 열린 금주강연회에 4명의 강사가 참여하였다. 정창성은 “못한 것은 선전하자”를, 김선호는 “음주자에게 세 가지 반성을 촉구함”을, 김호진은 “금주의 필요”를, 김태옥은 “판결언도”를 가지고 각각 강연하였다.<sup>573)</sup> 강연내용은 절제운동에 관한 것이지만, 근저에는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깔려 있었다.

禁酒를 한다고今日の複雑多端한社會問題가解決되는것이 아니니 飲酒는 이實情에잇서서 경제적 도덕적 이民族의 將來가 暗澹함은 事實일것이니 우리가 헛된생각이아니라 實際方面에잇서서 이民族에게 술마시는 慣習이업서진다면 먼저 술을 마시지말어야만 되겟다는 意識만이라도 준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길뵈이요<sup>574)</sup>

567) “녀자련합절제회,” 『기독신보』 725호(1929년 10월 31일).

568) 조선녀자기독절제회, “조선녀자기독절제회통일순서,” 『기독신보』 634호(1928년 2월 1일).

569) 이효덕, “개척자의 고심기,” 『한국절제운동 70년사』, 131.

570) “감리회년회절제부순회 총무손메레씨의신임,” 『기독신보』 800호(1931년 3월 11일).

571) “禁酒禁煙運動,” 『기독신보』 762호(1930년 7월 16일).

572) 일시 1931년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장소 長谷川町公會堂/ 강사 미국절제회회장 니콜슨 감독/ 제목 世界の 最大害毒/ 주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 “節制問題大講演會,” 『기독신보』 834호(1931년 11월 26일).

573) “룡정교회금주선전,” 『기독신보』 692호(1929년 3월 13일).

절제운동 내용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 때문에 경찰서에서 강연회 허락여부를 결정하였고, 모임에 순사가 참석하여 감시하였다. 강연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강의에 도전을 받고 절제회에 가입하거나 금주단언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강의는 강력한 것이었고 청중의 마음을 절제로 의식화시키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강연장에는 연극, 시, 단편소설을 동원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감리회에서는 선교 50주년을 맞이하여 특집 아동극을 『감리회보』에 실었다. 술, 아편, 죄를 타이어 펑크에 비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부록에 실었다.

場所 빠고다 公園

酒酣軍 곤드레 만드레하여 登場

學生C 先生님 저기 술취한 사람와요.

學生들 무섭다고 우 일어선다.

酒酣 (비딱거름으로 들어오며) 뭐야... 뭐야... (팔을 걷으며)해 보자. 나두 술먹을 돈이

있어 술한잔 사주고 재세야, 나두 우리집을 팔면 술값이 듬뿍 생긴다. 뭐야...

(한편 모퉁이에 가서 너머진다)

(중략)

學生A 아하, 이사람두 뺑구했다고나!

學生B 뭐－ 뺑꾸! 사람두 뺑꾸하나?

先生 그래 뺑꾸다. 죄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그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뺑꾸가 된 것이다.

(중략)

先生 정말 뺑구천지란다. 이세상에는 술로 인하여, 아편으로 인하여, 또는 무서운 죄로 인하여 뺑꾸된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많단다. 575)

574) 勉勵生, “禁酒卽活路,” 『기독신보』 751호(1930년 4월 30일).

575) “兒童劇, 基督教朝鮮監理會宣敎五十週年,” 『감리회보』 第 二卷 第 五號(1934년 5월 10일).

절제운동을 주제로 한 50주년 특집 아동극 외에 다른 연극도 있다. 헤롯왕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악몽을 꾸 뒤 과거를 회상하는 것들을 내용한다. 첫째 장면은 동생 빌립의 집에서 연회가 열린 모습이다.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고, 술기운이 오른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추파를 던졌다. 둘째 장면은 자신의 생일에 초대된 많은 사람이 술 취한 가운데 연회가 계속 진행된다. 바로 그때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춤을 추며 들어왔다. 살로메의 소원이 요한을 죽이는 것이기에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회상을 다한 뒤 헤롯은 모든 게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술로 그것을 잊으려고 하였다. 그러다 계속 마시는 술로 나라가 망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한다.<sup>576)</sup> 연극 외에 가극도 있었다. 경남 영산교회 주일학교에서는 6월 6일을 금주단연 기념주일로 정하고 낮에는 포스터와 전도지를 배포하고 밤에는 2천여 명에게 금주강연을 하였다. 여기에 가극대회도 함께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sup>577)</sup> 대부분 절제운동에 관한 연극이나 가극은 교훈적이다. 절제운동을 홍보하는데 연극은 매우 중요한 매개체였다. 특히 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시청각자료가 미비한 지역민들에게 연극은 중요한 도구였다. 이런 형태의 연극은 관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 3. 금주선전대회

절제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금주선전행렬이었다. 금주행렬은 먼저 깃발을 앞세우고, 일행은 악대에 맞추어 금주가를 부르면서 행진하였다. 한 예를 들어보면, 1934년 2월 25일 오후 2시 공주교회절제회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공주지부 주최로 교인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절제선전행렬을 하였다. 이들은 십자군기를 들고 금주가를 부르고 기도하였다. 교인들은 큰 기 두 개를 앞세우고 악대를 따라 갔다. 그들은 시내 전체를 일주하며 전단지 배포하고 밤에는 강연회를 열었다. 사월목사의 ‘술과 위생’, 현은동의 ‘술과 경제’는 청중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sup>578)</sup> 절제운동행렬은 대부분 대동소이하였다. 대부분 이런 선전행렬은 주로 장날이나, 단오절 또는 추석과 같이 사람

576) 雲岡生, “短篇小說, 술과죄,” 『기독신보』 646호(1928년 1월 11일).

577) “禁酒禁煙斷煙運動,” 『기독신보』 759호(1930년 6월 20일).

578) “公州금주단연선전,” 『감리회보』 第二卷 第三號(1934년 3월 10일).

들이 많이 모였을 때 진행되었다. 악대가 동원되고 수백명씩 노래를 부르며 전파되는 절제운동은 당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삼천포장로교회 전도회에서 193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이용하여 금주선전기를 날리고 금주운동을 펼쳤다. 120여명의 주일학교학생을 포함하여 200여명이 참석한 대회는 200여명의 주류업자와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금주운동을 펼쳤다.<sup>579)</sup> 광주에서는 여자절제회가 시장에 나가서 전도와 금주운동을 병행하였다. 3천부의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160매의 <금주호>가 판매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sup>580)</sup>

금주선전대회를 진행할 때 반드시 동원되는 것이 포스터와 전단지(빠라)였다. 이것들은 절제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필요한 것이다. 여자절제회에서 만든 포스터가 있다. 포스터 내용을 보면, 양복을 입은 한 신사가 왼쪽에 서서 술병을 바닥에 내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는다.

에익 이놈의 술  
 일년술값 七五,八四四,七〇〇  
 한사람생활비 최하 二百원치고  
 삼백팔십년간 만명의 생활비  
 경성시내시의 인구가 1년간생활  
 이리도 술을 마시람니가?<sup>581)</sup>

이 내용은 오른쪽에 눈에 띄게 크게 써있다. 금주포스터는 50장 기준으로 20전이었고, 구입관련 업무는 총무가 담당하였다.<sup>582)</sup> 금주포스터와 함께 주요 홍보지로 사용했던 전단지는 주요한 도구였다. 여자절제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선전대회 때 이 전단지가 주로 사용되었다. “술을 사랑하지 친구들이여!”<sup>583)</sup>라는 제목으로 된 전단지는 지역에 따라 수천 장 또는 수만 장의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579) “禁酒宣傳,” 『기독신보』 737호(1930년 1월 22일).

580) “녀자절제회금주선전,” 『기독신보』 623호(1927년 11월 16일).

581) “이래도술을마시람니가?” 『기독신보』 583호(1927년 2월 9일).

582) “광고, 금주포스터발매,” 『기독신보』 848호(1931년 1월 1일). 이효덕의 연락처가 종로태화여자관절제회사무실로 된 것을 보면, 독자적인 사무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손메례가 총무로 있었던 때하고는 좀더 체계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583) “禁酒 ‘빠라’宣傳,” 『기독신보』 623호(1927년 11월 16일).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라.

수양회에서도 절제운동을 위한 선전대회를 결의하였다. 삼수청년수양회에서는 1926년 12월 18일 저녁 8시 임원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 하였다. 1)매월 1일을 금주데일로 정하고 금주강연 등으로 일반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2)매월 15일은 위생데일로 정하여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각 지역의 청결운동을 펼치고, 3)음력 1월 1일에 신춘대강연회와 음악공연을 개최할 것 등이다.<sup>584)</sup>

선전대회에는 지역단체들도 참여하였다. 사리원상공회 주관으로 모임을 갖고 1929년 11월 1일부터 금주와 색의입기를 장려하기로 결의하였다. 모임이 끝난 뒤 시내를 다니며 전단지를 배포하며 그 지역 교회청년의 악대를 선두로 하여 각 상점주인들이 행렬에 동참하였고, 지역 유지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sup>585)</sup>

대표적인 선전대회는 황주주일학교연합 선전대회였다. 대회는 황주주일학교연합회(회장 리학봉, 총무 송상석) 주관으로 1927년 11월 3-7일 동안 진행되었다. 참가단체는 33개 주일학교와 3개 금주동맹단체였고, 동경금주동맹본부, 회사, 농장, 금융회사, 우체국 등 19단체의 후원을 받았다. 1일째는 선전대원이 자전거를 타고 시가를 순회하며 금주포스터 부착. 2일째는 금주자동차에 악대와 선전대원이 동승하여 시내를 두 번 순회하며 전단지 배포. 열차에 타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황주역과 흑교역에서 5회 걸친 강연. 3일째는 1,200명의 대원이 황주사립양성학교(黃州私立養性學校)운동장에 모여 간단한 행사를 갖고 거리행진. 저녁에는 금주강연과 모의 주마공판개정(酒魔公判開廷)을 열었다. “피고 주마(酒魔)는 간악한 대적인 까닭에 도덕과 행복향유법 1조와 국제금주법안에 의하여 주마는 인생에서 퇴거를 명하고 금주성 지대와 소년소녀의 정신에 침입하면 사형에 처할 사(事)”라고 판결을 내림으로 천명이 넘는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 4일째는 금주를 평가한 선전전단지를 배포. 5일째는 가두행진을 다시하고 지역유지의 후원으로 금후 계획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폐회하였다.<sup>586)</sup>

선전대회의 행렬은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듯하다. 악대가 동원되고, 금주가 불리며, 깃발을 휘날리며,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남녀노소 모두가 시내거리로 행진하는 모습은 하나의 장관이었다. 이때 불렀던 <금주가>는 절제운동에 중요한 수단이

584) “靑年修養會 禁酒, 衛生 宣傳데이,” 『시대일보』 (1926년 1월 3일).

585) “色衣獎勵와 禁酒宣傳,” 『매일신보』 (1929년 11월 3일); “世界的으로된 黃州禁酒宣傳,” 『기독신보』 627호(1927년 12월 14일).

586) 宋相錫, 『韓國節制敎育研究史料集』, 144-6.

었다. 특히 금주금연 선전대회 행렬에 반드시 불렀던 노래가 <금주가>였다. 신정찬송가에 임배세가 작곡한 <금주가>가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금주가가 있다. 여기에는 한 곡만 소개하고 부록에서 그 동안 모은 <금주가>를 실었다.

1. 꿈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자/ 그 이름 알콜이라  
 (후렴) 술잔을 깨치라/ 담배대를 꺾어 버려라  
 二千萬 사람의 살길은/ 節制運動 萬萬歲
2. 입에 더러운 담배를 왜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癱瘓케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다<sup>587)</sup>

<금주가>는 절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도구였다. 수백 명이 악대를 동원하고, 깃발을 휘날리며, <금주가>를 부르며 거리행진을 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멋진 모습이다. 이외에도 금주에 대한 시를 짓기도 하였다.<sup>588)</sup>

#### 4. 과학적인 통계와 의학적인 연구결과 제시

절제운동을 전개할 때 과학적인 통계나 의학적인 연구를 이용하였다. 먼저 통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도 “금주법실행자중 백분지 九十은 교육받은결과요 기타백분지십쯤은 감정이나 법률에의하여 된것”이라고 하여 수치를 제시하였다.<sup>589)</sup>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에서 학생 588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조사했

587) 作歌 崇專教授 梁柱東, “節制運動歌,” 宋相錫, 『韓國節制教育研究史料集』, 157.

588) 금주흥으로/ 몰할수업시 선량히여지고/  
 살것이만흐며 팔것이만코/ 안락은더흐며 넘너는덜흐고/  
 의식은 유여홀지라/ 더화흔낫으로/  
 더깊분가당을 일우고/ 우리의모든짐은/ 점점가벼워지리라/  
 량심은 결백해지고/ 정신은 넉넉흐고/ 소망은 새로워지며/ 모든숨흠은 쫓겨나가고/  
 오늘날을위하야/ 싸하돌것이/ 넉넉히리라로해리, “금주의효력,” 『기독신보』 236호(1926년 12월 1일).

589) 카드멘, “교육의효과,” 『기독신보』 634호(1928년 1월 11일).

다고 한다. 음주와 학습정도와의 관계성을 연구한 것이다.

- 1) 술 안마시는 학생 134명 중 42%는 우등생이고 9%는 낙제생이다
- 2) 술 마시는 학생 164명 중 34%가 우등생이고 9%는 낙제생이다.
- 3) 하루 한 번씩 술 마시는 학생 219명 중 29%가 우등생이고 14%는 낙제생이다.
- 4) 하루에 두 세 번 술 마시는 학생 71명 중 25%가 우등생이고 18%가 낙제생이다.<sup>590)</sup>

음주와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었다. 금주하는 학생이 술을 날마다 마시는 학생보다 월등하게 성취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부모에게 자녀들이 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주초로 사라지는 액수와 아이들의 교육비를 비교하면서 금주금연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돈이 없어 굶주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이 190여 만 명이 된다고 한다. 아이들 미래를 위하여, 또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금주금연하고, 그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에 학령아동이 약 이백육십만명인데 그중 공부하는 아이가 칠십만명이고 그타 일백구십만명은 공부못하는 아동입니다 이런비참한현상을 목격하면서도 술이목으로넘어 감니까? 술먹기때문에 집안이망하고 사회가망하고 또한나라가망하지않습니까? 여러분! 금주합시다 나한사람의 한잔, 두잔의술로 나의자녀가 굶주려울며 공부못하게되는 것을 알읍시다 만일 우리가 일년간 소비되는 술값을 없이한다면 즉 금주한다면 그돈으로 공부못하고 굶은배움켜잡고있는 일백구십만명의 아동을 먹이고 공부시킬수있습니다.<sup>591)</sup>

이외에도 다른 통계들이 있다. 1928년 1년간 소비되는 술값이 7,862만원, 담배값은 1억 3,894천만 원으로 1년간 52만여 명의 1년간 생활비가 된다. 1년간 술 담배값으로 800개의 소학교, 600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sup>592)</sup> 1930년 교육비

590) 李灌鏞, “술먹지말理由몇가지,” 『神學指南』 第七卷 第三號(1925. 10), 137-40; “講壇, 원수의술,” 『기독신보』, 751호(1930년 4월 30일).

591) 변영서부인, “우리의 급선무,” 『기독신보』 869호(1924년 9월 10일).

592) “조선에서금주할이유,” 『기독신보』 631호(1928년 1월 11일).

1,569만원, 술값 9,346만원, 담배값은 2,627만원 인구 1,100만명 대비 1인당 교육비가 80전, 주초대금이 5원 37전이였다. 주초는 돈을 낭비하고,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자녀교육에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통계를 제시하였다.<sup>593)</sup> 아동에 대한 음주교육 부재와 아버지의 무지로 아동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리더인 아동들에 대한 건강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sup>594)</sup>

두 번째로 의학적 연구 결과를 절제운동에 이용하는 것이다. 남감리교 선교사이며 여자절제회의 총무를 맡은 바 있는 어윈에 의하면, 사람들은 술을 흥분제나 강장제로 오인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한다는 것이다.<sup>595)</sup> 여러 생명보험회사가 음주자와 금주자의 질병을 세밀하게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질병에서 2배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내렸다.<sup>596)</sup> 술은 뇌세포를 손상시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거나 뇌세포를 마비시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sup>597)</sup> 이외에도 술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一) 술을먹으면 위장, 신장, 간장, 심장, 혈관, 신경, 및노슈조직체에 위험이 있고
- (二) 무론 무슨일에든지 육체덕로딩이나 정신덕로동이나 기계덕로동에잇서서 각기그일에대한 능력이감쇼되고
- (三) 다쇼간 마음이 비렬하여지고 고상한감각이 둔하게되고 도덕상으로 타락하게된다
- (四) 건강을일코 슈명의감쇼하게된다.
- (五) 아직생산도 아니한 후손에게붓그럽고 도치못한 영향을 끼쳐주게된다<sup>598)</sup>

술은 세포조직을 파괴하며 유용한 세포를 해롭게 만든다. 그 결과 심장, 신장, 간장, 혈관, 신경계 등에 영향을 끼쳐 신체에 큰 해가 된다. 감각이 둔하여지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자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술 마시는 자가 직접적으로 영향 끼치는 대상은 아내와 자녀들이다. 한 의사는 술 마시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질병이 6배 이상 많다고 지적하였다. 죽는 것도 2

593) “교육비와 술담배값,” 『기독신보』 657호(1930년 6월 4일).

594) 抄 譯, “兒童生活과 酒,” 『神學世界』 第十卷 第二號(1923. 6), 89-90.

595) 어윈, “신체에밋치는술의해독(속),” 『기독신보』 643호(1928년 4월 4일).

596) 『기독신보』 634호(1928년 1월 11일).

597) 로튼민, “금주, 참을말하라,” 『기독신보』 531호(1926년 2월 10일).

598) 어윈, “신체에밋치는술의해독(속),” 『기독신보』 646호(1928년 4월 25일).

배 이상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sup>599)</sup>

절제운동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과학적인 통계와 의학적인 연구 결과물들이다. 이것은 금주의 필요성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 셈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였다.

#### 5. 신문, 정간물, 절제관련도서, 현상논문, 웅변대회

여자절제회에서는 1931년도부터 정간물 『節制』를 출간하기로 하였다.<sup>600)</sup> 내용은 주로 절제와 밀접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3월호에는 절제운동의 필요성, 농촌과 술과 담배, 예절과 술, 인생비극과 광명, 매소년부 연구에 대하여, 음주와 교육, 주정음료, 조선의 학생들이여, 문명과 금주, 가정경제 강화, 술집의 증가와 우리의 대책, 주금을 범법하고 생명을 잃음, 잃어버렸던 잔을 찾으려, 절제가화(節制佳話), 어떻게 절제할까 등으로 꾸며졌다.<sup>601)</sup> 거의가 음주와 관련된 내용이다. 5월호에는 건강과 절제, 절제의 미덕, 종교와 금주 등을 중심내용으로 다루었다.<sup>602)</sup>

절제운동회에서는 정간물로 『節制時報』를 1933년 창간하였다. 주간은 총무 송상석이 담당하였다. 『節制時報』는 개인적으로는 자제생활, 사회적으로는 사회정화,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실제화를 목표로 출간되었다.

節制時報의 出生이 때느진 感이 없지않다 朝鮮에 節制運動이 움트기 시작하여 十有星霜에 達하였으나 이를 統制하며 指導할만한 機關紙가 없었던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던 次에 多數同志의 聲援과 某待志家の 厚意와 熱心으로 本報發刊의 첫 소리를 웨치게 되었다 ... 本紙의 主義精神은 다음 세가지 綱領우에 立脚하였다 1)個人的으로 본 克己生活, 2)社會的으로 본 社會淨化, 3)宗教的으로 본 信仰의 實際化<sup>603)</sup>

599) 손메레, “朝鮮의 禁酒運動,” 『기독신보』 751호(1930년 4월 30일).

600) “『節制』 創刊號,” 『기독신보』 790호(1931년 1월 21일)

601) “新刊紹介, 節制,” 『기독신보』 886호(1932년 11월 23일).

602) “新刊紹介, 節制,” 『기독신보』 964호(1934년 5월 23일).

603) 宋相錫, “創刊號,” 『節制時報』(1933), 宋相錫 編, 『韓國節制教育研究史料集』, 1-2.

절제운동단체가 기관지로 창간된 『節制時報』나 『節制』의 원본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자료가 있다면 당시 절제운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간지는 『기독신보』였다. 『기독신보』가 1915년 장감연합 기관지로 출간되었지만, 1920년대의 절제운동을 널리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여자절제회가 세워진 뒤로 “절제란”을 두어 그 활동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여자절제회가 매월 정기모임을 가질 때, 모임 순서를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그 뿐 아니라 모임에서 토의할 내용을 실어 효과적인 모임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다. 절제운동회가 출범할 때도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정기적으로 절제운동 특집호를 만들어 절제운동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다루었다. 다음은 <금주호>를 내면서 그 취지를 설명한 내용이다.

금주를 단행하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세계의최초금주국인 미국의례를 볼지라도 수십년을두고 금주에 뜻을둔 인사들이 신문잡지로 선전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게 술의해됨을 가르치고 일반사회의 여론을 니르키여 온결과 필경에는 국가의법률노서 금주하게된것입니다 미국에서 금주법실행자중 百분의九十은 교육받은결과요 기타百분의十二는 감정이나 법률에의하여 금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주의방법은 다른데잇지아니합니다 첫째로는 술의해됨을 선전하는것이요 둘째는 교육함에 잇다하겠습시다 그리하여 한사람이 술을끈고 금주한사람이 다른사람이 다른사람의게 권면하고 가르쳐서 일반사회에 여론을 니르키는것입니다 이러한의미에잇서서 본보가 금번에 금주호를 발행케됨이 한갓헛수고가 아니될줄노 김히 깨달은바가 잇는것입니다<sup>604)</sup>

『구세신문』은 1909년 창간된 이래로 절제운동에 대한 기사, 특히 금주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실었다. 그러다 1921년부터는 <금주호>를 정기적으로 출간하여 절제운동을 확장시켰다. 총 2만 부를 발행하여 2전씩 받고 팔았다. 그 중 5천부는 철도당국이 구매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였다.<sup>605)</sup>

성결교회의 『活泉』은 1922년 11월부터 월간지로 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성결교

604) “社說, 禁酒號發行에 際하여” 『기독신보』 631호(1928년 1월 11일).

605) 장형일, 『한국구세군』 (서울: 구세대한군본영, 2004), 74.

리와 그에 따른 변화된 삶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할애하였다.<sup>606)</sup> 특히 절제운동과 관련된 금주금연, 축첩폐지와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다.<sup>607)</sup> 성결교회의 절제운동의 특징은 전통적인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몬져 自己의 罪를 自覺하여라. 이것이 宗教的, 道德的 改革의 第一步”이다.<sup>608)</sup>

곽안련의 『교회사회사업』은 총 12장으로 되었다. 이 책은 “일반민중의 경제덕과 사회희생덕 생활에 대하여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sup>609)</sup> 1장 서론, 2장 민중의 경제생활, 3장 자선사업, 4장 빈민구제, 5장 고아와 양로, 6장 병자와 교회책임, 7장 죄수와 교회책임, 8장 폐창과 교회책임, 9장 금주와 교회의무, 10장 담배와 독약, 11장 동물대우, 12장 평민의 오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효덕은 『금주실화집』과 『금주동화집』을 집필하였다. 『금주실화집』은 “음주과 산기”, “음주폐가자”, “음주로 폐가불구자”, “술로 자식 태운자”, “음주 추락자”, “술의 미치광이”, “깨여진 그릇”, “부인주막”, “음주가의 미로”를 중심으로 음주의 피해 실례를 다루었다.<sup>610)</sup>

틴링의 『금주미담』은 성경을 중심으로 음주의 해악을 다루었다. WWCTU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쓴 책 중 번역서는 이것뿐이다. 이 책은 “술은 덕행을 파괴하는 원인”, “술의 악영향을 미치는 중 하나는 남녀의 도덕스상과 행동을 타락케 하는 자제(自制)하는 힘과 극기하는 능력을 마멸함”<sup>611)</sup>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고 총 10과에 내용을 담았다.

606) “負債,” 『活泉』 第二卷 第三號(1924. 2), 17-9; 李明憲, “舊人,” 『活泉』 第二卷 第三號(1924. 3), 19-22; 李明植, “悔改에 對한 講話,” 『活泉』 第二卷 第七號(1924. 7), 3-9; 씨, 디, 왓슨, “聖潔과 成長(上),” 『活泉』 第二卷 第九號(1924. 8), 13-6; 全仁哲, “死線을 突破하고!!(一),” 『活泉』 第二卷 第二號(1924. 1), 38-43; “小矢, 重生後…,” 『活泉』 第二卷 第十三號(1924. 12), 45;

607) 崔演澤, “死亡에서 活路로,” 『活泉』 第二卷 第二號(1924. 1), 45-6; “死亡에서 活路로(中),” 『活泉』 第二卷 第三號 二月號(1924. 2), 54-6; “死亡에서 活路로(下),” 『活泉』 第二卷 第四號(1924. 3), 44-5; 實聞者 口, 스 生, “盲人 金英洙兄弟,” 『活泉』 第二卷 第七號(1924. 6), 44-6; “小矢, 有夫女를 돌려보냄,” 『活泉』 第二卷 第十二號(1924. 11), 44; “小矢, 棄妻된 有夫女와 同居하다가 分離,” 『活泉』 第二卷 第十二號(1924. 11), 46.

608) 『活泉』 第二卷 第八號 七月號(1924), 21.

609) 곽안련, 『교회사회사업』(경성: 조선예수교서회, 1932).

610) 李孝德 編, 『禁酒實話集』(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36).

611) 틴링, 『금주미담』, 목차 바로 앞에 그림을 그려 넣고 쓴 문장이다.

정간물이나 단권류의 책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논문이나 웅변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1932년 현상논문에 1등 송상석, 2등 淸川一丹(민호), 3등 김영로가 당선되었다.<sup>612)</sup> 1935년에도 현상논문을 모집하였다. 논문 내용은 1)음주자 패가의 실화(飲酒者敗家の 實話), 2)음주자 패가에 대한 소설이다. 분량은 5천자 이내이고, 상금은 1등 1명(상금 10원), 2등 2명(5원), 3등 3명(3원)이었다. 1934년에는 웅변대회도 열렸는데, 1등 송숙희, 2등 주은성, 3등 윤지현이 당선되었다.<sup>613)</sup> 1929년에는 조선박람회도 열렸는데, 청소년을 전도하고 절제운동을 보급하기 위하여 절제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sup>614)</sup> 참여 방법은 박람회장 입구에 임시전도관을 설치하고 금주강연, 연극, 강연 등을 하였다.<sup>615)</sup> 장연의 해서(海西)교회 주일학교는 1930년 6월 37개 교회 주일학교직원 5백여 명이 모인가운데 웅변대회를 가졌다. 1등 등송천교회 조승현, 2등 등태탄교회 김윤하, 3등 장촌교회 오기창이 당선되었다. 다음날 장연악대가 선두에 서서 행진곡을 부르고, 금주금연 선전기를 들고 행렬을 지어 운동장으로 가서 체육대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금주금연기를 휘날리며 장연악대 소리에 금주가를 부르며 시내로 행진하였다. 수만 매의 전단지를 뿌리며 금주운동을 펼치고 운동장으로 다시 가서 체육대회를 계속하였다.<sup>616)</sup> 절제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웅변대회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절제운동과 연계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정간물이고, 둘째는 단행본이다. 전자는 시사성과 정보성에 뛰어나고, 후자는 한 주제에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종류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논문현상을 공모하거나 웅변대회로 열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 6. 물산장려운동

612)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懸賞論文當選發表,” 『기독신보』 860호(1932년 5월 25일).

613) “節制問題 懸賞雄辯大會 一等은 女演士,” 『기독신보』 980호(1934년 9월 12일).

614) “敎界時評,” 『기독신보』 713호(1929년 8월 7일).

615) 田瑪大嬢, “節制運動,” 『기독신보』 848호(1932년 3월 2일).

616) “禁酒禁煙運動, 長淵,” 『기독신보』 657호(1930년 6월 4일).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경제활동은 물산장려운동이었다. 조만식, 오궁선, 이승훈, 김동원, 오화영 등 50여명의 기독교인들은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고 판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다 1922년 평양 자본가들은 장대현교회(길선주 목사 시무)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다시 발족하여 토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sup>617)</sup> 1923년 1월 1일에는 함흥 YMCA회원 1천명이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가두행진을 하며 국산품애용을 고조시켰다. 평양에서는 조만식(평양 YMCA 총무)을 중심으로 YMCA, 청년면려회, 장로회 평양노회 농촌부가 협력하며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sup>618)</sup> 물산장려운동에 일제의 방해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구에서는 5개 청년단체가 연합하여 1923년 2월 24일 물산장려대회를 가졌다. 여기에 금주단연운동도 함께 겹쳤는데 일제가 금지하여 거리행진은 못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이 준비한 전단지를 뿌리며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sup>619)</sup>

물산장려회는 민족단결, 협동정신, 상부상조, 생활정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기독교는 한국인의 가난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악습과 의식 없는 태도와, 일제의 자본주의 침략으로 발생되었다고 확신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의 고유상품을 늘이고 발전시켜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내야 했다.<sup>620)</sup>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향상과 애용으로 요약되지만, 금주금연운동도 함께 겹쳐졌다.

평양금주단연동맹회와 조선물산장려회는 1931년 2월 17일(음력 1월 1일) 정오를 기하여 YMCA회관에서 모임을 가졌다. 모인 수는 5백여 명으로 평양소년군의 악대를 앞세우고 동맹회와 장려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사복 경찰관의 감시아래 거리를 행진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외쳤다.

禁酒! 斷煙! 今日에는 施行합시다.

몸은 망케하고 살님을 못하게하고 일을못하게하는 술과 담배! 사회를 망케하고 민족과 나라를 망망케하는 술과 담배! 우리는 왜술을마시고 담배를 씹니까!

백가지 천가지 우리에게 해를 주고 한가지의 이익을 못주는 이독물을 왜갓가이합니까  
잘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합니까!

617) 강명숙,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경제사상』 (서울: 백산자료원, 1999), 33.

618)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285-6.

619) “大邱에 物産獎勵,” 『기독신보』 378호(1923년 3월 7일).

620) Kenneth M. Wells, 『새 하나님, 새 민족』 (서울: 장로회출판사, 1997), 7장.

아! 여러분 무섭지않습니까 안이먹고도 살수있는 그주와 연초! 우리는맛당히 자신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끈히버립시다! 저문명국들은 주와 연초를 퇴치하기에오랫습니다 아! 여러분! 속히 금주단연회로 들어오십시요 이독물을 절단하려고 또는업시하기위하여! 동포여 승리는 속한자의게래합니다<sup>621)</sup>

물산장려운동도 절제운동에서 보여준 선전대회와 비슷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악대를 동원하고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물산장려가를 부르며 분위기를 한층 고취시켰다.<sup>622)</sup> 물산장려가는 삼천리강산에서 나오는 물건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물자를 절약하고 한국인이 만든 것을 사용하여 자급자족하자는 내용이다. 이럴 때 민족의 장래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7. 금주금연으로 저축운동

사람들이 금주금연운동에 동참하면서 그 돈으로 저금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1925년 경성전기주식회사 전차과 승무원 5백여명은 금주저축회(禁酒貯蓄會)를 발족하고 저축운동으로 발전시켰다. 금주저축회는 모든 승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였고, 회비는 월급에서 미리 제하였다.<sup>623)</sup>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타개책으로 금주금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남 공주 신상면에서는 농산물이 폭락함으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 사람들은 생활개선 타개책으로 기호품을 절약하고 주초의 사용을 일절 금하자는 취지로 모임을 가졌다. 사람마다 술과 담배 값으로 5전씩 저축하기로 하였다.<sup>624)</sup>

621) “禁酒斷煙同盟會와 朝鮮物産獎勵會,” 『매일신보』 (1931년 2월 19일).

622) 일, 산에서 금이나고 바다에 고기 들에서 썰이나고 목화도난다 먹고남고 남고남고 쓰고도 남을 물건을 나누어주는 삼천리강산 물건을 나아주는 삼천리 강산 이, 조선의 동무들아 이천만민아 두발벗고 두팔것고 나아오너라 우리것 우리의 힘 우리재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쓰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삼, 조선의 동무들아 이천만민아 자작자급 정신을 닦지를 말고 네힘써 벌여라 이 천만민아 거기서 조선이 빛나리로다거기서 조선이 빛나리로다. “禁酒斷煙同盟會와 朝鮮物産獎勵會,” 『매일신보』 (1931년 2월 19일).

623) “禁酒會金橫領問題로 京電乘務員結束,” 『매일신보』 (1925년 1월 29일); “금주회금은 회사에서 변상,” 『매일신보』 (1925년 2월 4일).

금주금연으로 촉발된 저축운동은 기독교 절제운동에서도 나타난다. 절제운동은 술과 담배만 끊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금주금연하여 모은 돈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기금을 만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였다. 홍천 정숙여학교는 선교부의 보조를 받아 무산아동을 양육하였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게 된 소년 절제회 회원들은 활동하여 10여원을 벌여 정숙여학교에 기부하였다. 때로는 금초를 금하여 모은 돈으로 교회에 큰 시계를 사서 걸어 놓고, 종이 울릴 때마다 절제를 자각하기도 하였다.<sup>625)</sup> 전남 농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손메레의 강연이 끝나자, 강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금주를 결심하고 금주저축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모은 돈으로 자선사업을 하거나 소비조합 또는 생산조합을 만들기로 하였다. 때로는 금주로 인한 돈을 교회재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sup>626)</sup> 경기도 이천의 덩평교회의 속장 김기훈(金箕勳)은 1926년부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연합하여 금주단연계를 조직하고 매월 주초대금 20전씩을 모아 저금하였다. “그 동리에는 만흔유익이되였다”고 한것을 보면, 모은 돈으로 지역을 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sup>627)</sup>

충천 남산면 창촌교회 금주단연회는 매달 일인당 30전씩 모아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키우기로 하였다. 1922년 2월 창촌교회 권사 어종원의 발기로 시작되었는데 5년 후에는 회원이 35명으로 증가하였다. 35개월이 지나면 모든 회원이 송아지 한 마리씩 소유하게 될 정도로 금주단연의 효과는 컸다.<sup>628)</sup>

1920년대의 절제운동은 일반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피폐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흥사경회와 함께 절제운동을 펼쳤고, 강연회로 집중적인 절제교육을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연극이나 가극을 동원하였고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악대를 동원하여 금주가를 부르며 온 시가를 행진하는 금주선전대회로 운동을 확산시키고, 과학적인 통계와 의학적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문서와 현상논문과 웅변대회로 열기를 고조시키고, 물산장려운동으로 일반인과 함께하는 절제운동 붐을 조성하고, 저축운동으로 보람을 가지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은 절제운동을 일반 대중에

624) “公州의 禁酒斷煙施行,” 『매일신보』 (1930년 11월 20일).

625) 임경한, “地方欄, 洪川地方,” 『감리회보』 第三卷 第三號(1935년 3월 10일).

626) 손메레, “순회강연일기중에서,” 『기독신보』 631호(1928년 1월 11일).

627) “금주단연하고 그돈은貯蓄,” 『기독신보』 603호(1927년 6월 29일).

628) “倉村禁酒斷煙會狀況,” 『기독신보』 629호(1927년 12월 28일).

게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C. 절제운동 내용

1920년대의 절제운동은 일제와 직접 관련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10년대는 한국의 폐습으로부터 일제에 의한 세속문화로 절제운동 대상이 넘어가는 시기였다. 여기에서는 기독교가 절제운동의 대상으로 삼았던 음주, 흡연, 아편, 축첩과 공창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음주와 금주

절제운동을 전개할 때, 음주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었다. 당시의 자료들도 음주문제와 금주운동에 대한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기독교에서 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聖殿清潔”이라는 맥락에서 술을 이해하였다.<sup>629)</sup>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몸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다. 술로 거룩한 전인 몸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청결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금주운동의 일차적 목표인 것이다.

금주운동을 펼칠 때, 과학적인 접근을 한 것은 대부분 1920년대 이후이다. 특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으로 절제운동에 앞장섰던 터링의 내한 이후이다. 당시 기독교는 음주가 주는 해악에 대하여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1)신체를 약하게 한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술이라도 치명적인 해가 된다. 2)술로 인해 병이 생긴다. 대표적인 병은 심장병, 간장병이다.<sup>630)</sup> 3)폐결핵 환자는 더욱 금주해야

629) 片夏薛 夫人, “響應에 對하야,” 片夏薛 譯, 『神學指南』 第七卷 第三號(1925. 7), 160-3.

630) 리용설, “술의해독,” 『기독신보』 691호(1929년 3월 6일); 어원, “신체에 미치는 술의해독,” 『기독신보』 642호(1928년 3월 28일); 손메레, “안전한 생활,” 『기독신보』 575호(1926년 12월 15일).

한다. 술은 백혈구의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sup>631)</sup> 또한 기독교는 지속적인 음주로 가정 경제가 어렵게 만들어 질병가진 가정의 식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확신하였다. 결국 술을 멀리해야 자신과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32)</sup>

구세군의 뿌드는 “술은 가정의 파괴범”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인식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sup>633)</sup> “술은 가정을 파괴하는 독약”, “술과 가정의 관계는 독사와 사람의 관계”, “술은 만 악의 근원이요 만병의 원인”로 이해하면서 술과 가정과의 깊은 관계성을 강조하였다.<sup>634)</sup>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금주였다. 다음 글은 직업상 억지로 마시기 시작한 음주가 결국 가정을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간증이다.

목사님 저는 일흔여기박지안사오니 귀교회의 신자올시다. 저는 어니회사에다니는데 정월초하루로 지배인집으로 이사를 하러 갔습시다. 지배인내외는 반가히마즈며술상을 차려내려와서 술을권함니다 저는사양하엿스나 주인내외는 자기네도먹으며 한두잔먹오라고 강권함니다. 인정상 저는회사에서떨질까하여 할수업시석작을막엇습니다. 그후에점심 술을먹기시작하여 지금은만히먹습니다. 술을먹기전에는 전배인도신용하더니 너머먹는고로 신용이업서저서 그회사에서 쫓겨나게되엇습니다. 저금하엿던것도다차저쓰고 안해와 어린딸은 배급하떨고잇습니다 (중략)

지금우리가정은 쓰러져갑니다 그런데 하로는 교회엇던친구가 나를차자와서 손목을붓잡고눈물을 흘리며 권하엿습니다 그래서저는 술을 끈코 새사람되기를 하날개 맹서하엿습니다 그그념으로 돈三元을여기 동봉하오니 금주운동에 보태여쓰시도록하소서<sup>635)</sup>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출판한 『언설초집』에 보면, 저자 밀러는 미국의 술 중독자 30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150명은 부모의 영향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술로 인하여 자기만 아니라 자녀를 병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금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636)</sup> 또한 술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은 창기로, 청년의 방탕도 여기

631) “禁酒談叢, 폐병에대헌주의,” 『기독신보』 462호(1924년 10월 15일).

632) 蔡聖錫, “肺結核에 對한 警告,” 『神學世界』 第七卷 第三號(1922. 5), 85-8; 줄탄, “알콜의害毒,” 『神學世界』 第九卷 第一號(1924. 2), 130.

633) “酒는 家庭의 破壞者,” 『구세신문』 第五卷 第十三號(1927. 5).

634) 손메레, “술과가정,” 『기독신보』 634호(1928년 2월 1일).

635) “절제운동” 『기독신보』, 호(1931년 1월 28일).

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일은 금주인 것이다.<sup>637)</sup>

기독교는 한민족인 흥하고 망하는 원인은 그 민족의 민족성, 전통, 경제, 정치, 단합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 민족의 존재와 무궁한 번성과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실한 민족정신’과 ‘건전한 도덕’이라고 생각하였다.<sup>638)</sup> 문제는 한국인이 건강한 민족정신과 도덕성이 상실되고 피폐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교 금주운동은 경제적으로만 유익한 게 아니라, 민족정신을 회복시키고, 도덕적 토대를 건강하게 쌓는데 절대적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인이 술을 찾은 이유는 일제하라는 암울한 현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술을 현실의 도피처로 삼아 위로를 받고자 하였다. 틴링은 당시에 음주자들이 몇 배 많아 졌다고 지적하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며 사회를 문란케 하며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은 술이라고 진술하였다.<sup>639)</sup> 노불부인도 음주가 개인이나 가정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나라를 망케 하는 근본임을 누구든지 비판치 안는지가 업는지라”<sup>640)</sup>고 하여 음주가 국가의 장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920년대 금주운동은 그 시야를 한국에 한정하지 않았다. 금주운동의 범위를 국내만 아니라 세계로 향하게 했다는 점이다. “한사람의 도덕은 곧 온 인류의 도덕”<sup>641)</sup>으로 인식한 기독교인들은 금주에 참여하면 세계의 도덕성회복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세계의 모든 비애와 불행은 술과 무절제와 매춘이라는 “삼남매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금주하는 것은 세계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sup>642)</sup> 또한 개인이 금주하고, 금주운동에 동참하면, 세계의 도덕성 회복에 일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효과적인 금주를 위해서는 최소한 동양 3국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일에 기독교인이

636) “단음흡이가흡,” 『구세신문』 제 8호(1910. 10); “괴담,” 『구세신문』 제 2권 제 4호(1913. 9).

637) 최상현, “술과 죄,” 『기독신보』 699호(1929년 5월 1일).

638) “社說, 禁酒運動의 意義,” 『기독신보』 899호(1933년 2월 20일).

639) 李鎭九, “금주와 금연, ‘틴링’여사금주강연을 聽하고,” 『기독신보』 322호(1922년 2월 15일).

640) 노불부인, “금주,” 『기독신보』 66호(1917년 3월 7일).

641) 洪愛施德, “술과도덕,” 『기독신보』 638호(1928년 2월 29일).

642) “그맷친열매로더회를 알지나라,” 『神學世界』 第十三卷 第二號(1928. 3), 100.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과 일본처럼 한국도 금주회를 조직하여 3국이 서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금주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sup>643)</sup>

기독교가 지적한 음주의 폐해는 1)직접적으로 몸에 큰 해를 준다. 2)정신상으로 피해를 준다. 3)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 4)사랑의 원리를 파괴시켜 자신, 가정, 나라 사랑을 파괴시킨다.<sup>644)</sup> 금주운동이 결실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는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술을 금하고, 철저한 금주교육으로 음주를 예방하며, 금주선전으로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술을 권하는 환경을 개선하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45)</sup> 기독교 금주운동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한정시키지 않고, 민족차원과 세계적 금주운동 차원으로 넓혀간다는 점이 특색을 이룬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금주로 사회를 개조하고 국가를 번영한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비전과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 2. 흡연과 금연

1920년대의 금연운동의 특징은 대부분 금주와 연관을 지었다는 점이다. 1910년 이전에는 아편문제와 중복해서 흡연문제를 다룬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1910년대부터는 아편과 구분하고 음주문제와 함께 취급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러다 1920년대부터는 금주금연을 하나로 묶어서 다룬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음주와 직접 관련된 흡연은 생략하고, 흡연자체만을 가지고 문제삼은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담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곤 하였다. 첫째로 담배는 살균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둘째로 미용과 몸매 관리에 좋다는 것이다. 셋째로 흡연을 하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넷째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중독되지 않고 상습흡연만 안하면 된다는 인식이다.<sup>646)</sup> 이런 오해를 전제로 만연되는 흡

---

643) “評評林림,” 『기독신보』 171호(1919년 3월 12일).

644) 손메레, “금주의필요,” 『기독신보』 634호(1928년 1월 11일).

645) 尹龍賢, “禁酒와 朝鮮의 將來(完),” 『기독신보』 897호(1933년 2월 8일).

646) “담배독의 주장되는 징후는?” 『기독신보』 863호(1932년 6월 15일).

연문제에 기독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기독신보』는 담배의 해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실었다. 예를 들어 담배의 니코틴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독성을 설명하였다. 무색무취한 니코틴은 액체로 공중에서는 갈색으로 변한다. 특수한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지만, 독성이 있다. 한 두 방울로 토끼는 3분 내에 죽고, 개는 두 방울로 3분만에 죽고, 물고기는 1/100로 죽고, 참새나 비둘기는 냄새만으로도 죽는다. 담배 한 개 피에 대략 2-3mg 니코틴이 있는데, 50mg만 있으면 생명에 치명적이 된다.<sup>647)</sup> 또한 니코틴은 신경계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흡연으로 심장 맥박수가 급상승하여 기력과 정신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흡연과 심장 박동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설명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sup>648)</sup> 니코틴은 또한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sup>649)</sup> 담배로 인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데 나중에는 심장에 무리가 되어 건강에 큰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sup>650)</sup>

뿐만 아니라 흡연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준다고 금연을 강조하였다. 20세부터 60세까지 매일 아침마다 피우면, 대략 29만 개피를 피우게 된다. 액수로 따지면 9,375원 60전이나 된다.<sup>651)</sup> 흡연의 폐해는 음주에서처럼 건강상, 정신상, 경제상 손실이 많았다. 흡연은 비생산적이어서, 재산상의 피해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술과 같이 나타난다고 금연을 촉구하였다.<sup>652)</sup>

기독교는 흡연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로 접근하였다. 먼저, 기독교는 흡연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하였다. 구세군 기관지 『구세신문』에서는, “연초는 인명을 살해하는 독의 몽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담배는 폐를 위험하게 하며,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해악이니, 단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653)</sup>

647) “담배피는것이 얼마나 해로운가?” 『기독신보』 861호(1932년 6월 1일).

648) 조선녀중기독교절제회, “節制部, 심장에대한 흡연의해독,” 『기독신보』 474호(1925년 1월 7일); 로해리, “흡연의해,” 『기독신보』 488호(1925년 4월 15일).

649) 根本正, “節制部, 禁酒의 必要(一),” 『神學世界』 第九卷 第六號(1924. 12), 80-2; “結核에 對한 禁煙,” 『기독신보』 518호(1925년 11월 11일).

650) 펠링스부인, “禁酒文庫,” 『기독신보』 760호(1930년 7월 2일).

651) “煙草의 害毒,” 『기독신보』 975호(1934년 8월 8일).

652) 根本正, “節制部, 禁酒의 必要(二),” 『神學世界』, 第十卷 第一號(1925. 2), 76-8; “禁酒會의 無實,” 『매일신보』 (1920년 7월 2일); “禁酒斷煙은 國家文明富強의 基礎,” 『기독신보』 236호(1920년 6월 16일); .

653) “연초는 인명을 살해하는 독의몽치,” 『구세신문』 제 2권 제 18호(1914. 11).

둘째로 기독교 금연운동은 성경공부나 부흥집회에서 흡연의 해악을 문제삼았다. 밀러는 『언설초집』에서, 사람은 성령의 전이기에 깨끗하게 보전해야 되는데, 담배 연기로 더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담배는 형기(形氣)을 답답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흡연을 너무 좋아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인이 베면 끊기가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는다면서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654)</sup> 기독교관련 집회나 모임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은 기본적인 것이었다.

셋째로 금연교육을 이론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도왔다. 경북 선산의 청산동교회 청년들은 단연회를 조직하고, 금연운동을 벌이면서 매월 단연금을 저축하였다. 모은 돈으로 중요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sup>655)</sup> 산현교회의 지회로 1913년 설립된 재령군에 소재한 하오면 부성리 교회의 이야기다. 부성리교회는 150-60명 정도가 출석할 정도로 성장하는데, 그중에 10여명의 청년들이 헌신적이었다. 청년 박명수(朴明洙)와 김두환(金斗煥)의 주도로 단연회(斷煙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연초대금을 모아 빈곤한 청년의 의류비나 학비로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이런 단연회의 활발한 활동은 주변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sup>656)</sup> 비슷한 경우가 부성리교회만 아니라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런 일화들이 많이 나온다.

기독교 절제운동에서 보여준 금연운동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운동으로 그치지 않았다. 19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폭넓게 의학, 통계, 과학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복음으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복음적인 기독교 절제운동 전반에 깔려 있다.

### 3. 아편매매와 사용금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편중독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1운동에서 보여준 강력한 에너지가 시대적인 한계를 느끼고 약화되는 과정에서 아편을 찾는 이

654) 에프 에스 밀러, “굴뚝,” 『언설초집』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13), 25-6.

655) “斷煙會貯蓄,” 『기독신보』 563호(1926년 9월 22일).

656) “斷煙同監會,” 『기독신보』 235호(1920년 6월 2일).

들이 많아졌다. 현실과의 투쟁을 피하기 위하여 아편을 그 방어막으로 삼았던 것이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던 한국인들은 마약으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동시에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제의 책략에 빠져든 것이기도 하다. 모르핀 주사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든지, 많은 모르핀 판매자를 인정하든지,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배려함으로 모르핀의 확산을 조장하였다. 반면 일제는 자국민들에게는 모르핀에 빠져들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였다.<sup>657)</sup> 일제의 이중 잣대가 여기에서 보인다.

일제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의 모르핀 중독자가 1931년 기준으로 3,778명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20배인 7만 명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의 한도(道)에서 실시한 관청조사 결과, 모르핀과 아편중독자의 등록자는 겨우 한 명이었고 한다. 그러나 압수된 아편의 양은 1회 70-80파운드로, 수천 명의 흡연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중독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한 어떤 도에서는 약제상 한 곳에서 모르핀주사용 주사바늘이 매월 수천 개나 팔렸다고 한다. 1927년 경 아편 중독자수가 3,778명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수는 약 20배, 7만 명 이상될 것으로 추정하였다.<sup>658)</sup> 일제가 공식적으로는 극히 적은 수를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그 20배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제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三一운동당시에 에—다시 주러가는 현상이든것이 몇해지나 다시 만어가는 현상”을 겪어야 했다.<sup>659)</sup>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아편재배지를 늘려나갔다.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과정으로, 또는 빈민구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지원하였다.<sup>660)</sup> 이는 자신의 속셈을 뒤로 감추고 명목상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하였다. 아편사용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아편연맹은 이런 일제의 속셈을 알고 아편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sup>661)</sup>

657) 倉橋正直, 『아편제국 日本』, 176.

658) 菊地酉治, “支那に對する阿片の防止運動,” 『同仁』 第二卷 第二號(1928년 5월), 『아편제국 日本』, 183에서 재인용.

659) “三一운동 당시에난 크게 격감,” 『신한일보』 (1924년 11월 20일).

660) “咸南阿片栽培面積 今年부터 擴張,” 『매일신보』 (1933년 3월 1일). “貧民救濟策으로 阿片栽培獎勵,” 『매일신보』 (1933년 2월 27일); “農家經濟援和策으로 阿片栽培獎勵,” 『매일신보』 (1933년 4월 1일); “今年부터 擴張되는 咸北道阿片栽培,” 『매일신보』 (1933년 5월 26일).

기독교는 모르핀 중독자가 많은 것은 밀매하는 한국인과, 일제의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밀매자를 “악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를 매우 격앙된 어조로 비판하였다. 아편으로 한국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될 때, 민족의 미래는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이다.<sup>662)</sup>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은 “일본제국주의의 전위대”로 부른다고 하면서 아편밀매를 금할 것을 촉구하였다.<sup>663)</sup>

기독교와 언론의 비판 속에서도 일제는 계속해서 아편으로 재정을 확장시켰다. 오히려 1929년부터는 일제는 <아편전매제>를 시행하여, 한국인을 재배지로 또한 사용자로 삼았다. 1933년부터는 아편재배지를 온갖 명목을 붙여 확장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아편을 절제운동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교회는 한 목소리를 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1919년 열린 감리교와 장로회 총회에서 아편 사용금지와 함께, 교인 중에 아편과 관련된 직업 갖는 것을 금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20년부터는 절제운동의 대상에 금주금연운동, 공창폐지 운동과 함께 아편을 포함시켰다.

#### 4. 공창폐지

일부일처제 입장을 고수한 선교사들은 일본의 공창문제나 한국의 축첩문제를 유사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한국의 축첩문제를 처리할 때, 일본의 실례를 참고했다는 점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사실 축첩문제도 공창제도에서 발생한 폐해, 즉 가정과 여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한국의 축첩문제는 일본의 공창제도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공창제도는 성을 매개로 하여 여성을 사고파는 인신매매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여성은 온갖 남성의 성적 대상에 불과하고, 남성에 대한 방어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다.

기독교가 공창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때는,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한다. 3.1운동에서 보여준 공창폐지 주장은, 일제에 의해 들어오는 퇴폐문화

661) “阿片取締強化를 日本에 勸告키로 決定,”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31일).

662) 박연서, “모핀중독자를 잊지홀가,” 『기독신보』 552호(1926년 7월 14일).

663) 春坂, “長春에서 열린 講演會,” 『기독신보』 552호(1930년 8월 27일).

에 대한 저항인 것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1920년대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공창폐지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들어온 퇴폐문화 즉 일제에 의한 공창유입은 절제운동의 대상이었다. 서구세력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는 학교와 교회를 세웠지만, 일제는 먼저 유곽(遊廓)을 세웠다. 유곽을 위해 1년 동안 일제가 쏟는 비용이 7천 4백만 원에 달하였다.<sup>664)</sup> 기독교 절제운동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들이 공창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神學世界』에는 그 원인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성매매업자의 유혹, 둘째로 가정의 환경과 교양부재, 셋째로 좋지 못한 오락과 친구들, 넷째로 경제적 궁핍문제, 다섯째로 개인의 수양부족 등이다.<sup>665)</sup> 이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다. 구세군에서 창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창기가 된 원인을 대략 16가지로 분류하였다. 1) 부모의 무능으로(82), 2) 부모의 병으로(38), 3) 부모의 음주로(15), 4) 부모의 사업실패로(7), 5) 계모의 매매로(8), 6) 업주에게 속아(13), 7) 생계곤란(38), 8) 친족에게 속아(20), 9) 양녀로 가서 매매되어 (8), 10) 계부의 매매로(9), 11) 스스로(2), 12) 이별하여(8), 13) 정부 때문에(3), 14) 형제의 병으로(4), 15) 형제의 불신으로(3), 16) 기타(44).<sup>666)</sup> 이 분류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이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창으로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는 공창으로 성병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폐창운동을 주도했던 오공선은 창기 중 성병 걸린 자가 45/100나 된다고 하였다. 청년 중 성병에 걸린 자는 1922-3년 10/100에서 3년 뒤인 1926년에는 15/100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는 공창이 한국 멸망의 제 1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창폐지는 민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다고 역설하였다.<sup>667)</sup> 또한 미풍양속을

664) 山室大佐, “節制部, 公娼廢止와 基先後策,” 『神學世界』 第九卷 第五號(1924. 9).

665) “公娼廢止의 宗教的 意義,” 『神學世界』 第十九卷 第四號(1926. 12), 4.

666) 山室軍平, “公娼廢止와 基先後策,” 『神學世界』 第九卷 第四號(1924. 8), 83-4. 다른 자료에 보면 수치가 달리 나온다. 1) 부모의 무능(18), 2) 가족의 생계로(120), 3) 부모형제 중 병든 자가 있어(42), 4) 아버지의 사업실패로(7), 5) 아버지가 계모의 손에 농락당해(8), 6)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13), 7) 부모가 없어 친척이 팔아넘겨(20), 8) 양녀로 팔려(8), 9) 사생아가 되어(9), 10) 자신의 품행이 문제되어 임신하여(2), 11) 이혼하여 갈 곳이 없어(8), 12) 정부까닭에(3), 13) 동생들이 많아 집에 있기 싫어서(1), 14) 기타(41). 金昌俊, “賣淫婦와 基督教의 急先務,” 『神學世界』 第十八卷 第一號(1933. 1), 74-5.

667) 吳兢善, “公娼廢止에 對하야,” 『神學世界』 第十一卷 第六號(1926. 12), 109.

헤치며 사회의 도덕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공창이라고 하였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정조를 팔고, 미소를 팔고, 마음을 파는 것은 비윤리적인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sup>668)</sup>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퇴폐문화에 휩쓸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장래를 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민족적인 정신문제이며 또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기독교가 폐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일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기독교의 폐창운동에 대하여, 총독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창을 폐지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자신들은 창기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다. 그 방안으로 1) 자유폐업 조성, 2) 창기외출 자유, 3) 창기대우를 중심으로 연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669)</sup>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태도는 문제원인을 회색시키려는 것에 불과하였다.

기독교가 폐창운동을 하면서 대략 3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폐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법률적 제도마련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일부일처제를 강조한 기독교는, 공창을 “인육장사”, “노비제도”, “지옥생활”로 규정하고 폐창에 앞장섰다. 기독교는 공창폐지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창에 빠지는 여성들을 구하고, 남성들의 도덕성회복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70)</sup> 여자절제회 총무인 이효덕은 공창은 “인간사회의 가장 큰 수치”이기에 빠른 시간에 제거해야한다며 주장하였다. 또한 “깨끗한 조선 신성한 민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창폐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sup>671)</sup> 기독교인들은 공창폐지는 법적인 제도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였다. 실제로 1924년 공창폐지기성회, 선교사연합회, 일본기독교청년회가 연합하여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 총독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1927년 1월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668) 部落의 清潔함에는 病菌의 根源을 根絶식함에있고 社會를 滅絶함에는 風紀의 紊亂을 整復함에있다 ... 人類의 良心이 病들어서 善과惡을 分別치못하고 己慾을따라 鳥獸生活처럼 倫理이니 貞操이니 混雜無紀綱하게 하지내는狀態에 빠지는것처럼 切痛憤慨할것이엿갓거든 하물며 法爲的으로 青春男女들의게 賣笑梅毒하기를 許認하는그아래에잇는 清流들일가보나 嗚呼라 世道가 一非하니 將何爲之 아 ‘公娼’이라는 名詞부터 非道德的이오 非倫理的으로 看做하지안을수업다 公公然하게 娼妓가되란말이나 그러면 密賣淫이니 奸淫이니하는 그것은 法禁한다하면 公娼으로되야가는대에는 免法的이라는 意味갓치보여지노라. “公娼의 害毒,” 『기독신보』 811호(1931년 6월 17일).

669) “公娼制度廢止 政府에서反對,” 『매일신보』 (1927년3월 15일).

670) “社說, 娼妓와 人道問題,” 『기독신보』 677호(1928년 11월 28일).

671) 李孝德, “公창폐지,” 『기독신보』 960호(1934년 4월 25일).

발촉되면서 일본교풍회 경성지부장과 협력하여 공창폐지청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정리하면, 공창폐지 운동이 성공적이 되려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는 교과를 초월하여 폐창을 위한 적극적인 운동과 제도마련을 위한 입법청원을 계속적으로 펼쳤다.

두 번째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다. 자녀들을 도덕적으로 잘 가르쳐야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소홀히 하면, 자녀들은 술, 매음, 찻집, 무도장, 활동사진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공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부모의 교육에서 출발한다.<sup>672)</sup> 공창폐지운동이 중요하지만, 반대급부의 역풍을 맞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자녀교육과 신앙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절제운동의 주도했던 인물인 구세군 군뻘이(山室軍平)가 1924년 2월 경성을 방문하여 공창문제에 대하여 강연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는 가장 먼저 자녀교육과 신앙교육을 하면 몇 년 안에 폐창될 것으로 확신하였다.<sup>673)</sup> 유년주일학교와 하기성경학교 등에서 폐창운동이 일어나면, 그들이 성인될 때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논리이다.<sup>674)</sup> 부모는 자녀들이 성적호기심을 일으킬만한 환경을 개선하고, 자녀들의 성적 역할을 바르게 제시하고, 생식기능에 대하여 소중함을 가르치고, 남녀 간의 성윤리를 바르게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sup>675)</sup>

셋째는 공창에 빠진 여성들에 대한 구제책이다. 폐창운동은 논리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매춘부를 위한 보호시설 설립과 구제였다. 각국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매춘부가 계속 양산되면 사생아들이 속출하고, 성병이 급속히 퍼지고, 자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생각하였다.<sup>676)</sup> 이런 피해를 막고 시대적인 악을 단절하기 위하여 매춘부에 대한 구제책을 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선교회

672) 金泰源, “성과 團體生活,” 『기독신보』 888호(1932년 12월 7일).

673) 山室軍平, “公娼廢止와 基善後策,” 『神學指南』 第六卷 第四號(1924. 10), 149-70을 참조하라.

674) 辛厚承, “公娼廢止運動에 對하야,” 『기독신보』 720호(1927년 7월 20일).

675) “男女性教育에 對하야(一),” 『기독신보』 549호(1926년 6월 16일).

676) 姜明錫, “歐美의 社會事業과 朝鮮의 社會事業,” 『神學世界』 第十一卷 第六號(1926. 12), 103-6.

나 각 절제회는 사창이나 공창으로부터 탈출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77)</sup> 오궁선(吳兢善)은 한 강연장에서 공창에 종사하는 매춘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하루 밤에 2명을 상대해서 10원의 수입을 올린다. 반면 업주에게 2원을 떼인다. 여기에 음식비, 의복비, 화장품비, 약값, 가옥세, 전기료 등으로 거의 대부분을 지출된다. 한명만 상대하면, 생계가 막막하고, 두 명을 상대하면 간신이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창기는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만일 임신하다가 낙태하면, 3개월 후에 다시 공창으로 가야한다. 매춘부는 심신의 고통으로 일생을 살아간다.<sup>678)</sup> 오궁선에 따르면, 매춘 종사자 역시 시대의 희생자인 셈이다. 매춘부는 몸과 영혼을 팔고, 웃음을 팔지만 포주에게만 배를 불러주고, 운명을 조소하고 비관하다 죽는 것이 그 일생이라는 것이다.<sup>679)</sup> 이 여성을 위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어야 폐창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것을 확신하였다.

정리하면, 기독교 절제운동에서 보여 준 폐창운동은 여론을 조성하고 법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일차목표로 하였다. 둘째는 자녀교육과 신앙교육을 강화함으로 공창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는 매춘부를 위한 쉼터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지를 돕는 것이다. 하나 덧붙인다면, 공창폐지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제가 공창을 폐지하는 대신 개인적인 밀매음이나 사창을 이용하도록 묵인한다면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자녀에게 종교와 도덕적 입장에서 성교육을 바로 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며,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인격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만이 쾌락주의로 대변되는 퇴폐문화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sup>680)</sup>

본 장을 정리하면, 1920년대 이후의 절제운동은 교회 내에서는 개인의 회심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회제도나 법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면서 사회를 향하여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절제운동을 확대시켰다.

677) “사회봉사에 관하여, 공창폐지,” 『기독신보』 675호(1928년 11월 14일).

678) 吳兢善, “公娼廢止에 對하야,” 『神學世界』 第十一卷 第六號(1926. 12), 109.

679) 李應淑, “公娼運動의 戰士가되자,” 『神學世界』 第十二卷 第二號(1927. 4), 97.

680) “公娼廢止의 宗教的 意義,” 『神學世界』 第十九卷 第四號(1926. 12), 4-5.

농촌운동, 강연회, 금주선전대회, 의학적인 연구결과 이용, 문서, 현상논문, 웅변대회, 물산장려운동, 저축운동으로 절제운동에 일반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일제에 의해 조장된 퇴폐문화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독교는 금주, 금연, 아편금지, 공장폐지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일반대중과 사회에 절제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전심을 다하였다.

## VII. 일제 문화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1920-1939)3:

### 절제운동의 결과와 평가

1920년대부터 새롭게 전개된 기독교 절제운동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38년 3월 발표된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미성년자깍연금지법>이 있다. 그동안 기독교를 중심으로 계속 촉구했던 절제운동의 열매이기도 했다. 일제는 자국 내에서도 절제운동과 관련된 각종 청원을 무시하고 비토했었다. 일본교풍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절제운동과 청원으로 얻은 결과를 한국 기독교는 목표로 삼았다. 이는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이 일제 강점기 아래서 진행된 한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절제운동이 제한된 범위 내지만, 하나의 법률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본장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기독교가 1920년대 이후 절제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성격을 창출하였다. 일제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운동, 사회주의와 차별되는 복음적인 운동, WWCTU와 초교파적인 연합운동과 함께 한 운동, 기독교 여성의 리더십이 표출된 운동, 기독교 청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운동 등이 함께 어우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곧 1920년대 이후의 기독교 절제운동의 평가이기도 하다.

1920-1930년대의 활발했던 절제운동 단체들이 1938-9년 사이에 일본 각 기독교 단체로 흡수 통합되었다. 그러면서 절제운동이 약화내지 쇠퇴의 길을 겪게 되었다. 절제운동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이전과는 영향력이나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어 들었다. 이 역시 본 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A. 절제운동의 결과

1. 주류세, 연초세, 아편재배, 매춘관련자의 감소

절제운동의 가시적인 결과는 주류, 담배, 아편, 창기의 감소내지는 정체이다. 절제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보여주었던 공통의 현상이다. 주초의 판매량은 주류세와 연초세와 연관되어 있다. 톤링이 1923년 내한하여 절제운동의 붐을 조성할 때부터 여자절제회가 조직되어 활동하던 시기에는 거의 20%정도 감소하였다. <표-4>를 참조하면 주세가 1921년 3,689.2만 엔에서 1922년 4,252.5만 엔으로 급증하였다. 그런데 1923년에는 오히려 3,439.3만 엔으로 감소하였다. 1922년의 주류세를 회복하는 데는 5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한 1930년대 초반 절제운동회가 조성될 시기를 전후로 해서도 3년 정도 감소하였다.

<표-5>를 보면 연초세는 1921년 전매세 포함하여 822만 엔이었다. 1922년에는 699.5만 엔, 1923년 650.9만 엔으로 급감하였다. 또한 1931년 2,387.1만 엔이었던 연초세가 1932년 1,789.3만 엔, 1933년 1,99.8만 엔, 1924년 1,885.1만 엔으로 감소하였다.

IV장 B에서 보듯 1919년 3.1운동에서 아편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었다. 그 결과 1919년과 1920년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1919년 아편면적지가 2,308.2정보에서 1920년에는 94.7정보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생산량에서도 1919년 2,022.94관에서 1920년에는 41.56관으로 역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1921년부터 다시 늘었지만, 1919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sup>681)</sup> 이런 감소는 3.1운동에서 보여준 아편금지운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제의 아편재배는 1919년을 절정으로 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기도 했지만, 1919년의 재배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접객업자도 1920년대 초까지 급증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6>을 보면, 1920년을 정점으로 한국인 접객업자 및 접객업부는 72,762명, 일본인 6,974명이었다. 그러다 1925년에는 한국인이 62,151명이었고, 일본인은 7,050명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인이 약 일만 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감소 현상은 YWCA, 면려회연합회, 여자절제회가 조직되었고 절제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무렵과 겹친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 접객업부나 접객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681) 閔庚培, 『韓國基督教社會運動史』, 193.

것에 비하여 일본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30년 한국인이 55,187명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인은 7,473명으로 증가하였다. 1935년에도 한국인이 50,604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일본인은 9,880명으로 증가하였다.

주류세, 연초세, 아편생산량, 매춘관련자 감소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절제운동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숫자의 감소는 절제운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절제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인 1923-4년과 1932년을 전후로 감소하였다. 특히 아편과 매춘관련자가 192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였다는 것은 기독교 절제운동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 2. <미성년자깅연금지법> 및 <미성년자금주법> 시행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실행을 위해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은 것은 북감리회였다. 북감리회는 1922년 9월 27일 정동교회에서 제 15차 연회를 열었다. 절제(금주금연)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총독부에 청원하여 미성년자에게 금주금연할 것과 공창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미성년자금주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보를 하기 시작하였다. 1929년 6월 제 22차 연회에서도 <소년음주흡연금지법안> 실시운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경성지방 절제부에 위임하였다.

1929년 9월 장로회총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조선주일학교에서 <미성년자음주깅연금지법 시행 동맹회>를 조직하였다. 동맹회는 사무실을 경성중앙교회에 두고 일을 순조롭게 추진하였다. 1930년 5월 총독부에서 동맹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무산되었다. 그러면서 동맹회도 와해되었다. 그러다 1935년 12월 16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모여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구성하였다. 사무실을 예수교서회에 두고 1)제 2세 국민의 영육건강을 숙고하고, 2)금주금연운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촉성회위원은 다음과 같다. YMCA 회장 윤치호, 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인파, 조선감리회 총리사 양주삼, 조선일보사 고문 조만식, 주일학교연합회 협동총무 석근옥, 협성신학교 교수 김창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오금선, 기독교교육협회 회장 유억겸, 구세군조선본영 구세신문 주필 이건영, 연

회전문학교문과 과장 백락준, 절제운동회 회장 채필근, 청년면려회 총무 이대위, 애플 청년회 회장 이항신, 여자절제회 총무 이효덕, 축성회 총무 송상석, 동아일보사 사장 송진우,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조선중앙일보사 사장 여운형, 조선교육협회 회장 유진태, 의사회 회장 심호섭 등이다.<sup>682)</sup>

이와는 별도로 1931년 6월 기독교조선감리회 1회 동부 중부 서부회의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절제부는 교회소속학교에서 주초를 하는 교사를 채용하지 말 것과 성경교과서에 금주금연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과정으로 나누어 실어줄 것을 교육국에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미성년대상으로 금주운동을 철저히 실행키로 하였다.<sup>683)</sup> 1932년에도 절제부는 교회소속학교에서 주초를 하는 교사를 채용하지 말 것을 교육국에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학생들도 금주금연하도록 결정하였다.<sup>684)</sup>

『구세신문』에서는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시행에 대하여 사회 각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一般國民을 酒中에서 救援하여 體質的精神的으로 完全한國民이되게하기는 知識階級에 있는 諸位의 責任이 重大한 줄밋습니다 官公署와 各團體는 人民들의 推仰과 依賴와 信念을받는곳이외다 政府에서 未成年者의 禁酒禁煙法을 施行한다는 報道는 우리社會에 큰 吉報이요 近者에 官廳에서 禁酒와 節制를 宣傳함은 매우 感謝할일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遺憾됨은 一般社會各團體에서 무삼式무삼會歡迎送別又是 哀慶事를 勿論하고 以酒爲主한 이만한바 爲政機關者集會에도 酒敎育機關者에會도 酒機關長集會에도 酒比外集會는 더말할 餘地가 업시酒이니 國民의 法律과 敎育과 責任을맞흔 代表的團體의 會合으로 酒가主된다면 이보다더 不幸한일이업겟습니다 會食에 酒의 代理物로 合當할것을 아직까지 發見치못하여 酒를 全閉할수가업스면 一은 그會에 參與할有望한 靑年들에게 酒를 强勸치말것이니 다시말하자면 新飲酒者를 産出하는 場所가되지안케할것이요 이는 大飲客이라도 三盞以上을 食飲말고 節酒를 施行하여 愚昧한 人民들에게 模範을끼쳐주시면 우리社會의 更生과 報國에 큰貢獻이됨줄밋습니다.<sup>685)</sup>

682) 宋相錫 編, 『韓國節制敎育研究史料集』, 493-4.

683) 『基督教朝鮮監理會 第一回 東部 中部 西部 聯合年會會錄』.

684) 『基督教朝鮮監理會 第二回 東部 中部 西部 聯合年會會錄』.

685) 許坤, “一般社會各團體에 告함,” 第二十三卷 四號 『구세신문』 (1938. 2).

일제는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시행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선일체 차원에서라도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시행을 촉구하였다. 일제는 자국에서 1899년 <미성년자깍연금지법>과 1922년 <미성년자금주법>을 이미 법률로 제정하였다. 또한 절제운동 영향으로 미성년자 연령을 25세로 올리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sup>686)</sup> 반면 한국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심각한 차별이기도 하였다.

<미성년자금주금연금지법실시촉성회>의 실무 총무를 맡은 송상석은 촉성연표를 작성하여 청소년금주금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성의 3개교, 수원의 1개교, 평양의 2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여부를 조사하였다.

<표-8>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를 위한 촉성연표<sup>687)</sup>

| 구 분  |    | 수 원 |     | 평 양1 |     | 평 양2 |     | 경 성1 |     | 경 성2 |     | 경 성3 |     | 총 계   |     |
|------|----|-----|-----|------|-----|------|-----|------|-----|------|-----|------|-----|-------|-----|
| 음주자  | 한국 | 68  | 21  | 170  | 38  | 129  | 40  | 97   | 38  | 146  | 38  | 102  | 30  | 712   | 205 |
|      | 일본 |     | 47  |      | 132 |      | 89  |      | 59  |      | 108 |      | 72  |       | 507 |
| 깍연자  | 한국 | 76  | 20  | 118  | 38  | 81   | 25  | 84   | 22  | 136  | 26  | 77   | 24  | 572   | 155 |
|      | 일본 |     | 56  |      | 80  |      | 56  |      | 62  |      | 110 |      | 53  |       | 417 |
| 주초공용 | 한국 | 45  | 13  | 108  | 35  | 72   | 22  | 60   | 18  | 94   | 17  | 67   | 20  | 446   | 125 |
|      | 일본 |     | 32  |      | 73  |      | 50  |      | 42  |      | 77  |      | 47  |       | 321 |
| 금주자  | 한국 | 116 | 36  | 75   | 18  | 49   | 18  | 79   | 24  | 115  | 27  | 51   | 21  | 485   | 144 |
|      | 일본 |     | 80  |      | 57  |      | 31  |      | 55  |      | 88  |      | 30  |       | 341 |
| 금연자  | 한국 | 108 | 37  | 140  | 40  | 97   | 33  | 92   | 40  | 129  | 42  | 75   | 25  | 641   | 217 |
|      | 일본 |     | 71  |      | 100 |      | 64  |      | 52  |      | 87  |      | 50  |       | 424 |
| 주초공금 | 한국 | 70  | 15  | 68   | 18  | 72   | 22  | 60   | 18  | 73   | 18  | 67   | 20  | 410   | 111 |
|      | 일본 |     | 55  |      | 50  |      | 50  |      | 42  |      | 55  |      | 47  |       | 299 |
| 조사인원 | 한국 | 184 | 57  | 258  | 78  | 178  | 58  | 176  | 62  | 261  | 65  | 152  | 49  | 1,209 | 369 |
|      | 일본 |     | 127 |      | 180 |      | 120 |      | 114 |      | 196 |      | 103 |       | 840 |

\* 각 지역 소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단위는 명)

686) 박연단, “節制의 生活, 『구세신문』 第二十三卷 三號(1937. 2).

687) 宋相錫, “未成年者禁酒禁煙法에 施行을 促成키 爲한 調査要覽表, 『구세신문』 (1938. 2).

조사일은 1937년 6월로, 인원 합계=음주자+금주자, 또는 흡연자+금연자로 나타난다. 다만 숫자상에 약간 오류가 있어 보여 가능하면, 원본의 숫자와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통계를 냈다. 그러나 이 역시 조사자의 숫자입력 오류인지, 인쇄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약간의 숫자 오류가 나타난다.

결국 일제는 1938년 3월 16일 <미성년자음주금지법>과 <미성년자깅연금지법>을 발표하였다.<sup>688)</sup>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일제는 1)교풍의 취지로 시행되는 것임으로 도덕적 견지에서 교정지도하고, 2)학교와 교화단체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3)다수의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법취지를 설명하고 주류와 관계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주고, 4)학생이 참여하는 모임에 위법사항이 추측되더라도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지 말고 사후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4)몰수처분은 속행우려가 분명한 경우에만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sup>689)</sup>

<미성년자음주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각 단체가 환영회나 송별회는 물론 애경사에서 술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관장들은 술모임을 금하고 3배 이상은 금하여 음주로 백성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기독교 절제운동은 당시 교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보편적인 것이었다. 교회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절제운동 대상이었던 술, 담배, 아편, 매춘 관련자의 통계는 절제운동과 밀접함을 보여주었다. 여자절제회나 절제운동회가 조직되고 기독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절제운동을 전개할 때, 각종 통계가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시기적으로 또한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절제운동의 영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938년 3월 <미성년자깅연금지법> 및 <미성년자금

688) <미성년자깅연금지법(법률 제 33호)>

제 1조, 미성년자는 연초깅연을 불허함

제 2조, 위반자는 행정처분으로 깅연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연초기구를 압수함

제 3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깅연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림

제 4조, 미성년자에게 깅연사실을 알고도 관련도구를 파는 자는 10원 이하에 처함

부칙, 명치 33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미성년자음주금지법(법률 제 20호)>

제 1조, 미성년자는 주류음용을 불허함. 친권자는 미성년자가 음용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자도 주류판매를 금함

제 2조,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주류를 음용하면, 주류와 및 관련된 모든 것을 몰수하고 판매자는 폐업들의 행정처분을 함

제 3조, 1조와 2조의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에 처함

부칙, 대정 11년 4월 1일부터 시행중由實軍平, “청년은 불가불 금주하여야하겠다,” 『구세신문』 第二十三卷 三號(1937. 2).

689) “道德指導가 緊要,” 『동아일보』 (1938년 4월 15일).

주법> 시행령은 절제운동의 또 다른 열매이기도 하다. 물론 <금주법>, <아편채배금지>, <공창폐지> 등과 같은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최선을 다한 열매였다.

## B. 문화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 평가

### 1. 일제에 대한 항일의식 고취

당시 절제운동 대상은 분명하였다. 일제에 의해 계속 확산되는 폐단 즉, 음주, 흡연, 아편, 공창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여자절제회 설립에 직접 참여하였고 순회총무로 활동한 바 있으며, 1931년부터는 감리회 절제회에서 순회총무로 활동했던 손메례의 글이다.

이 술을 박멸합시다 우리조선에 새 가정을 건설하려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운명을 개  
터하려면 우리 조선의 새싹을 보라면 먼저 금주함에 있습니다.<sup>690)</sup>

금주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 사회전체의 일이라는 것이다. YMCA 총무를 역임한바 있는 조만식도 절제운동을 “오직 朝鮮을 爲하야, 이 百姓을 爲하야” 전개되는 운동으로 이해하였다.<sup>691)</sup> 또한 술을 오류에 빚대어 “酒는伐性之狂藥이라, 飲酒則 君臣無義하고 父子無親하며 夫婦無別하고 長幼無序하며 朋友無信”라고도 하였다<sup>692)</sup> 이런 이해는 절제운동을 개인의 일로부터 사회나 민족의 일로 끌어 올려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한 절제운동을 민족운동, 민족양심, 민족개혁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690) 손메례, “금주의 필요,” 『기독신보』, 호(1928년 1월 11일).

691) 曹晩植, “基督教人の 生活(二),” 『기독신보』, 호(1935년 9월 18일).

692) 陳星烈, “忠告禁酒而奉主(上),” 『活泉』 第七卷 第二號(1929년 2월), 45; “忠告禁酒而奉主(中),” 『活泉』 第七卷 第四號(1929. 4), 34-6; “忠告禁酒而奉主(下),” 『活泉』 第七卷 第五號(1929. 5)를 참조하라.

그동안 기독교 절제운동 연구물들은 대부분 일제와의 관계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한일합방이후 절제운동은 일제가 수탈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음주, 흡연, 아편사용, 공창문제에 반응하면서 발전하였다. 절제운동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생긴다. 절제운동이 밖으로 표출된 사회적 폐단과 직접 관계되느냐, 아니면 원인 제공자와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여준 절제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독교의 절제운동은 다분히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일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수탈을 일삼았다.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합병 명분조차 없었다. 수탈과정에서 일제는 한국인의 의식을 일깨우기보다는 말살시키려는 시도들을 자행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독교는 절제운동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민족혼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 절제운동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사회 제문제를 변혁시키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내면의 신앙이 외면으로 표출된 것이다. 비록 순수한 신앙적인 양심으로 절제운동을 전개했지만, 문제 원인제공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항거로 여겼다.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했어도, 절제운동 대상이 곧 일제에 의해 자행된 제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기독교 절제운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때로는 방해하고 때로는 폭력으로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결국, 일제는 1935년부터 절제강연회를 법으로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일제는 순수한 신앙적 표현조차도 항일로 이해하고 온갖 방해를 일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둘 사이의 이론적인 구분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구분은 어려운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가 계속 피폐화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절제운동은 문제 원인 제공자와 관계를 지니게 된다. 절제운동이 직접적으로 항일의 수단이든, 순수한 신앙차원이든 일제는 모두를 민족주의적 운동으로 해석하였다. 자신이 이해당사자요,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그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 절제운동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여준 애국충정의 신앙운동이었다.

## 2. WWCTU와 세계적인 연합운동과 연계

WWCTU와 세계적인 초교파운동이 연계되어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 흐름 가운데 기독교 절제운동이 확장되었다. 초교파적 단체인 여자절제회의 조직은 대표적인 경우다. 기독교 절제운동에 여자절제회, 절제운동회, YMCA, YWCA, 엡윗청년회, 청년면려연합회 등이 참여하면서 합중연회를 이루면서 운동을 발전시켰다.

초교파적인 연합운동은 장감연합회와 선교사연합회의 합동으로도 이어졌다. 1923년 3월 장감연합회의회와 재한선교사연합회가 합병하고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를 발족하였다. 목적은 “福音을 傳播하며 社會道德의 向上과 基督教文化의 普及을 計圖함”에 있다.<sup>693)</sup> 연합공의회는 1928년 예루살렘대회<sup>694)</sup>를 계기로 이듬해 4월 8일 조선야소교연합공의회로 다시금 태어났다.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 연합공의회 소속기관의 조건은 복음주의의 단체여야 했다. 총 13개 기관으로 조선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북장로선교사회, 북감리선교사회, 호주장로선교사회, 남장로선교사회, 남감리선교사회, 캐나다연합선교사회, 영국성서공회, YMCA, YWCA 등의 단체가 소속되었다.<sup>695)</sup> 1931년 연합공의회에서는 여자기독교절제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 절제운동에 보조를 같이하게 되었다.

초교파적인 연합운동은 교육의 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 9회 세계주일학교대회가 1924년 6월 9일 성 앤드류공회당에서 열렸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정인파(鄭仁果)는 한국의 주일학교 관리법을 소개한 바 있다. 이 대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의를 하였다. 절제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五, 決議文

儉約禁酒를 完全히함에 對한 件

本大會는 主日學校가 教會의 唯一한 教育機關임을 認하며 主日學校는 毒酒를 斷飲하며 此를 釀造又는 販賣치 못하도록 輿論을 換氣하며 又는 此運動을 持續케 하는 唯一한 要素

693) “두聯合會를 병합하라,” 『기독신보』 380호(1923년 3월 31일).

694) 梁柱三, “예루살렘會議의 特色,” 『기독신보』 657호(1928년 7월 11일).

695) “朝鮮耶蘇教聯合公議會에 對하여,” 『기독신보』 687호(1929년 2월 6일); 梁柱三, “朝鮮耶蘇教聯合公議會에 對하여,” 『기독신보』 683호(1929년 1월 9일).

됨을主張하며 各引導者와 使役者의게 力勸호노니 主日學校를 運用호야 適當호敎訓으로 써 全世界의 禁酒案을 獎勵호는有力호 機關으로使用호기를望호오며 此를 完成키위호야 工課에 適當히 編入호며 完全호 禁酒案이 實行되도록 努力호기를 望호오며 各職員, 敎員及學生의 注意를 起케호야 世界萬邦의 幼年의게 此雄大호 道德及社會運動을 訓練實行함에 勉勵호기를 望호는事<sup>696)</sup>

유일한 교육기관인 주일학교가 절제운동에 앞장서야 하며, 스스로 금주할 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금주할 것을 권해야 한다. 그리고 공과에서 음주문제를 다룸으로 금주가 완전하게 실행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1917년부터 장감연합공의회에서는 주일학교공과에 절제공과를 분기별로 싣고 있었다.<sup>697)</sup> 또한 주일학교가 모이는 곳에서는 절제운동이 이어졌다. 제 4회 전국주일학교대회가 1933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대구에서 열렸다. 대회장인 성경학원 뒤편에 금주선전기가 10여개가 꽂혀있어 금주대회로 생각될 정도였다.<sup>698)</sup> 그만큼 초교파적인 주일학교연합회에서는 절제운동을 중심의제로 다루었다.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WWCTU의 결정적인 영향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것도 그 영향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이 세계 절제운동의 흐름 가운데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족주의적 시각에서만 한국 기독교의 절제운동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분명하게 세계 절제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제운동은 초교파적인 연합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선교단체나 선교사들간의 연합운동이 있었지만, 절제운동을 목표로 한 초교파적인 연합은 처음이다. 초교파적인 연합공의회에서 절제운동을 지속적으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연합회에서도 매분기마다 절제공과를 두기로 하는 등 절제운동 연합에

696) “第九回世界主日學校大會(承前),” 『기독신보』 461호(1924년 10월 8일).

697) “식들에 혼번식은 술, 아편, 담배를 금호기위호야ㄱㄹ찰것,” 자세한 내용은 宋相錫의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70-141, 147을 참조하라.

698) “第 四回 全朝鮮主日學校大會現況, 『감리회보』 第一卷 第十一號(1933년 11월 1일); 1939년 감리교회 주일학교 2월의 주요행사에 따르면, 각부 정기 직원회에서 금주운동에 대한 사항을 토론하고, 각부 예배시간과 공과공부시간에 음주의 해독과 금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주운동가가 될 것을 약속받기로 결의하였다. “主日學校,” 『감리회보』 第七卷 第二十五號(1939년 2월 1일).

참여하였다.

### 3. 기독교 여성의 리더십 표출

기독교 여성들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민족의 행복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매진하였다.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sup>699)</sup> 특히 기독교 여성들은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절제운동이었다. 1923년 YWCA, 1924년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1927년 근우회 등을 통하여 여성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 단체는 모두 기독교 여성이 주도하였고, 절제운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각 단체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중복해서 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독교 여성의 활동 범위가 커졌고, 리더로서의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문제는 누가 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독교는 명확하게 답변해야 했다. 그 답을 YWCA가 출범할 당시 강사로 참석했던 손메례의 강연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독교청년회들 잘리해치못함으로 현급우리사회에 허다한 명목의회가 하도만흔대  
또녀즈기독교청년회라는 또무엇인가하야 처음에는찬성홀스가별노업섯더니 덕, 지, 테(智  
德體) 三교육을 목덕하야녀즈의 도덕과 지식과 테육을 길너준다는 그정신이잇음을듯고  
도로혀열심으로 찬성코저옵니다<sup>700)</sup>

여자절제회 순회총무로 활동했던 손메례는 YWCA 출범에 처음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러 목적 하에 많은 단체가 세워졌는데 YWCA 역시 그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다 생각을 바꾸어 직접 자신이 강사로 참석해서 축하해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이유는 YWCA가 기독교

699) 金活蘭, “朝鮮女子運動의 今後,” 『기독신보』 714호(1930년 1월 1일).

700) “경성녀즈기독교청년회의,” 『기독신보』 388호(1923년 5월 16일).

정신에 입각하여 지덕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건강한 지덕체를 함양할 때, 사회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메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당시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 중에 생활에 규모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육이 중요하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여성의 교육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방종한 생활을 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도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sup>701)</sup>

기독교 여성도 남성처럼 사회의 리더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가정과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조희염(曹喜炎)은 “女子도 男子와 갓치 社會에 地位를 占領할수 잇슴을 못난것은 오직 敎會內에만 잇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여성은 교회에만 안주한 결과로 교회 밖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여성의 지위와 활동이 증대되고 있고, 사회의 선과 악에 대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대표적인 악은 바로 음주라고 지적하였다.<sup>702)</sup> 음주라는 악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음주, 흡연, 아편, 공창 등의 피해에 기독교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여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 밖으로 관심을 쏟으라는 촉구이기도 하였다. 이런 촉구가 기독교 여성들로 하여금 절제운동에 적극적 뛰어 들게 만드는 동력이 된 것이다.

#### 4. 기독교 청년단체의 적극적 참여

1919년 3.1운동이 끝난 이후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3.1운동이후 한국 기독교는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초월적 신비주의고 둘째는 현실적 계몽주의다. 전자는 3.1운동 실패로 내적 신앙체험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대

---

701) 尹貞蘭, “日帝時代 韓國 基督教 女性運動 研究,” 36

702) 曹喜炎, “女子의 敎會의 地位,” 『기독신보』 714호(1931년 1월 1일).

표적인 인물이 김익두(金益斗), 길선주(吉善宙), 이용도(李龍道), 이명직(李明植)이었다. 이들이 주도하는 부흥운동은 일제하라는 현실 속에서 표출된 현실 극복적인 신앙이었다. 반면 후자는 교회 안의 지식인과 엘리트층이 중심이 되어 절제운동, 농촌계몽운동, 청년운동, 문화운동, 문맹퇴치운동, 주일학교운동 등을 주도하였다.<sup>703)</sup> 1920년 이전에 세워진 청년 단체들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후에 세워진 단체들은 사회현실을 목도하며 현실에 적극 참여하였다. 전자가 YMCA와 엡윗청년회이고, 후자가 YWCA와 먼려회와 근우회이다. 이 단체들은 1920-1930년대의 청년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YMCA는 출판사업, 종교사업, 사교(社交)사업, 소년사업, 체육사업, 학생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YMCA는 “사회봉공에 충성심함”<sup>704)</sup>으로 사회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해 나갔다. 특히 1920년 8월 평양 YMCA의 총무였던 조만식(趙晩植)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50여명이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였다. 국산품 애용과 함께 소비절약을 강조한 이 운동에 YWCA, 먼려청년회, 엡윗청년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705)</sup>

기독교 청년단체들은 특히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엡윗청년회는 지부를 결성하는 곳에서는 금주금연운동을 펼쳤다. 청년먼려회는 교단을 대신해서 자체적으로 계독부를 두고 절제운동에 참여하였다. YWCA도 여자절제회 못지않게 절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이들의 적극적인 절제운동 참여가 절제운동에 활력소가 되었다.

## 5. 사회주의와 차별되는 복음주의 운동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대하여 기독교는 초기에 별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민족의게 원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이며”라며 역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sup>706)</sup> 가장 선두에 서서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차별성을 언급하면서

703)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251-6.

704) “社說, 中央靑年紀念,” 『기독신보』 673호(1928년 10월 11일).

705)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281-6.

706) 부위럼, “지금은 부흥할때,” 『기독신보』 584호(1927년 2월 16일).

비판에 앞장섰던 것은 『기독신보』였다. 『기독신보』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의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제한이 있기에 범위를 절제운동으로 한다.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회개혁은 사회주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회주의가 개혁을 외치는데 그 이유가 사회 제도의 불완전함 때문이다. 그들은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근본정신이다.

리상대로 조직된다하여도 그 사회의 주인된 사람의 근본정신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다시 전쟁화할것이다 아모리 공평하게 제도를 곳챌다하드래도 외면생활이 내면덕 생활을 지배할수는 업다 자유덕생활은 언제던지 성격그대로 외면덕생활에 나타나는 법이다 그런고로 제도개혁보다 문제의 근본해결은 예수의 그금언갓치 ‘남에게 대접을 받고저 하는대로 남을대접’할 만한사회의 인물을만들이 몬져할 일이다<sup>707)</sup>

사회주의자들은 제도만 바꾸면 사회가 개혁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외형적인 제도만 고쳐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일차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실례로 김경식(金敬植)은 사회주의 노선에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어느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는 민중사이에서 민중을 위하야 생활하신 위대한인격자”임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sup>708)</sup> 제도개혁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내면적인 도적”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sup>709)</sup> 『기독신보』가 1925년 한해 표어를 “改造! 改造! 社會를 改造하려면 몬져 個心を 改造”로 삼았다. 이에 대한 해석을 3월 25일자에 실었다. “改造! 改造! 무엇을 改造? 勿論 이 社會를 改造함이지 그러나 그보다 더 急先務는 이社會를 改造하려는 者가 몬져 自己몸을 改造해야지.”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사회변혁이 중요하지만, 먼저 개인의 회심이 이

707) 權明主, “講壇, 平和는 올것인가,” 『기독신보』 695호(1929년 4월 3일).

708) 金敬植, “社會主義에서 基督教로 思想을 도리키기까지(一),” 『기독신보』 591호(1927년 4월 6일).

709) 金敬植, “社會主義에서 基督教로 思想을 도리키기까지(三),” 『기독신보』 594호(1927년 4월 27일).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710)</sup> 이것은 전통적인 복음주의 입장이고, 절제운동도 이에 근거하였다.

둘째로 기독교는 사회개혁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sup>711)</sup>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사회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사회적 모순을 고착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는 사회를 개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現代社會에 天主의 存在를 否認하며 教會는 寄生物이라 稱하며 宗教는 迷信이라고 嘲笑하는 이가 不少하다 然이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辯論하여서는 別노히 有益이 업슬터이고 教會는 神靈上 뿐아니라 物質上으로도 人類의 恩人인것을 實地上으로 現出하는 것이 有力할줄안다 그뿐아니라 今日 朝鮮民族의 生活狀態가 社會事業을 要求한다 … 社會에서는 衛生運動, 勞動運動, 小作人運動, 少年運動, 女子解放運動등의 運動이 每日新聞紙上에 報道된다 그러나 그러헌 問題를 가지고 우리耶蘇教會에서는 발서 討議헌것이대 社會에서(或信者中에서도)는 그런問題가 教會에는 關係가업는줄안다 南北監理教會章程을보면(長老教會章程에도 잇슬줄안다) 如左헌 ‘社會信經’이라는 것이다<sup>712)</sup>

기독교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내용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기독교의 사회개혁은 일제에 의해 들어온 폐단과 퇴폐문화를 제거하는 절제운동에서 보여 주었다. 기독교는 “배타주의와 은둔주의”가 아니다.<sup>713)</sup> 기독교와 사회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격이 사회 안에 담겨” 있는 밀접한 것이다.<sup>714)</sup> 사회가 인간의 악으로 가득 찼다면, 기독교는 당연히 사회정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신보』에 “社會問題에 對헌 基督教의 態度를 再考함”이라는 제목으로 1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미국기독교연합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정리한 것인데, 핵심은 “사회개량”이었다.<sup>715)</sup> 사회개량은 사회개혁이며, 또한 절제운동의 목표이며, 방향인 것이다.

710) 崔錫株, “그리스도인의 양면생활(四),” 『기독신보』 857호(1932년 5월 4일); 金0濟, “현하 조선기독교운동의 방향은 어디로(속),” 『기독신보』 843호(1932년 1월 27일); 吳0太, “社會改良은 基督教의 精神,” 『기독신보』 503호(1925년 7월 29일).

711) 張奎明, “基督教는 積極的宗教,” 『기독신보』 507호(1925년 8월 26일).

712) 梁柱三, “今後의 朝鮮耶蘇教會,” 『기독신보』 525호(1925년 12월 31일).

713) 李桓信, “基督教와 社會,” 『神學世界』 第二十一卷 第二號(1936. 5), 28.

714) “社說, 基督教와 社會問題,” 『神學世界』 第十二卷 第六號(1927. 11), 1.

정리하면 기독교는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현실도피주의자 집단이 아니다. 현실을 중시하고 현실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문제를 직시하고 정화시키고, 고치고, 개혁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기독교의 임무인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형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내면의 개혁과 그로 인한 사회의 개혁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며, 복음적인 절제운동의 방향인 것이다.

1920-1930년대 기독교 절제운동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서 평가를 내렸다. 먼저, 기독교 절제운동은 일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형태를 띠었다. 둘째, WWCTU 절제운동과 세계적인 연합운동과 함께 하였다. 셋째, 여성의 리더십이 표출된 절제운동이었다. 넷째, 기독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운동이었다. 다섯째, 사회주의 개혁노선과 차별화시키며 복음주의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다양한 절제운동의 특징은 전국적인 조직망에 의해서, 또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형성 발전되었다.

## C.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의 쇠퇴

### 1.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영향

기독교 절제운동이 1938년을 기점으로 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일제가 한국 기독교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복속시키려는 결과였고, 그 뿌리는 내선일체에 있었다.<sup>716)</sup> 일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자국을 위해 한국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내선일체로서 한국은 일제를 위하여 충신(忠臣)해야 했다. 내선일체의 대상은 기독교도

715) 梅道提, “社會問題에 對한 基督教의 態度를 再考함” 『기독신보』 522호(1925년 12월 9일).

716) 내선일체(內鮮一體)는 일본을 내(內)로, 한국을 선(鮮)으로 보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내선일체론은 일제 측에서는 동화의 논리이며, 한국 측에서는 차별로의 탈출의 논리가 깔려있다. 미나미 지로(南次郎)에 의해 전개된 논리로 중일전쟁을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미나미가 7대 총독으로 1936년 8월 5일 취임하면서, 조선통치목표를 두 가지에서 접근하였다. 첫째는 조선에 천황이 행차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선에 징병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關田節子, 『朝鮮民衆과 皇國化政策』, 李榮娘 譯(서울: 一潮閣, 1997), 125, 159-89.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제일 규모가 컸던 장로교회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아등(我等)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本義)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추(追)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 시국 하에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期)함.

소화(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sup>717)</sup>

신사참배를 더욱 분명하기 위하여 1938년 12월 장로교의 홍택기, 김기창, 감리교의 양주삼, 김종우, 성결교회의 이명직은 일본으로 건너가 이세신궁(伊勢神宮) 등지에 참배하였다.<sup>718)</sup> 이보다 앞서 감리교는 1938년 4월 27일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모든 교회에 발송하였다.

선언서

우리 기독교도는 현재 비상시국에 황국신민으로서 이에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고 황도정신을 발향함으로써 국민총후의 적성을 기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 시행할 것을 선언함

- ① 우리는 시국을 바르게 인식하고 황국일본의 정의와 사명을 자각하여 그 이상을 세계에 선양할 것을 기함
- ② 우리는 거국일치로 국난을 극복하고 더욱 희생 봉공의 정성을 바칠 것을 기함
- ③ 우리는 일본적 기독교에 입각하여 기독교의 대사명을 자각하고 경신(敬神)의 대의를 분명히 할 것을 기함

이상은 쇼와 13년(1938) 4월 25일 서대문 경찰서 계단위에 모여 각 교파 각 기관 대표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결의한 것이다.

쇼와 13(1938) 4월 26일

총리원 백<sup>719)</sup>

717)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27回(1938年) 會錄』, 9.

718)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510.

719) 김승태 편역, “지나사변(중일전쟁)기에 기독교의 동정과 그 범죄에 관한 조사,” 『일제강

내선일체에 뿌리를 둔 신사참배와 황국신민 결의로 한국 기독교가 일본 기독교에 통합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sup>720)</sup> 결국 1945년 8월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이름하에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이 통합되었고<sup>721)</sup> 성결교회는 1943년 5월 재림사상을 이유로 해체되었다.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조직됨으로 연합공의회가 해체되었다.

## 2. 절제운동 단체의 일본기독교 단체로 통합

각 교단의 변질과 일본 기독교단으로의 통합은 절제운동 단체에도 영향을 끼쳤다.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39년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총회에서는 여자절제회(회원 3천명)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3년 동안 매년 500엔씩을 후원하기로 결의하였다.<sup>722)</sup> 이미 여자절제회는 독자적으로 WWCTU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절제회는 1939년 WWCTU로부터 탈퇴하고 일본부인교풍회에 예속되어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조선분회로 활동하게 되었다.<sup>723)</sup> 일본부인교풍회가 1942년 11월 일본기독교단에 가입됨으로 여자절제회도 의지에 관계없이 가입되었다.<sup>724)</sup> YMCA는 1938년 6월 7일 일본기독교청년동맹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8월 9일 정기모임에서 그 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4일에는 일본기독교청년회 조선연맹 제 1회가 Y회관에서 열렸다.<sup>725)</sup> YWCA도

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1910-1945』, 256.

720) 지나사변 발발 3주년을 기념하여, 1939년 7월 7일 한국의 50개 지방연합체와 일제의 연맹총간사 에비사와(海老澤) 목사 가나이(金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일본기독교연맹과 조선기독교연합회는 서로 협력하기로 결의하고 각서를 교환하였다. 神寶長治, “조선에서 기독교 활동,” 『조선』 299호(1940. 4), 84-96.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1910-1945』, 328.

721) 조선총독부, “내선 기독교일체화 운동,” 『조선』 (1938. 11), 57-71,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1910-1945』, 282-4.

722) 1939년 총회에서 크게 두 가지를 결의하였다. 첫째는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만주국에 부녀자기숙사를 짓는데 2천엔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673.

723)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교풍회와 합류,” 『동아일보』 (1939년 6월 21일).

724)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676.

725)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범우사, 1994), 398.

1938년 6월 14일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일본YWCA에 참여하기로 가결하고, 7월 15일 통합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sup>726)</sup> 감리교 엡윗청년회도 1939년 총회 때 해산되었다. 그 대신 1940년 1월 15일 공려회(共勵會)가 조직되었다. 절제운동에 함께했던 여러 단체들이 여자절제회와 함께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도 점점 같은 길을 걸었다. 이전부터 절제운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일제는 내선일체로 기독교 절제운동을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게 되었다.

---

726) 千和淑, 『한국 여성기독교 사회운동사』 (서울: 혜안, 2000), 244-5.

## VIII. 결 론

본 논문은 1884년부터 1939년까지를 범위로 정하고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을 연구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절제운동이 시대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대상도 시대마다 다르게 설정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절제운동이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절제운동 단체들이 합종연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절제운동 성격이나 활동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회심경험을 중시한 복음주의 전통이다.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절제운동 내면에 흐르는 정신은 처음부터 계속 이어졌다. 이런 전제 하에 기독교 절제운동을 살펴본다면 당시의 시대적 역동성을 접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을 마무리 하면서 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논문 전체를 요약하고, 둘째는 이에 대하여 평가하고, 세 번째는 간단하게나마 제언하면서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 A. 요 약

본 논문은 크게 8장으로 분류된다. I장은 서론 부분이고, II장은 배경 부분에 속한다. III장부터 VII장까지 기독교 절제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I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민족운동 중심의 절제운동과는 다르게 세계 기독교 절제운동의 흐름 속에서 연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절제운동의 한계를 설명하고, 19세기 미국의 절제운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절제운동은 음주, 흡연, 연초, 아편, 공창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절제운동의 범위가 협의적이면서 광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 한 것이다.

II장에서는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의 배경으로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과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을 연구하였다. 19세기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

눌 수 있다. 전반기에는 ATU와 워싱턴운동 남성주도로 절제운동이 전개되었다. 후반기는 여성이 절제운동을 주도하며 WCTU를 세우고 운동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WCTU를 급성장시켰던 윌라드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절제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WWCTU를 세웠다. WWCTU에서 파송된 틴링이 한국에 내한하면서 기독교 절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은 WWCTU가 세워지기 전에 WCTU 여자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절제운동을 확산시켰다. 금주회, 동경교풍회, 일본부인교풍회로 이어지는 활동으로 절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금주지부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일본 절제운동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27년의 황주선전대회에서는 동경금주회가 후원을 하였고, 일본 절제운동 결과물인 <창기취체법>이나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은 한국 절제운동의 목표로 삼을 정도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정도다.

III장에서는 한국 기독교 초기 절제운동(1884-1909년)을 다루었다. 기독교 절제운동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전래 이전의 금주운동을 살펴보았다. 이는 기독교 절제운동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그 다음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성향과 일제의 한국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기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악습과 폐습을 대상으로 삼고 그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촉구하였다. 음주, 흡연, 축첩이 그 주요 대상이었다. 초기 기독교는 그 문제가 부흥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것은 1920년대 절제운동을 부흥회와 연관시킨 것의 원형이기도 하였다. 또한 기독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도나 교회법을 세움으로 과거의 악습과 폐단으로부터 단절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전자가 개인의 회심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후자는 교회의 제도와 법규제정에 기반을 두었다.

IV장에서는 일제 무단통치기의 기독교 절제운동(1910-1919년)을 살펴보았다. 이때부터 WWCTU외국지부가 여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다. 무단통치기간에 일제의 수탈과정에서 생긴 주정과 연초의 산업화, 아편재배, 공창확대 등으로 퇴폐문화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절제운동 대상이 한국인의 악습으로부터 일제의 수탈과정에서 형성된 퇴폐문화와 세속화로 점차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지만, 1919년 3.1운동 때에는 일제에 의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단통치기에 생겨나는 문제에 기독교는 전통적인 개인의 복음적인 회심과 교회의 절제운동관련 법규제정을 체계화시키면서 대처하였다. 그러다 3.1운동 때에는 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공창과 아편을 문제 삼았다. 선교사들은 한발 더 나아가 공창, 아편, 술집, 청소년흡연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IV장의 특징은 절제운동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사회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V장에서는 일제 문화통치기의 절제운동(1920-1939년)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가 시대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겪어야 했다. 이전보다 심해진 일제에 의한 퇴폐문화 유입,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운동, WWCTU와 세계적인 초교파 연합운동, 여성들의 사회문제에 부응하고, 여러 기독교 청년단체가 세워지는 것을 기독교는 목격했다.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절제운동단체인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가 세워지고, YWCA와 근우회와 청년면려회가 조직되고, 기존의 YMCA와 애플청년회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힘을 합치면서 절제운동에 참여하였다.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애플청년회, 청년면려회가 교파적이라면,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YWCA, 근우회 등은 초교파적인 단체다.

VI장에서는 일제 문화통치기(1920-1939년)의 기독교 절제운동 전개방법과 내용을 다루었다. 이 기간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독교 절제운동의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기독교 절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방법들 즉, 농촌운동, 강연회, 선전대회, 의학적 연구자료 이용, 정간물과 자료집, 물산장려운동, 저축운동 등이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선전대회는 이전에 없던 방법으로 하나의 축제처럼 보였다. 큰 깃발을 앞세우고 악대가 그 뒤를 따르면서 금주가를 부르며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시가를 행진하였다. 저녁에는 상황에 따라 연극이나 창극이 있었고, 강연회가 열렸다. 이런 방법들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일반대중에게 절제운동이 다가서도록 큰 몫을 하였다. 그리고 절제운동 대상도 일제와 관련된 것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폐습과 악습에서 일제의 퇴폐문화로 그 대상이 넘어간 것이다.

VII장에서는 1920-1930년대 기독교 절제운동의 결과와 평가를 다루었다. 절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때인 1923년 전후와 1932년 전후로 해서 주류세, 연초세, 아편재배량, 매춘관련자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절제운동가들에게는 고무

적인 것으로 각종통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1938년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시행은 절제운동의 또 하나의 성과였다. 비록 내선일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운동을 벌였고 청원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기독교 절제운동은 일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운동, WWCTU와 세계적인 연합운동과 함께한 운동, 기독교 여성이 리더십이 표출된 운동, 기독교 청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운동, 사회주의와 차별되는 복음주의 운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절제운동의 성격이었다. 절제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1938년과 1939년을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다른 기독교교단처럼 절제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가 일본 기독교단체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러면서 절제운동이 점차 쇠퇴의 길을 가게 되었다.

## B. 평 가

필자는 이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시대마다 성격이 다르고 방법을 달리했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절제운동 내면에 면면히 흐르는 복음주의 전통이다. 개인의 회심을 중시하고, 삶의 변화와 함께 사회개혁의 주체로 참여케 하는 바로 그것이다. 각 시대마다 개인의 회심과 교회제도 및 법규를 마련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과 일본 기독교 절제운동에서도 이런 복음주의 전통이 나타나 있었다.

두 번째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세계 절제운동과 초교파 연합운동과 연계되어 있다. 세계 절제운동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그 지류이다. 독자적인 운동이 아니라 WWCTU와 연계된 운동이다. 이것은 절제운동을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토지에만 머문다면 절제운동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시작부터 WWCTU와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주선전대회 방식이 미국 WCTU의 것을 닮았다. WCTU 회원들은 절제운동을 펼칠 때 찬송가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고 전단지를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이 금주선전대회다. 박람회 기간 이용, 회원의 흰색리본달기, 과학적인 자료이용 등은 대표적인 WWCTU 방법이다. 또한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이 주요 목표로 삼은 음주, 흡연, 아편, 공창은 WWCTU가 선교지에서 제거해야할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또한 세계적인 연합운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관가하면 안될 것이다. 여러 단체들이 절제운동에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에 연유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사회개혁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기독교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사회악과 폐습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것은 사회개혁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절제운동이었다. 또한 일제의 수탈과정에서 퇴폐문화와 세속화가 물밀듯 한국으로 들어올 때 기독교는 여기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는 절제운동이라는 도구로 대응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사회개혁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절제운동의 대상이 일제에 의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국의 절제운동과 대별되는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근우회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조직되었기에 절제운동도 그 흐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비록 순수한 의도에서 참여했을지라도 일제는 자신들이 원인제공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절제운동은 민족주의적 운동이었다.

다섯 번째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기독교 여성들의 역할 증대와 맞물려 있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1919년 3.1운동, 1920년대 농촌운동·청년운동·절제운동 등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 여성들이 활동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자절제회와 YWCA의 설립은 그것을 잘 대변해 준다. 그동안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유학중 해외 건문을 넓힌 기독교 여성들이 서서히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실력을 쌓은 여성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절제운동을 주도하였다. 절제운동으로 기독교 여성들은 리더십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다.

여섯 번째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기독교 청년단체가 참여함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1907년 물산장려운동, 1919년 3.1운동, 1920년 물산장려운동 등에서 보여준 공통점은 청년단체인 YMCA가 관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20년대에 YMCA, 엡윗청년회, YWCA, 청년면려회는 각 지역이나 교회

에 지부를 조직했다. 각 청년단체들은 그곳에서 다른 단체와 연계하거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쳤다. 그 중의 하나가 절제운동이었다. 때로는 여자절제회와 연계하여 절제운동을 함께하기도 하였다.

일곱 번째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기독교는 절제운동을 전개할 때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지 않았다. 특히 1920년대부터 펼쳐진 절제운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연극, 창극, 시, 소설낭독, 웅변, 금주가 등이 동원되었고, 때로는 금주관련 현상공모를 하였다. 정간물, 신문, 절제운동 관련서적이 발간되었고, <금주호>같은 특집기사가 정기적으로 편집되었다. 수백 명이 시내를 순회하며 금주가를 부르고, 강연회로 교육을 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였다. 장날, 단오절, 추석 등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 금주선전대회를 열었다. 당시 특별한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 절제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절제운동 대상이었던 술, 담배, 아편, 공창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매춘부에 대한 배려이다. 기독교는 매춘부 역시 시대적인 피해자로 보았다. 그들이 공창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어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들이 기거할 곳과 자립할 정도로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매춘부가 다시 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또한 남성들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들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아쉬운 점은 통합된 기독교 절제운동단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자절제회가 비록 초교파적으로 세워졌지만, 감리교여성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단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로교 남성 중심으로 절제운동회 영시 교파를 뛰어 넘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에 힘을 더욱 규합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일본교풍회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20년대부터 연합을 넘어서 통합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에라도 협력을 넘어서 통합하여 절제운동이 전개되었다면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절제운동을 교회성장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못한 점이다. 당시 절제운동이 교회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교회성장이 절제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기회가 주어지는 다양하게 상관성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이다.

## C. 제 언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분명한 좌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는 분명히 방향을 잃은 거함과 같은 꼴이다. 좌우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지역의 깊은 골, 심각한 빈부격차, 정치의 혼란, 경제의 혼란 등으로 한국사회는 헤매고 있다. 이 사회를 향하여 교회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물론 사회를 향한 교회의 외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회는 그 외침을 안 듣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에 좌표를 제시하기 전에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삶으로서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지만, 필자는 그것을 복음주의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고 싶다. 한 사회의 개혁과 변혁은 제도적 변화로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개혁과 변혁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결과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칼이 누구에 손에 있느냐와 같은 셈이다. 한국 사회의 변혁과 개혁을 주창하지만, 그들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복음주의 전통이 한국 교회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복음으로 개인이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고, 그가 먼저 자신의 변혁시키고, 사회개혁의 한 예로 자신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로부터 사회의 변혁을 꿈꾸어야 한다. 초기 기독교가 숫자상으로 적었을지라도 전통적인 악습과 일제에 의한 퇴폐문화를 제거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것은 교회 변화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근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보여준 실제적인 단면이기도 하다.

셋째로, 복음주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 기독교 절제운동이 전개될 때, 일반인들은 교인들이 금주금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자신이 교인이 되려면 금주금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만큼 개종

전과 후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분명한 단절이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교인들에게 과거의 악습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기를 꺼려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 중 25% 정도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외쳐야 한다. 과거의 악습으로부터 단절하고 돌아설 것을.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분명히 다른 모습을.

넷째로, 교회는 시대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 예를 들어 인터넷의 음란물이 있다. 매일 쏟아지는 스팸메일에 짜증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며칠 만에 메일을 열어보면 수십 개를 넘어 백여 개가 훌쩍 넘은 경우가 적지 않다. 내용도 대부분 음란물과 관계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음란물은 쉽게 노출되어 있다. 과거 공장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음란물에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 늘 당면한 문제 앞에 교회는 너무나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NGO나 여타 사회운동단체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역할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뒤로 물러서 침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전통적인 복음주의에서 보여 준 것처럼, 교회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교회는 사회문제에 추상적이기 보단 구체적으로 또한 실제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절제운동관련 강연회의 경우다. 효과적인 강연회는 초청된 강사의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였다. 먼저 선전대회를 실시하되 선전깃발, 악대, 전단지, 포스터, 금주가를 동원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그 후엔 모여든 청중을 위하여 절제관련 연극 등을 보여주었다. 강연회의 백미는 역시 초청된 강사의 강연이었다. 강사는 다양한 과학적 통계나 의료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절제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치밀한 강연회로 절제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때로는 감시하러 온 경찰까지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여섯째로, 교회는 절제운동을 위하여 관련 제도와 법규를 만들고 엄격하게 실행하였다. 또한 단순한 교회운동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기독교 절제운동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입법 활동 결과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일제하라는 시대적인 상황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

나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미성년자깍연금지법>과 <미성년자금주법>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 법의 시행으로 미성년자로부터 음주와 연초를 합법적으로 멀리 할 수 있었다. 교회가 사회문제에 참여할 때,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 협력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문제 참여가 법률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 부 록

### <아버지의 금주><sup>727)</sup>

1. 해는 저서 어두운데 아버지는 어디가고  
술마시고 계시는가 답답하기 짝없네  
(후렴) 오 나의 아버지여 살님은 어이해  
쌀도나무도 하나없이 나홀로 울고있네
2. 추운겨울 춥다하고 술마시고 도라오네  
신작노에 너머저서 한밤을 딸각새네
3. 먼동틀때 아버지는 우스스스 일어나서  
저적저적 차자오니 그몸이 쇠약했네
4. 사랑하는 내아버지 술의독기 받지말고  
천부주신 귀체로써 국가위해 일함시다

### <금주 금연가><sup>728)</sup>

1. 아니아니 못먹어요 독-한 술을  
아니아니 못피워요 독-한 그담배  
금주와 금연은 살길이야요
2. 뒤집오빠 술마시고 드-러오더니  
웁강탱강 가장 집물때-려부셔요  
얌전한 색시도 올려노아-요

---

727)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제 19회 전국대회,” (1957년 4월 17-8일).

728)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제 19회 전국대회,” (1957년 4월 17-8일).

3. 앞집 아저씨 담배피고 잠-을자다가

아니꺼진 담뱃불에 집-이부터요

온집을 다태워 재가되-었엇소

4. 우리엄마 우리보고 금-주하라고

우리언니 오빠보고 금연하라고

가르켜 준것이 고마웠지요

<금주가 1>(찬송 486장)

1.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입에 대지마라

건강지려 손상하니 천치될가 늘두렵다

(후렴) 아~ 마시지마라 그술 아~ 보지도마라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2. 패가망신될 독주는 빗도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야는 일전한꾼 안쓰려네

3. 전국술갑 다합하여 곳곳마다 학교세워

자녀수양 늘시키면 동서문명 잘빛내리

4. 천부주신 네재능과 부모님께 받은귀체

술의독기 받지말고 국가위해 일할지라

<금주가 2>729)

1. 금수강산 동포들아 술을입에 대디마오

건강지력업서지니 텃치될가 두려옵다

(후렴) 아마시지마오 그술보지도마오

그술조선스회보전키는 금주함에 잇느니라

---

729) “禁酒歌,” 『神學指南』 第五卷 第四號(1923년 10월), 166.

2. 패가망신 흥술은 빗도내서 마시면서  
    즈너교육으느일은 일전 혼푼 안쓰려네
3. 전국술갑 모도합해 곳곳마다 학교세워  
    즈너수양식하이먼 동서문명 지지안네
4. 런부넵끼밧은지능 부모넵끼밧은귀테  
    술의독끼밧지말고 국가위해 일합세다

<금주가 3>730)

1. 무궁화동산에 한배임 자손  
    주사청루에 남용과 랑비를  
    절검절약에 노력다하고  
    살길개척토록 운동하세
2. 허영싱팔린 공창과 사창  
    우숨파리에 시들은 자매들  
    정의인도로 건져내여라  
    새생활하도록 운동하세
3. 삼천리의 큰집열세  
    식구가 풍족한 살림퍼 노케될 그때  
    즐거운노래 한껏하리라  
    축하하세 절제회 만만세

---

730) 『기독신보』 860호(1932년 5월 25일). 대표적인 금주가는 밀러부인이 만든 것이고, 절제회가로는 감형준이 만든 것이 있다.

<금주가4>731)

- 一. 술을 마시고서 만스를 이즈매  
    그대의 압길이 적악하고나  
    부모님은 근심하고 가삼을 치는대  
    쳐죽는 날마다 슬픈눈문로
- 一. 그대는 어대서 술에 잠겨잇는가?  
    때마다 기다리고 잇는 그쳐?  
    해가지고 저문날에 취하야오는지  
    흰옷에 젖은흙는 이 웬일인가
- 一. 새이라사러라 취한자들아  
    한잔두잔에 속지를 말고시  
    이신문 자세히 읽어보시고  
    술병과 술잔을 장사지내게

<禁酒詩歌>732)

술~ 너다려못노니  
너가과연 누구의게 지은바되엿스며  
어느때브터 생기엇느냐  
사람마다 너를 용서한다하면  
이세상은전부 멸망의디태에서하엿슬거시다  
사라마다데일홈을다아니  
네일홈이귀하고아름다운연고나  
네일홈이귀하고아름답지못하것만은

---

731) “禁酒歌,” 『구세신문』 第十一卷 第三號(1925년 3월), 4.

732) 崔用鉉, “禁酒詩歌,” 『구세신문』 第十三卷 第五號(1927년 5월).

잊지하야온세상이 네일흔을 아느냐  
 너는도적중에 도상도적이오  
 원슈중에도 괴슈의 원슈로다  
 아~술아 너다려뭇노니  
 네가몇나라를  
 몇사회를  
 몇가정을  
 몇사람을  
 멸망의자리로인도하였느냐  
 네가필경은 우리손에서  
 박살을 당할터이니  
 만일네가  
 구세군주마로 벌대를슬허하거든  
 이세상에서멀리떠나  
 우리인생의게  
 찾아와 온유가 오게하라

<감리회 50주년기념 연극대본><sup>733)</sup>

場所 빠고다 公園

幕이 열리자 先生과 學生 登場

學生A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先生님, 난 여태도 가슴이 똑딱그러요.

學生 B-D 나두요.

先生 아닌게 아니라 나두 꽤 놀랐다.

學生 C 난, 꼭 폭팔물이 터지는 줄로만 알았구먼.

學生 D 그리게, 별안간 팡一하는데 아휴....

---

733) “兒童劇, 基督教朝鮮監理會 宣敎五十週年,” 『감리회보』 第二卷 第五號(1934년 5월 10일).

(중략)

學生A 선생님 빵구한 바퀴를 떼지않고, 뒤에 달고 다니든 성한 바퀴와 바꾸어 달든데요...

先生 마찬가지로 빵꾸한 바퀴대신 성한바퀴를 대었으닌간....

(酒酣軍 곤드레 만드레하여 登場)

學生C 先生님 저기 술취한 사람와요.

(學生들 무섭다고 우 일어선다)

酒酣 (비딱거름으로 들어오며) 뭐야... 뭐야... (팔을 걷으며)해 보자. 나두 술먹을 돈이 있어 술한잔 사주고 재세야, 나두 우리집을 팔면 술값이 듬뿍 생긴다. 뭐야...(한편 모퉁이에 가서 너머진다)

(중략)

學生A 아하, 이사람두 빵구했다고나!

學生B 뭐－ 빵꾸! 사람두 빵꾸하나?

先生 그래 빵꾸다. 죄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빵꾸가 된 것이다.

(중략)

先生 정말 빵구천지란다. 이세상에는 술로 인하여, 아편으로 인하여, 또는 무서운 죄로 인하여 빵꾸된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많단다.

(중략)

小隊長 우리를 세상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나?

軍一 (한 거름 나서서) 네 세상사람들이 우리를 예수꾼이라고 부릅니다.

軍長 어째서?

軍五 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배우고 따르는 까닭입니다.

軍二 그뿐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빵꾸난 사람, 빵꾸난 사회를 고치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軍七 그뿐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빵꾸내고 사회를 빵꾸내는 술 아편 모든 죄악을 박멸하는 까닭입니다.

<금주 전단지 내용><sup>734)</sup>

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놀라지 맙시다

조선인에서 일년간 소비되는 술값이 팔천삼백사십이만구천일백칠십원이외다  
우리민족 한사람의 생활비가 일년간 이백원이라고 가당하면 사십일만칠천일백  
사십오인의 일년생활비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사실을 우리는 그저볼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생활난으로 인하여 해마다 고국을 떠나 외지에 류리  
방황하는 동포와 주립을 참지못하여 자살하는 형제들을 다함하여도 자살하는  
형제들을 다함하여도 전민족의 오십분의일이 못된다 그러나 일년간 소비되난  
술값은 전민족의 오분의일의 일년간 생활비가 되고도 남는다

그러면 일년간만 술을먹지안는다할지라도 능히 생활난에 빠진 형제를 오십년  
간 구제할수 있다 그래도 술을 마시렵닛가?

---

734) “禁酒 ‘빠라’宣傳,” 『기독신보』 623호(1927년 11월 16일).

## 참고 문헌

### <정간물>

- “各地禁酒宣傳.”『감리회보』 第三卷 第三號(1935년 3월 10일).
- “公州금주단연선전.”『감리회보』 第二卷 第三號(1934년 3월 10일).
- “九沙坪엠편主催로 禁酒講演.”『감리회보』 第二卷 第二號(1934년 2월).
- “石陽엠편青年敎養部主催로 禁酒斷煙大講演會.”『감리회보』 第二卷 第七號(1934년 7월 10일).
- “石陽엠편青年敎養部主催로 禁酒斷煙大講演會.”『감리회보』 第二卷 第七號(1934년 7월 10일).
- “水原地方, 信島里敎會禁酒禁煙會.”『감리회보』 第三卷 第四號(1935년 4월 10일).
- “神學世界 五月號.”『감리회보』 第二卷 第五號(1934년 5월 10일).
- “엠편會欄, 禁酒講演.”『감리회보』 第三卷 第四號(1935년 4월 10일).
- “엠편會欄.”『감리회보』 第二卷 第一號(1934년 1월 1일).
- “엠편禁酒宣傳.”『감리회보』 第三卷 第二號(1935년 2월 10일).
- “龍井市禁酒宣傳旗行列.”『감리회보』 第二卷 第七號(1934년 7월 10일).
- “人事.”『감리회보』 第二卷 第五號(1934년 5월 10일).
- “第四回 全朝鮮主日學校大會現況.”『감리회보』 第一卷 第十一號(1933년 11월 1일).
- “朝鮮女子基督教節製會總會.”『감리회보』 第一卷 第七號(1933년 7월 10일).
- “主日學校.”『감리회보』 第七卷 第二十五號(1939년 2월 1일).
- “地方欄, 洪川地方.”『감리회보』 第三卷 第三號(1935년 3월 10일).
- 임경한. “地方欄, 洪川地方.”『감리회보』 第三卷 第三號(1935년 3월 10일).
- “검주.”『구세신문』 第二十一號(1911년 12월 1일).
- “계훈비설(戒訓比說), 단번에 끈흘일.”『구세신문』 제 2권 제 18호(1914년 11월 1일).
- “교육비천오백만원 주초비일억이천만원.”『구세신문』 第三卷 第二十號(1934년 3월).

“괴담.” 『구세신문』 제 2권 제 4호(1913년 9월 1일).

“담음흡이가흡.” 『구세신문』 제 8호(1910년 10월 1일).

“담배의 독은 인명을 살해함.” 『구세신문』 제 2권 제 14호(1914년 7월 1일).

“담배의 악영향.” 『구세신문』 第 三卷 第 二十號(1934년 3월).

“독주(毒酒).” 『구세신문』 第 五卷 第 十三號(1927년 5월).

“병스단연.” 『구세신문』 제 5호(1910년 7월 1일)

“서약서(誓約書).” 『구세신문』 第 五卷 第 十三號(1927년 5월).

“연초는 인명을 살해하는 독의뭉치.” 『구세신문』 제 2권 제 18호(1914년 11월 1일).

“六千圓의 大金.” 『구세신문』 第 三卷 第 二十號(1934년 3월).

“飲酒家は.” 『구세신문』 第 三卷 第 十四號(1928년 3월).

“酒는 家庭의 破壞者.” 『구세신문』 第 五卷 第 十三號(1927년 5월).

“흡연하는대 독과해가 유흔실증(實證).” 『구세신문』 第 四卷 第 十二號(1918년 12월 1일).

金永義. “禁酒할 決氣가 잇느냐.” 『구세신문』 第 三卷 第 二十一號(1935년 3월).

리의춘. “술은 사람의 원수라.” 『구세신문』 제 3권 제 8호(1916년 3월 1일).

박연단. “節制의 生活.” 『구세신문』 第 二十三卷 三號(1937년 2월).

宋相錫. “未成年者禁酒禁煙法에 施行을 促成키爲한 調査要覽表.” 『구세신문』 (1938년 2월).

시생중由實軍平. “청년은 불가불 금주해야하겠다.” 『구세신문』 第 二十三卷 三號 (1937년 2월).

『그리스도 신문』 (1901년 10월 3일).

“담배.” 『그리스도신문』 (1906년 5월 17일).

“담배를 그르치는 일.” 『그리스도 신문』 (1906년 1월 18일).

“아편 금할론.” 『그리스도신문』 제5권 14호(1901년 4월 4일).

“장로회 공의회 일기.” 『그리스도 신문』 5권 40호(1901년 10월 3일).

“家庭과 性教育(三).” 『기독신보』 874호(1932년 8월 31일).

“監理會通信.” 『기독신보』 199호(1919년 10월 1일).

“강촌교회통신.” 『기독신보』 663호(1928년 8월 22일).

“改造.” 『기독신보』 485호(1925년 3월 25일).

“건강의 권도(健康權度)인 금주.” 『기독신보』 695호(1929년 4월 3일).

“結核에 對한 禁煙” 『기독신보』 518호(1925년 11월 11일).

“경성녀중기독교청년회의 조직과 그의첫소리.” 『기독신보』 388호(1924년 5월 16일).

“公娼의 害毒.” 『기독신보』 811호(1931년 6월 17일).

“교육비와 술담배값.” 『기독신보』 657호(1930년 6월 4일).

“敎會聯合.” 『기독신보』 686호(1930년 8월 27일).

“敎會聯合의 利益.” 『기독신보』 621호(1927년 11월 2일).

“禁酒禁煙斷煙運動” 『기독신보』 759호(1930년 6월 20일).

“禁酒斷煙은 國家文明富強의 基礎.” 『기독신보』 236호(1920년 6월 16일).

“禁酒談叢, 술먹는녀자.” 『기독신보』 460호(1924년 10월 1일).

“禁酒談叢, 폐병에대항주의.” 『기독신보』 462호(1924년 10월 15일).

“금주의 필요.” 『기독신보』 705호 (1929년 6월 12일).

“금주회의강연.” 『기독신보』 323호(1923년 5월 23일).

“基督教勉勵會聯合創立總會.” 『기독신보』 472호(1924년 12월 24일).

“남북감리교합동결의.” 『기독신보』 754호(1930년 5월 21일)

“男女性教育에 對하야(一).” 『기독신보』 549호(1926년 6월 16일).

“녀자런합절제회.” 『기독신보』 725호(1929년 10월 31일).

“農家經濟援和策으로 阿片栽培獎勵.” 『매일신보』 (1933년 4월 1일).

“斷煙同監會.” 『기독신보』 235호(1920년 6월 2일).

“斷煙會貯蓄.” 『기독신보』 563호(1926년 9월 22일).

“담배독의 주장되는 징후는?” 『기독신보』 863호 (1932년 6월 15일).

“담배의해독.” 『기독신보』 623호(1927년 11월 16일).

“담배피는것이 얼마나 해로운가?” 『기독신보』 861호(1932년 6월 1일).

“두聯合會를 병합하야.” 『기독신보』 380호(1923년 3월 31일).

“甬正교회금주선전.” 『기독신보』 692호 (1929년 3월 13일).

“만국기독교청년면려회(一).” 『기독신보』 387호(1923년 15월 9일).

“萬國基督青年勉勵會 第一回全朝鮮大會順序.” 『기독신보』 460호(1924년 11월 26일).

“勉勵, 엽읏, 青年會消息.” 『기독신보』 718호(1929년 9월 11).

“勉勵青年會禁酒運動.” 『기독신보』 749호(1930년 4월 16일).

“면려회련합회총회.” 『기독신보』 660호(1928년 8월 1일).  
 “미국에서 금주훈 첫주일 형편.” 『기독신보』 205호(1919년 11월 12일).  
 “미성년자를위하야.” 『기독신보』 . 803호(1931년 4월 1일).  
 “社說, 基督教의 根本精神.” 『기독신보』 540호(1926년 4월 14일).  
 “社說, 敎派間의 協同을 必要.” 『기독신보』 916호(1927년 11월 28일).  
 “社說, 禁酒와 基督教.” 『기독신보』 951호(1930년 4월 30일).  
 “社說, 禁酒運動에 際會하야 一言함.” 『기독신보』 913호 (1933년 5월 31일).  
 “社說, 禁酒運動의 意義.” 『기독신보』 899호 (1933년 2월 20일).  
 “社說, 靑島聯合庭球大會.” 『기독신보』 671호(1928년 10월 17일).  
 “社說, 長監合同에 관한 諸家의 意見을 聽取하고.” 『기독신보』 687호(1929년 2월 6일).  
 “社說, 中央靑年紀念.” 『기독신보』 673호(1928년 10월 11일).  
 “社說, 娼妓와 人道問題.” 『기독신보』 677호(1928년 11월 28일).  
 “社說, 娼妓와 人道問題.” 『기독신보』 677호(1928년 11월 28일).  
 “사회봉사에 관하야, 공창폐지.” 『기독신보』 675호(1928년 11월 14일).  
 “宣敎師團의 重要決議.” 『기독신문』 41호(1923년 10월 17일).  
 “서양인련합절제회총회 금주운동을대대덕계획.” 『기독신보』 626호(1927년 12월 7일)  
 “孫女史의 禁酒講演.” 『기독신보』 573호(1926년 12월 1일).  
 “煙草의 害毒.” 『기독신보』 975호(1934년 8월 8일).  
 “五十週年紀念을 마지하난 勸勵運動의 昨今.” 『기독신보』 790호(1931년 1월 18일).  
 “長監合同에 對하야.” 『기독신보』 686호(1929년 1월 30일).  
 “全國의 禁酒禁煙運動.” 『기독신보』 379호(1923년 3월 14일).  
 “절제운동.” 『기독신보』 792호(1931년 1월 28일).  
 “節製會消息.” 『기독신보』 750호(1930년 4월 23일).  
 “節制會組織과 講演會.” 『기독신보』 529호(1929년 11월 27일).  
 “第九回世界主日學校大會(承前).” 『기독신보』 461호(1924년 10월 8일).  
 “第一回全朝鮮勸勵會四年大會.” 『기독신보』 978호(1934년 8월 29일).  
 “朝鮮基督教 節制運動會發起人.” 『기독신보』 860호(1932년 5월 25일).  
 “朝鮮基督教節制運動會 第二回定期總會概況.” 『기독신보』 940호(1933년 12월 6일).  
 “조선녀자기독교절제연합회 統計比率.” 『기독신보』 856호(1932년 4월 27일).  
 “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에 對하야.” 『기독신보』 687호(1929년 2월 6일).  
 “朝鮮基督教節制運動會 第二回定期總會概況.” 『기독신보』 940호(1933년 12월 6일).

“조선녀자기독교절제연합회 統計比率.” 『기독신보』 856호(1932년 4월 27일).

“朝鮮耶蘇教聯合公議會에 對하야.” 『기독신보』 687호(1929년 2월 6일).

“조선녀자기독교절제회활동.” 『기독신보』 472호(1924년 2월 24일).

“창기와 인도문제.” 『기독신보』 (1928년 11월 28일).

“蓄妾에 對한 나의관.” 『기독신보』 465호(1924년 11월 5일).

“評淸林림.” 『기독신보』 171호(1919년 3월 12일).

“홍성지방 절제강연.” 『기독신보』 746호(1930년 3월 26일).

“YWCA 十二주년창립기념식 新會館奉獻式盛況.” 『기독신보』 969호(1934년 6월 27일)

權明主. “講壇, 平和는 울것인가.” 『기독신보』 695호(1929년 4월 3일).

金0濟. “현하조선기독교운동의 方向은 어디로(속).” 『기독신보』 843호(1932년 1월 27일).

金敬植. “社會主義에서 基督教로 思想을 도리키기까지(一).” 『기독신보』 591호(1927년 4월 6일).

———. “社會主義에서 基督教로 思想을 도리키기까지(三).” 『기독신보』 594호(1927년 4월 27일).

金京河. “反基督教運動에 鑑하야 우리 敎人の 自省을 促함.” 『기독신보』 527호(1926년 1월 13일).

金泰源. “性과 團體生活.” 『기독신보』 888호(1932년 12월 7일).

金活蘭. “朝鮮女子運動의 今後.” 『기독신보』 714호(1930년 1월 1일).

김태원. “금주운동의선구(先驅) 푸란시스. 이. 윌나드.” 『기독신보』 631호(1928년 1월 11일).

노불부인. “금주.” 『기독신보』 66호(1917년 3월 7일).

———. “세계녀자기독교절제회문답.” 『기독신보』 471호(1924년 12월 17일).

노튼민. “禁酒講話, 술마시는 습관에서 金주를 벗어나라.” 『기독신보』 575호(1926년 12월 15일).

———. “술은 자제력을 약하게 함.” 『기독신보』 540호(1928년 4월 14일).

로해리. “절제부, 성경상으로본 술.” 『기독신보』 489호 (1925년 4월 24일).

———. “흡연의해.” 『기독신보』 488호(1925년 4월 15일).

류형숙. “금주의필요.” 『기독신보』 904호 (1933년 3월 29일).

———. “여자절제회순서.” 『기독신보』 768호(1930년 8월 27일).

———. “우리의 경제력과 술.” 『기독신보』 655호(1928년 6월 27일).

리순기. “하곡동성경학교 위생과 습관.” 『기독신보』 503호(1925년 7월 29일).

리용설. “술의해독.” 『기독신보』 691호 (1929년 3월 6일).

리효덕. 『기독신보』 921호(1933년 7월 26일).

梅道提. “社會問題에 對한 基督教의 態度를 再考.” 『기독신보』 522호(1925년 12월 9일).

박연서. “모핀중독자를 잊지말라.” 『기독신보』 552호(1926년 7월 14일).

배의례. “소년소녀절제부(단).” 『기독신보』 879호(1932년 10월 5일).

변영서부인. “우리의 급선무.” 『기독신보』 869호(1924년 9월 10일).

부위렴. “지금은 부흥할때.” 『기독신보』 584호(1927년 2월 16일).

벨링스부인. “禁酒文庫.” 『기독신보』 760호(1930년 7월 2일).

손메례. “禁酒運動의 發展.” 『기독신보』 649호(1928년 5월 2일).

\_\_\_\_\_. “금주의필요.” 『기독신보』 634호(1928년 1월 11일)

\_\_\_\_\_. “술과가정.” 『기독신보』 634호(1928년 2월 1일).

\_\_\_\_\_. “순회강연일기중에서.” 『기독신보』 631호 (1928년 1월 11일).

\_\_\_\_\_. “안전한생활.” 『기독신보』 575호 (1926년 12월 15일).

宋相錫. “節制運動은 어떠한 것이며 敎會가하는 理由.” 『기독신보』 795호(1934년 8월 8일).

신직 한진원. “長監合同의 必要성과 信者의 精神.” 『기독신보』 937호(1933년 11월 15일).

申洪植. “敎會合同의 促進運動.” 『기독신보』 841호(1932년 1월 13일).

辛厚承. “公娼廢止運動에 對하야.” 『기독신보』 720호(1927년 7월 20일).

梁柱三. “今後의 朝鮮耶蘇敎會.” 『기독신보』 525호(1925년 12월 31일).

\_\_\_\_\_. “예루살렘會議의 特色.” 『기독신보』 657호(1928년 7월 11일).

\_\_\_\_\_. “朝鮮耶蘇敎聯合公議會에 對하야.” 『기독신보』 683호(1929년 1월 9일).

어원. “신데에맞치는술의해독.” 『기독신보』 642호(1928년 3월 28일).

吳0太. “社會改良은 基督教의 精神.” 『기독신보』 503호(1925년 7월 29일).

俞珏卿. “節制運動.” 『기독신보』 809호(1931년 6월 3일).

劉載漢. “勉勵運動과 우리의 獻議.” 『기독신보』 863호(1932년 6월 15일).

尹龍賢. “禁酒와 朝鮮의 將來(完).” 『기독신보』 897호(1933년 2월 8일).

李孝德. “공창폐지.” 『기독신보』 960호(1934년 4월 25일).

\_\_\_\_\_. “실제적 방침으로.” 『기독신보』 978호(1934년 8월 29일).

- \_\_\_\_\_. “절제생활.” 『기독신보』 755호(1930년 5월 28일).
- \_\_\_\_\_. “절제운동을 어떻게할까.” 『기독신보』 894호(1933년 1월 18일).
- 李鎭九. “금주와 금연, ‘틴링’여사금주강연을 聽하고.” 『기독신보』 322호(1922년 2월 15일).
- 李鎭九. “금주와 금연, ‘틴링’여사금주강연을 聽하고(二).” 『기독신보』 323호(1922년 2월 22일).
- 一遇. “나의 飲酒觀.” 『기독신보』 721호 (1929년 10월 2일).
- 張奎明. “基督教은 積極的宗教.” 『기독신보』 507호(1925년 8월 26일).
- 場錫柱. “反宗教運動과 우리의 主張(二).” 『기독신보』 809호(1931년 6월 3일).
- 田瑪大嬢. “節制運動.” 『기독신보』 848호(1932년 3월 2일).
- 전도부장 전상옥. “영천교회금주선전.” 『기독신보』 564호(1926년 9월 29일).
- 정현숙. “節制運動.” 『기독신보』 865호(1932년 6월 29일).
- 曹晚植. “基督教人의 生活(二).” 『기독신보』 호(1935년 9월 18일).
-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금주에대헌성경말씀(二).” 『기독신보』 473호(1924년 12월 31일).
-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금주에대헌성경말씀(一).” 『기독신보』 472호(1924년 12월 25일).
- 朝鮮女子基督教節制會. “주酒연煙담談叢叢.” 『기독신보』 480호(1925년 2월 18일).
- 조선녀주곡도교절제회. “節制部, 심장에대헌 흡연의해독.” 『기독신보』 474호(1925년 1월 7일).
- H. S. “절제회 순서.” 『기독신보』 930호(1933년 9월 27일).
- “男女同等의 教育政策을 펴라.” 『독립신문』 (1898년 1월 4일).
-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1호(1896년 4월 7일).
-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33호(1896년 6월 20일)
-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제 31호(1896년 6월 16일).
- “논설.” 『독립신문』 제 1권 제 7호(1896년 4월 12일).
- “잡보.” 『독립신문』 제 1권 제 104호(1896년 12월 3일).
- “잡보.” 『독립신문』 제 1권 제 66호(1896년 9월 5일).
- “잡보.” 『독립신문』 제 2권 제 89호(1897년 7월 29일).

『동아일보』 (1920년 4월 8일).  
 『동아일보』 (1920년 5월 15일)  
 『동아일보』 (1920년 7월 3일).  
 『동아일보』 (1921년 2월 8일, 3월 8일)  
 “금주단연강연회.” 『동아일보』 (1923년 7월 7일).  
 “朝鮮基督教 節制運動會創立.” 『동아일보』 (1932년 5월 20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교풍회와 합류.” 『동아일보』 (1939년 6월 21일).  
 “주초를 배우지마라.” 『동아일보』 (1923년 5월 29일).  
 “틴링여사 금주강연.” 『동아일보』 (1923년 7월 12일).  
 “틴링여사금주강.” 『동아일보』 (1923년 7월 17일).

“禁酒會組織.”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8일).  
 “夢夢裏이得득錢던.”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19일).  
 “說教禁酒.”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일).  
 “說教禁酒.”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일).  
 “阿片禁止의 上諭.”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8일).  
 “아편만면.” 『대한매일신보』 (1905년 2월 13일).  
 “阿片轉賣.” 『대한매일신보』 (1905년 3월 7일).  
 “阿片專賣局.”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21일).  
 “阿片轉買法.”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6).  
 “阿片轉賣의 實行.”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5일).  
 “雜報.”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1일).  
 “千萬元之一大消融方法.” 『대한매일신보』 (1906년 4월 22일).  
 “淸國에 阿片問題.”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5일).  
 “蓄妾者를 경계함.”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8일).  
 “한人忠愛.”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1일).

“公娼制度廢止 政府에서反對.” 『매일신보』 (1927년3월 15일).  
 “公娼廢止請願提出.” 『매일신보』 (1929년 2월 19일).  
 “今年부터 擴張되는 咸北道阿片栽培.” 『매일신보』 (1933년 5월 26일).  
 “禁酒論을 駁함.” 『매일신보』 (1924년 2월 29일).

“禁酒宣傳하든 回路에.” 『매일신보』 (1923년 11월 29일).  
 “금주회금은 회사에서 변상.” 『매일신보』 (1925년 2월 4일).  
 “禁酒會金橫領問題로 京電乘務員結束.” 『매일신보』 (1925년 1월 29일).  
 “禁酒會의 無實.” 『매일신보』 (1920년 7월 2일).  
 “基督婦人의 禁酒宣傳.” 『매일신보』 (1927년 1월 26일).  
 “론설.” 『매일신보』 (1898년 9월 16일).  
 “未成年禁酒, 禁煙法 閣議서도一致可決.” 『매일신보』 (1938년 3월 26일).  
 “未成年禁酒禁煙法 施行祝賀會盛況.” 『매일신보』 (1938년 4월 19일).  
 “貧民救濟策으로 阿片栽培獎勵.” 『매일신보』 (1933년 2월 27일).  
 “社說, 阿片專賣의 理由.” 『매일신보』 (1914년 1월 31일).  
 “阿片施行令.” 『매일신보』 (1919년 2월 19일).  
 “阿片五百圓 가진자를 잡었다.” 『매일신보』 (1917년 12월 7일).  
 “阿片을 密賣코져.” 『매일신보』 (1917년 10월 26일).  
 “阿片의 害毒.” 『매일신보』 (1910년 12월 21일).  
 “阿片專賣開始.” 『매일신보』 (1914년 1월 24일).  
 “阿片專賣審議.” 『매일신보』 (1914년 3월 21일).  
 “阿片賣買截取 슈범은 징역십개월.” 『매일신보』 (1917년 4월 1일).  
 “阿片罪를 死刑으로.” 『매일신보』 (1920년 9월 25).  
 “朝鮮禁酒會의 講演.” 『매일신보』 (1920년 4월 19일).  
 “朝鮮人의 阿片栽培와 集散의 概況.” 『매일신보』 (1921년 12월 24일).  
 “咸南阿片栽培面積 今年부터 擴張.” 『매일신보』 (1933년 3월 1일).  
 “刑務所行을 自願한 阿片中毒者.” 『매일신보』 (1931년 6월 6일).  
  
 “英美禁酒協約批准.” 『시대일보』 (1924년 5월 24일).  
 “靑年修養會 禁酒, 衛生 宣傳데이.” 『시대일보』 (1926년 1월 3일).  
 “黃州.” 『시대일보』 (1924년 9월 19일).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제 1권 32호(1897).  
 “계류론.” 『조선크리스도인회보』 제 22호(1897년 6월 30일).  
 “교중회보, 추초거절.”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911년 3월 30일).  
 “담배의 해로움이라.”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년 5월 7일).

“흡연의 해되는 증거가 무엇이뇨.”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911년 7월 15일).

“간신배를 몰아내고 국정을 바로잡아라.” 『황성회보』 (1898년 12월 16일).

“禁煙檢査規則.” 『황성신문』 (1906년 6월 18일).

“禁煙實行.” 『황성신문』 (1908년 6월 23일).

“禁煙의 困難.” 『황성신문』 (1908년 10월 22일).

“禁煙의 實行.” 『황성신문』 (1908년 8월 4일).

“禁煙準備의 實行.” 『황성신문』 (1908년 8월 6일).

“禁煙祝賀會.” 『황성신문』 (1907년 7월 8일).

“禁酒法案可決.” 『황성신문』 (1906년 2월 26일).

“禁酒法案의 經過.” 『황성신문』 (1908년 2월 18일).

“론설.” 『황성회보』 (1898년 1월 30일).

“萬國阿片會議場所.” 『황성신문』 (1908년 12월 24일).

“매관매직하는 자를 拔本塞源하라.” 『황성회보』 (1896년 8월 15일).

“阿片禁止運動 同電을 據호則香港.” 『황성신문』 (1906년 8월 22일).

“阿片轉買의 計劃.” 『황성신문』 (1905년 10월 27일).

“阿片會議決案.” 『황성신문』 (1909년 3월 4일).

“阿片會議案.” 『황성신문』 (1909년 2월 27일).

엠티청년회. “혼인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제 3권 16호(1899년 4월 19일).

鈴木高志. “조선의 事變에 대하여.” 『福音新報I』 제 124호(1919. 5. 1).

“阿片과 賣淫으로 逐迫放어진 두男女.” 『조선중앙일보』 (1935년 1월 5일).

“阿片取締強化를 日本에 勸告키로 決定.”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31일).

“교육칙어.” 『조선총독부 관보』 제 405호(1912년 1월 6일).

“公娼廢止의 宗教的 意義.” 『神學世界』 第十九卷 第四號(1926. 12).

“敎中彙報.” 『神學世界』 第十五卷 第二號(1930. 3).

“그맷친열매로더회를 알지니라.” 『神學世界』 第十三卷 第二號(1928. 3).

“社說, 敎會合同運動에 對하야.” 『神學世界』 第十四卷 第四號(1929. 8).

“社說, 基督教와 社會問題.” 『神學世界』 第十二卷 第六號(1927. 11).

“社說, 南北監理敎會의 統合失敗를 보고서.” 『神學世界』 第十一卷 第二號(1927. 4).

- “社說, 朝鮮南北監理教會聯合에 對하야.” 『神學世界』 第十五卷 第五號(1930. 9).
- 姜明錫. “歐美의 社會事業과 朝鮮의 社會事業.” 『神學世界』 第十一卷 第六號(1926. 12).
- 根本正. “節制部, 禁酒의 必要(一).” 『神學世界』 第九卷 第六號(1924.12).
- . “節制部, 禁酒의 必要(二).” 『神學世界』 第十卷 第一號(1925. 2).
- 金仁泳. “歷史及傳記.” 『神學世界』 第八卷 第四號(1923. 8).
- 金昌俊. “賣淫婦와 基督教의 急先務.” 『神學世界』 第十八卷 第一號(1933. 1).
- 도이명. “종교는 성품에 관한일이 아니라.” 『神學世界』 第二卷 特別號上(1917).
- . “조선그리스도교의 장래가엇더호뇨.” 『神學世界』 第二卷 特別號 上(1917).
- 량주삼. “1914年 총회.” 『神學世界』 第九卷 第五號(1924. 9).
- 반부인. 金泰源 공역. “節制部, 禁酒運動의 選手.” 『神學世界』 第十二卷 第一號(1927. 2).
- 吳兢善. “公娼廢止에 對하야.” 『神學世界』 第十一卷 第六號(1926. 12).
- 雲岡生. “朝鮮教會의 現況(二).” 『神學世界』 第十五卷 第五號(1930. 9).
- 李應淑. “公娼運動의 戰士가되자.” 『神學世界』 第十二卷 第二號(1927. 4).
- 李桓信. “基督教와 社會.” 『神學世界』 第二十一卷 第二號(1936. 5).
- 趙尙玉. “模範의 婚姻.” 『神學世界』 第六卷 第一號(1921. 1).
- . “酒는 如何호 飲料인가.” 『神學世界』 第五卷 第四號(1920. 7).
- 朝鮮總督府. 『合邦以後 朝鮮行政 3年』 京城: 朝鮮總督府, 1914.
- 趙元淑. “禁酒.” 『神學世界』 八卷 九號(1918. 10).
- 줄탄. “알콜의害毒.” 『神學世界』 第九卷 第一號(1924. 2).
- “교보, 감리교스경회.” 『신학월보』 제 2권 5호(1902. 5).,
- “나라를 근심하랴면 먼저 예수씨를 밋어야.” 『신학월보』 제 4권 7호(1904. 7).
- “대황데탄신경축함.” 『신학월보』 제 1권 10호(1901. 10).
- “두 가지 원.” 『신학월보』 제 4권 3호(1904. 3).
- “론설.” 『신학월보』 제 4권 9호(1904. 9).
- “론설.” 『신학월보』 제 6권 2호(1908).
- “삼가지연권.” 『신학월보』 (1901.1).
- “샤설, 하늘님의 풍성하신 은혜.” 『신학월보』 제 7권 6호(1909).
- “술의낭패.” 『신학월보』 제 2권 6호(1902. 6).

“술은 사람이 먹지 못할 음식.” 『신학월보』 제 2권 8호(1902.8).  
 “술을 김하는 찬미.” 『신학월보』 제 4권 5호(1904. 5).  
 “신학회와 스경회.” 『신학월보』 제 1권 2호(1900. 2).  
 “십자군의격서 만엘루청년회.” 『신학월보』 제 4권 6호(1904. 6).  
 “장치연씨 혼자 귀화함.” 『신학월보』 제 3권 2호(1903. 2).  
 “주의 권능은 양날 가진 칼과 같함.” 『신학월보』 제 4권 5호(1904. 5).  
 “집안을 결케할것.” 『신학월보』 제 4권 9호(1904. 9).  
 “첨엇는 폐단.” 『신학월보』 제 1권 9호(1901. 8).  
 구준경. “리천읍 김제안씨의 첩보된 일.” 『신학월보』 제 2권 3호(1902. 3).  
 김기범. “절주론.” 『신학월보』 제 1권 2호(1900. 2).  
 리승만. “론설: 대한 교우들의 힘쓸 일.” 『신학월보』 제 4권 8호(1904. 8).

郭安連. “神學校消息.” 『神學指南』第 五卷 第 四號(1923. 10).  
 \_\_\_\_\_. “禁酒에 對한 말.” 『神學指南』第 五卷 第 四號(1923. 10).  
 閔老雅. “戒酒論.” 『神學指南』第 一卷 第 三號(1918. 10).  
 裴口秀. “酒에대한 하느님의 말씀을보라.” 『神學指南』第 七卷 第 三號(1925. 7).  
 山室軍平. “公娼廢止와 基善後策.” 『神學指南』第 六卷 第 四號(1924. 10).

“忠告禁酒而奉主(中).” 『活泉』第 七卷 第 四號(1929. 4).  
 “忠告禁酒而奉主(下).” 『活泉』第 七卷 第 五號(1929. 5).  
 “土窟속의 恩寵(二).” 『活泉』第 三卷 第 五號(1925. 4).  
 “土窟속의 恩寵(三).” 『活泉』第 三卷 第 六號(1925. 5).  
 “土窟속의 恩寵.” 『活泉』第 三卷 第 七號(1925. 6).  
 一傍觀生. “土窟속의 恩寵(一).” 『活泉』第 三卷 第 四號(1925. 3).  
 \_\_\_\_\_. “土窟속의 恩寵.” 『活泉』第 三卷 第 七號(1925. 6).  
 陳星烈. “忠告禁酒而奉主(上).” 『活泉』第 七卷 第 二號(1929. 2).

#### <기타 정간물>

“공창폐지운동.” 『신한일보』 (1924년 7월 3일).

“三一운동 당시에 난 크게 격감.” 『신한일보』 (1924년 11월 20일).

Jones, G. H. “교회법에도 술먹지 못홀거시 분명 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900년 3월 7일).

“1930년의 금주운동.” 『진생』 3-4합호(1930).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연혁.” 『한국절제운동 70년사』 .

박헌영. “歷史上으로 본 基督教의 內面.” 『開闢』 63號(1925).

#### <연구논문>

- 강명숙. “1920년대 초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 『한국기독교와 역사』 5호 (1996).
- 강인규. “1920년대 反基督教運動을 통해 본 基督教.” 『韓國基督教史研究』 9호 (1986).
- 姜元敦. “韓國民族民主主義에 비추어본 韓國基督教.” 『神學思想』 60號(1988).
- 강정숙.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公娼)제도의 도입.” 『서울학 연구』 Vol. 11, No. 1(1998).
- 勸延雄. “『審理錄』의 기초적 검토-正祖代의 死罪判決.”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下』 서울: 일조각, 1994.
- 김경빈.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유형과 그 사상적 배경.” 『교회 민족 역사』 서울: 민경배박사교회기념논문집출판, 2004.
- 김덕호. “미국의 보수주의와 금주시대의 반금주법 운동.” 『美國史研究』 第 1號 (1993).
- \_\_\_\_\_. “미국의 금주법과 Wickersham 특별위원회.” 『西洋史論』 第 40號(1993).
- 金大吉. “조선후기 酒禁에 관한 연구.” 『史學研究』 제 50호(1995.12).
- 金明植. “金益斗의 迷亡을 論하고 基督教徒의 覺醒을 促하노라.” 『新生活』 6號 (1922. 6).
- 김승태.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_\_\_\_\_.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 『韓國基督教史研究』 25호( ).
- \_\_\_\_\_. “한말 일제 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1894-1910).” 『한국

- 기독교와 역사』 제 6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金良善. “韓國基督教 初期刊行物에 關하여.” 『史叢』 12권(1968).
- 김정권. “1920년대 후반 기독교세력의 반기독교운동 대응과 민족운동의 전개.” 『한국 기독교와 역사』 14호(2001).
- 朴樞. “滿洲國의 阿片政策.” 『中國學論叢』 Vol. 8, No.
- 박강. “조선에서의 일본 아편정책.” 『한국민족운동사의 새로운 방향』 한국민족운동사 편 서울: 국학자료원, 1998.
- 박명수. “근대사회의 변화와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 『성경과 신학』 21호(1997).
- \_\_\_\_\_. “성결운동과 사회개혁.” 『성결교회와 신학』 4호(2000).
- \_\_\_\_\_. “세계선교 동향과 한국에 대한 선교정책에 대한 논찬.” 『한국기독교와 역사』
- \_\_\_\_\_. “초기 한국교회의 영성: 1907년 대부흥운동의 신앙분석.” 『한국교회와 1907년 대부흥운동』 제 8회 영의기념강좌 자료집 부천: 성결교회역사연구소, 2004.
- 朴秀妍. “統監 伊藤博文의 對韓政策과 이에 대한 愛國啓蒙派의 認識.” 『한국민족운동사의 새로운 방향』 한국민족운동사 편. 서울: 국학자료원, 1998.
- 朴容玉. “國債報償運動에의 女性參與.” 『史叢』 12권(1968).
- 벽과생. “평양에 발생한 기독교재림 사건정체.” 『신계단』 1호(1933. 2).
- 孫禎睦. “개항기 한국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매춘부. 고리대금업.” 『한국학보』 18호(1980).
- 孫禎睦. “일제하의 매춘업-공창과 사창.” 『도시행정연구』 3호(1988).
- 神寶長治. “조선에서 기독교 활동.” 『조선』 299호(1940. 4).
-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제도 전개.”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편, 제 51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초기한국 기독교사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이민식. “청일전쟁 전후의 한미관계: 1890-1895.” 『근대 한미관계 연구』 서울: 백산문화, 1998.
- 장금현. “재한 복음주의선교부 통합공의회에 관한 연구.” 『성결교회와 신학』 6호(2001).
- 趙恒來. “國債報償運動의 發端과 發展.” 『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3.

#### <회의록>

-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會會錄』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十二回會錄』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十七回會錄』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五回會錄』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第二二回會錄』  
『基督教美監理會朝鮮年會錄』 6회 연회 회록부터 12회연회록  
『基督教美監理會朝鮮第十會年會錄』  
『基督教朝鮮監理會第二會總會錄』 (1924. 10).  
『基督教朝鮮監理會第一會年會會錄』 (1930. 12).  
『南監理教會道理와章程』 京城: 南監理教會朝鮮每年會, 1918.  
『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제 19회 전국대회』 (1957년 4월 17-8일).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 데사회 회록』 (1915).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 데삼회 회록』 (1914).  
『長老教會史典彙集』

#### <학위 논문>

- 姜潤淑. “復衣의 象徵的 意味에 관한 研究.” 성심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金京蘭. “朝鮮王朝時代의 服制禁制에 관한 考察.”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김정권.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 서울: 숭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5.  
山下英愛.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대여성학석사학위논문, 1992.  
宋連玉. “일제 식민지화와 公娼制 도입.” 서울: 서울대국사학과석사학위논문, 1998.  
윤정란.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 연구.” 서울: 숭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_\_\_\_\_. “일제하 기독교여성운동사.” 숭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9.

#### <기타자료>

“한일합병조약.” 『자료 한국근현대사입문』 서울: 해안, 1998.

“YMCA현장 전문.”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김승태 편역. “지나사변(중일전쟁)기에 기독교의 동정과 그 범죄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1910-1945』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다이라 마고이치(俵孫一). “선교사에 대한 의견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김승태 편역.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루오 리다.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 참석 및 중국기독교여자절제회 역사.” 김정주 편. 『한국절제운동 70년사: 1923-1993』 서울: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993.

손메레. “재미있고 괴롭던 옛 추억.” 『한국절제운동 70년사』

에프 에스 밀러. “굴뚝.” 『언설초집』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13.

\_\_\_\_\_. “술 먹는 해가 즈손의게 밋침.” 『언설초집』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13.

이효덕. “개척자의 고심기.” 『한국절제운동 70년사(1923-1993)』 서울: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993.

이효재. “한국교회 여성 100년사: 개관과 전망.”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한국기독교 여성100년사』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5.

#### <단권류>

강명숙.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경제사상』 서울: 백산 자료원, 1999.

곽안전. 『한국교회사』 심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김승태, 박혜진 편.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자료총서 제 18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金俊淵. 『獨立路線』 서울: 時事時報出版局, 1947.

- 金俊燁,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 第 2卷 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 吉善宙. 『만스성주 平壤: 光明書觀, 1916.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김정주 편. 『한국절제운동 70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1993.
-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_\_\_\_\_.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_\_\_\_\_. 『韓國基督教民族運動史論』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92.
- \_\_\_\_\_. 『韓國基督教史』 改訂版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95.
- \_\_\_\_\_. 『韓國基督教社會運動史: 1885-1945』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7.
-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와 한국성결교회』 서울: 성결교회 역사연구소, 1998.
- \_\_\_\_\_. 『근대 복음주의의 성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白樂濬. 『韓國改新教會史』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93.
- 宋相錫.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 송이랑. 『日帝의 韓國 植民地 統治 方式』 서울: 세종출판사, 1999.
- 신기영.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 부산: 도서출판 동학, 1995.
- 신복용. 『진환기의 조선』 서울: 집문당, 1999.
- 安大善, 李大偉 共著. 『勉勵會指南』 京城: 基督青年勉勵會朝鮮聯合會, 1933.
- 유영렬, 윤정란.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서울: 京仁文化社, 2004.
-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서울: 景仁文化社, 2001.
- 윤춘병. 『全德基 牧師와 民族運動』 서울: 韓國監理教會史學會, 1996.
- 윤희원.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성격』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이광린.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성선교사의 역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 1991.
- 이만열. 『한말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 \_\_\_\_\_.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평민서당, 1986.
- \_\_\_\_\_.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87.
- 이종범, 최원규 (편). 『자료 한국근현대사입문』 서울: 혜안, 1998.
-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서울: 범우사, 1994.

정태현.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8.

『남감리교회도리와장정』 경성: 조선예수교서회, 1915.

『韓國監理教會史: 1930-1945』 서울: 基督教大韓監理會本部教育局, 1980.

『韓國監理教會史: 초기-1930』 서울: 基督教大韓監理會本部教育局, 1975.

#### <일본어>

『婦人新報』 (1927년 2월).

『婦人新報』 (1927년 5월).

『婦人新報』 (1929년 6월).

『女學 雜誌』 44號(1886.12).

『婦人矯風雜誌』 8號 (1894. 6. 2).

“公娼全廢の建議.” 『東京婦人矯風雜誌』 32號.

“倫理の基の要旨.” 『女學 雜誌』.

“貸座敷營業規則.” “藝娼妓營業規則.” 『韓國警察史』 第 5卷.

“明治十六年十月十六日起草.” 『韓國警察史』 第 1卷.

“明治十八年二月二十四日附井上外務卿發信釜山前田總領事宛回訓機密第五號.” 『韓國警察史』 第 1卷.

犬丸義一. “戰前日本の 國家權力と 天皇制.” 『歴史評論』 245號 東京: 教倉書房, 1970.

菊地西治. “支那に對する阿片の防止運動.” 『同仁』 第 二卷 第 二號(1928. 5).

金俊淵. “朝鮮モハヒホ問題.” 『中央法律新報』 第 一卷 第 九號(1921. 6).

藤野豊. “廢娼と 存娼; その相克と 協調.” 『大正デモクラシー・天皇制・キリスト教』 東京: 新教出版社, 2001.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集(1994).

\_\_\_\_\_. “朝鮮植民支配における公娼制.” 『日本史研究』 371號(1993).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京城: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27.

高橋誠. 『明治財政史研究』 東京: 青木書店, 1964.

基督教學校教育同盟 編.『日本におけるキリスト教學校教育の現状』 東京: 基督教學校教育同盟, 1961.

道家薺一郎.『賣春婦論考; 賣笑の 沿革と 現況』 東京:史誌出版社, 1928.

小澤三朗日.『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研究』 東京: 東海文學 出版會, 1964.

外務省.『國際阿片條約』 1919.

隅谷三喜男.『近代日本の形成とキリスト教』 東京: 新教出版社, 1977.

日本基督教會同盟 編.『基督教年鑑』 東京: 日本基督教會同盟, 1919.

日本基督教會同盟 編.『基督教年鑑』 東京: 日本基督教會同盟, 1943.

『日本基督教の精神的傳統』現代基督教叢書 第 1編 東京: 基督教思想叢書刊行會, 昭和16.

日本キリスト教 婦人教會 編.『禁煙運動の 歴史』 東京: 日本キリスト教婦人教會, 1980.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 編.『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會百年史』 東京: ドメス出版, 1986.

井瀋梶之助.『日本基督教會』 東京: 東方書院, 昭和 9年.

關田節子.『朝鮮民衆과 皇國化政策』 李榮娘 譯 서울: 一潮閣, 1997.

『朝鮮總督府統計年表』

金森通倫.『그리스도교의 신앙』 裴緯良 譯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小川圭治, 池 明關 編.『韓日그리스도교 關係史資料:1876-1922』 金允玉, 孫奎泰 共譯 서울: 韓國神學研究所, 1990.

『日帝植民官僚가 분석한 朝鮮人』. 하종근 역. 1927년 조선총독부 대외비 조사자료 20집. 서울: 세종출판사, 1995.

<영어>

"Miss Tinling's Work in Korea." *KMF* Vol. 20, No. 1(Jan. 1924).

Blair, H. E. "A Constructive Forward Movement Program." *KMF* Vol. 15, No.11(Nov. 1919).

Choi, Pil Ley(Mrs). "The Development of Korean Women during the Past Ten

- Years." *KMF* Vol. 19, No. 4(Nov. 1923).
- Moore, J. Z. "The Great Revival Year." *KMF* Vol. III, No. 8(Aug. 1907).
- Moose, J. R. "A Great Awakening." *KMF* Vol. II, No. 3 (Jan. 1906).
- Sharp, C E. "Motives for Seeking Christ." *KMF* Vol. II, No. 10 (Aug. 1906).
- Tinling, C. I. "The W.C.T.U. In Korea." *KMF* Vol. 19, No. 11(Nov. 1923).
- "Missionary Work in Korea." *The Korea Review* Vol. VI(Oct. 1906).
- "New Calendar." *The Korea Review* Vol. IV(1904).
- Baird, William M.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I." *The Korean Repository* Vol. II(Aug. 1895).  
\_\_\_\_\_. "Should Polygamists Be Admitted to the Christian Church?  
II."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Aug. 1896).
- Landis, E. B. "Things in General." *The Korean Repository* Vol. IV(June 1897).
- Moffett, S. A. "To the Editor of The Korea Repository." *The Korea Repository*  
Vol. I(Jan. 1892).
- Swallen, W. L. "Polygamy and The Church." *The Korea Repository* Vol.  
II(Aug. 1895).
- "Polygamists in Christian."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Sept. 1896).
- "The Annual Meeting of the Methodist Mission." *The Korean Repository* Vol.  
II(Aug. 1895).
- Garrison, Wilfred 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Organized Religion." *Annals  
of the America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CCLVI (Mar.  
1948).
- Park, Myung Soo. "The Korea Pentecost: A Study on the Great Revival of  
1903-1907 in the Relationship with Contemporary Worldwide Revival  
Movement." *The 18th Pentecostal World Conference Seoul. Asia Issues on  
Pentecostalism.* (Sept. 21, 1988).
- Parker, Alison M. "Hearts Uplifted and Minds Refreshed':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and the Production Pure Culture in the United

State, 1880-1930." *Journal of Women's History* 11. no. 2(Summer 1999).  
Thomas, John L. "Romantic Reform in America, 1815-1865." *American Quarterly* 17 (Winter 1965).

*Annual Report*. Methodist Episcopal Missionary Society, 1892.  
*Journal of the American Temperance Union* VI. (Sept. 1842).  
Official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Session of Korea Mission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03).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893).  
"Official Minutes of the Nineteen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Leavitt, Mary Clement. *Report Made to the First Convention of the World's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Held in Boston, U. S. A. Nov. 10-19, 1891*. Boston: Alfred Mudge & Son, 1891.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Aug.-Sept. 1893).  
*Seventh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Temperance*. Boston: Seth Bliss, 1834.

"temperance", <http://endic.naver.com/endic.php?docid=120208&rt=1>  
<http://www.nara.gov/exhall/charters/declaration/declaration/.html>.

<논 문>

Bohlmann, Rachel Elizabeth. "Drunken Husbands, Drunken State: The Woman's Temperance Union's Challenge to American Families and Public Communities in Chicago." dss., The University of Iowa, 2001.  
Dorn, Elizabeth A. "FOR GOD, HOME, AND COUNTRY."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and Reform Efforts in Meiji Japan. Ph.D. dss.,

Iowa University, 2003.

Dunlap, Leslie Kathrin. "In the Name of the Home: Temperance Women and Southern Grass-Roots Politics, 1873-1933." dss., Northwestern University, 2001.

Yasutake, Rumi. "Transnational Women's Activism: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Japan and Beyond, 1858-1920." Ph.D. d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8.

Appenzeller, Henry G. "The Christian Soldier." *Missionary Research Library Collec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Archives, New York,

Blauvelt, Martha Tomhave. "Women and Revivalism." Ruether, Rosemary & Keller, Rosemary ed.. *Women & Religion in America*. vol. I The 19th Century New York: Harper & Row, 1981.

Jansen, Marius ed. "Japanese Christians and American Missionaries."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단권류>

Ahlstrom, Sydney E.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II*. New York: Image Books, 1975.

*Apostles of the Self-Made 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Beecher, Lyman. *Six Sermons on the Nature, Occasions, Signs, Evils and Remedy of Intemperance*. Boston, 1872.

Blocker, Jack S. Jr. *Alcohol, and Society*. The Liquor Issue in Social Context, 1979.

\_\_\_\_\_. *American Temperance Movement: Cycles of reform*. Boston Twayne Publishers, 1989.

\_\_\_\_\_. *Give to the Winds Thy Fears: The Women's Temperance Crusade, 1873-1874*. 1985.

- \_\_\_\_\_. *Retreat from Reform: The Prohibi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1890-1913*. 1976.
- Bordin, Ruth. *Frances Willard*.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 \_\_\_\_\_. *Woman and Temperance: The Quest for Power and Liberty 1873-1900*. Phil: Temple University Press,
- Brown, George T. *Mission to Korea*.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62.
- Carr, Edward H. *What Is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Inc., 1961.
- Clark, Charles A. *Korean Church and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0.
- Creating Socialist Women in Japan: Gender, Labour and Activism, 1900-1937*.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Dayton, Donald W.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 New York: Harper & Row, 1976.
- Dennis, James S. *Christian Missions and Social Progress: A Sociological Study of Foreign Mission*. Vol. I New York: Fleming H. Revell, 1897.
-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Annual Report*.
- Doherty, Robert. *Society and Power: Five New England Towns, 1800-1860*.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7.
- Dohn, N. *The History of the Anti-Saloon League*. Ohio: Ohio State Uni., 1959.
- Donnelly, Mabel C. *The American Victorian Woman: The Myth and the Reality*. New York: Greenwood, 1986.
- Earhart, Mary. *Frances Willard: From Prayer to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 Epstein, Barbara L. *The Politics of Domesticity: Women, Evangelism, and Temperanc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1.
- Finke, Roger & Stark, Rodney. *The Churching of America, 1776-1990: Winners and Losers in Our Religious Economy*.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7.

- Gale, J. S. *Korea in Transition* Cincinnati: Jennings & Graham, 1909.
- Hudson, Winthrop S. & Corrigan, John. *Religion in America: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American Religious Life*. Fif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92.
- H. G. Underwood's letter to Dr. Ellingwood. July 9, 1886.
- Johnston, Arthur P.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Illinois: Tyndall House Pub, 1978.
- Jones, George H. & Noble, W. A. *The Korean Revival: An Account of Revival in the Korean Church in 1907*. 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0.
- Link, Arthur S. and McCormick, Richard L. *Progressivism*. Arlington Heights, Ill. Harlan Division, Inc., 1983.
- McDannell, Colleen. *The Christian Home in Victorian America, 1840~1900*. Blooming: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Mckenzei, F. A. *The Tragedy of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5.
- Makie, Vera. *Creating Socialist Women in Japan: Gender, Labour and Activism, 1900-1937*. Cambridge: Cambridge Uni. Press, 1997.
- \_\_\_\_\_. *Feminism in Modern Japan: Citizenship, Embodiment and Sexual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Odegard, P. *Pressure Politics*. New York, 1928.
- Rose, Barbara. *Tsuda Umeko and Women's Education in Ja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Sinclair, Andrew. *Era of Excess: A Social History of the Prohibition Movement*. New York: HarperColophon Books, 1962.
- Smith, Timothy L.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American Protestantism on the Eve of the Civil War*. New York: Harper & Row, 1965.
- The Commission on Relation with Orient. The Korean Situation II.
- Thelle, Notto R.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Japan: From Conflict to Dialogue, 1854-1899*.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 Thomas, George M. *Revivalism and cultural change: Christianity, nation*

- building, and the market in 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1989.
- Tyrell, Ian R. *Woman's World/ Woman's Empire: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880-193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 \_\_\_\_\_. *Sobering Up: From Temperance to Prohibition in Antebellum America, 188-1860.* Connecticut: Greenwood Press Inc., 1979.
- Woodward, John C. *The Devil's Vision.*

-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 ed..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翰林大學아시아文化研究所자료총서I』 춘천:한림대학교출판부, 1987. 이운상. “식민화 과정과 민족경제의 동태.” 『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 서울: 한길사, 1994.
-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자료총서 제 27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The Korean Situation 1, 2.* 자료총서 제 19집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 <번역서>

- Underwood, Horace G. “자립의 객관적 교훈.” 옥성득 편역. 『한국기독교와 역사』 8호 (1998).
- Allen, Horace N. *Things Korea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윤후남 역 『알렌의 조선체류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 Huntley, Martha.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차종순 역 서울 : 牧羊社, 1995.
- Latourette, Kenneth S.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3. New York: Harper & Row Pub. Inc., 1953. 윤두혁 역 『기독교사(하)』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Lowell, Percival. *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arvard University Press, 1885.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조경철 역 서울: 예담, 2001.
- Marsden, George.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Oxford University

- Inc., 1980. 박용규 역 『근본주의와 미국의 문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Rhodes, H. A.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1884~1934*. Vol. I(1934).
- Robinson, Michael E.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역. 서울: 나남, 1990.
- Swanstrom, Roy. *History in the making*. 홍치모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Vautier, Madame C. *Hippoly Frandin, En Coree*. Paris: Paris Librairie, Delagarave, C. H.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김상희 김성언 역. 서울: 태학사, 2002.
- Woodbridge, John D. *The Gospel in America*. Michigan: The Zondervan Co., 1979. 박용규역 『기독교와 미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인화 역. 서울: 살림, 1995.

## ABSTRACT

### A Study of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Geumhyun Jang

Major: Church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on, Korea

Advisor: Dr. Myung-Soo Park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understand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in relation to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the world.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has been treated in the light of nationalism. This results from the understanding that Korean Christians resisted Japan by means of temperance movement. But in this study, I try to introduce the insight that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was deeply related to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the world.

The World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WWCTU) was rooted in the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WCTU) which had star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by the evangelists. American Christians in the nineteenth century tried to develop the temperance movement for social revolution. Enlarging the temperance movement throughout the world, they included Korea in their area. As a result, WWCTU had an effect on Korea and the characters of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had a similarity with those of WWCTU. Therefore, my study aims to explore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considering its relationship with WCTU whose members were evangelists.

The scope of this thesis is defined from 1884 to 1939. I divided these years into three sections. In each period, I found that each temperance movement developed by using various methods and was much influenced by its situation.

In chapter I, I mentio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in relation to WWCTU. WWCTU was rooted in WCTU star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should be examined in its relationship with WWCTU as well as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ism. Here I dealt with drinking, smoking, opium, and licensed prostitution. I thought I'd better define its boundary, because there were many aspects in temperance movement.

Chapter II examined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America and Japan, for they were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America was divided into two parts. The American Temperance Union and Washingtonians led the temperance movement from 1784 to 1860. WCTU founded by women led the temperance movement since 1860. Francis Willard, the president of WCTU, founded World-WCTU to expand the movement throughout the world. In 1923, C. L. Tinling in WWCTU was invited to Korea. Thanks to her,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could be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In chapter III, I examined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1884 to 1909. During that period, many Koreans were suffering from such traditional bad habits as drinking, smoking, opium, and concubine. Temperance movement helped them to refrain from these habits. In early Christianity, conversion experience in the revival meetings enabled these problems to be solved. Also, some institutions and rules made Christians prohibit those bad habits.

Chapter IV looked at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1910 through 1919. The branch of WWCTU was founded in Korea in 1911 by female missionaries. But it rarely worked from the next year. Ruling Korea by force, Japan tried to manufacture alcoholic liquor and cigaret, grow opium, and increase licensed prostitution. This made Japanese secular culture permeate into Korea. In this period the aim of temperance movement shifted from Koreans' traditional bad habits to secular culture which was shift and widely spreading among Korean people.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took place in 1919, however, when temperance movement focused its efforts on the secular culture.

Chapter V examined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from 1920 to 1939. In those years, Korean Christians went through more secularized culture spreaded by Japan, WWCTU and the ecumenical movemen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hristian women, the foundation of many youth associations, and socialism against Christianity. There were several temperance movement unions such as Korea Woman's Temperance Union, YWCA, YMCA, Epworth and so on. They tried to develop temperance movement altogether.

In chapter VI, I looked into the methods of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from 1920 to 1939. In this period, temperance movement was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Various methods were used. For example, in temperance campaign, hundreds of Christians paraded with flags and instruments, singing temperance songs. They played drama or Korean classical operas in the evening. They gave lectures on temperance as well.

In chapter VII, I dealt with the results and evaluations about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in Korea from 1920 to 1939 as the conclusion of this dissertation. Temperance movement caused drinking, smoking, opium and licensed prostitution to decrease. In 1938, the Prohibition Law against drinking and smoking to adolescence was one of the results that the Christian temperance movement made. Although it was achieved under the slogan, "Korea and Japan are one," it was certainly a fruit of the temperance movement. Through the temperance movement from 1920 to 1939, Korean Christians not only resisted Japan based on nationalism, but also cooperated with WWCTU as an ecumenical movement. Also, it was a movement in which Christian women and Christian youth associations actively participated. The temperance movement began to decline since 1938-9.

## 감사의 글

-열며 닫으며, 닫으며 열며-

영화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의 톰 행크스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의 성장과정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것은 생각납니다. 평균이하의 저능아인 그에게서 어머니는 인생의 좌표이고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마냥 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도 많이도 넘어졌고, 힘겨워 달리기를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 속에 쌓여 헤맸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 없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학의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14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그분은, 저보다 더 힘들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논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원서를 들고 처음으로 뵈신 분이 한영태 교수님이십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시면서 좋은 권면을 해주신 분입니다. 강근환 교수님으로부터는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체계와 흐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장님이신 배종수 교수님에게 학자로서의 따스한 마음을, 주승민 교수님에게 고대 교부들의 교훈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장신대 김인수 교수님의 학문적 세밀함과,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의 학문적 격려는 도전과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명수 교수님은 저에게 학문적 통찰력, 학습자세, 연구방법 등 신학함의 큰 틀만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까지도 제시해 주신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논문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절제운동을 써보라”는 교수님의 제언과 “한국 교회에 이바지 할 논문을 써야 한다”는 충고가 이 논문을 탄생시켰습니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의 첫발을 내딛었을 때, 모시게 된 수유리교회 방인근 목사님은 모든 것을 품에 안으시고 목회자로 또한 신학자로 서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동기인 한상균 목사님은 제정적인 지원과 함께 이성을 자극시키며 계속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성결교회 모교회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귀한 분입니다. 명지대학

교 생활관 이형복 교수님은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바나바와 같은 분입니다. 명지대학교 생활관 사목들은 내 뒤통까지 기꺼이 감내해준 소중한 분들입니다. 또한 명지대학교 교목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조종남 박사님과 이웅상 박사님께 많은 빛을 졌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논문을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빛을 7배나 갚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백혜원 권사님의 기도가 컷가에 들려옵니다. 그분의 기도는 저에게 큰 자산이고 힘이었습니다. 이마의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저를 향한 애정의 흔적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위를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며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김재강 이행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은 가정에서 저의 부분들을 기꺼이 감내하시며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사역하며 공부할 때 늘 마음에 걸린 사랑하는 아들 장주원. 언젠가 “아빠 언제오세요? 같이 로봇놀이하고 싶어요”라며 보낸 편지를 보며 눈물을 왈칵 쏟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주원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주원아, 아빠를 위해 재미나는 시간을 기꺼이 희생한 너와 함께 쓴 논문”이라고. 고맙다 아들이. 늘 가까이 있고 싶지만 한 사랑하는 아내 김연희.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어려웠던 낯선 시간들. 자신도 때로는 버겁고 지쳐있을 법한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신실한 협력자로, 친구로, 내조자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 준 것에 늘 고마움을 가집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사역도 같이하고, 논문도 같이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목회일정 속에서도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신 큰 형님 장금운 목사님, 학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둘째 형님 장금철 집사님,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와 목회에 전념하시면서 기도와 격려를 해 주신 동서 연인찬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허명섭 박사님과 홍미영 전도사님의 자료도움과, 홍세열 목사님과 중앙교회 청년들과 많은 분들의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이제 논문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통과된 뒤 축하한다고 하시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박용규 교수님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갈매기 조나단처럼 마음껏 창공을 나는 꿈을 꾸어 봅니다. 힘찬 날개 짓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로 날아올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